

원불교 성지안내의 길잡이  
서문 성섬

# 원불교 성지



영산성지: 소태산 대종사께서 탄생하고 구도 대각을 한 원불교의 근원성지

변산성지: 변산반도 중앙에 있는 새희상 교법을 제정한 성지

익산성지: 새희상을 공개하고 법을 전한 전법성지로 중앙총부가 자리잡고 있다.

만덕산성지: 진안 만덕산에 있는 초신성지로 소태산 대종사 12체자와 선을 난 곳

성주성지: 소태산 대종사의 법등을 계승한 정산 종사가 탄생, 구도한 곳으로 경북 성주에 있다.

## 원 불 교 출 판 사

● 서 문 성

전북 장수 출생으로  
 1987년에 원불교에 출가하여  
 영산선원을 졸업했다.  
 원불교 동안양 교당 부교무와  
 변산성지에 있는 원광선원 교무를 거쳐  
 현재 성주성지에서 초전개척지 교무로 있다.

저서로는  
 「대중사님 찾아 떠나는 성지여행」과  
 「전문박물관 둘러보기」가 있으며  
 「마음을 보는 지혜」 1. 2  
 「대중사님 그때 그말씀」  
 「전통 사찰의 창건 설화」 등 다수를 엮었다.

● 표지 사진 설명

	1	1. 만고일월 대각비
	2	2. 변산 인장바위
	3	3. 만덕산 초선자
	4	4. 정산 종사 탄생가
5	5. 소태산 대중사 성탑	

## 원불교 성지



## 글머리에

교단의 역사가 깊어지고 발전됨에 따라 대종사님과 정산종사님 그리고 선진님들의 체취가 묻어 있는 성지를 많은 분들이 순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성지순례란 건물이나 산천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자와 대화하는 길이며 성자에게 신성을 다짐해 올리며 성자 혼을 통하여 거듭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성지순례는 성자님을 내 안에 모시는 훌륭한 기회입니다. 성지에는 흙 한줌, 돌맹이 하나, 풀 한 포기마다 대종사님과 선진님들의 혼과 체취가 묻어 있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지는 대종사님과 선진님들을 더욱 친밀히 만나게 해주고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곳입니다. 필자는 영산·변산·익산·성주성지에서 10수년 동안 살아오면서 교단 초창기의 대종사님과 선진님들의 흔적이 사라져 가는 것이 무척 아쉬웠습니다. 더욱이 매년 성지순례를 하면서 성자 혼을 체 받고자 하는 많은 분들이 줄을 잇지만 그 동안 성지순례 안내서로 활용되어 온 《새 회상 거룩한 터》가 10수년이 지나면서 세월의 흐름과 함께 변화되어 가는 성지의 모습을 적절하게 담아내지 못함으로써 늘 안타까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필자는 성지에 관한 선진 연구자들의 책과 문헌을 참고하여 미약하나마 현시대에 맞게 성지순례 안내서를 다시 엮어 보았습니다.

다. 미비한 점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 더욱 연구하고 보완하여 다음에는 더 좋은 안내서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불교 성지》안내서가 나오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컸습니다. 책이 나올 수 있도록 경제적 후원을 아끼지 않은 중앙총부 교정원 문화부와 바쁜 중에도 감수를 해 준 박용덕 교무님, 송인걸 교무님, 편집·교정 등에 도움을 준 오정행 교무님, 노태형 교무님, 그리고 사진 편집을 담당해 준 고대진 교무님, 박현덕 교무님 등 많은 분들에게 지면을 통해서나마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원불교 성지》 안내서가 영산·변산·익산·만덕산·성주 성지순례를 하는 많은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성주 정산종사 탄생가에서  
서 문 성

## 차 례

글머리에 3

원불교 9 소태산 대종사 10 신앙의 대상 12

### 영 산 성 지

영광군 백수읍 길룡리 16 영촌마을 소태산 대종사 탄생가 18 구호동 집터 20 삼밭재 마당바위 22 선진포 입정터 24 귀영바위 26 노루목 대각터 27 범현동 이씨제각 29 정관평 33 제명바위 36 구간도실 38 영산원 42 영산 대각전 44 영모전 45 원각성존 소태산 대종사 10상 47 영산원불교대학교 50 영산성지고등학교 52 구인 기도봉 53 연화봉 초당터 57 해안일주 관광도로 59 백제불교의 원찰 불갑사 61 굴비의 고장 범성포 62 고창 선운사 64 고창읍성과 신재효 고택 69 소태산 대종사의 9인제자 69 영산성지 관련 편편 법문들 76

### 변 산 성 지

부안 변산 83 변산성지 85 실상초당터 87 석두암터 91 실상사터 95 봉래구곡 98 월명암 100 부설전 103 이춘풍가와 고평소

104 내소사와 청련암 길 107 변산 원광선원 110 하섬 112  
 화해제우지 114 채석강과 적벽강 118 구암리 고인돌군 119 개  
 암사와 울금바위 121 금산사 123 동학혁명 유적지 125 김제  
 벽골제 127 변산성지의 인연들 129 변산성지 관련 편편법문  
 136

## 익 산 성 지

익산시 신룡동 143 익산성지 145 대각전 147 본원실 150 세  
 탁부 153 금강원 155 구조실 158 공회당 160 송대 163 청하  
 원 165 정신원 167 구정원과 그의 사가들 168 대종사 성탑과  
 성비 169 정산종사 성탑 174 영모전 176 소태산 대종사 기념관  
 178 반백년 기념관 180 교정원 구관과 법은관 182 종각 183  
 원로원과 수도원 185 상주선원 187 원광대학교 원불교학과 188  
 학림사와 정화원 190 원불교대학원대학교 192 중앙총부 정문  
 193 원불교 문화회관 194 동산수도원 196 보광사 197 영모묘  
 원 199 중앙중도훈련원 201 기타 202 미륵사터와 왕궁리 5층  
 석탑 202 원광대학교 박물관 205 전주 한술 종이박물관 207  
 익산성지의 인연들 209 익산성지 관련 편편법문 2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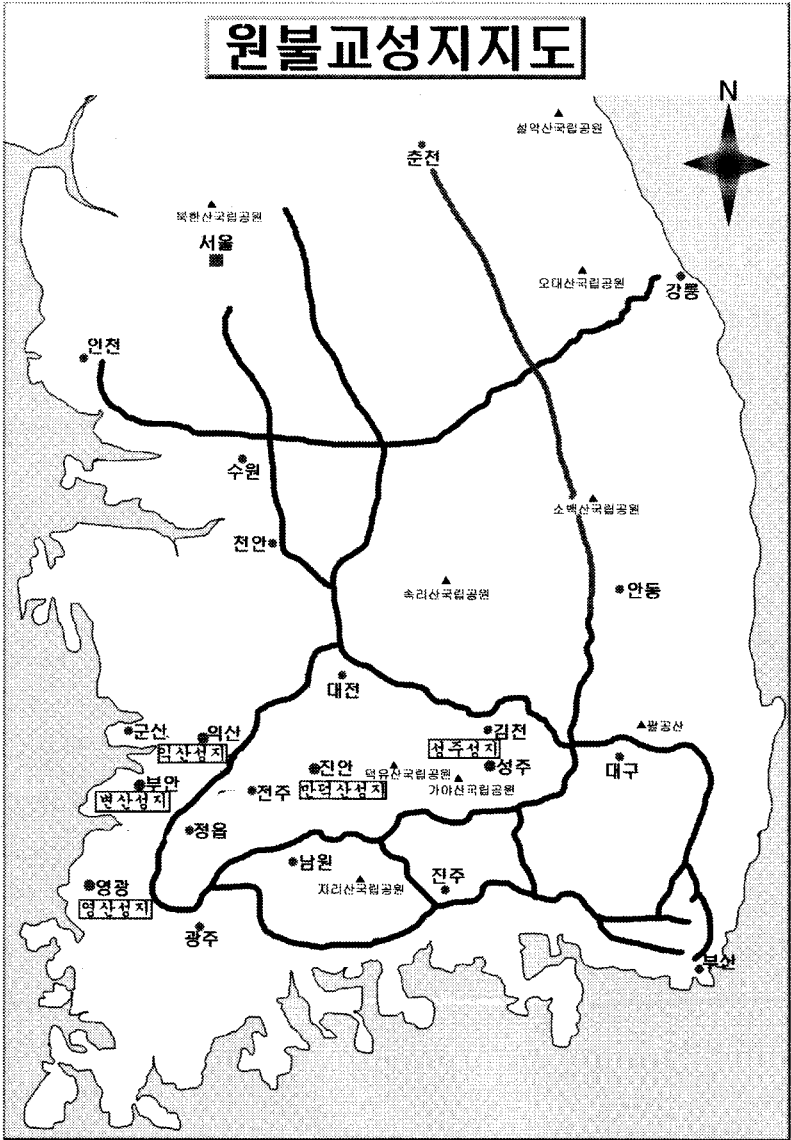
## 만 덕 산 성 지

만덕산성지 227 만덕산 초선지 229 만덕산 초선지비 232 만덕  
산 미륵사 233 만덕산훈련원·농원 237 대산종사와 대산종사 생  
장가 239 마령교당 243 풍혈 냉천과 사선대 245 진안 마이산  
247 송광사 249 봉서사 251 만덕산 성지의 인연들 254 대산  
종사 편편법문 259

## 성 주 성 지

선비 고을 성주 263 정산 송규 종사 265 정산종사 탄생가 269  
정산종사 소야성장지 272 정산종사 박실구도지 274 야성 송씨  
집성촌 고산정 280 가야산 해인사 283 세종대왕 왕자태실 285  
황악산 직지사 287 성주성지의 인연들 289 정산종사 관련 편편  
법문 295 참고문헌 299

# 원불교성지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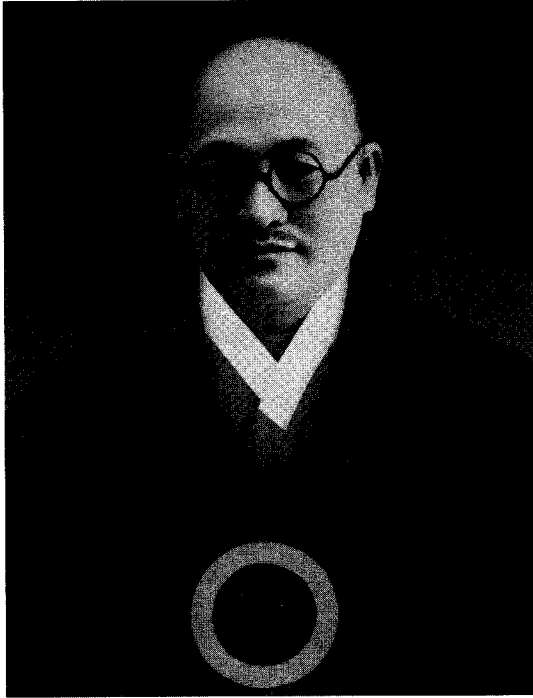


## 원불교

원불교는 1916년 4월 28일, 소태산 대종사의 대각으로 전라남도 영광군 백수읍 길룡리에서 시작되었으며, 법신불 일원상을 신앙과 수행의 요체로 삼고 있다.

법신불 일원상은 우주만유의 본원이요, 모든 성자들의 깨친 바 진리로서 원불교에서는 우주만유 삼라만상 모두가 일원상 진리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 없으므로 이를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삼아 닦아가자는 것이다.

원불교라는 교명이 가진 뜻을 살펴보면 「원(圓)」은 형이상(形而上)으로는 언어와 명상이 끊어진 자리로 무엇이라 형용할 수 없는 자리를 말하지만, 형이하(形而下)로는 우주만유가 다 이 원(圓)에 포함되지 않은 바 없으므로 만법의 근원인 동시에 만법의 실재를 가리키는 말이다. 「불(佛)」은 깨달는다, 혹은 마음이란 뜻이며, 「교(教)」는 가르친다는 뜻이니, 종합하면 원불교는 우주의 궁극적 진리인 일원상의 진리를 깨달아 진리에 부합되는 생활을 하도록 가르치는 종교란 뜻이다.



원불교 교조 소태산 박종빈 대종사(1891-1943)

## 소태산 대종사

소태산 대종사는 1891년 5월 5일, 전남 영광에서 탄생하였다. 어려서부터 자연현상과 인생에 대하여 깊은 의문을 품어 왔던 소태산 대종사는 20여년 간의 구도고행 끝에 1916년 4월 28일, 26세에 스스로 대각을 이루었다.

소태산 대종사가 대각을 이룬 후 세상을 두루 살펴보니 인류의 정신은 날로 그 힘을 잃고 물질의 세력은 날로 융성하여 물질의 노예

가 되어가고 있었다. 이에 소태산 대종사는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는 표어 아래 새 회상 원불교를 창교, 새 회상의 첫사업으로 제자들과 저축조합을 설립하고, 바다를 막아 논을 만들며 인류구제를 위한 기도를 통하여 진리의 인증을 받아 새 회상 창립의 기초를 마련했다.

일제의 온갖 핍박 속에서 새로운 문명세계에 대한 희망을 제시하고 교화·교육·자선사업을 진흥시키며 증생교화에 헌신하다가 「유(有)는 무(無)로 무(無)는 유(有)로 돌고 돌아 지극하면 유(有)와 무(無)가 구공(俱空)이나 구공(俱空) 역시 구족(具足)이라」는 계송을 설하고, 원기28년(1943) 6월 1일 열반에 드니 세수는 53세였다. 성은 박(朴)씨이며, 이름은 중빈(重彬), 호는 소태산(少太山)이고, 대종사(大宗師)는 원불교에서 부르는 존칭이다.



법신불 일원상 / 중앙총부 대각전 불단과 봉안된 법신불 일원상

## 신앙의 대상

원불교는 교조인 소태산 대종사가 깨친 우주의 궁극적 진리인 법신불 일원상을 최고 종지로 삼아 신앙의 대상이요,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고 있다. 일원상은 인간을 비롯한 우주만유의 생멸원리와 길흉화복을 주재하는 진리를 원(○)으로 상징한 것인 바 일원상은 세상 모든 것의 근본이고 모든 성현들의 성품이며 모든 사람들의 본래 마음과 같은 뜻으로 진리, 도, 태극 등과 같은 의미다. 일원상의 진리는 만법의 근원이요, 만법의 실재로 언제 어느 곳에서나 생멸과 죄복을 주는 권능자로서 원불교인들은 이 진리를 절대자리로 믿고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며 일원상을 모시고 모든 의식을 진행하고 있다.

## 영산성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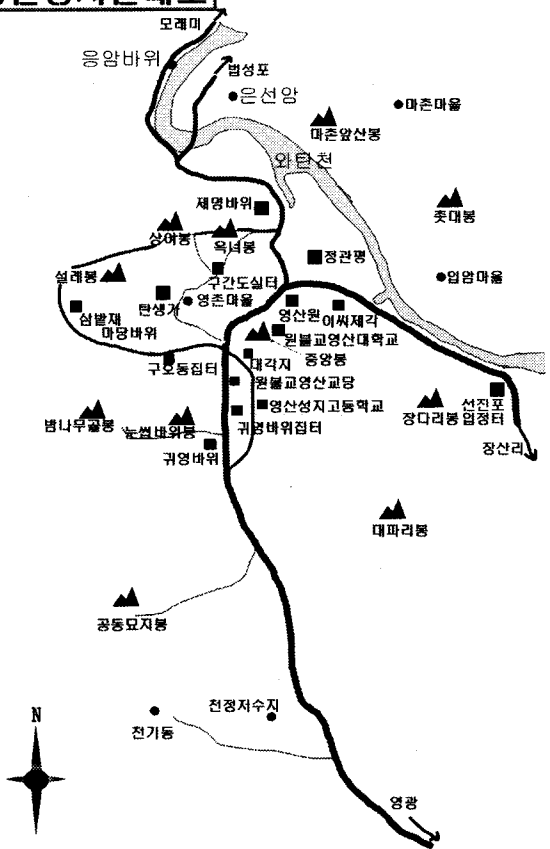
원기 원년 3월 26일(음)에

대중사 대각을 이루시고 말씀하시기를 “만유가 한 체성이며  
만법이 한 근원이로다. 이 가운데 생멸없는 도와 인과보응 되는 이치가  
서로 바탕하여 한 두렷한 기틀을 지었도다.”

〈 대중경 서품 1장 〉



# 영산성지안내도



## 영산성지

◎ 연락처 : 전라남도 영광군 백수읍 길룡리 2 (총부영산사무소) (0636)352-6344, 351-1898

영산성지는 소태산 대종사가 탄생하여 구도의 고행을 통해 진리를 깨닫고 교화를 시작한 원불교의 발상지로, 전라남도 영광군 백수읍

길룡리를 중심으로한 지역을 말한다.

이곳을 영산(靈山)이라 부르기 시작한 것은 원기 8년(1913년)이 지난 뒤의 일이라고 보여진다. 원기 8년 소태산 대종사는 모친상을 당하여 그 발인 절차를 마친 후 옥녀봉 밑에 있던 구간도실을 지금의 장소로 옮기고 영산원(靈山院)이라 하였는데, 그 후 이곳이 성지의 중심기관이 되면서 영산이라 부르게 되었고, 널리 성지 전체를 영산이라 하게 되었던 것이다.

영산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고 교화를 하였던 영산회상을 뜻한다. 소태산 대종사는 “내가 스승의 지도 없이 도를 얻었으나 발심한 동기로부터 도(道) 얻은 경로를 돌아본다면 과거 부처님의 행적과 말씀에 부합되는 바 많으므로 나의 연원을 부처님에게 정하노라”(대종경 서품 2장) 하였다.

이는 소태산 대종사가 새 시대의 새 부처님으로 오셨음을 뜻한다. 소태산 대종사가 이 땅에 오심은 영산회상이 다시 열림이요, 부처님의 광명이 다시 밝아짐이다. 이러한 믿음과 기원으로 이곳 원불교의 성지를 영산이라 부르게 되었다.

영산 대성지(靈山大聖地)는 새 세상의 주세불이신 대종사님의 색신여래(色身如來)와 법신여래(法身如來)가 함께 탄생하신 대성지요, 법인성사로 법계인증을 얻고 방언공사로 영육쌍전의 터전을 닦아 새 회상을 크게 열어주시는 만고일월(萬古日月)의 대성지이다. < 대산종사 >

## 영광군 백수읍 길룡리

영광은 본래 마한 땅으로 백제 때는 무시이군(武尸伊郡)이라 하다



영산성지 일원 / 옥녀봉 중턱에서 바라본 영산원 일원과 영산원불교대학교 전경

가 신라 경덕왕 때 이르러서는 무령군(武靈郡)이라 하였고 고려에 들어와 영광(靈光) 또는 정주(靜州)라 하였다. 성지찬가(성가 3장) 가사 중에 “정주라 고요히 삼천년 기다린 터…”의 정주는 여기에서 연유된 말이다. 고종 33년(1896) 8월에 지방제도의 개정으로 전국을 13도로 조정 편제할 때 전라도 전주부에서 전라남도로 행정구역이 바뀌었다. 소태산 대종사가 탄생하신 1891년만 하여도 영광은 전라도 전주부에 속해 있었다.

백수(白岫)라는 지명이 백(百)에서 일(一)을 떼어버린 아흔 아홉의 멧부리를 뜻한다고 한다. 지명이 말해주듯 백수는 구수산(九岫山)의 많은 산봉우리가 어우러져 이루어진 해안 산간지역이다.

바닷물이 깊숙이 내륙까지 들어오던 시절에는 구수산 삼면이 물에 잠겨 섬모양을 이루었다 하며 간척사업이 이루어지기 전만 하여도 내륙 10여km까지 배가 드나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은 서해안의

용기현상과 간척사업으로 지형이 많이 변하여 옛날의 포구들도 이제는 다 작은 여울이 되고 연안의 갯벌은 농지로 바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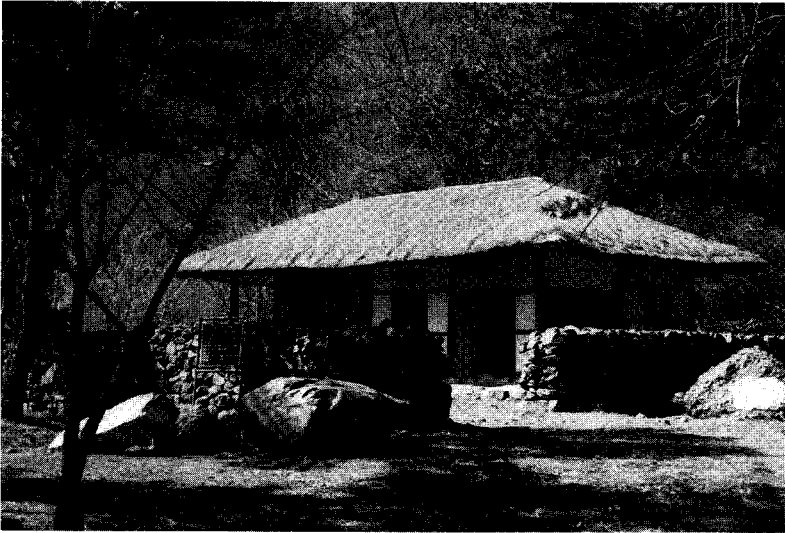
길룡리는 법성포에서 뱃길로 약 4km, 서해의 바닷물이 구수산과 대덕산의 사이를 타고 와탄천을 따라 은선암과 응암바위 밑을 굽이쳐 길룡리로 돌아드는데 이 물줄기가 선진포를 거슬러 위로 십여리 올라갔었다. 옛날 길룡리 사람들은 구수산에서 땀나무를 하거나 솥을 구워 와탄천으로 내왕하는 조수 따라 뱃길로 법성포에 내다 팔고 생필품 등을 구입해 오기도 하였다. 육로가 불편한 당시로는 와탄천은 길룡리 사람들에게는 생활의 젖줄이었고 문물의 통로였다.

길룡리는 산기슭에 자리잡은 여러 마을로 이루어졌다. 현 길룡지수지 안쪽에 옛날 사찰이 있었다는 데서 연유한 수도암, 무운암 그리고 입석골, 지금은 길룡지수지가 되어버린 마계촌, 길룡리 입구에 있는 용암을 비롯하여 원불교 영산교당이 위치한 잠실, 삼발재 오르는 길목에 있는 구호동, 소태산 대종사 탄생가가 있는 영촌, 영산원과 이씨제각이 있는 범현동 등의 아홉마을이 있다.

구호동(九虎洞)은 아홉 호랑이가 노루목의 노루를 보고 달려드는 형국을 하고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고, 범현동(帆縣洞)은 돛대모양을 지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길룡리는 본래 농지가 적고 생활조건이 좋지 못하여 산기슭을 따라 십여호씩 마을을 이루고 살았으나 지금은 도시로 떠나고 더욱 마을이 줄어들었다.

### 영촌마을 소태산 대종사 탄생가

구수산의 한줄기가 안으로 감아들며 마치 코끼리 형상의 상여봉을



소태산 대종사 탄생가 / 상여봉과 옥녀봉 아래 영촌마을에 소태산 대종사 1891년 5월 5일 이 땅에 오시었다.

이루고, 이어 힘차고 아담하게 한 봉우리로 솟아 있는데 마치 처녀가 곱게 머리를 땀아 내리고 촛대봉에 불을 밝히고 글 읽는 모양이라 하여 옥녀봉이라 하였다 한다. 또 이 산을 성인이 오시기를 기다리며 법성포를 바라보고 있다하여 망성봉(望聖峰)이라 한다는 이야기도 있다.

옥녀봉과 상여봉을 뒤로하고 남향받이에 십여호의 집들이 모여 마을을 이루고 있는데 여기가 소태산 대종사가 태어난 영촌마을이다. 상여봉의 지맥이 옥녀봉에 이어지면서 한줄기 남으로 뻗어 내리는 곳에 소태산 대종사가 탄생하신 집터가 자리하고 있다.

한말의 풍운이 휩쓸던 1891년 5월 5일(고종 28년 신묘 음 3월 27일) 아버지 박성삼 공과 어머니 유정천 여사의 3남으로 탄생하였다.

소태산 대종사는 앞산에 떠오르는 달을 잡으러 가자고 어머니를 조르기도 하고 구름을 잡아보겠다고 옥녀봉을 오르기도 하였다. 자연의 신비에 대한 호기심은 점점 의심으로 변하였다. 11살 되던 해에는 산신을 만나 의심을 풀어보려고 삼발재에 올라 기도를 하기도 하였다.

길룡리 202번지 140여평의 터에 네칸의 초가로 지어졌던 탄생가는 소태산 대종사의 숙부에게 넘겨주고 구호동으로 이사를 간 뒤 주인이 바뀌었다가 어느 해 볍에 불타 없어지고, 이 터에 소태산 대종사의 외숙인 칠산 유건이 집을 짓고 살았다. 1959년 교단에서 인수하여 철거하고 집터만 보존하여 오다가 1981년 고증을 따라 복원하였다.

네살 때 아버지를 놀라게 하려고 노루목에 동학군이 왔다고 소리쳐 숨게 했다는 집뒤의 대밭이 지금도 조금 남아있고, 서당 훈장님께 홍시를 갖다주지 않아 미움을 사기도 했고 삼발재에 기도하러 다닐 때 제물로 올리려 따 가지고 갔을 듯한 해묵은 감나무 두 그루가 정정한 모습으로 서 있어 옛날을 말해주는 듯 하다.

## 구호동 집터

소태산 대종사의 나이 13~14세 때 영촌에서 구호동으로 이사하여 살게 되었다. 소태산 대종사가 태어난 영촌은 지대가 낮은 곳에 있어서 큰비가 오면 앞 냇물이 넘쳐 수해를 입는 일이 많았다 한다. 지금은 저수지를 막아 홍수 피해가 줄었으나 옛날에는 비가 많이 오면 각 산골로부터 모여든 물이 큰 강물을 이뤄 흘러가다 때마침 밀



구호동 집터 / 구호동에서 소태산 대종사 결혼하였고 구사고행을 시작했다.

려 온 조수와 맞닥뜨리게 되면 더 큰 홍수를 이루게 된다.

소태산 대종사 11세 되던 신축년 여름에는 대단한 홍수가 있었다고 한다. 토방을 적시던 물이 문지방을 넘어 구들장이 무너지고 빈 장독들이 떠다니며 서로 부딪쳐 깨지는 등 대단한 물난리를 겪게 되었다 한다. 길룡리의 나이든 사람들 사이에서 오래도록 신축년 물난리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졌던 것을 보면 보기 드문 수해였던 모양이다.

당시 가세가 비교적 유족했던 소태산 대종사의 부친은 지대가 높은 구호동에 터를 마련하고 집을 지어 이사를 가게 되었다. 소태산 대종사는 이 집에서 결혼도 하고 도사를 구하기 위하여 온갖 고행을 시작했다. 이 집은 후에 방언공사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처분하였는데 행주 은씨 문중에서 매입하여 재실로 쓰다가 6·25의 전란으로 소실된 채 지금은 빈터만 남아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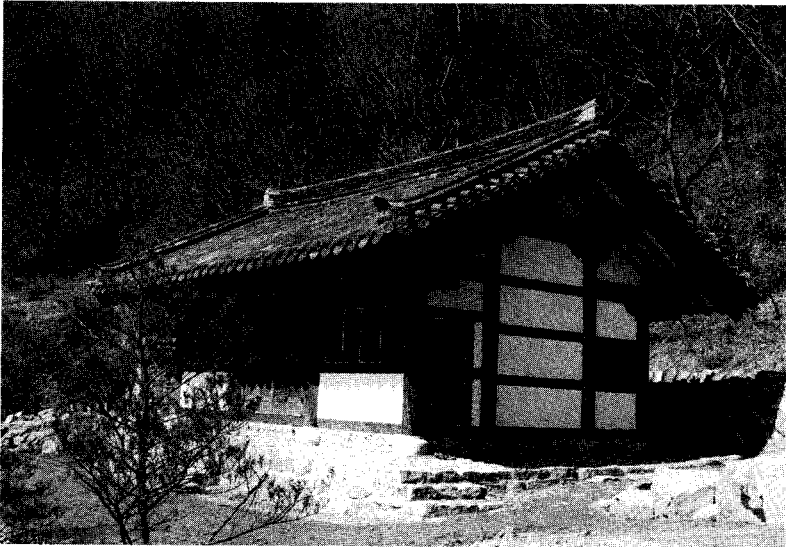
삼밭재 마당바위 / 소태산 대종사가 산신을 만나기 위해 기도했던 마당바위는 많은 순례객들이 찾는 곳이다.

### 삼밭재 마당바위

삼밭재는 구호동에서 구수리로 넘어가는 고갯마루로 마전령(麻田嶺)이라 전하기도 하고 삼령(蔘嶺)이라 하기도 한다. 동국여지승람에나 옛 지도에는 베짜는 삼밭을 뜻하는 마전으로 표기되어 있고, 마을사람들은 산삼(山蔘)이 있었다는 전설을 따라 삼전(蔘田)을 뜻하는 삼밭재라 부르기도 한다.

삼밭재에 개미절(가야암이라고도 함)이 있었다고 전하는데 지금도 이곳에 올라보면 여기저기 기와 파편 등이 남아있어 이곳이 과거 절터였음을 말해주는 듯 하다.

여기에는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샘물과 넓은 바위가 있는데 크기가 시골집 마당만 하다 하여 마당바위라 부른다. 소태산 대종사는



삼발재 기도실 / 삼발재 마당바위 옆에는 순례객들이 실내에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지은 삼발재 기도실이 있다.

이 마당바위에 올라와 기도를 하였다.

소태산 대종사는 11세 되던 해 가을, 아버지를 따라 선영의 묘소가 있는 군서면 마을리에 시제를 모시러 갔다가 산신제를 지내는 것을 보고 어른들께 여쭙어 산신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집에 돌아온 소태산 대종사는 산신을 만나서 사람들이 모르는 모든 문제를 알고 소원을 성취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소태산 대종사는 산신제의 장소를 마당바위로 정하고 매일같이 서당에 간다 하고는 삼발재에 올라 산신을 만나기 위해 정성을 드렸다. 산신을 만나려는 염원은 점점 깊어 간절한 기도가 되었다. 그러나 5년을 한결같은 정성으로 기도하였으나 산신을 끝내 만나지 못하였다. 하지만 이 염원이 소태산 대종사의 마음에 큰 힘으로 쌓이게 되었고 종교적 인품을 크게 자리잡게 하였다.

소태산 대종사 재세시부터 삼발재에 선방을 지으려는 계획이 있었다. 일산 이재철이 이 일을 주선하여 목재까지 마련하였다가 그 높은 곳에 공사를 한다는 것이 당시의 형편으로는 어려울 뿐 아니라 6·25전쟁 등 시국 형편이 어려워 착공하지 못하고 준비했던 목재의 일부는 후에 현 영산사무소 식당 옆 목조건물을 건립하는데 썼다고 한다.

소태산 대종사의 삼발재 마당바위 기도를 기념하여 원기 75년 샘터 옆에 목조 3칸 맛배지붕 17평으로 삼발재 기도실을 신축하여 순례인들이 잠시 머물며 기도하기에 좋게 하였다.

## 선진포 입정터

범현동에서 산길로 와탄천을 따라 1km쯤 가면 도로변에 큰 정자나무가 서 있는 나루터에 이르게 된다. 이곳이 소태산 대종사가 범성장에 가다가 정(定)에 들었다는 선진포 입정터다.

지금은 집도 없고 나룻배도 없지만 옛날엔 와탄천을 건너 범성으로 가는 중요한 교통로였고 짐을 운반하는 큰배가 드나드는 포구였다. 일제 때만 해도 일본인 지주들이 선자를 거두어들여 군산이나 목포로 운반할 때 이곳을 이용하였다.

옛날에는 길룡리에서 읍내로 나가려면 산길 소로를 타고 천정리로 가는 백두계재를 넘어 만곡에서 영광이나 백수로 가거나 선진포를 건너 입정리를 돌아 범성으로 나가게 되었다. 더러는 4km쯤 산길을 걸어 한시랑 부락을 지나 구수미나루를 건너 범성에 가기도 하나 대부분 선진나루를 이용하였다. 길룡리나 장산리, 구수리 사람들은 행



선진포 입정터 / 선진포 입정터는 이제 나루도 주막도 없는 한적한 곳이 되어버렸다.

정구역으로 백수에 속하나 물 건너 범성이 몰자도 풍부하고 내왕하기도 편리하여 범성을 이용하였다.

소태산 대종사는 20세 되던 해 부친상을 당하고 망극한 슬픔 속에서도 의심은 더욱 큰 무게로 가슴을 누르니 “장차 이 일을 어찌할꼬” 하는 절망감 속에 가끔 골똥한 생각에 잠기면 모든 의식을 놓은 듯 빠져들곤 하였다.

하루는 범성장에 간다고 선진포에 나가서 나룻배를 기다리다가 그대로 정(定)에 들어버렸다. 한나절이 지나 장에 갔다가 돌아오던 동리 사람들이 장승처럼 우두커니 서 있는 소태산 대종사를 보고 정신을 차리게 한 뒤 집으로 모셔왔다. 이로부터 정에 드는 일이 더욱 많아졌으며 차츰 눕고 자는 일마저도 관심 밖으로 밀려나고 잊혀져 갔다. 이 때를 정산종사는 소태산 대종사 일대기를 십상으로 구분하며 강변입정상(江邊入定相)이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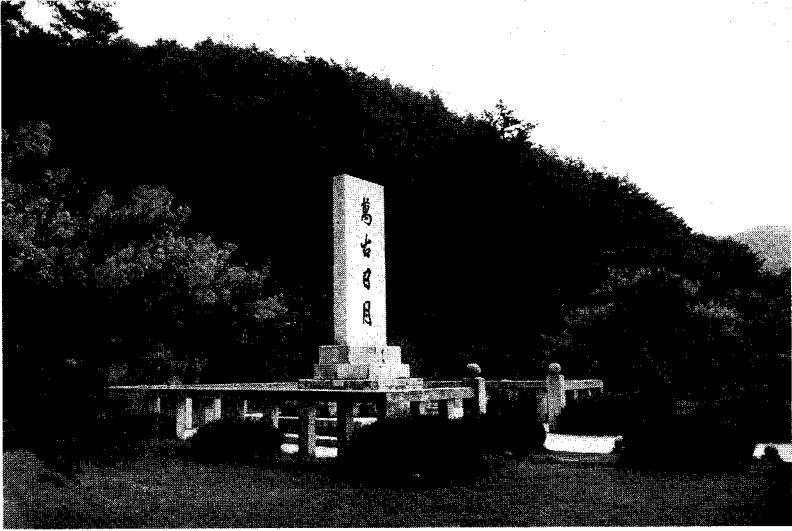
귀영바위굴 / 소태산 대종사 입정초기에 간혹 여기서 입정삼매에 들었다고 전한다.

### 귀영바위(龜龍岩)

대각지에서 동남쪽으로 백두계재를 향하여 300m쯤 가면 팽나무, 귀목나무 등이 아름답디 거목으로 서 있는 자그마한 숲이 나온다. 이 숲 뒤로 큰 바위가 하나 있는데 흡사 그 모습이 구룡(龜龍)의 형상이라 해서 귀룡바위라 한다. 하지만 오랫동안 사람들이 불리오면서 지금은 귀영바위라는 이름으로도 불려지고 있다.

소태산 대종사가 자주 입정에 들 당시 귀영바위 인근에 있던 초가에 거처하였고 이 바위에서 정에 들기도 하였는데, 모든 것을 잊은 채 깊은 정(定)에 들어있는 사이 집이 헐어 여름의 장마를 견디지 못하고 주저앉고 말았다.

소태산 대종사는 별수없이 노루목에 있는 초가를 구해 이사를 하였다.



만고일월비 / 소태산 대종사의 대각을 기리는 만고일월 대각비가 대각터인 노루목 옛 집터에 우뚝 솟아 있다.

### 노루목 대각터

장산리 뒷산에서 서쪽으로 내려뺨은 산줄기가 대파리봉을 이루고 이 대파리봉에서 서북쪽으로 내려오는 산줄기가 아담한 봉을 짓고 구호동 앞에서 멈추는데 그 산형이 노루가 냇가에 와서 물을 먹으려 하는 형상으로, 노루의 머리부분은 기암괴석으로 되어있고 나직한 노루의 목 부분으로 길이 나 있어 이곳을 노루목(獐頂)이라 부른다.

노루목은 길룡리 사람들 뿐 아니라 천기동이나 대흥리 사람들이 법성에 가려면 지나는 길목이어서 사람들의 내왕이 많은 곳이며 경치가 좋고 나무그늘과 노루목으로 넘어오는 바람이 시원하여 여름엔 많은 사람이 쉬어가는 곳이었다.

이곳에는 두어 채의 집이 있었는데 지금의 대각비가 세워진 터는

소태산 대종사가 귀영바위에서 이사해 거처하며 마지막 고행을 하던 집터로 대각의 새 하늘이 열린 곳이다.

귀영바위에서 이사 온 소태산 대종사는 더욱 깊은 돈망(頓忘)의 대정(大定)에 들었다. 일상적인 모든 일들이 관심 밖으로 밀려난지 오래이고 스스로 먹고 자고 하는 일까지도 의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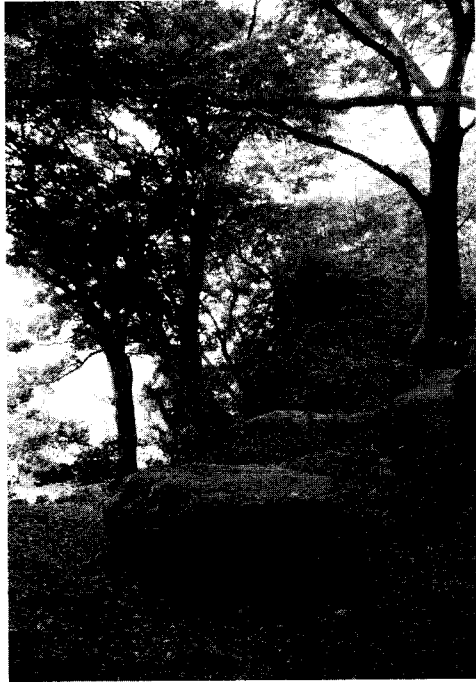
몇 해 째 살림을 돌보지 않으니 가난의 고초가 날로 더해가고 몸에는 병을 얻어 온몸에 부스럼이 돌아 사람들이 마주하기를 꺼려할 정도였다. 사람들은 이런 소태산 대종사를 애석히 여겨 동정하기도 하고 몸쓸 병에 걸렸다고 피하기도 하였다. 집안 사람들의 참담함은 날이 갈수록 더 하였으나 소태산 대종사 스스로는 이미 모든 고통이 마음 밖으로 떠나 있었다.

이러한 날들이 계속되다가 1916년 4월 28일(음 3월 26일) 이른 새벽, 소태산 대종사는 마음에 새벽하늘의 여명처럼 밝음이 서서히 비취지기 시작하면서 마침내 광명의 새 하늘이 열리게 되었다.

소태산 대종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오니 모든 산천이 어제 보던 산천이 아니요, 모든 사물들이 어제 보던 사물들이 아니었다. 소태산 대종사는 훗날 이 때의 심경을 “청풍월상시 만상자연명(淸風月上時 萬像自然明)”이라 노래했다. 맑은 바람이 소슬히 불어 구름 한 점 없이 깨끗한 하늘에 달이 솟으니 일만 형상이 자연히 밝게 드러났다고나 할까. 지금까지 소태산 대종사의 마음속에 담담했던 의심은 마치 검은 구름이 마음의 달을 가리고 있어서 어둡기가 짙었던 그믐밤 같다가 이제 대각의 새 아침을 맞으니 모두가 한 생각을 벗어남이 없이 밝게 알겠다는 뜻일 것이다.

1916년 4월 28일, 노루목의 새 아침은 일원대도가 찬연히 솟아오

노루목 /  
노루목에는 오솔길이 나 있고 머리 부분에는 기암괴석과 느티나무, 그리고 소태산 대종사 노루목에 기거하실 당시 쓰시던 우물이 보존되어 있다.



른 날이고 은혜의 새 터전이 열린 날이다. 원불교에서는 이 날을 원불교의 기원으로 삼고 이 터를 원불교의 기점으로 삼는다. 이 터를 기념하고 이 날을 기리기 위해 지금 그 자리에는 만고일월(萬古日月)이라 새긴 대각기념비를 세우고 만고일월 대각비 후면에는 “원기 원년(1916) 병진 3월 26일 이른 새벽, 소태산 대종사 이 터에서 대각을 이루시다”란 글을 새겨 대각터임을 밝히고 있다.

### 범현동 이씨제각

소태산 대종사 대각한 노루목 초가집이 몇 해 동안 개조를 하지않



이씨제각 / 소태산 대종사 대각 후에 제자들에게 최초로 법어를 말씀하신 설법전이나 전기누전으로 소실되어 현재는 빈터만 남아 있다.

아 빗물이 새고 폐가가 될 지경에 이르자 이듬해 목재는 타인이 영춘 소태산 대종사 탄생가 옆으로 옮겨졌게 되었다.

범현동(뫇드래미)은 소태산 대종사의 맨 첫 번째 제자인 팔산 김광선이 살고 있었다. 그는 소태산 대종사의 고행시 여러모로 도움을 주었던 의형(義兄)이었다. 팔산 김광선은 소태산 대종사가 대각을 하자 12살 아래인 의동생을 스승으로 모시었다.

팔산 김광선의 집 옆에는 영광 묘량면 영당리에 사는 전주 이씨 문중의 제각이 있어 사람들은 이를 보통 이씨제각이라 불렀다. 당시 팔산 김광선은 영당 전주 이씨 세산장을 관리하며 근동에서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었다. 제각은 1년에 한두차례 시제나 또는 상장례 때 이씨 문중의 사람들이 다녀갈 뿐 평소 사용하지 않는 터라 소태산 대종사는 팔산 김광선의 주선으로 이곳 이씨 제각을 임시거주처

로 정하였다.

소태산 대종사가 개안했다는 소문이 나자 근방 사람들이 이씨제각으로 모여들었다. 소태산 대종사는 이 때 몇몇 사람들에게 최초법어를 발표하였다. 정산종사는 이를 《불법연구회창건사》에서 「현 사회를 본 첫 감상」이라는 제하에 “밖으로 현 사회를 관찰하사 시국에 대한 감상을 발표하시니, 그 원문은 아래와 같다”고 하시고 수신사의 요법 4개 조항, 제가의 요법 5개 조항, 강자·약자 진화상 요법 3개 조항, 지도인이 준비할 요법 4개 조항을 천명하였다라고 적고 있다.

그러나 누구하나 그 깊은 뜻과 경륜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다. 소태산 대종사는 대각하기 전에는 대각을 이루지 못해 탄식하고 대각을 이룬 후에는 말할 곳이 없어 탄식했다. 소태산 대종사가 지은 〈탄식가〉를 보면 당시 상황을 “이리가도 통곡, 저리가도 통곡”이라 적고 있다.

이에 소태산 대종사는 증산교에서 행하는 치성을 방편으로 삼아 모여든 40여명의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진실하고 신념이 굳은 8명을 제자로 내정하고, 장차 시방세계의 모든 사람을 통치 교화할 단조직법을 발표하였다.

이 때 소태산 대종사는 “이 법은 오직 한 스승의 가르침으로 모든 사람을 두루 훈련할 빠른 방법이니 몇 억만의 수라도 가히 지도할 수 있으나 그 공력은 항상 아홉사람에게만 들이면 되는 간이한 조직”이라 말하고 “이 단은 곧 시방세계를 응하여 조직된 것이니 단장은 하늘을 응하고 중앙은 땅을 응하였으며 8인 단원은 팔방을 응한 것이라 펴서 말하면 이 단이 곧 시방을 대표하고 거두어 말하면 시방을 곧 한 몸에 합한 이치니라”고 했다.

당시 소태산 대종사와 정산종사가 만나지 못한 관계로 중앙자리는

공적으로 있다가 훗날 정읍 화해리에서 소태산 대종사와 정산 종사가 운명의 제우를 한 뒤 정산종사가 영광으로 찾아와 10인 1단의 중앙에 선임되었다.

소태산 대종사는 표준제자로 내정한 8인과 함께 저축조합을 만들었다. 당시는 일제의 식민통치가 시작된 직후라 민중들의 삶은 일제의 억압과 수탈로 도탄에 이르고 있었다. 더욱이 수백년 내려온 차별제도와 개화의 틈을 타서 재빠르게 밀려든 서양의 물질문명은 도덕의 타락과 사회의 혼란을 가중시켰다. 그 가운데도 길롱리 사람들의 생활은 변변한 논밭이 없는데다가 생업이 될 만한 다른 방도도 없는 실정이었다. 소태산 대종사는 이러한 민중들에게 새 삶의 방향을 일깨워 주는 길을 개척해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에 소태산 대종사는 생활과 신앙을 병행하는 길이 앞으로 새 시대를 이끌 종교의 길임을 몸소 실천으로 보여주기 위하여 영육쌍전, 이사병행의 첫발을 내딛었다.

소태산 대종사는 당시 종종 팔산 김광선을 불러 붓을 잡으라 하고 9백여수의 한시와 가사를 읊어 이를 모아 편집토록 하여 《법의대전(法義大全)》이라 이름하였다. 소태산 대종사가 한시를 지을 당시 일화가 지금도 법문으로 전하여지고 있다.

소태산 대종사가 팔산 김광선이 한문만 숭상하여 그에 구애됨을 알고 하루는 “돌아오는 세상에 교법을 제정하려면 한문으로 경전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하고 물었다. 이 말을 들은 팔산 김광선은 내심 한편으로 ‘당신님(소태산 대종사)께서는 본시 한학을 충분히 하신 바가 없으신데 어떻게 교법을 제정하려시는고?’ 하고 의심을 했다. 소태산 대종사는 팔산 김광선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채 머뭇거리자 다시 팔산 김광선에게 “내가 지금 한문으로 교법을 불러낼 것이니 그대는 즉시로 받아쓰라”고 말했다. 소태산 대종사는 즉석에서 수많은 한시를 연속으로 불러댔다. 팔산 김광선은 한참동안 소태산

대종사가 불러주는 한시를 받아쓰다가 미처 글을 다 받아쓰지 못하고 어찌 할 바를 몰랐다. 이에 소태산 대종사는 팔산 김광선에게 “도덕은 문자 여하에 매인 것이 아니니, 그대는 이제 한문에 얽매이는 생각을 놓아버려라. 앞으로는 모든 경전을 일반 대중이 두루 알 수 있는 쉬운 말로 편찬하여야 할 것이며 우리 한글이 세계의 명문이 되는 동시에 우리말로 편찬한 경전을 세계 사람들이 서로 번역하여 배우는 날이 멀지 아니하다. 그대는 다시 어려운 한문을 숭상하지 말라.”고 가르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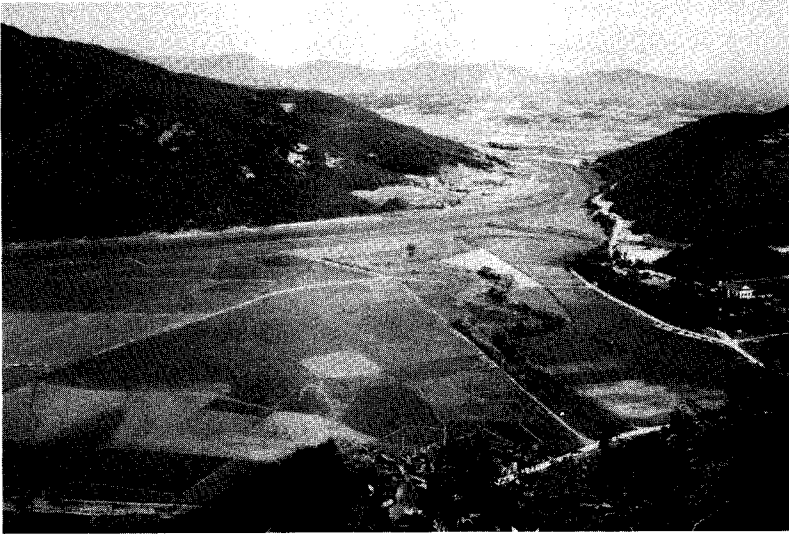
범현동 이씨제각은 최초의 범설터요, 그 첫사업인 저축조합을 조직한 교단 최초의 교화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몇 해 전 전기누전으로 소실된 후 교단의 소유가 아닌 관계로 복원되지 못하고 지금도 빈터만 남아있다.

## 정 관 평

금주, 금연, 공동작업 등의 특별한 결심으로 출발한 저축조합은 일년이 지나자 상당한 자산이 되었다. 소태산 대종사는 이 자산을 토대로 마음속에 생각했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였다.

소태산 대종사는 제자들을 데리고 갯가로 나갔다. 마침 썰물이 되어 많은 갯벌이 드러나 있는 갯가를 가리키며 우리가 “저 갯벌을 막아 논을 만들면 어떻겠느냐”하고 물었다. 당시 재산 없고 무력한 농민들의 힘으로 바다를 막아 논을 이룬다는 것은 간혹 생각은 해본다 하여도 실행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제자들은 소태산 대종사를 믿는 마음에 간척사업을 시작하였다.

지금까지 반신반의하며 소태산 대종사를 바라보던 주변 사람들은 바다를 막는다는 말에 한결같이 비난과 조소를 보냈고 더러는 소태



정관평 / 소태산 대종사와 제자들이 공사한 제1차 방언과 정산종사 당시 공사한 제2차 방언으로 이루어진 정관평은 창립정신의 산실이다.

산 대종사를 찾아오거나 제자들에게 극구 만류를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여기에 흔들림 없이 온갖 시련과 싸워가며 믿음과 사명으로 일관했다.

어느 추운 날 밤이었다. 방천을 지날 때는 개미 구멍도 예사로 보지 말라는 옛말이 있듯이, 거의 완성된 제방이지만 팔산 김광선은 조심조심 제방을 돌아보다가 만조가 된 바닷물이 계구멍으로 새나가는 것을 발견했다. 아무리 작은 계구멍이라도 물이 빠질 때면 수압에 의해 구멍이 커지게 되고 결국은 제방이 무너지는 일이 많았다. 이렇게 되면 그 숯한 시간 엄청난 비용을 들인 노력이 일시에 물거품이 되고 마는 것이었다. 화급을 다투는 일이라 팔산 김광선은 몸으로 구멍을 막았다. 살을 에이는 듯한 혹한 속에서 몸을 던져 구멍을 막은 팔산 김광선의 노력으로 제방은 무사히 수호될 수 있었다.

소태산 대종사는 제자들과 일년만에 바다를 막아 눈을 만드는 기

적을 이루었다.

그러자 “저 갯바닥에서 쌀이 나오면 내가 손가락에 불을 켜겠다”고 막말을 하던 사람들의 기세가 자취를 감추고 오히려 뒷날에는 분작을 얻으려고 사정을 하게 되었다.

소태산 대종사는 당시의 일을 익산총부에서 제자들에게 회고하였다. “내가 연전(年前)에 동지 8, 9인과 더불어 언을 막고 있을 때였다. 그 때 천도교 신자 한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내가 전일에는 선생님의 지견이 우리보다 훨씬 뛰어나고 별다른 역량이 있는 줄로 알았더니 오늘날에 언 막는 것을 보니 대단히 갑갑해 보입니다’ 하더라. 그래서 내가 그 사람에게 그 갑갑해 보이는 이유를 물은 주 그 사람 대답이 ‘어느 시일에 조수가 왕래하는 수십장 되는 바다를 막아서 어느 시절에 거기서 사람이 먹고 살 쌀이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까? 이것은 너무나 시일이 많이 걸릴 뿐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는 능히 그 언을 막아낼 가망이 없는 일입니다’ 하더라. 그래서 내가 ‘귀하의 생각 같으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고 물으니 ‘폐일언하고 돈 천원만 나를 주시면 구태여 언을 막지 않고도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 하더라. 그런데 그랬던 그가 방언이 완공되니 분작을 하게 해 달라고 사정을 하더라.”

논이라고 해봤자 산비탈에 7~8마지기가 고작인 길룡리 마을인지라 쌀을 구경하려면 천정리 앞들이나 십리밖 학산리 앞들에 가서 선자논을 얻어 벌어야 하는데 그 선자논 얻기가 마치 하늘에 별따기였다. 이렇게 논이 귀하다 보니 자연 선자가 비싸서 농민들은 날로 굶주리게 되었다. 이러한 길룡리 주민들에겐 농지란 간절한 소망이었다. 소태산 대종사는 이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어 주었을 뿐 아니라 삶의 방식을 몸소 실천해 보였던 것이다.

원기 3년 4월에 시작한 간척사업은 원기 4년(1919) 3월에 준공을 보게 된다. 약 일년의 각고 끝에 얻어진 농지는 일백 삼십여 두락, 2만6천여평이다. 전라남도에도 비치되어 있는 국유 미간지 허가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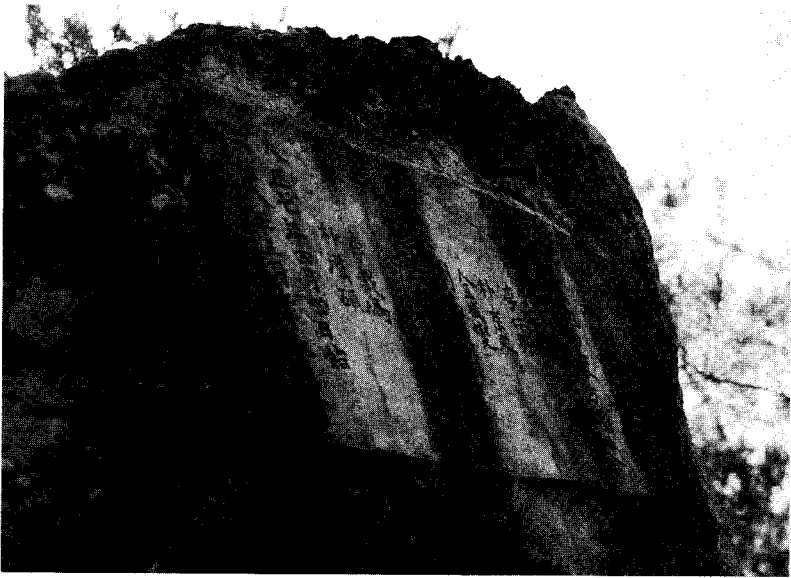
장에 보면 정관평 방언공사는 제161호로 허가년월일은 대정 8년 9월 16일로 되어있다. 대정 8년은 1919년으로 원기4년이다. 준공을 앞두고 허가관계로 분쟁이 있었던 일이 있는데 그 문제가 사필귀정으로 돌아와 9월 16일자로 허가가 난 듯하다.

소태산 대종사는 이 논을 주민들에게 나누어주어 생산의 일부는 교단사업에 희사하도록 하고 일부는 생활의 토대로 삼도록 하였다. 이 분작제도는 3분작이라 하여 2는 경작자가 1은 원불교에 납입하는 방식이 계속되다가 현재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도조도 달리 납입하고 있다. 1957년 다시 제2방언공사로 1만6천여평을 확장하고 1만여평의 저수지를 만들었다. 처음엔 방언답을 구호농장이라고도 불렀다. 제3차방언은 주민들이 간척사업을 했던 것을 원불교에서 매입하여 농사를 지어 온 것으로 최근 와탄천 물막이 공사로 인해 수몰되었다.

## 제명바위

정관평 방언공사가 진행되던 그 해에도 영광군 내에서는 일본인들 중심으로 간척사업이 진행되었다. 일본인들은 자기들의 특권을 이용하여 방언공사에도 일본인에게 우선권을 주고 조선인에게는 허가권 분쟁까지 야기시켰다.

때문에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별스런 장비 하나 없이 맨주먹으로 바다를 막아낸 소태산 대종사와 제자들은 감회가 새로웠다. 따라서 기념비를 세우자고 하였으나 비용이 없었다. 이때 한 제자 옥녀봉 기슭의 바위를 가리키며 “저 바위에 양회를 바르고 거기에 제명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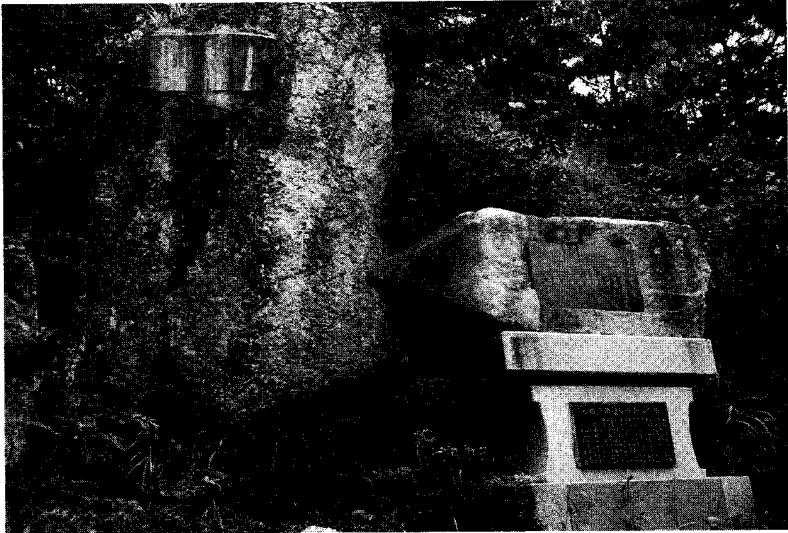
제명바위 / 소태산 대종사와 제자들이 옥녀봉 동쪽 기슭에 방언공사를 기념하기 위해 세웠던 원불교 최초의 금석문이다.

해두면 몇 백년은 갈 것 아니냐”고 제안하여 바위에 제명을 하게 되었다. 바위에 시멘트를 바르고 김성섭이 글씨를 새겼다.

영광 백수 길룡, 간석지 양처방언조합, 설시원 박중빈·이인명·박경문·김성섭·유성국·오재겸·김성구·이재풍·박한석, 대정 7년 4월 4일 시, 대정 8년 3월 26일 중

이 때는 소태산 대종사, 제자들에게 범명을 아직 내리지 않았을 때라 속명으로 새겨져 있고 정산종사는 방언공사에 직접 참석하지 않았기에 이름이 빠졌다.

원불교 최초의 금석문인 제명바위는 정관평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곳에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지금은 세월이 많이 흘러 바위에 발



제명바위와 모형비 / 세월의 흐름에 따라 시멘트에 새긴 글씨가 떨어질 위험에 처해지자 제명바위 아래에 제명바위 모형비를 세웠다.

랐던 시멘트가 떨어질 위기에 처해 제명바위 옆에 모형비를 세워 놓았다. 모형비 아래는 범산 이공전이 비문을 지어 그 내력을 적고 있다.

원기 4년 3월, 정관평 방언 마친 조합원들이 가난 때문에 석비(石碑) 못세우고 이 바위에 양회를 발라 제명하니 새 회상 첫 금석문이다. 그러나 긴 세월 지나 회면 균열 시작되고 깊은 숲에 묻힌지라 글을 탁본하여 오석(烏石)에 새기고 길은 조정하여 새로 내었노니 후인들이여 우리 함께 여기서 간고했던 초창기 거둬 새기고 의연했던 창립혼 길이 기리자.

원기 75년 8월 원불교중앙문화원

## 구간도실

구간도실은 소태산 대종사 탄생가 좌측으로 100m쯤에 있던 집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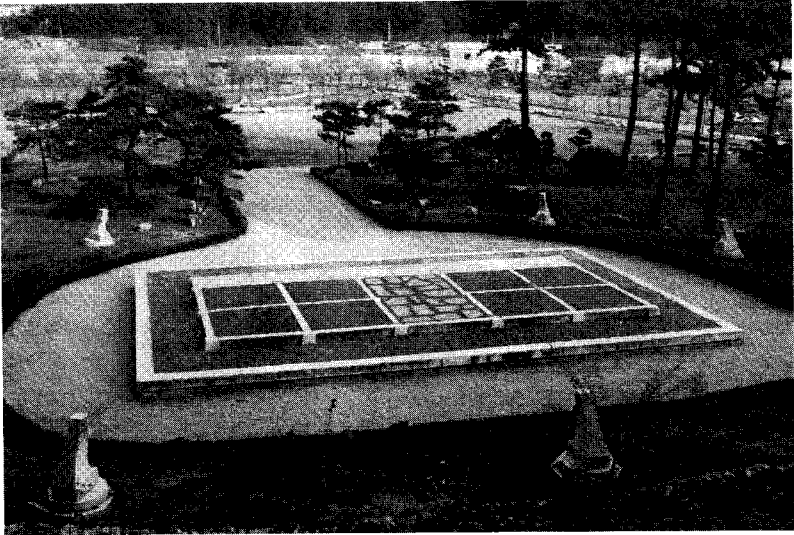


소태산 대종사와 9인제자 /  
 소태산 대종사를 모시고 하늘에 기도를 올려 새 회상을 진리  
 계로 부터 인증을 받도록 했던 최초의 단원들.

로 방언공사를 진행하던 원기 3년 10월에 시작하여 12월에 준공하였다. 9개의 방으로 나누어져 있어 구간도실이라 하였다.

소태산 대종사는 구간도실 상량에 “사원기일월 직춘추법려 송수만 목여춘립 계합천봉세우명(梭圓機日月 織春秋法呂 松收萬木餘春立 溪合千峰細雨鳴)”이라 써 새 종교 창립 의지와 전망을 제시하고 구간도실에는 <대명국 영성소 만물건판 좌우통달 양생소(大明局 靈性巢 萬物建判 左右通達 養生所)>라는 17자의 긴 간판을 붙여 앞으로의 역할을 암시하였다. 이는 원불교가 최초로 붙인 간판으로 원불교의 임시교명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구간도실은 원불교가 처음으로 세운 교당이며 방언공사를 완공한



구간도실터 / 구간도실은 원불교 최초의 건축물로 법인성사를 이룬 곳이기도 하다. 건물은 영산원으로 옮겨지고 지금은 터만 보존되고 있다.

잡이고 백지혈인(白指血印)의 법인성사(法認聖事)를 이룬 집이다.

1919년 3월 방언공사를 마칠 무렵 전국 곳곳에서 독립만세의 함성이 울려 퍼졌다. 소태산 대종사는 제자들에게 “이는 개벽을 재촉하는 상두소리니 어서 방언 마치고 기도하자” 하셨다.

소태산 대종사는 1919년 3월을 새 시대 기점으로 삼고 인류구제의 길을 널리 펴기 위하여 기도를 시작하였다. 9인제자를 팔방과 중앙으로 나누고 대각터 뒷봉우리를 중앙봉으로 하고 각각 팔방위를 정하였다. 이것은十方세계(十方世界)를 뜻하는 것으로 소태산 대종사는 하늘이 되고 정산종사는 땅이 되고 여덟제자로 팔방을 삼은 것이다.

기도가 시작되자 소태산 대종사와 9인제자들은 하루도 빠짐없이 인도정의를 바로 서는 세상이 되고 정신이 주인 되는 세상이 되어

인류가 고통에서 벗어나 은혜가 넘치는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라고 빌었다.

7월 16일(음) 기도를 마치고 구간도실에 모인 제자들에게 소태산 대종사는 “그대들의 그간 정성이 장한 바가 있으나 아직 하늘의 감응을 얻기에는 부족함이 있으니 몸을 던져 도를 구한 선성들의 얼을 본받아 그대들의 목숨을 제물로 바쳐 하늘의 감응을 얻게 함이 어떨겠느냐” 하였다.

제자들은 일제히 소태산 대종사의 명령에 따르기로 하고 10일 동안 모든 것을 정리하고 더욱 정성을 드리다가 7월 26일(양력 8월 21일) 구간도실에 모였다.

모두 기쁜 얼굴 비장한 태도였다. 소태산 대종사는 다시 한번 다짐하고 일제히 사무여한(死無餘恨)이라는 증서에 맨손으로 지장을 찍으라 하였다. 모두 자기의 이름 밑에 지장을 찍어 올리니 소태산 대종사가 이를 보시고 “그대들의 정성이 하늘의 감응을 얻었다”고 기뻐하였다. 맨손으로 찍은 지장이 피로써 어려 선명히 드러났던 것이다. 이것이 백지혈인의 법인성사다.

소태산 대종사는 “이제 인류를 구제 할 새 회상이 진리의 감응을 얻었으니 이로부터 우리의 성공이 비롯하였다”고 말하고 9인제자에게 범명과 범호를 주어 새 사람으로 살아서 인류를 위해 몸 바쳐 일하라 하였다. 이때 소태산 대종사가 제자들에게 내린 범호와 범명은 일산 이재철, 이산 이순순, 삼산 김기천, 사산 오창건, 오산 박세철, 육산 박동국, 칠산 유건, 팔산 김광선, 정산 송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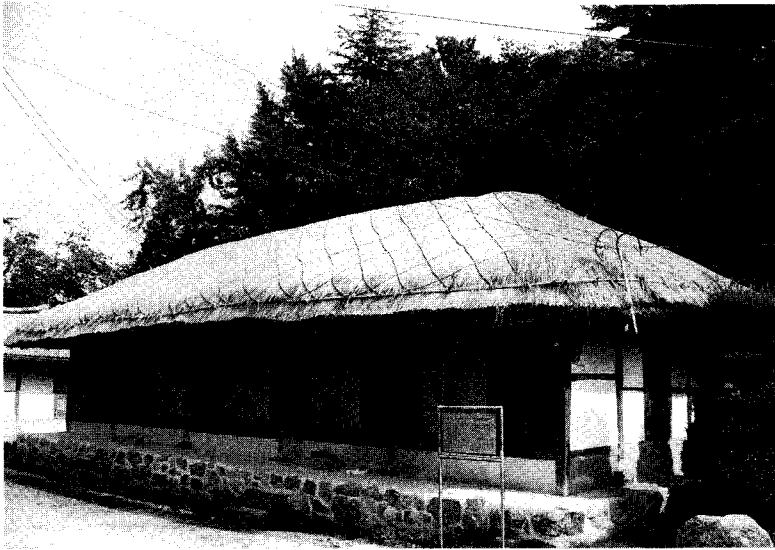
기도봉은 중앙봉, 장다리봉, 대파리봉, 천기동뒷산봉, 눈섭바위봉, 밤나무골봉, 설래바위봉, 상여봉, 옥녀봉 이외에도 초기에 기도하다가 물을 건너기 어려워 옮겼던 마촌앞산봉, 촛대봉이 있다.



구간도실 터는 교단 최초의 건물이고 방언공사의 준공과 법인성사가 이루어진 창립정신의 응결지이다. 구간도실 건물은 원기 8년 현재의 위치로 옮겨 영산원이라 이름하고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 영산원(靈山院)

원기 8년 소태산 대종사 모친께서 열반하자 각지에서 제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러나 구간도실만 가지고는 모여드는 많은 제자들을 수용할 수 없었다. 이에 새 교실을 신축하자는 논의가 시작되었다. 구간도실도 그 터가 습하고 구석진 곳에 위치해 내왕이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아 아예 현 영산원터로 옮겨짓기로 했다. 이에따라 가시나무와 자갈밭 뿐인 산을 골라 구간도실을 옮겨짓고 8간짜리 초



영산원 / 옥녀봉 아래 구간도실을 옮겨 영산원이라 이름하였다. 이 때부터 이곳을 영산이라는 이름을 쓰게 된 것으로 추정한다.

가 2채를 더 지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영산원이라 하였다. 이때부터 성지 전체를 영산이라 부르게 되었다.

이곳은 원기 9년(1924년) 익산에 총부를 건설한 뒤 영광지부를 설치하고 방언답을 관리하고 영산지역의 교회를 주관하도록 하였다. 원기 12년부터는 영산학원을 개설해 교단 초기 인재 양성을 시작한 이후 교단 인재 양성의 요람으로서 자리매김하기 시작했다.

영산원불교대학교와 영산성지고등학교가 현 위치로 옮기기 전까지 영산원은 학생들의 교육장으로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소태산 대종사는 원기 4년 법인성사를 마치고 변산 봉래정사에 가 교법을 제정하고 인재를 만나며 때를 기다리다 영산에 영산원을 건축한 후 원기 9년 9월 익산총부를 건설하게 되었다.



영산 대각전 / 영산 대각전은 건축될 당시만 해도 영광지방에서 제일 큰 건물이었다고 한다.

## 영산 대각전

원기 21년 소태산 대종사 재세시에 건축된 건물로 익산총부 대각전에 이어 원불교에서 두 번째로 크게 지어진 법당이다. 당시 이 지방에서는 가장 큰 건물이었다 한다.

영광(영산)지부는 교도수의 증가에 따라 집회 장소가 없어서 곤란을 겪어 오던 중 원기 21년 10월에 대각전 신축 역사를 시작하였다.

이 대각전 공사는 영산교도들 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까지 동원되었고 중앙총부에서는 일산 이재철과 사산 오창건을 건축 감독으로 파견하여 힘을 썼다. 그 해 12월 초순경에는 소태산 대종사가 직접 1개월여를 친히 감독하며 심혈을 기울였다.

대각전 낙성식에는 소태산 대종사 임석하에 300여명의 교도와 주민이 운집한 가운데 성대히 치러졌고, 50여명이 동선에 입선하여 이



영산 영모전 / 소태산 대종사 이하 선령들의 합동위패와 아울러 양 벽면으로 대종사  
십상도를 모시고 있다.

날부터 선을 나기 시작했다. 대각전은 목조 건물로 건평 65평이며, 그 경비는 대부분 영광지부와 각지 회원의 의연금으로 충당하였다.

당시 대각전이 건축될 때 교도들은 이처럼 거대한 강당이 건축된다는 것 자체가 큰 기쁨이며 자부심이었다. 건축에 참여한 인부들도 “불법연구회가 이곳에서 처음 시작 할 때는 몇 사람으로 시작하였지만 오늘날 이와같이 큰 강당을 신축할 정도로 성장했고 저 윗녘에는 이보다 더 큰 건물이 준비하다” 며 스스로 자신들의 일인양 앞다투어 칭찬의 말을 아끼지 않았다고 한다.

## 영 모 전

영모전은 영산성지와 익산총부 2곳에 있다. 이곳 영모전은 원기



영모전 내부전경 / 소태산 대종사 이하 역대 선진열위의 합동위패가 불단에 모셔져 있다.

66년에 소태산 대종사 탄생가 복원과 함께 성지 장엄사업의 일환으로 건립되었다.

영모전 안에는 4단의 불단을 조성하여 소태산 대종사 이하 역대 선진열위의 합동위패를 모셨다. 익산총부의 영모전에는 원불교 2대 말과 대종사 탄생 100주년 성업봉찬사업 때 정면에 일원상을 모셨으나 이곳에는 일원상이 없다. 이곳 영모전에서는 6·1대제와 명절대제가 봉행되며 영산성지 순례시 소태산 대종사 일대기에 대하여 담당 교무로부터 안내를 받는 곳이기도 하다.

왼쪽 벽에는 소태산 대종사의 대형 영정이 모셔져 있고, 영정 옆에는 정승섭 화백이 7년의 각고 끝에 완성한 소태산 대종사 십상도가 모셔져 있다. 십상도는 동양화 색채화로 가로 120cm 세로 157cm(그림, 가로 90cm 세로 108cm)로 되어 있다. 소태산 대종

사의 일대기를 큰 맥락으로 의미 지은 십상은 일상에서 칠상까지가 이곳 영산과 인연해 있고 여기에 탄생의 의의를 더하게 되니 영산은 성지로서 우뚝 솟아 영원히 빛나게 될 것이다.

### 원각성존 소태산 대종사 10상

정산종사께서 소태산 대종사 일대기를 십상으로 구분지어 주셨고 대산종사께서 십상에 설명을 붙이셨다.



**관천기의상(觀天起疑相)** :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원기전 25년(辛卯) 3월 27일(양 5.5)에 한국 전라남도 영광군 백수면 길룡리 영촌에서 농촌 평민의 가정에 태어나신 바 유시로부터 큰 생각을 품으시고 자라시다 7세부터는 하늘 이치를 비롯해서 모든 인간사에 미치기까지 의심이 나시어 사색에 전념하시기를 4년간이나 계속하셨으니 이것이 후일 큰 도를 깨달으실 근본이 되셨다.



**삼령기원상(蔘嶺祈願相)** : 11세 때 선산묘제에 참석하신 후부터는 산신을 만나서 의심을 해결하리라는 희망으로 멀고도 험한 삼발재 마당바위를 5년간이나 다니시며 일천정성으로 기도를 계속하셨으니 이때 비록 산신은 만나지 못하였으나 이 지극한 원력이 뭉쳐져서 자연 마음 통일하는데 큰 도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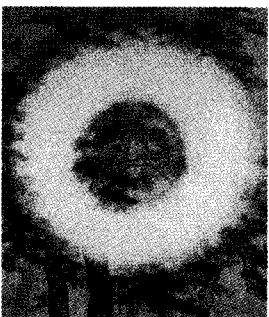


이 되셨다.

**구사고행상(求師苦行相)** : 16세 때 어느 소설에서 도사를 만나 성공한 이야기를 들으신 후부터는 그간의 모든 의심을 풀어 주고 인생의 정로를 가르쳐 줄 참스승을 찾기 위하여 6년동안 갖은 고행을 다 하셨으나 때는 말세인지라 뜻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때의 간절한 정성이 어리고 어리어서 후일에 스스로 스승이 되신 것이다.



**강변입정상(江邊入定相)** : 산신과 도사를 만나서 원을 이루려는 희망마저 잃게 되시자 22세부터는 내 이 일을 어찌할꼬 하는 큰 걱정만 날로 계속되면서 때로는 우연히 솟아오르는 주송도 외우시고 동상처럼 명상에 잠기기도 하시다가 24, 5세부터는 그 걱정까지도 다 잊으시고 대정에 드신 바이가 바로 대각의 열쇠가 되신 것이다.



**장항대각상(獐項大覺相)** : 구원겁래에 세우신 큰 서원과 큰 적공으로 정에 들어계시다가 26세 되시던 해(丙辰) 3월 26일(양 4. 28) 새벽에 동천의 서광을 보시고 문득 마음이 밝아지시며 그 동안의 모든 의심이 다 풀리고 마침내 우주의 대도와 인생의 정로를 밝게 깨치시니 이로부터 어두웠던 불일(佛日)이 거둬 밝혀졌으며 쉬어



있던 법륜은 다시 굴러졌다.

**영산방언상(靈山防堰相)** : 대각을 이루신 후에는 모든 동포들의 어두운 마음을 밝혀주기 위하여 회상을 열으려 하심에 먼저 오는 세상에 맞추어서 영육쌍전과 이사병행의 표본을 보이시려고 저축조합을 설치하시는 일방 원기 3년 4월부터는 9인제자와 함께 방언공사를 시작하시어 이듬해 3월에 준공을 보시니 이것이 대도창업의 기초가 되었다.



**혈인법인상(血印法認相)** : 원기 4년에는 천하사람을 대도에 회향케 하기 위하사 먼저 9인제자의 마음을 통일시켜서 공도정신을 살리시려고 기도서원을 올리게 하신 바, 사(邪)없는 혈심으로써 대회상 창립의 법계인가를 얻으셨으니 이 사무여한의 희생정신으로 전무출신의 산 표본을 삼게 하셨다.

**봉래제법상(蓬萊制法相)** : 원기 5년부터 4년간 변산 봉래정사에서 수양을 하시는 한편 만법의 주종이 되는 일원종지를 드러내시어 공부의 요도인 삼학팔조의 원만한 수행길과 인생의 요도인 사은사요의 대윤리를 제정하심으로써 교리의 강령을 세우고 지나간 모든 교범을 통합활용하게 하시었다.



**신룡전법상(新龍轉法相)** : 원기 9년부터는



불법과 생활이 둘이 아닌 산 종교를 실현하기 위한 총부를 익산에 정하셨다. 교화·교육·자선의 각 기관을 설치하시며 때와 곳을 가리지 않고 선을 하게 하여 일체처 일체불에게 불공을 함으로써 복혜를 아울러 갖추게 하셨다. 또한 종교를 대중의 것, 실용의 것, 시대의 것으로 살려 놓으셨다.



**계미열반상(癸未涅槃相)** : 열반에 드시기 3년 전에는 계송을 반포하시고 정전을 친제 편수하시며 말씀하시기를 나의 교법은 원만 구족하고 지공무사한 법신불을 종지로 하며 신앙과 수행을 병진하고 공부와 생활을 아울러 닦도록 하였으며, 법을 전하는데도 재가 출가 남녀대중에게 두루 전하였나니 계군은 이 법을 가져다가 마음대로 활용하라 하시더니 원기 28년 6월 1일 대원적에 드셨다.

## 영산원불교대학교

영산원불교대학교는 원기 12년 영산원에 영산학원이 발족되면서 시작되었다. 정산·주산종사 등이 지부장으로 재임하면서 주변마을의 청소년교육을 시작한 것이 계기가 된 것이다.

영산학원은 그후 원기 28년까지 인근 청소년들의 교육을 담당하면서 초기 교단의 많은 인재를 배출해 왔다. 하지만 일제말기와 6·25



영산원불교대학교 / 원광대학교 원불교학과와 함께 양대 교역자 양성기관이다.

전쟁을 당하여 일시 휴원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어야만 했다.

영산학원은 원기 40년 영산선원으로 발전되긴 했으나 여건이 닿지 않아 원기 48년에 이르러서야 초등선원 체계를 갖출 수 있었다. 하지만 영산선원은 초등선원이었던 까닭에 2년의 교육과정을 마친 후 익산에 있는 동산선원(현 동산수도원)으로 옮겨 3년의 교육과정을 더 거쳐야 했다.

그후 영산선원은 동산선원을 흡수하면서 4년제로 발전되었고 또한 문교부로부터 각종대학으로 인가받아 교육하여 오다가 원기 81년 12월에 정부 교육부로부터 4년제 정규대학교인 「영산원불교대학교」로 승격인가를 받았다. 원광대학교 원불교학과와 함께 영산원불교대학교는 교역자 양성의 양대기관이다.

소태산 대중사께서 탄생하시고 구도하시고 깨달음을 얻어 새 역사



영산성지고등학교 / 구 길룡초등학교에 자리잡은 영산성지고등학교는 우리나라 대안교육의 모델로 자리를 잡았다.

문을 여섯던 원불교 제1의 성지인 영산, 이 영산에 자리한 인재양성의 터전은 수많은 불보살들이 배출될 요람이다.

### 영산성지고등학교

열린교육을 표방하며 자율화된 교육으로 대안학교의 모범이 되고 있는 영산성지고등학교는 총 80여명의 학생과 15여명이 넘는 교사로 교사 1인당 학생수가 5명 정도인 초미니학교이다.

영산성지고는 원기 67년 원불교 영산성지의 대민 교화사업의 일환으로 시작, 처음에는 지역사회 청소년 선도를 목적으로 한 고등공민학교였으나 점차 고등학교과정으로 변화되었다.

원기 82년까지 인문계 일반고등학교와 동등학력이 인정되는 각종 학교로 분류되어 운영되어 오다가 원기83년 교육부가 영산성지고를 시범대안학교로 지정함에 따라 정규 고등학교로 승격되었다.

원기 83년까지만 해도 학교법인 영산학원 소속으로 영산원불교대학교와 함께 운영되었으나 원기 84년부터는 학교법인 영산성지학원으로 독립해 운영하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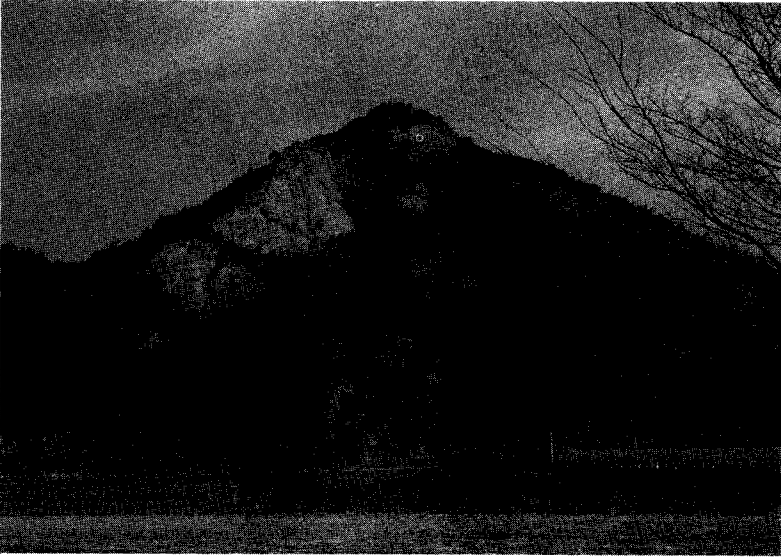
영산성지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은 자율적인 교육에 맡겨진다. 수업을 받기 싫으면 학교에서 운영하는 양계장이나 가마터에 가서 시간을 보낼 수도 있다.

학생들은 전원 기숙사 생활을 하며 학교운영에 관한 중요사항들은 교사와 학생들이 함께 참여해 결정한다. 교사와 학생들의 관계가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영산성지고는 이 시대의 새로운 교육 모델을 보여 주고 있다.

현재까지 230명의 학생들이 이 학교를 졸업했다. 졸업생 중에는 대학에 진학한 학생도 있고 공무원 등 취업으로 사회의 모범인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그러나 그 보다는 심한 방황과 갈등을 경험한 이들이 유난히 많이 선택한 길이 성직의 길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대안교육의 모델인 성지고에 거는 교육계의 기대는 크다.

## 구인 기도봉

원기 4년(1919) 3월 방언공사를 마친 후 소태산 대중사께서 9인 단원에게 “개인·가정·사회·국가가 모두 안정을 얻지 못하고 창생의 도탄이 장차 한이 없게 될지니 세상을 구할 뜻을 가진 우리로서



옥녀봉 전경 / 옥녀봉 중턱에는 방언공사 준공비가 있고 산 아래는 소태산 대종사 탄생가와 구간도실터가 있다. 법인기도시 9인 제자가 기도를 했던 아홉 봉우리 중 하나다.

이를 범연히 생각할 수 없으며, 옛 성현들도 창생을 위하여 지성으로 천지에 기도하여 천의(天意)를 감동시킨 사건이 있었으니 우리도 이런 때를 당해서 전일한 마음과 지극한 정성으로 모든 사람의 정신이 물질에 끌리지 아니하고,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 주기를 천지에 기도하여 천지의 감동이 있게 하여 불지어다! 그대들의 마음은 곧 천지의 마음이라, 마음이 한번 전일하여 조금도 사가 없게 되면 천지와 더불어 그 덕을 합하여 모든 일이 다 그 마음을 따라 성공될 것이며, 그대들은 각자의 마음에 능히 천의를 감동시킬 요소가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고, 각자의 마음에 또한 창생을 제도할 책임이 있음을 항상 명심하라.” 하시고 일자와 방위를 지정하시며 기도를 올리게 하였다.

기도는 원기 4년 3월 26일에 시작하여 10일간 재계로써 매 삼륙일(6, 16, 26)에 거행하였으며 기도 당일에는 오후 8시 안에 구간도실에 모여 소태산 대종사의 교시를 받고 오후 9시경에 기도장소로 출발하였다. 기도는 10시부터 12시까지 하였으며 기도장소는 중앙봉을 비롯하여 8방의 봉우리를 지정함으로 인해 기도봉이 생기게 되었다.

기도는 9인 모두 똑같은 시각에 똑같은 의식으로 진행하게 하였는데 먼저 팔괘로 만들어진 단기(團旗)를 중앙에 세우고 촛불을 켜고 청수기를 진설하고 정좌하여 입정에 들었다. 입정이 끝나면 축원문을 독배하고 중앙봉을 향하여 4배(四拜)를 올리는 순이었다.

**중앙봉** : 영산원에서 600m 떨어진 산봉우리로 9인선진의 법인 기도 때에 중앙의 역할을 하였던 기도봉이다. 이 봉은 아홉 봉우리의 중앙에 자리잡고 있으며 봉우리 아래에 소태산 대종사의 대각터인 노루목이 있다. 법인기도시 정산종사가 기도를 올렸던 장소다.

**설레바위봉** : 이 봉은 영산원에서 서남쪽으로 약 1.5km 떨어진 곳에 있다. 봉우리의 오른쪽으로는 삼발재 마당바위가 있고 왼쪽으로는 상여봉이 있다. 법인기도시 일산 이재철이 기도를 올렸던 장소다.

**장다리봉** : 이 봉의 위치는 영산원 동남쪽 1km 떨어진 지점에 있으며 그 남쪽으로는 대과리봉이 있다. 법인기도시 이산 이순순이 기도를 올렸던 장소다.

**밤나무골봉** : 이 봉은 영산원 남쪽으로 약 2.3km 떨어진 곳으로 왼쪽 앞으로는 삼발재 마당바위가 보인다. 법인기도시 삼산 김기천

이 기도를 올렸던 장소다.

**눈썹바위봉** : 눈썹바위봉은 영산원에서 서남쪽으로 약 1.8km 떨어진 곳으로 이 봉우리 밑에는 귀영바위가 있다. 법인기도시 사산 오창건이 기도를 올렸던 장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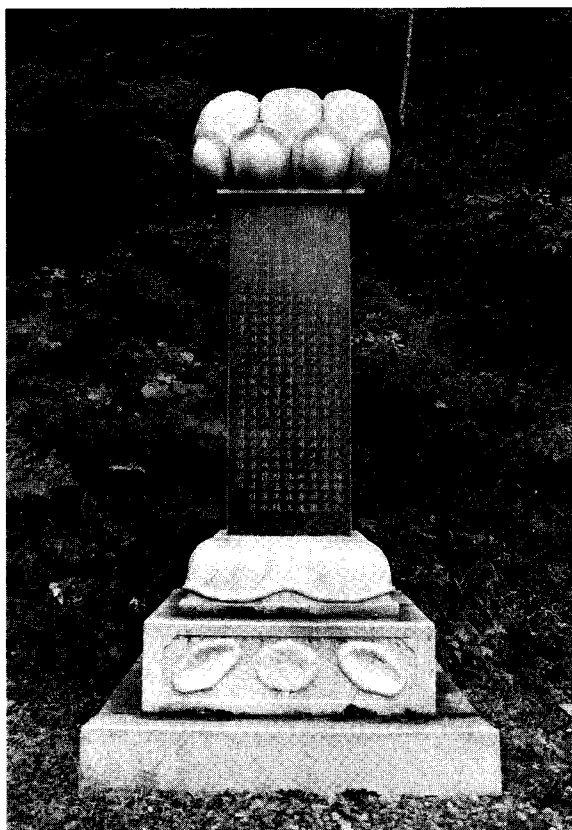
**상여바위봉** : 상여바위봉은 영산원에서 서쪽으로 약 1.5km쯤 떨어져 있으며 왼쪽으로는 옥녀봉이 있고 오른쪽으로 삼밭재, 밑으로 상여바위봉이 있다. 법인기도시 오산 박세철이 기도를 올렸던 장소다.

**옥녀봉** : 옥녀봉은 영산원에서 북서쪽으로 약 800m쯤 떨어진 곳에 있으며 이 봉 중턱에 방언공사 준공비가 있고 산 아래는 구간 도실터와 소태산 대종사의 탄생가가 있다. 법인기도시 육산 박동국이 기도를 올렸던 장소다.

**공동묘지봉(천기동 뒷산봉)** : 공동묘지봉은 영산원에서 남쪽으로 약 2.7km쯤 되는 곳으로 옛날에는 수많은 묘지가 있어서 함부로 다닐 수 없었던 곳이며 기도봉 중 제일 멀리있는 봉이다. 법인기도시 칠산 유건이 기도를 올렸던 장소다.

**대파리봉** : 대파리봉은 영산원에서 동남쪽으로 약 1km 떨어진 곳에 있으며 그 앞에는 장다리봉이 있다. 법인기도시 팔산 김광선이 기도를 올렸던 장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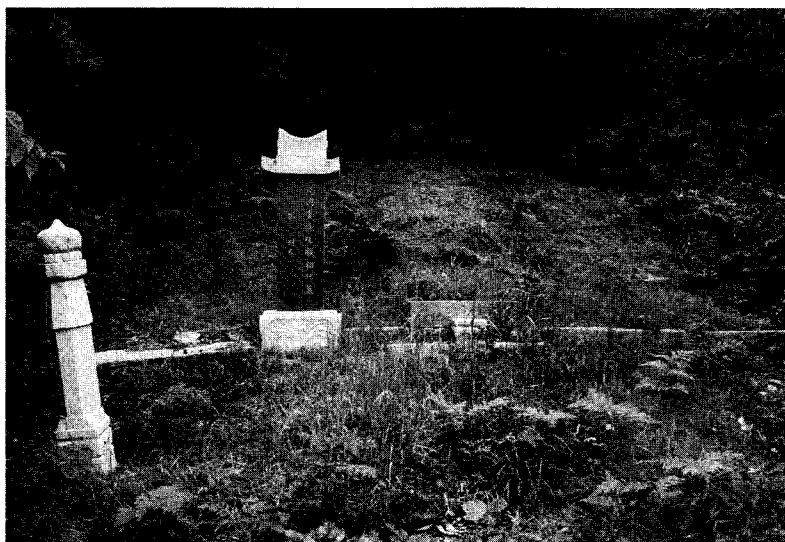
9인기도봉과 법인기도 당시 선진님들의 기도장소에 대하여는 중앙봉에서 정산종사께서 기도를 올린 것을 제외하고는 당시의 상황에 따라 변화가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영산에서는 위와같이 기도봉과 9인선진들을 연계하여 법인절 기념행사 등 모든 행사를 하고 있다.



연화삼매지비 /  
 소태산 대종사 3개월여  
 를 구도하던 연화봉 초  
 당터에 세워진 연화삼매  
 지비가 당시 구도와 일  
 화를 말해주고 있다.

## 연화봉 초당터

소태산 대종사 24세 되던 해 가슴에 맺힌 의문을 풀기 위해 고창군 심원면 연화리 연화봉 중턱에 있는 한약방을 하는 연강 김준상씨의 초당을 빌려 3개월여를 수행 정진하였다. 김준상씨가 초당을 지어놓고 본인이 휴양하기도 하고 환자를 치료하는 곳으로 사용하는 곳이다.



김준상의 묘 / 연화봉 초당터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는 김준상의 묘. 묘비석은 원불교 중앙문화원에서 비문을 짓고 세웠다.

소태산 대종사는 팔산 김광선의 주선으로 3개월여를 초당에 불도 때지 않고, 잠이오면 초당 아래 우물에 가서 목욕제계 하는 등 한마음으로 피나는 수행정진을 계속하였다. 어느 날 연화리에 사는 한 처녀가 사랑을 고백하였으나 이를 피한 뒤 처녀가 돌아가고 난 후 앉았던 자리를 물로 씻어 버리고 계속 수행하던 일화가 전해오기도 한 곳이다.

소태산 대종사는 추운 겨울에 초당으로 와서 봄기운이 완연할 때 하산할 결심을 하였다. 처음 올 때 입고 온 한 벌의 솜옷으로 이불 겸 사용했기 때문에 떨어져 흉하고 먼지가 났다. 하지만 가지고 온 쌀 한 말은 반절 정도나 남았다. 이렇게 먹는 일도 잠자는 일도 다 잊어 버린채 몇 일을 깊은 입정에 들곤 하였다. 이와같은 고행으로 일관된 수행정진의 생활은 해수병을 얻어 평생 큰고통을 주었으나

이로인해 수양력이 풍부졌고 지혜를 얻었다.

초당터는 초당을 빌려주었던 김준상의 후손으로부터 회사받아 그 터를 원형대로 보존하고 원불교 중앙문화원에서 원기 69년에 소태산 대종사 정진하던 초당터를 기념하기 위하여 <연화삼매지비> 를 건립하였다. 연화삼매지비는 두 개의 기단 위에 연잎을 양각한 좌대를 올려놓고 좌대 위에 오석(烏石)비신을 세우고 연꽃을 양각하여 갖을 씌웠다. 비신 전면에는 소태산 대종사 초당에서 정진한 내력을 적고 후면에는 《대종경》전망품 2장 中 한시 한수를 적었다.

**연화 삼매지 비문 :**

**(비문 전면)** 여기는 고창군 심원면 연화리 산 77의 2. 소태산 대종사 정진 입정처 연화봉 초당터다. 우리 대종사 구원겁래의 서원으로 일찍이 발심 온갖 정성을 바치시고 갖은 고행 닦으시되 그 소원, 그 의단(疑團) 풀길 없어 한스러운 적막의 나날 지새우실제 딱하게 본 팔산 대봉도 명의 연강선생의 초당을 빌려 여기 계시게 하니 얼음물에 목욕하고 찬방에 밤새우며 한 말 쌀, 한 되 간장을 절반 남기시는 사무친 삼동정진이 이루어졌다. 새해들어 연화낭자의 일기 춘심에 맑은 기개 한껏 보이시고 하산하시니 원기 전 1년 이라 거룩할사 이 터전 새 부처님 대종사의 연화 삼매지여 산하 대운이 진귀 차도(盡歸此道)로다.

**(비문 후면)** 연도심수천봉월 수덕신여만궤주(研道心秀千峰月 修德身如萬斛舟 : 도를 연마하니 마음은 천봉우리의 달보다 빼어나고 덕을 닦으니 몸은 만섬이나 실은 배와 같더라)

**인근 가볼만한 곳**

**해안일주 관광도로 :** 영산에서 구수산을 해안도로 따라 일주하면서 서해안의 풍광과 아름다운 낙조를 볼 수 있다. 길룡리에서 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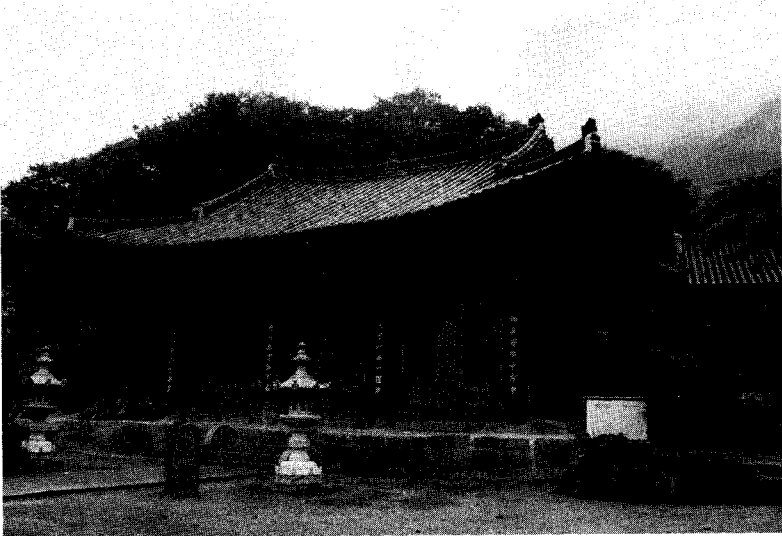
구수미나루터 / 범성포로 가기 위해 인근 주민들이 이용했던 니루로 이곳에 살았던 최일양대의 인과설화가 오늘에도 전하고 있다.

수까지의 해안도로는 서해에서 접하기 쉽지 않은 절경이다.

영산에서 해안도로를 따라 가면 바다 건너 범성포의 전경이 한 눈에 들어오고 구수미 나루터가 나온다. 길룡리 장꾼들이 선진포 나루나 이곳을 이용하여 범성장을 왕래했던 곳이다. 구수미나루에는 2백여년 전에 이곳에 살았던 최일양대라는 여인의 인과설화가 오늘 날에도 전해오고 있다. 최일양대는 객주집을 운영하며 타관객지 외로운 나그네에게 갖은 적선을 하며 평생을 살다가 임종시에 가산 전부를 촌중에 회사하여 적선을 계속하도록 하고 주막 뒷산에 묻혔다. 그후 영광군수 부인으로 태어나 군수 내외가 이곳에 찾아와 진생의 묘를 찾았다 한다.

해안일주도로에는 이뿐 아니라 모래미해수욕장을 비롯하여 정유제란 때 9홉여인들이 왜선을 만나 정절을 지키기 위해 순절했던 곳에

원불교 성지



불갑사 대웅전 / 불갑사는 소태산 대종사가 금강경을 가져다 본 백제불교의 원찰이다.  
창살무늬 등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곳이다.

세웠다는 정유재란 열부순절비가 있는 등 관광과 아울러 마음에 새길만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곳이다. 와탄천 물막이 댐공사가 완공되어 영산성지에서 범성포까지 쉽게 가는 도로가 완공되었다.

**백제불교의 원찰 불갑사** : 불갑사를 찾아가다 보면 먼저 내산서원이 나온다. 내산서원은 정유재란 때 일본으로 포로로 잡혀가 선비의 기질을 굽히지 않고 주자학의 새 물결을 일으킨 수은 강항선생을 추모하는 영광의 대표적인 서원이다.

강항은 포로로 있으면서 일본의 지리와 내정을 기록한 《간양록》을 저술했다.

불갑사는 소태산 대종사가 금강경을 구해 본 사찰이다. 소태산 대종사가 대각을 이룬 후 한번은 꿈에 도승이 나타나 금강경을 건네며 “이것이 선생님의 종지(宗旨)입니다”하고 떠났다 한다. 이튿날 소태

영산성지

산 대종사는 이재철을 시켜 불갑사에서 금강경을 구해오게 하여 금강경을 보시고 “석가모니불은 성인중 성인이라” 하며 연원을 불법에 대었다.

불갑사는 남중국 동진에서 백제에 최초로 불교를 전파한 마라난타가 법성에 상륙하여 최초로 침류왕 원년(384)에 창건한 백제 불교의 원찰이다.

불갑사의 불단배치는 정면이 아니라 측면에 있어 특이하며 대웅전 건축당시 조각사와 관련된 설화를 뒷받침하는 까치그림이 법당에 남아 있고 조각사가 남긴 아름다운 연화문과 국화문이 대웅전을 화사하게 꾸미고 있다. 이곳 불갑사에는 참식나무와 관련된 스님과 공주의 애뜻한 사랑 이야기가 전해져 온다.

신라 법흥왕 때 경운 스님이 인도에 유학을 갔다. 하루는 그 나라 왕이 온 가족과 함께 경운스님이 있는 절의 법회에 참석한 일이 있었다. 그런데 임금을 따라 온 진희수라는 공주가 스님을 보고 한눈에 반하여 서로 사랑하게 되었다. 이를 알아차린 왕은 절의 주지에게 경운스님을 본국으로 추방하도록 하였다. 이별의 슬픔을 가눌 길 없는 공주는 내세에라도 우리의 사랑을 맺자고 하면서 화분에 조그마한 나무를 심어 이별의 선물을 주었다. 본국으로 돌아온 경운스님은 이 참식나무를 정성껏 심었다고 전해진다.

불갑사 인근에는 원기 12년에 설립되어 전무출신 배출의 산실인 신흥교당과 소태산 대종사가 당시 운영하던 이흥과원 자리에 보물 제 504호인 신천리 3층 석탑만이 외로이 서 있다.

**굴비의 고장 법성포** : 영광이라는 지역이 굴비로 인하여 외지에 드러났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굴비의 산지는 영광 법성포로 법성포가 번성할 때 흥타령의 노래를 보면 실감이 난다.



영광굴비 / 물 반 조기 반이라 했던 예전의 명성을 반영이라도 하듯 범성포에 가면 굴비의 고장이라는 말이 실감난다.

도운 시일러 가세에,  
돈 실러으러 가으세에,  
여영광에 범성포오에라 돈 시일러가

예전에 영광 칠산바다는 “물 반, 조기 반”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조기가 많이 잡혔다 한다. 그러나 현재는 항구가 쇠퇴해 그 명맥만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

영광굴비는 칠산어장에서 잡힌 조기를 소금에 절여 바닷바람에 말린 것이다. 굴비란 말은 고려 인종 때 이자겸과 관련 짓기도 한다. 이자겸은 왕의 외척으로 왕위를 넘보다가 실패하여 영광으로 유배를 왔다. 이자겸은 영광에 와서 조기를 먹어보고 맛이 좋다며 임금에게 진상하며 유배를 와서 잇기는 하나 비굴하게 살지는 않는다는 뜻에



선운사 / 김단선사에 의해 창건되었다는 선운사는 동백꽃으로도 유명하다. 소태산 대종사 한 때 이 곳 한 암자에 3일간 머물렀다 하니 어디인지는 알 길이 없다

서 비굴이라는 단어를 바꾸어 굴비라 하여 올렸다. 이때부터 영광조기를 굴비라 했다 한다.

법성은 굴비뿐만 아니라 조창지로서도 유명했다. 조세의 규모를 개경이남에서 제일 큰 조창 항구였다. 호남평야 27개 군의 세곡을 관할하여 한양 마포나루로 운반하던 곳으로 아들을 낳아 원님으로 보내려 거든 황해도 안악이나 남쪽 영광으로 보내라는 말이 생길 정도였다 한다. 대종사 영산 변산간 내왕시 법성에서 배를 타고 내렸으며 법성장에 자주 다니셨던 곳이다.

**고창 선운사** : 소태산 대종사 구도 당시 침식을 잇을 정도로 구도 열정이 타오를 무렵 선운사에 가면 뜻을 이룰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선운사 한 암자를 찾아 수도하려 했으나 절의 번거로움과 당시의

궁색한 가정 형편으로 선운사 암자를 찾은지 3일만에 돌아왔다. 하지만 당시 소태산 대종사 머물렀던 암자는 어디인지 확인 할 길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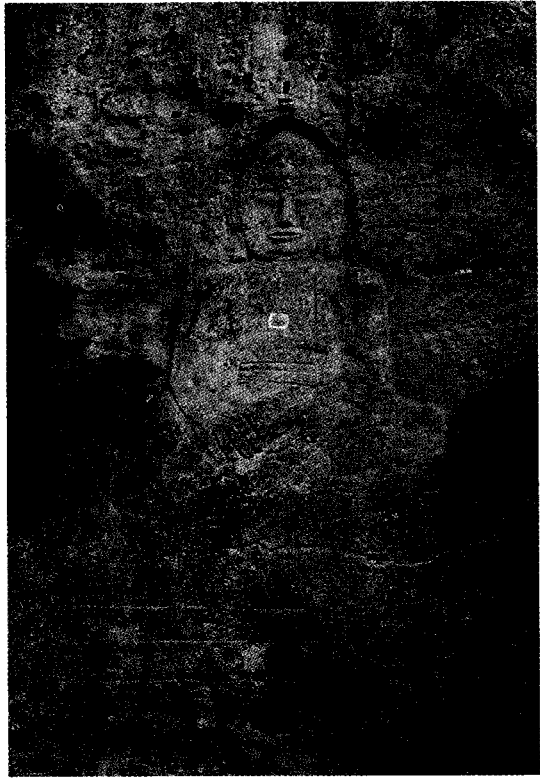
선운사는 미당 서정주의 〈선운사동구〉 시비에서 시작된다. 선운사는 백제 위덕왕 때에 검단선사가 창건하였다고 한다. 절을 세울 당시 선운사 계곡에는 도적떼들이 들끓었는데 검단선사가 소금굽는 법을 가르쳐 생계를 꾸리게 하였다. 반성한 도적들이 소금을 구우며 살던 마을을 검단이라고 하며 보은염을 선운사에 보냈다. 실제로 해방 전까지 염전 사람들은 선운사에 소금을 보냈다 한다.

선운사 단풍도 내장산 단풍에 버금간다. 단풍나무 숲 속에는 추사 김정희가 글을 짓고 썼다는 백파대율사부도비가 서 있고, 도솔암 인근의 동불암 마애불은 석불 비결에 관한 전설과 동학도들의 비결탈취사건으로 유명하다.

후세에 이르러 동불암 마애불의 복장감실을 둘러싸고 전설하나가 생겨났다. 선운사 석불 배꼽에는 신기한 비결이 들어 있어서 그것이 세상에 나오는 날에는 한양이 망하는데, 비결과 함께 벼락을 맞아 죽는다는 것이었다. 1820년에 전라감사로 왔던 이서구가 마애불의 배꼽에서 서기가 뻗치는 것을 보고 뚜껑을 열어보니 책이 들어 있었는데, 갑자기 벼락이 치는 바람에 ‘이서구가 열어본다’ 라는 대목만 얼핏 보고 도로 넣었다는 이야기도 함께 전해진다. 이것은 실제 있었던 일로서 당시 미륵비결을 꺼내는 현장에 있었던 동학도 오지영이 쓴 《동학사》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갑오농민전쟁이 일어나기 1년 반 전인 1892년 8월 어느 날, 손화중의 집에서 그 비결을 꺼내보자는 말이 나왔다. 모두들 벼락살을 걱정했지만 오하영이라는 도인이 말하기를 이서구가 열었을 때 이미 벼락이 쳤으므로 벼락살은 없어졌다고 하였다. 동학도들은 대나무를 엮어서 발판을 만들어 올라가 석불 배꼽을 깨고 비결을 꺼내 가져갔다. 이 일로 각지의 동학군 수백 명이 무장현감에게 잡혀 들어가, 가져간 비결을 내놓고 두령이 있는 곳을 대라는 취조를 당했다. 결국 주모자 세명은 강도 및 역적으로 사형을 받았으며 나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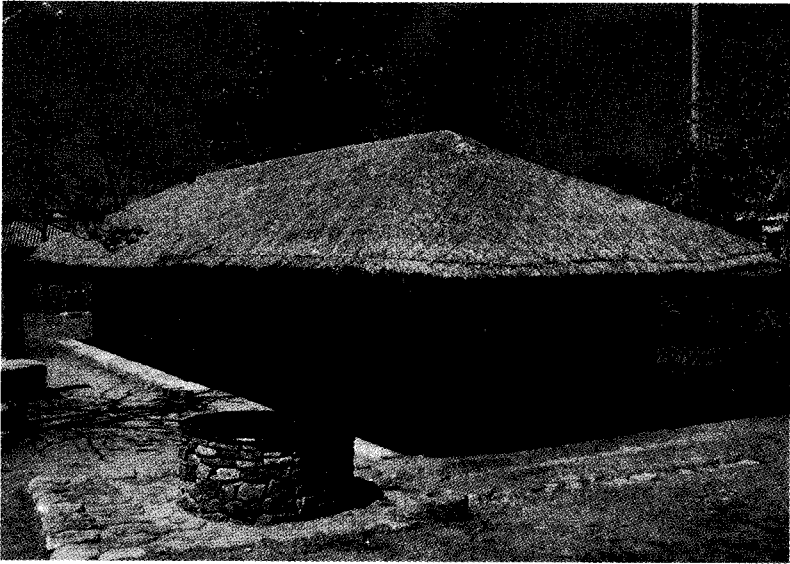
동불암마애불 /  
동학도들의 비결탈취사건  
으로 더욱 유명해진 마애  
불. 지장보살 신앙으로  
세상에 많이 알려진 도솔  
암 내원궁이 있다.



지는 매를 맞고 놓여났다.

마애불 위에 있는 내원궁 뜰 앞에 서 봐야 선운사에 다녀왔다고 말할 수 있다고 한다. 선운사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동백나무 숲이다. 절 뒤쪽에 5백여년 된 3천그루의 동백나무숲은 4월말이면 붉은 꽃을 송이채 떨어트려 장관을 이룬다.

**고창읍성과 신재효 고택** : 고창읍내에는 모양성이라는 이름으로 더 널리 알려진 고창읍성이 있다. 이 읍성은 전국에서 원형이 가장



신재호 고택 / 고창읍성 입구에 있는 동리 신재호 고택은 1979년 현재의 모습으로 복원되었다.

잘 보존된 조선시대 자연석 성곽으로 단종 1년(1453)에 세워졌다 고도 하고 숙종 때 완성되었다고도 하지만 분명하지는 않다. 다만, 성벽에 새겨진 글자 가운데 계유년에 쌓았다는 글자가 있어 계유년인 1453년에 세워지지 않았을까 추정한다. 여자들이 이 성을 쌓았다는 전설도 있다.

고창읍성에는 여자들이 돌을 머리에 이고 성을 밟으면 무병장수하고 죽어서 극락에 간다는 전설과 독특한 성밟기 풍속에 전해온다. 성을 한바퀴 돌면 다리병이 낫고 무병장수하며 세바퀴 돌면 저승길이 환히 트여 극락에 갈 수 있다는 것이다.

성밟기는 윤달, 그 중에서도 윤삼월에 해야 효험이 많다고 한다. 특히 초엿새, 열엿새, 스무엿새 등 여섯수가 든 날은 저승문이 열리

는 날이라 하여 더욱 많은 여자들이 다른 먼 지방에서까지 모여들었다. 성을 다 밟은 후에는 머리에 이었던 돌을 성 입구에 쌓아 두도록 되어 있다.

이 성을 여자들이 쌓았다는 전설을 제현하기라도 하는 듯한 이 성밟기는 겨우내 얼어부푼 성을 다지고 유사시에 대비하려는 슬기가 밴 풍습이다. 요즘에는 주로 음력 9월 9일에 열리는 모양성제 때 한다.

고창읍성 입구에는 1979년 복원된 동리 신재효 고택이 있다. 신재효는 1850년에 이 집을 지어 말년까지 살면서 집안에 노래청을 두어 명창들을 불러모으고 제자를 길러 냈으며, 춘향가, 심청가, 박타령, 가루지기타령, 토끼타령, 적벽가 등 판소리 여섯마당의 가사를 정리하고 이론을 세웠다.

이 여섯마당은 원래의 열두마당 중에서 그가 살던 무렵까지 전해지던 것들로, 그 가운데서도 가루지기타령(변강쇠타령)은 가사가 너무 음탕하다 하여 잘 불리지 않는 바람에 가락이 잊혀지고 오늘 날에는 다섯마당만이 전해 온다.

그는 본디 소리꾼이 아니라 재산이 넉넉한 중인 출신이었다. 그의 아버지는 관약방을 경영하여 재산을 모았는데, 그는 물려받은 부를 토대로 집안을 번창시켰다. 신재효는 관아의 이방과 이속의 우두머리인 호장이 되었으며 나중에는 통정대부와 가선대부 품계를 받기도 했다.

그는 스스로 도리화가, 성조가, 광대가 등의 작품을 남겼다. 그중 도리화가는 제자이자 애인이었던 진채선이 고종 4년에 경희루 완공 축하잔치에 갔다가, 홍선대원군의 인정을 받아 운현궁 ‘대령기생’

이 되어 돌아오지 못하자 애꿎고 그리운 정을 엮어 보낸 노래이다.

고창읍 인근에는 게르마눔 온천으로 유명한 석정온천이 있어 피로를 풀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 소태산 대종사의 9인제자

**정산 송규(鼎山 宋奎) 종사 (1900~1962)** : 정산종사는 어려서 유학을 배우며 “나도 장차 큰 공부로 천하의 주인이 되어 보리라”고 발심하여, 훌륭한 이인을 만나 나의 뜻을 이루리라 마음먹고 가야산등을 내왕하다 “내가 전라도를 가야 큰 공부를 성취하리라”며 전라도로가 정읍 화해에서 소태산 대종사와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 졌다.

약관 19세의 나이로 수위단 중앙에 서임된 후 정산종사는 법인성사와 변산에서 교법제정에 소태산 대종사를 보필하는 한편 창립인연을 규합하고 만고신의를 다 바쳐 새 회상 창립에 혈성을 다하다 소태산 대종사가 열반하자 종통을 계승하여 교단을 이끌었다.

소태산 대종사는 정산종사를 “내가 시켜서 아니한 일과 두 번 시켜 본 일이 없었고 걱정하여 본 일이 없었다.”며 “나의 마음이 그의 마음이고 그의 마음이 곧 나의 마음이라”하였다.

정산종사는 「원각가」를 발표하였고 《불법연구회창건사》를 집필하였으며 《대종경》 편수와 아울러 교화·교육·자선의 3방면으로 교단의 기틀을 다지고 원기 47년에 삼동윤리를 계승으로 남기며 열반하였다.

**일산 이재철(一山 李載喆) 대봉도 (1891~1943)** : 일산 이재철은 사산 오창건의 인도로 소태산 대종사와 사제지의를 맺었다.

일산 이재철은 소태산 대종사의 명에 따라 불갑사에 가서 금강경을 구해 스승께 바쳤으며 방언공사시 허가분쟁이 일어나 큰 곤경에 처했을 때 군청에 출입하는 등 정성을 다하여 위기를 면하게 하였다. 또 익산총부를 건설할 때도 은행외교로 경제토대를 세우는데 기여하며 원불교 초창기의 대외 간판 역할을 했다.

일산 이재철은 효성이 남달리 장하여 법인기도시 “창생을 위하여 이 한몸 죽는 것은 여한이 없으나 홀로 계신 모친이 걱정된다”하였으며 기도 마지막 날에는 환후 중인 모친에게 한약을 지어 인편에 전하기도 했다.

일산 이재철은 효심뿐만 아니라 천성이 온순·정직하여 누구를 대하나 화기로우며 겸손하여 「봉사가 만져봐도 양반」이라 했다. 또한 일산 이재철은 이동안을 소태산 대종사께 귀의시켜 이로인해 함평 이씨 가문이 이 회상에 귀의하고 그 가문에서 수십명이 전무 출신하여 교단 창립에 공헌하는 계기가 되었다. 일산 이재철은 소태산 대종사와 같은 해에 태어나 같은 해(원기28년) 열반하였다.

**이산 이순순(二山 李旬旬) 대호법 (1879~1941)** : 이산 이순순은 천성이 호걸다워 호탕하게 놀기를 좋아하는 성격을 가진 일면 온순다정하였다. 키가 크고 기상이 늙름하여 의용이 활발하여 창업기 교단에서 인화의 표본이 되었다.

이산 이순순은 소태산 대종사가 대각을 이루기 전부터 교분이 있었다. 이산 이순순은 소태산 대종사 구도 당시 분별없이 정(定)에

들어 생활의 곤궁함과 채무로 시달릴 때 파시로 유명한 신안군 탈이섬으로 장사 떠날 것을 권유해 함께 떠나 소태산 대종사가 백사람들에게 식량 등 물자를 대주고 잡아온 고기와 교환하여 방매하는 장사로 번 돈으로 채무를 상환하고 구도에 전일하게 한 계기를 만들었다.

이산 이순순은 방언공사와 법인기도시 사무여한의 서원을 올려 백지혈인을 나투었으나 전무출신을 단행하지 못하고 거진출진으로서 회상의 발전에 협력하였다.

거진출진으로 새회상 창업에 협력하는 이산 이순순에게 소태산 대종사는 “재가공부는 어떻게 하는가”라고 물었다. 그리고 “사람에게는 항상 동과 정 두 때가 있고 정정(定靜)을 얻는 법도 외정정과 내정정의 두 가지 길이 있다”고 공부길을 일깨워 주었다. 이산 이순순은 원기 26년 영광에서 열반하였다.

**삼산 김기천(三山 金幾千) 종사 (1890~1935) :** 삼산 김기천을 소태산 대종사는 “시비를 초월하고 희로애락에 끌리지 않는 부처”라고 칭찬했다. 외관상 훌륭한 외모뿐 아니라 인격, 지식, 덕행을 갖춘 공심가로 원만한 지도력을 갖춘 교단 초기의 대표적 인물이다.

원기 13년 삼산 김기천의 성리 설하는 것을 들은 소태산 대종사는 흡족한 웃음을 머금고 “삼산의 성리 설하는 것을 들으니 정신이 상쾌하다”며 새 회상 생김 이래 최초로 공식적인 견성인가를 내렸다.

삼산 김기천은 견성인가를 받은 이후 후진들의 요청으로 교리에 바탕한 한문공부를 위해 《철자집》을 저술했고 〈교리송〉 〈사은찬

송가) <심원송> 등 가사조의 글을 발표했다.

삼산 김기천은 원기 17년 부산 하단지부가 창설되자 교무로 임명되었다. 부산에서 교화에 전념하다 원기 20년 장티푸스에 감염되어 각처 동지의 지성기원에도 불구하고 부산 하단지부에서 46세를 일기로 열반하자 소태산 대종사는 비보를 받고서 “김기천은 나를 만난 지 18년 동안 일호의 사심도 내지 않은 불퇴전의 전무출신이요, 오직 희유(希有)의 공로자라”고 말을 마치지 못하고 통곡하였다.

**사산 오창건(四山 吳昌健) 대봉도 (1887~1953) :** 사산 오창건은 소태산 대종사를 뵈기만 하면 서 있는 곳이 비록 진흙땅이라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오체투지로 엎드려 지극히 공손한 예를 올리는 일호의 사심없는 대신심가였다.

방언공사시 고된 일과 중에서도 소태산 대종사가 “자, 시작하자” 하면 맨 먼저 일어나서 시작하고, 소태산 대종사가 변산, 만덕산, 내장산 등 다니는 곳에는 원산험로를 막론하고 식량을 지고 다니며 시봉하였다.

사산 오창건은 키가 크고 기골이 호걸다웠고 기력이 장하였으며 모습이 소태산 대종사와 비슷하여 뒤에서 보면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닮아 「작은 대종사」라고 불렸다. 총부 서무부장으로 소태산 대종사를 시봉하고 서울에 갔을 때 짐짝을 짊어지고 서울역에 다녀 오면서도 고역을 기쁨으로 감수하는 상없는 도인이었다.

사산 오창건은 후배들과 소태산 대종사가 없는 변산을 찾았을 때 봉래정사 어귀에 이르자 “종사님! 종사님! 창건이가 왔습니다.”고 눈물을 흘리며 외쳐 동행했던 후배들이 자신들의 신성을 새롭게 다

지기도 했다. 향내나는 공심가요 신심가였던 사산 오창건은 66세로 교단에 28년간 헌신하다 열반하였다.

**오산 박세철(五山 朴世喆) 대봉도 (1879~1926)** : 오산 박세철은 소태산 대종사가 대각을 이루자 칠산 유건의 인도로 집안 아저씨 되는 소태산 대종사와 사제지의를 맺었다.

오산 박세철은 방언공사 때에 9인선진 가운데 최고 연장자였으며 힘이 부족해서 직접 흙집을 지기가 어려우므로 밥 심부름, 물 심부름을 비롯 모든 잔심부름을 연하인 동지가 시키더라도 조금도 싫어하지 않고 자신의 소임임을 알고 기쁨으로 일하여 주위에 덕화를 퍼게 하였다. 그리하여 종전에 병으로 신음하던 몸이 약을 쓰지 않고도 회복되었다.

오산 박세철은 소태산 대종사 변산 봉래정사 행가시 배종하였다가 스승의 명에 의하여 영산으로 돌아와 구간도실의 수호책임을 맡았다. 우연히 내중병에 걸려 위태로웠으나 치료에 차도가 있자 전무출신하기 좋은 시기라 생각하고 익산총부로 나와 헌신하였다. 그러나 아쉽게도 원기 11년에 전일의 병이 재발하여 영산 자택으로 귀가하여 치료하였으나 병세가 호전되지 못하였다.

임종을 지켜보는 정산종사·삼산종사의 손을 잡고 “불초제(不肖弟)는 대종사님과 형님들을 길이 모시지 못하고 먼저 가게 되어 죄송합니다. 인도정 정의의 기초를 확립하시고 세계문명의 선구자 되어 주십시오”라는 부탁을 한 후 48세로 열반하였다.

**육산 박동국(六山 朴東局) 대호법 (1897~1950)** : 육산 박동

국은 소태산 대종사의 친아우로써 형이 대각을 이루자 제자가 되어 저축조합운동, 방언공사, 법인기도 등에 동참하였다.

일찍이 한문사숙에서 수학하였고 천성이 강직하였으며 기품이 호협하고 키가 크며 용모는 형인 소태산 대종사와 닮았었다.

육산 박동국은 법인기도를 마친 후 정신 육신 물질로 새 회상 창립에 힘껏 노력하였으나 얼마후 종숙(從叔)에게 출계하여 영광읍 연성리에 살면서 거진출진하였다.

소태산 대종사 모친 환우의 소식을 듣고 영광 본가에 가서 시탕을 하다가 아우 동국에게 일렀다. “도덕을 밝힌다는 나로서 모친의 병환을 어찌 불고 하리오마는 나의 현재 사정이 시탕을 마음껏 하지 못하게 … 너는 나를 대신하여 모친 시탕을 정성껏 하라. 그러하면 나도 허물을 만일이라도 벗을 수 있을 것이요, 너도 이 사업에 큰 창립주가 될 것이다” 하였다.

육산 박동국이 재가에 머물면서 모친의 시봉을 직접하여 소태산 대종사가 안심하고 새 회상 창립에 전념할 수 있게 하였다. 그 후 가사에 계속 종사하다 53세로 열반하였다.

**칠산 유건(七山 劉巾) 대호법(1880~1963)** : 칠산 유건은 소태산 대종사가 대각을 이루자 11세나 연상이요, 외숙임에도 불구하고 소태산 대종사의 덕화에 감동하고 새 회상 창립취지에 찬동하여 단호히 제자가 되었다.

칠산 유건은 소태산 대종사 앞에 앉을 때에는 반드시 무릎을 꿇고 앉았으며 꼭 「종사님」이라 불렀다. 혹 묻기를 “생질을 스승님으로 모시기가 어색하지 않느냐?”고 하면 “육신은 생질이지만 법은

지존의 스승이시다”고 하여 제자의 도리에 어긋나는 일이 없었다.

칠산 유건은 키가 크고 기상이 당당하며 특히 기력이 장하여 방언공사시에는 힘든 일을 도맡아 하였고, 범인기도 때에도 가장 멀고 험한 기도봉을 다녔다.

칠산 유건은 영산재방언공사 때 품팔이와 땅떼기를 하므로 후진들이 “일은 그만 두고 감독만 하시더라도 노임을 드리겠으니 그리하시라”고 해도 “과거에 칠산이지, 지금도 칠산이냐”고 하면서 9인선진 가운데 한 분이라는 상(相)이 없었다.

칠산 유건은 방언공사와 혈인기도를 마친 후 전무출신의 길에 나서지 않고 사가에 머물면서 거진출진의 길을 걷다가 83세를 일기로 9인선진 가운데 마지막으로 열반하였다.

**팔산 김광선(八山 金光旋) 대봉도 (1879~1939)** : 팔산 김광선은 소태산 대종사가 입정삼매시 지극히 간고한 생활을 보고 식사 등 물질 또는 정신적으로 자주 살림을 보조하고 공부하는 비용을 후원하며 고창 연화봉 등에 동반하여 공부를 하였고, 대각을 이루자 전일에는 호형호제하던 12살 아래인 소태산 대종사를 스승으로 받들고 첫 제자가 되었다.

소태산 대종사가 대각을 이룬 후 팔산 김광선을 불러 친히 문구(文句)와 시가 등을 불러주며 수필 편집케 한 것이 《법의대전》 《백일소》 등이 되었다.

팔산 김광선은 9인 제자 중 으뜸가는 기력과 가정 형편도 제일 넉넉하여 정신 육신 물질 삼방면으로 방언공사에 솔선수범 하였다. 방언작답 후 어느 때에는 제방이 무너져 뚫린 구멍으로 바닷물이

들어와 막으려고 애를 태우다가 “인력으로 저 구멍을 막지 못한다면 내 육신으로 막겠노라”며 바닷물에 뛰어들어 이를 막았다.

팔산 김광선은 소태산 대종사가 가장 허물없이 가까이 대하고 정이 깊이 든 제자로 21년간 헌신봉공하다가 영산교당에서 61세로 열반하였다.

중앙총부에서 팔산 김광선의 열반 비보를 접한 소태산 대종사는 비통해 하는 가운데 대각전에서 영혼천도를 위하여 <생사거래와 업보멸도>에 대하여 법문을 설하였다.

### 영산성지 관련 편편 법문들

원기 원년 3월 26일(양, 4월 28일)에 대종사 대각을 이루시고 말씀하시기를 “만유가 한 체성이며 만법이 한 근원이로다. 이 가운데 생멸없는 도(道)와 인과보응되는 이치가 서로 바탕하여 한 두렷한 기틀을 지었도다.” <대종경 서품 1장>

대종사 대각을 이루신 후 모든 종교의 경전을 두루 열람하시다가 금강경(金剛經)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서가모니불은 진실로 성인들 중의 성인이라”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스승의 지도 없이 도를 얻었으나 발심한 동기로부터 도 얻은 경로를 돌아본다면 과거 부처님의 행적과 말씀에 부합되는 바 많으므로 나의 연원(淵源)을 부처님에게 정하노라” 하시고, “장차 회상(會上)을 열 때에도 불법으로 주체를 삼아 완전 무결한 큰 회상을 이 세상에 건설하리라.” 하시니라. <대종경 서품 2장>

대종사 당시의 시국을 살펴보시사 그 지도 강령을 표어르써 정하시기를 “물질이 개벽(開闢)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하시니라. <대종경 서품 4장>

대종사 앞으로 시방세계 모든 사람을 두루 교화할 십인일단(十人—團)의 단조직 방법을 제정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이 법은 오직 한 스승의 가르침으로 모든 사람을 고루 훈련할 빠른 방법이니, 몇억만의 많은 수라도 가히 지도할 수 있으나 그 공력은 항상 아홉 사람에게만 드리면 되는 간이한 조직이니라 하시고, 앞서 고르신 구인제자로 이 회상 최초의 단을 조직하신 후 이 단은 곧 시방세계를 응하여 조직된 것이니 단장은 하늘을 응하고 중앙(中央)은 땅을 응하였으며 팔인 단원은 팔방을 응한 것이라, 퍼서 말하면 이 단이 곧 시방을 대표하고 거두어 말하면 시방을 곧 한 몸에 합한 이치니라” 하시니, 단장에 대종사, 중앙에 송규(宋奎), 단원에 이재철(李載喆), 이순순(李旬旬), 김기천(金幾千), 오창건(吳昌建), 박세철(朴世喆), 박동국(朴東局), 유건(劉巾), 김광선(金光旋)이러라. <대종경 서품 6장>

단원들이 방언 일을 진행할 때에 이웃 마을의 부호 한 사람이 이를 보고 곧 분쟁을 일으키어 자기도 간석지 개척원을 관청에 제출한 후 관계 당국에 자주 출입하여 장차 토지 소유권 문제에 걱정되는 바가 적지 아니한지라 단원들이 그를 깊이 미워하거늘,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공사 중에 이러한 분쟁이 생긴 것은 하늘이 우리의 정성을 시험하심인 듯하니 그대들은 조금도 이에 끌리지 말고 또는 저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지도 말라. 사필귀정(事必歸正)이 이치의 당연함이어니와 혹 우리의 노력한 바가 저 사람의 소유로 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양심에 부끄러울 바가 없으며, 또는 우리의 본의가 항상 공중을 위하여 활동하기로 한 바인데 비록 처음 계획과 같이 널리 사용되지는 못하나 그 사람도 또한 중인 가운데 한 사람은 되는 것이며, 이 빈궁한 해변 주민들에게 상당한 논의 생기게 되었으니 또한 대중에게 이익을 주는 일도 되지 않는가. 이 때에 있어서 그대들은 자타의 관념을 초월하고 오직 공중을 위하는 본의로만 부지런히 힘쓰면 일은 자연 바르게 해결되리라.” <대종경 서품 9장>

길룡리 옥녀봉(玉女峰) 아래에 이 회상 최초의 교당을 건축할 때, 대종사 그 상량에 쓰시기를 “사원기일월(梭圓機日月) 직춘추법려(織春秋法呂)” 라 하시고 또 그 아래에 쓰시기를 “송수만목여춘립(松收萬木餘春立) 계합천봉세우명(溪合千峰細雨

鳴” 이라 하시니라. <대종경 서품 12장>

원기 4년 7월 26일(양, 8월 21일)에 생사를 초월한 구인 단원의 지극한 정성이 드디어 백지 혈인(白指血印)의 이적으로 나타남을 보시고,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의 마음은 천지 신명이 이미 감응하였고 음부공사(陰府公事)가 이제 판결이 났으니 우리의 성공은 이로부터 비롯하였도다. 이제, 그대들의 몸은 곧 시방세계에 바친 몸이니, 앞으로 모든 일을 진행할 때에 비록 천신 만고와 함지 사지를 당할 지라도 오직 오늘이 이 마음을 변하지 말고, 또는 가정 애착과 오욕(五欲)의 경계를 당할 때에도 오직 오늘 일만 생각한다던 거기에 끌리지 아니 할 것인 즉, 그 끌림 없는 순일한 생각으로 공부와 사업에 오로지 힘쓰라. 하시고, 법호(法號)와 범명(法名)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의 전날 이름은 곧 세속의 이름이요 개인의 사사 이름이었던 바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은 이미 죽었고, 이제 세계 공명(公名)인 새 이름을 주어 다시 살리는 바이니 삼가 받들어 가져서 많은 창생을 제도하라.” <대종경 서품 14장>

대종사 영산(靈山)에 계실 때에 새로 입교한 교도 한 사람이 음식과 폐백을 갖 추어 올리는지라, 대종사 받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대가 이와 같이 예를 표하는 것은 감사하나 그대의 마음 여하에 따라서는 오늘의 정의가 후일에 변하기도 하니, 그대는 그 이치를 아는가. 그 사람이 사뢰기를 어찌 공연히 변할 리가 있겠나 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그대의 구하는 마음 여하에 따라 좌우되나니, 그대가 나를 상종하되 그 구하는 것이 나에게 있는 것이라면 영구한 인연이 되려 니와 만일 나에게 없는 것이라면 우리의 사귀는 오래 가지 못하니라.” <대종경 인도품 15장>

대종사 대각을 이루시고 그 심경을 시로써 읊으시되 “청풍월상시(淸風月上時)에 만상자연명(萬像自然明)이라” 하시니라. <대종경 성리품 1장>

대종사 영산에 계실 때에 창부 몇 사람이 입교하여 내왕하는지라 좌우 사람들

원불교 성지

이 꺼리어 사퇴기를 “이 청정한 법석에 저러한 사람들이 내왕하오면 외인의 치소가 있을 뿐 아니라, 반드시 발전에 장애가 될 것이오니, 미리 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좋을까 하나이다.” 대종사 웃으시며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은 어찌 그리 녹록한 말을 하는가. 대개 불법의 대의는 항상 대자대비의 정신으로 일체 중생을 두루 제도하는 데에 있거니, 어찌 그들만은 그 범위에서 제외하리요. 제도의 문은 도리어 그러한 죄고 중생을 위하여 열리었나니, 그러한 중생일수록 더 반가이 맞아 들어, 그 악을 느껴 스스로 깨치게 하고, 그 업이 부끄러워 스스로 놓게 하는 것이 교화의 본분이라, 어찌 다른 사람의 치소를 꺼리어 우리의 본분을 저버리겠는가. 또는 세상에는 사람의 고하가 있고 직업의 귀천이 있으나, 불법에는 차별이 없나니, 이 원리를 알지 못하고 다만 그러한 사람이 내왕한다 하여 함께 배우기를 꺼려한다면, 도리어 그 사람이 제도하기 어려운 사람이니라.” <대종경 실시품 7장>

대종사 대각하신 후 많은 가사(歌詞)와 한시(漢詩)를 읊어 내시사 그것을 수록하시어 법의대전(法義大全)이라 이름하시니, 그 뜻이 심히 신비하여 보통 지견으로는 가히 이해하기 어려우나, 그 대강은 곧 도덕의 정맥(正脈)이 끊어졌다가 다시 난다는 것과 세계의 대세가 역수(逆數)가 지내면 순수(順數)가 온다는 것과 장차 회상 건설의 계획 등을 말씀하신 것이었는데, 그 후 친히 그것을 불사르사 세상에 다시 전하지 못하게 하셨으나 개자태극 조판으로 원천이 강림어선절후계지심야(蓋自太極肇判元天降臨於先絶後繼之心也)라고 한 서문 첫절과 다음의 한시 열 한 귀가 구송(口誦)으로 전해지니라.

만학천봉답래후(萬壑千峰踏來後) 무속무적주인봉(無俗無跡主人逢)  
야초점장우로운(野草漸長雨露恩) 천지회운정심대(天地回運正心待)  
시사일광창천중(矢射日光蒼天中) 기혈오운강신요(其穴五雲降身繞)  
승운선자경처심(乘雲仙子景處尋) 만화방창제일호(萬和方暢第一好)  
만리장강세의요(萬里長江世意繞) 도원산수음양조(道源山水陰陽調)  
호남공중하처운(湖南空中何處云) 천하강산제일루(天下江山第一樓)  
천지방척척수량(天地方尺尺數量) 인명의복활조전(人名衣服活造傳)

천지만물포태성(天地萬物胞胎成) 일월일점자오조(日月一點子午調)  
 방풍공중천지명(放風空中天地鳴) 괘월동방만국명(掛月東方萬國明)  
 풍우상설과거후(風雨霜雪過去後) 일시화발만세춘(一時花發萬歲春)  
 연도심수천봉월(研道心秀千峰月) 수덕신여만곡주(修德身如萬斛舟)

〈대종경 전망품 2장〉

원기 2년 7월에 대종사께서 이 회상 최초의 단을 조직하실제 먼저 8인으로 8방의 단원만 정하시고 중앙위는 임시로 대리케 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이 자리에는 맞아들일 사람이 있느니라” 하시고 기다리기를 마지 아니하시더니, 드디어 정산종사(鼎山宗師)를 맞아 중앙위를 맡기시니라. 〈정산종사법어 기연편 1장〉

대종사께서 초창 당시에 몇몇 제자에게 글을 지으라 하시며 정산종사에게는 일원(一圓)이라는 제목을 주시매, 「만유화위일 천지시대원(萬有和爲一 天地是大圓)」이라 지으시니, 번역하면 만유는 일(一)로써 되고 천지는 크게 둥근 것이라 하심 이러라. 〈정산종사법어 기연편 2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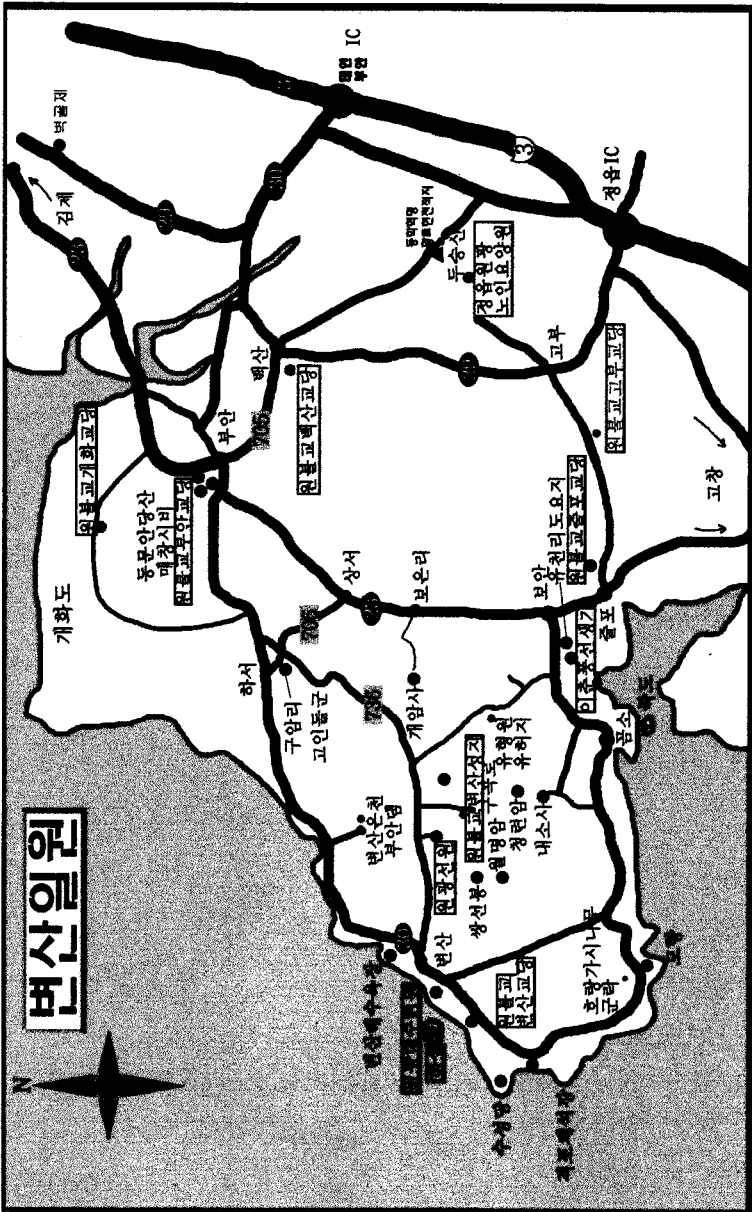
원기 4년 7월 26일(양, 8월 21일), 최후의 법인 기도 때에 대종사께서 구인에게 마지막 남길 말을 물으시니, 정산종사 사퇴기를 “저희들은 이대로 기쁘게 가오나 남으신 대종사께서 혹 저희들의 이 일로 하여 추호라도 괴로우실 일이 없으시기를 비나이다” 하시니라. 〈정산종사법어 기연편 3장〉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일찍 경상도에서 구도할 때에 간혹 눈을 감으면 원만하신 용모의 큰 스승님과 고요한 해변의 풍경이 눈 앞에 떠오르더니, 대종사를 영산에서 만나 뵈오니 그 때 떠오르던 그 어른이 대종사시요 그 강산이 영산이더라.” 〈정산종사법어 기연편 6장〉

## 변산성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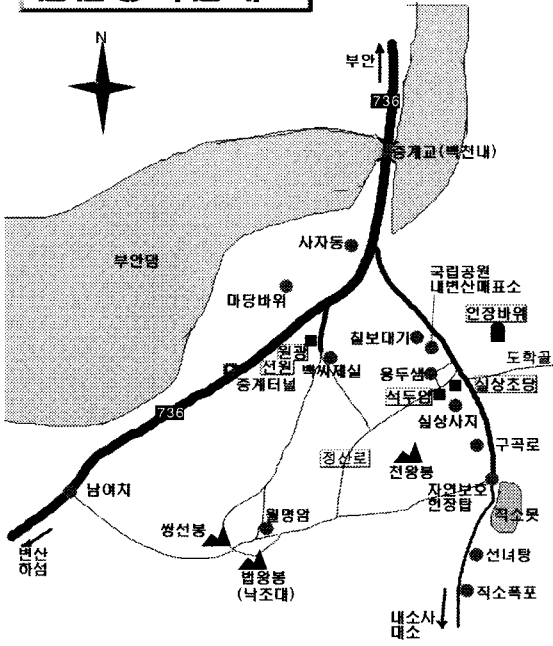
대종사 봉래정사에서 제자들에게 글 한 수를 써 주시되  
“변산구곡로(邊山九曲路)에 석립청수성(石立聽水聲)이라  
무무역무무(無無亦無無)요 비비역비비(非非亦非非)”라 하시고  
“이 뜻을 알면 곧 도를 깨닫는 사람이라”하시니라.

〈 대종경 성리품 11장 〉



원불교 성지

## 변산성지안내도



## 변산성지

◎ 연락처 : 579-850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중계리 226-1 변산 원광선원  
(0683) 582-8306, 584-7798

### 부안 변산

부안 땅은 내륙으로 김제, 정읍, 고창과 경계를 이루며 바다 쪽으로는 불쑥 나온 반도 꼴을 이루어, 서해 어부들의 기름진 어장인



직소폭포 / 변산구곡 중 제2곡에 해당되는 직소폭포는 변산 제1경에 해당한다.

칠산바다와 그 너머 위도면의 여러 섬들이 있다.

부안이라는 이름은 조선 태종 16년(1416)에 부령현과 보안현을 합친 후 두 곳의 이름을 한 자씩 따서 붙인 것이다. 이곳이 백제 땅이던 시절에 부령현은 개화현(皆火縣), 보안현은 흥량매현(欣良買縣)이라 불렀다. 능가산, 봉래산으로도 불리는 변산(邊山)을 옛날에는 변산(下山)이라 했다 한다. 삼국유사에는 삼한시대 변한(下韓)의 나라안에 변산(下山)이 있었기에 그 변산의 변(下)자를 따서 부르게 된 것이라 기록되어 있다.

변산은 이미 오래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명승지로 알려져 십승지지(十勝之地)의 하나로 꼽혔고 조선 8경 또는 호남 5대 명산의 하나로 꼽혀왔다. 한국전쟁 이전 이른바 공비 소탕 작전의 와중에서 많이 불타버리기는 했지만 고려 때에는 숲이 좋아 이 곳

에서 궁궐과 배를 짓는 목재를 내갔다.

변산의 가장 높은 봉우리인 의상봉의 높이가 509m로 그다지 높은 산은 아니지만 규모는 큰 편이어서 산자락 속에 암봉과 암벽, 아름다운 계곡, 그리고 내소사, 개암사, 월명암 등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명산이다. 변산반도는 1988년에 도립공원에서 국립공원으로 승격되었는데 계화와 줄포 사이에 이어지는 해안선을 바깥변산(外邊山)이라 하고, 내륙 쪽을 안변산(內邊山)이라 한다. 내소사에서 직소폭포, 월명암으로 이어지는 등산로와 서해낙조가 유명하다. 들판과 산, 바다를 고루 갖춘 부안은 고창과 함께 고인돌 밀집지역으로 구암리 고인돌군이 있고 고려청자를 구워내던 유천리와 진서리는 가마터가 즐비하다. 실학의 선구자인 반계 유형원의 자취가 어려있고 조선시대 여류 시인인 매창의 시심이 묻어있는 곳이기도 하다.

## 변산성지

소태산 대종사는 원기 4년 방언공사가 마무리 될 즈음에 영광 경찰서에서 1주일간 조사를 받고 나와 변산 월명암을 찾게 된 것이 부안 변산과 첫 인연이다. 그러나 대종경 천도품 25장에 의하면 “어느 날 아침 영광에서 부안 변산 쪽을 바라다보니 허공 중천에 맑은 기운이 어리어 있는지라 그 후 그 곳에 가 보았더니 월명암에 수도 대중이 모여들어 선을 시작하였더라...”고 소태산 대종사가 영광에서 월명암 쪽을 바라본 감상을 말했다.

원기 4년 법인성사를 나두고 먼저 정산종사를 월명암으로 보내고 소태산 대종사는 12월에 변산으로 입산을 하였다. 소태산 대종사 변산에서 5년간 머무르며 교법제정과 새 회상 공개를 위한 속세의 인연들을 만나는가 하면 한편 제자들에게 많은 법문을 하였다.

소태산 대종사 원기 9년 익산에서 새 회상 공개를 한 후 교화 기지를 익산으로 옮긴 후에도 변산시절 겪었던 한 이야기를 하시었다.

내가 봉래산 실상이란 곳에 있을 때 일이다. 하루는 통장수가 와서 동네 뉘 집에서 통매기를 시작하였다. 나도 구경하였으며 동네 사람들이 많이 모였었다. 그러나 구경한 동네 사람들은 다 통매는 법을 모르는 사람이라 그 통장수가 통을 잘 매는지 못매는지 아무 판단없이 들여다보고 섰을 뿐이었다. 때에 마침 어떠한 사람이 하나 와서 한참 동안 통매는 것을 구경하다가 통장수를 물끄러미 쳐다보며 “여보 통장수, 통을 매려거든 통 꼭지나 옳게 밖오” 하니, 통장수가 그 말을 듣고 낮빛이 붉으락 푸르락하며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손을 덜덜 떨면서 매어 놓았던 통까지 도로 와해되어 버리고 필경은 그 통을 매지 못하고 가게 되었다. 내가 그 두 사람의 뒤를 탐사하여 본즉 그 통장수는 과연 통을 맬 줄을 모르는 사람이 처음 나온 자이고, 통꼭지나 옳게 밖으라고 말하였던 그 사람은 참으로 통매는 상수(上手)라 하더라.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가 통매는 재주가 있었으므로 그 통장수가 통 잘 매지 못하는 것을 알지 않았는가. 그와 같이 도인이 아니고 어찌 도인의 깊은 뜻을 알며 참 지식이 없고 어찌 참 선생을 만나겠는가. 그러므로 그 사람이 아니면 그 사람을 모른다 하노라.

소태산 대종사가 떠난 봉래정사를 김남천 일가가 1년여를 수호하다 원기 10년부터 이춘풍 일가가 수호하고 그후 이보국, 전종환 등이 수호하다 실상동 주민 고진관 일가에게 위탁 수호하였다. 원기 33년에 사산 오창건의 발기로 석두암을 중수하였으나 원기 35년경

공비소탕 작전 중 소실되었다. 이후 교단의 손이 미치지 못하다가 원기 63년 원광선원을 인수하면서 이듬해 원광선원을 하섬수양원 변산분원으로 발족하고 그해 변산제법성지사업회가 발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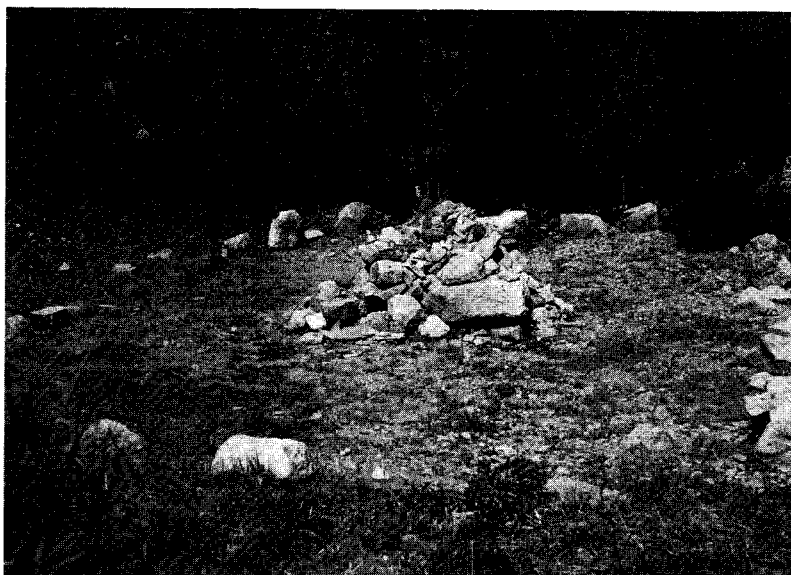
원기 65년 봉래정사 석두암터에 교강발표 60주년을 기념하여 일원대도비를 건립하고 이듬해에 대산종사 입석아래 일원대도비 봉고식을 거행하였다. 소태산 대종사가 교법을 제정한 봉래정사 인근을 원불교에서는 변산성지 또는 변산 제법성지라 부른다. 변산 일원에 소태산 대종사와 선진들의 자취가 어려있는 곳으로는 실상초당터, 석두암터, 월명암, 실상사, 구곡로, 정산로, 용두샘, 내소사, 곰소, 줄포, 이춘풍가 등이 있다.

현재 변산에 원불교의 기관으로 변산성지를 수호·관리하는 변산 원광선원과 하섬해상훈련원이 있다. 변산성지가 있는 내변산에는 소태산 대종사 제법당시 자연부락으로 실상동, 칠보대기, 사자동, 말마동이 있었으나 이농현상으로 인하여 몇 가호만이 내변산에 거주하고 있다.

변산성지는 천하의 대도요 만고의 대법인 일원의 원만한 진리에 근원하여 세계평화의 원리로 사은의 원만한 신앙과 보은의 법을 밝혀 주셨고, 세계 균등의 원리요 대도인 사오의 원만한 치국치평법을 밝혀 주셨고, 만생령 부활의 원리요 대도인 삼학의 원만한 수행법을 밝혀주신 대성지이다. <대산종사>

## 실상초당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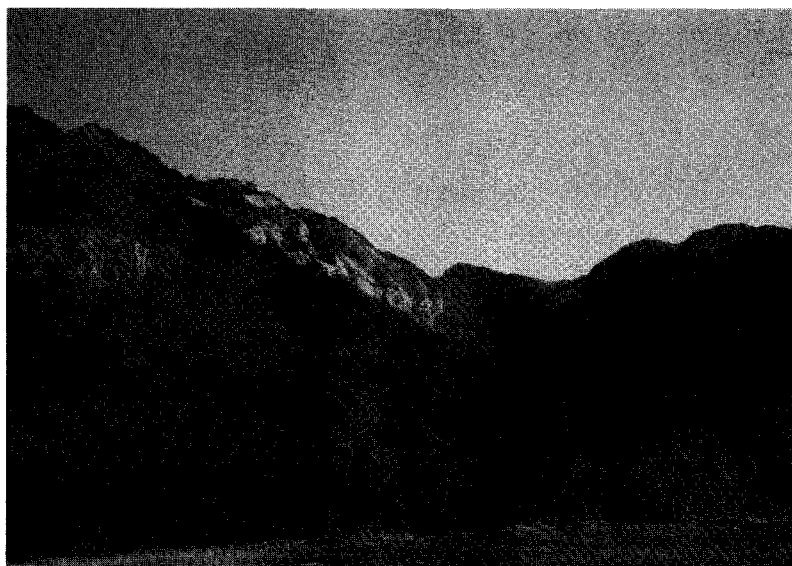
소태산 대종사 영산에서 변산으로 입산한 후 월명암에 임시 거처



실상초당터 / 소태산 대종사 교강을 발표하고 노부부의 실지불공 등 많은 범문을 한 곳이나 지금은 빈터만이 남아있다.

를 정하였다. 변산에 입산한지 얼마되지 않아 각지 제자들이 변산에 들어와 모시기를 간청하여 월명암에서 3km 정도 떨어진 실상사 옆 초가 삼간을 매입하여 새 거처를 마련하였다. 이 집을 실상초당 또는 실상초옥이라 불렀다.

소태산 대종사 실상초당에서 수양에 전력하고 있을 때 영광, 원평, 전주 등지의 제자들이 서로 연락이 되어 방문하는 인원이 점점 늘어났다. 이때 소태산 대종사 조석으로 범문을 설하고 시봉하는 제자들은 산전(山田)을 개간하여 생활하였다. 이때의 범문 요지는 대개 관심입정과 견성성불 하는 방법들이었다. 초가삼간인 실상초당에서는 송적벽과 김남천, 그리고 김남천의 딸 김혜월과 외손녀인 이청풍이 소태산 대종사를 시봉하며 생활하였다.



도학골 / 이 진사가 도를 닦았다는 도학골을 넘으면 청련암과 내소사가 나온다. 도학골은 제법성지 건너 골짜기이다.

소태산 대종사 원기 5년 3월에 불명(不明)한 자손이 타락하여 준비 귀천 다 겪으며 지내다가 문명되는 과정을 읊은 <회성곡>을 지었다. 소태산 대종사 이어 4월에 정식으로 교강(敎綱)을 발표하니 인생의 요도 사은사요와 공부의 요도 삼강령(삼학) 팔조목(팔조)이다. 이후부터 소태산 대종사의 교화방식은 교강의 이해를 통한 공부(훈련)에 방향을 맞추며 각지의 신자가 불어남을 보고 조단교화를 실험하기도 하였다.

소태산 대종사 실상초당에서 불공법을 알기쉽게 설명한 '노부부의 실지불공'에 대한 법문(대종경 교의품 15장)을 하는가 하면, 큰 비가와 초당 앞 층암절벽 위에서 떨어지는 폭포와 사방 산골에서 흐르는 물이 즐기치게 내리는 것을 보고 만법귀일의 소식이 이와 같

다고 한 성리법문 등 많은 법문을 하였다.

실상초당 건너편 골짜기는 소태산 대종사가 내소사를 거쳐 험한 청련암 뒷산을 넘어 봉래정사에 오던 길로, 제자들에게 이 진사 성도담에 대하여 가끔 이야기했던 이 진사가 도를 닦던 골짜기라 하여 도학골이라 부른다.

옛날 부안에 불교를 탐탁하게 여기지 않던 이 진사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여름, 하루는 내소사 근교에 다녀올 일이 있어 길을 나섰다. 갑자기 내린 소낙비에 쫓겨 내소사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게 되었다. 때마침 절 안에서는 스님들이 “대방광불화엄경, 대방광불화엄경”하고 경을 읽고 있는데, 이 소리를 듣던 이 진사는 “체, 대방광불화엄경이 다 뭐야”하며 빈정대다가 비가 그치자 곧 집으로 돌아와 낮잠을 자다가 머슴의 장작 패는 소리에 까무러쳐 죽고 말았다. 갑작스런 이 진사의 죽음에 집안 식구들은 야단이 났다. 이 진사가 죽어 혼백이 어디를 가는데 신선들이 바둑을 두는 모습이 어찌나 보기 좋은지 당장에 나도 저런 도포를 입고 바둑이나 두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세 신선 가운데 흰 도포를 입은 신선이 옷을 벗어주자 이 진사는 좋아 옷을 받아 막 걸치려고 하는 순간 “대방광불화엄경 한 번만 외운 사람도 축생보에 떨어지지 않는데 너는 왜 축생의 가죽을 돌려 쓰려고 하느냐”며 누가 크게 외치는지라 깜짝 놀라 깨어보니 집안식구들이 자기 옆에 앉아 울고 있었다. 이 진사가 머슴을 불러 꿈에 보았던 곳을 찾아보라 하였던 바 머슴이 돌아와 그곳에 방금 태어난 강아지 세 마리가 있는데 그 중 흰 강아지 한 마리가 죽어 있다고 했다. 깜짝 놀란 이 진사는 그 길로 출가를 단행해 집안 식구들 몰래 변산 골짜기에 초막을 짓고 도를 닦았다. 가족들이 수소문해서 찾아왔으나 세봉으로 올라가 만나주지 않고 수도에만 전념하여 깨달음을 얻었다.

교강발표와 많은 법문을 하셨던 실상초당은 총부건설을 위해 소태산 대종사가 봉래정사를 떠나자 김남천 일가에 이어 산 넘어 보안면 종곡에 살던 이춘풍 일가가 이사와 초당에 살면서 수호하였



석두암터의 일원대도비 / 교강발표 60주년 기념으로 교전모양을 형상화하여 일원대도비를 세웠다. 변산성지를 찾는 순례객들이 참배를 하는 곳이기도 하다.

다. 실상초당은 한국전쟁 이전 공비소탕작전 중 소실되어 현재는 그 터만 남아 있을 뿐이다. 봉래정사란 실상초당과 석두암을 합하여 부르는 이름이다.

## 석두암터

소태산 대종사 실상초당에서 제자들과 생활을 시작한 후 찾아오는 제자들이 갈수록 많아져 실상사 소유로 되어 있는 초당 바로 위에 집을 짓게 되었다.

월명암 주지인 학명선사가 터 주선과 재목을 보조하고, 송적벽은

기평(基平)을, 김남천이 목수 일을 맡아 원기 6년 8월에 착수된 초가삼간 집은 그해 10월에 준공되었다. 집이 완공되자 석두암(石頭庵)이라 이름하니 현판을 학명선사가 써 주었다. 소태산 대종사 석두암을 건축하고 나서부터 석두거사라는 칭호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석두암이 완공되자 실상초당은 여자 제자들이, 석두암 뒷방은 소태산 대종사가, 아랫방은 남자 제자들이 사용하게 되었다. 소태산 대종사 석두암에서 승려들과 교제함과 동시에 정산종사 등 제자들과 새 회상 첫교서인 《조선불교혁신론》과 《수양연구요론》을 초안하였다.

《조선불교혁신론》은 불교를 시대에 맞도록하여 대중교화를 하라는 것이요, 《수양연구요론》은 전문수양의 방법과 연구조목을 지정하여 공부인이 수양과 연구의 실지공부를 하도록 한 것이다. 《수양연구요론》은 총부 건설 후 원기 12년에, 《조선불교혁신론》은 원기 20년에 발간하여 초기교서로 사용되었다.

석두암은 소태산 대종사 교법제정과 함께 새 회상 공개를 위하여 제자들을 때로는 기다리고, 때로는 직접 찾으며, 정산종사 등 제자들로 하여금 인연을 맺게 한 후 만났다.

원기 8년에 김제에 사는 서중안 부부가 와서 “교통과 장소가 편리한 곳을 택하여 모든 사람의 앞길을 널리 열어 주심이 시대의 급무일까 하나이다.” 하며 지성으로 간청하였다. 이에 소태산 대종사 서중안에게 회상 열 준비를 착수케하여 원기 9년에 익산 보광사에서 불법연구회 창립총회를 열어 불법연구회라는 임시교명으로 새 회상을 내외에 공개하였다. 새 회상 공개 실무를 담당하게 된 서중안은 총부 건설기지 대금과 건축비 일부를 담당하였다.

원기 17년 봄, 이공주, 박창기 모자(母子)가 봉래정사를 답사하고 읊은 노래에서 봉래정사의 옛 모습을 그려 볼 수 있다.

정쇄(精灑)하고 깨끗한 봉래정사는  
도덕주인 종사주의 수양처라요,  
산상(산기슭)에다 초옥 수간 건립하고서  
방문 위엔 석두암의 현판 달렸다.

전면에는 사시 푸른 죽전(竹田)이고요  
후면에는 층암절벽 장쾌하다.  
감나무며 밤나무 등도 무성했으니  
이것들이 방가위지선과(方可謂之仙果)이로다.

소태산 대종사 석두암에서 학명선사가 이청풍에게 13세 각(覺)이라 하며 견성인가를 할 때 소태산 대종사 “앞으로는 그런 방식을 가지고는 견성의 인가를 내리지 못한다(대종경 성리품 18장)” 했던 성리법문과 소태산 대종사를 시봉하던 두 제자가 싸우고 떠날 것을 미리 경계(대종경 실시품 3장)하는 등 많은 법문을 하였다. <일원대도비>는 변산제법성지사업회가 제법성지 장엄공사 1차사업으로 교강(敎綱)반포 60주년 기념으로 석두암터에 세운 기념비다. 석두암터 좌측 자연석 위에 비각 4개와 기단 3개를 얹은 후 180cm의 오석(烏石)을 교전 모양으로 조각한 비신을 세웠다. 기념비의 높이는 지상에서 약 3.6m로 전면에는 대산종사의 휘호인 <일원대도>를 음각으로 세웠으며 뒷면에는 제법성지 내력을 적었다.

### 새 회상의 원음

여기는 원불교 제법성지 봉래정사 석두암터!



용두샘 / 소태산 대종사 변산시절 쓰시던 우물로 용두암 아래에 있다. 주산종사가 스승의 차탕기를 깨고 실심하던 곳이기도 하다.

원기 4년 기미 10월 소태산 대종사 변산에 드시어  
 월명에서 범인기도 회향하시고 이 아래 초당에서 새 교강 피신 후  
 여기 정사 짓고 갑자 4월까지 정산종사 등 2,3제자 데리시고  
 새 교법 제정과 숙연(宿緣)들 재우(際遇)로 새 회상 공개를 준비하시니  
 거룩할사 이 터전! 새 회상 원음의 산실이어라.

원기 65년 4월 변산제법성지사업회

일원대도 비에서 100m쯤 떨어진 곳에 소태산 대종사 당대에 쓰던 용두샘이라는 우물이 있다. 용두샘은 뒤에 우뚝 솟은 바위가 용두암(龍頭巖)이라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송도성이 16세에 형 정산종사의 인도로 소태산 대종사가 계신 석두암에 찾아와 출가 서원송을 올리고 출가하여 시봉하며 살고 있었다.

하루는 소태산 대종사 아침 식사를 마친 후 도성에게 차 그릇을

씻어 오라 했다. 도성이 용두샘까지 와서 씻다가 그만 차탕기 꼭지를 떨어뜨리고 말았다. 어른이 소중히 여기는 물건을 깨트린 도성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한 나절이 지나도록 차 그릇을 씻으러 간 도성이 오지 않자 소태산 대종사 나와보니 도성이 우물가에 앉아 실심하고 있었다. 도성이 사실대로 고백하자 소태산 대종사 “이미 깨어진 것이니 어찌겠느냐. 앞으로 조심하고 그만 들어가라” 했다고 한다. 용두샘은 지금도 많은 순례객들의 감로수 역할을 하고 있다.

### 실상사 터

변산에는 실상사, 선계사, 청림사, 내소사를 4대 사찰로 부르며 그 사찰 중에서 실상사를 으뜸으로 꼽았다. 실상사는 통일 신라시대 초의선사(草依禪師)가 창건하여 변산의 모든 사찰을 총괄하였으나 한국전쟁 이전 공비소탕작전 중 소실되었다.

실상사에는 고려 초기에 만들어졌던 관음상 상모(相貌)가 일품이었다는 기록이 있다. 실상사 부처님에게는 보화가 많이 들었다 하여 도적에게 파손을 당하였으나 보화는 없고 부처님의 복장에서 효령대군의 원문(原文)이 나왔다. 그 외에도 고사경급, 고인경, 화엄경소 등이 나왔으나 건물 소실과 함께 없어졌다.

소태산 대종사 변산에 계실 때 실상사에는 만허선사가 주지로 있었다. 소태산 대종사, 학명·만허선사와 선문답을 주고받으며 상호 내방을 하였다. 하루는 소태산 대종사 실상사에 갔더니 두 선사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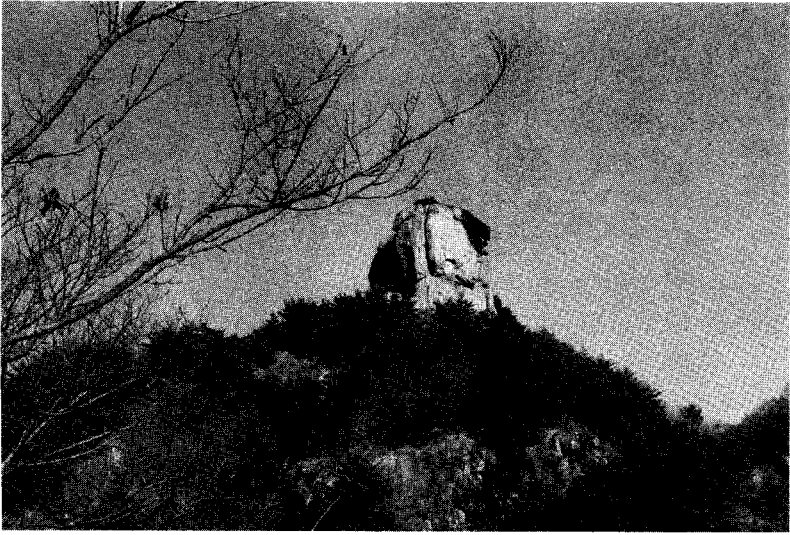


실상사터 / 한국전쟁 이전 공비소탕작전 중 소실된 뒤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다가 최근 조계종에서 나서서 복원을 준비하고 있다.

문중의 상좌를 꾸짖고 있음을 보고 소태산 대종사 인장바위를 가리키시며 비유하여 상좌 제도방법을 말씀하시었다.

대종사 하루는 실상사에 가시었더니, 때에 노승 두 사람이 한 젊은 상좌에게 참선(參禪)을 하라 하되 종시 듣지 아니한다 하여 무수히 꾸짖고 나서, 대종사께 고하기를 “저런 사람은 당장에 천 불이 출세하여도 제도하지 못하리니 이는 곧 세상에 버린 물건이라.” 하거늘 대종사 웃으시며 말씀하시기를 “화상(和尚)들이 저 사람을 생각하기는 하였으나 저 사람으로 하여금 영영 참선을 못하게 하는 것도 화상들이로다.” 하시니, 한 노승이 말하기를 “어찌하여 우리가 저 사람에게 참선을 못 하게 한다 하시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남의 원 없는 것을 강제로 권하는 것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영영 그 일을 싫어하게 함이니라. 내가 지금 화상에게 저 산의 바위 속에 금이 들었으니 그것을 부수고 금을 캐라고 무조건 권하면 화상은 곧 나의 말을 믿고 바로 채굴을 시작하겠는가.” 노승이 한참 동안 생각한 후에 말하기를 “그 말씀을 믿고 바로 채굴은 못 하겠나이다.”



인장바위 / 봉래정사의 앞산에 있는 우뚝 솟은 바위로 도장처럼 생겼다 하여 인장바위  
라 부른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화상이 그와 같이 확신을 하여 주지 않는데 내가 만일 강제로 권하면 화상은 어찌하겠는가. 필시 내 말을 더욱 허망하게 알고 말 것이니, 저 사람은 아직 참선에 대한 취미도 모르고 아무 발원도 없는데, 그것을 억지로 권함은 저 사람으로 하여금 참선을 도리어 허망하게 알게 함이요, 허망하게 아는 때에는 영영 참선을 아니할 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이는 사람 제도하는 묘방이 아니니라.” 노승이 말하기를 “그러하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제도하는 묘방이 되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저 바위 속에 금이 든 줄을 알았거든 내가 먼저 채굴하여다가 그것을 광채 있게 쓰면 사람들이 나의 부유해진 연유를 알고자 하리니, 그 알고자 하는 마음의 정도를 보아서 그 내역을 말하여 준다면 그 사람들도 얼마나 감사히 그 금을 채굴하려 할 것인가. 이것이 곧 사람을 제도하는 묘방일까 하노라.” 노승들이 고쳐 앉으며 말하기를 “선생의 제도하시는 방법은 참으로 광대하나이다.”

〈대종경 실시품 2장〉

훈산 이춘풍 선생은 〈변산가〉에서 인장바위를 “장(章)바우는 철



봉래구곡 / 변산구곡 중 제5곡으로 보통 봉래곡이라 이름한다. 대종사 변산시절 이곳에 다녀와서 “변산구곡로에 석립청수성”이라는 성리법문을 하시기도 했다.

주 중심 맹세하고 군신입조(群臣入朝) 도장치네”라고 노래했다. 실상사는 지금까지 폐허로 있다가 근래에 실상사 복원을 위하여 지표 조사와 발굴조사를 마치고 복원을 준비하고 있다.

## 봉래구곡

내변산에 흐르는 중계계곡은 지천으로 흩어져 있는 층암절벽, 구름도 머물다 간다는 기기묘묘한 봉우리와 계곡의 맑은 물이 조화를 이루어 봉래산(여름 금강산의 이름)이라 하기도 하고 소금강이라 불려진다.

구곡이라는 지명은 아름다운 계곡을 이름하는데 주자의〈무이구곡

가)에서 연유되었다 한다.

변산(봉래)구곡은 제1곡 대소, 제2곡 직소폭포, 제3곡 분옥담, 제4곡 선녀탕, 제5곡 봉래곡에서 제9곡까지 이어져 부안댐에서 바다로 이어지는데 봉래곡이 9곡 중의 중간이며 대표적이라 하여 봉래구곡이라 부르기도 한다. 이곳은 시인 묵객들이 시를 짓고 풍류를 즐기던 곳으로 바위에 봉래구곡이란 한자가 음각되어 있는 이 글씨는 구전에 의하면 정읍 태인 출신인 동초 김석곤(東樵 金皙坤)의 글씨라 전한다.

소태산 대종사 봉래정사에 계실 때 종종 제자들과 이곳에 다니곤 하였다. 어느 날 봉래구곡인 이곳에 다녀와 제자들에게 성리법문을 하시었다.

내 전일 한 생각을 얻은 후 모든 문자를 많이 기록하여 놓았다가 여러가지 사정으로 소화한 후 이것이 본시 나의 정신에서 나온 것이므로 나의 생전에 저술하기 용이한 줄 알았더니 이제는 여러 가지 사무에 끌리는 관계인지혹상기도 되고 정신이 혼미해지니 한이로다.” 하시고 시 두 귀를 써 주시며 “이 뜻을 알면 곧 도를 깨닫는 자이니라.” 하시었다. “변산구곡로에 석립청수성이라 무무역무무요 비비역비비로다(邊山九曲路 石立聽水聲 無無亦無無 非非亦非非 : 변산 아홉 구비길에 돌이서서 물소리를 듣더라. 없고 없다 하는 것도 또한 없고 없으며, 아니고 아니다 하는 것도 또한 아니고 아니로다.)

봉래구곡 뒤에는 천왕봉이 위용을 자랑하고 있다. 소태산 대종사 월명암에 임시 거주를 정하고 있을 때 영광 제자들에게 “무이산 아래 선경이 있네. 산아래 차가운 물이 골마다 맑게 흐른다. 그 가운데 절경을 알고 싶으면 노 젓는 소리 들리는 곳을 살펴보아라.”(10수 중 서곡)는 내용으로 시작되는 주자 <무이구곡가>를 써 보내 주었다.



월명암 전경 / 변산 법왕봉 8부 능선에 있는 천년고찰 월명암의 전경.

## 월 명 암

월명암(月明庵)은 1300여년전 신라 신문왕 때 부설거사가 변산 법왕봉 8부 능선에 창건하였다. 그 후 진묵대사가 중창하였고 성암 조사와 학명선사가 다시 중창하였으나 공비소탕작전으로 소실되었다가 다시 재건 과정을 거쳐 오늘날 모습을 갖추었다.

월명암에는 부설거사의 예언이라 하여 4성 8현 12법사가 나온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부설거사의 4권속에서 이미 4성이 나왔고, 8현 중 성암, 행암, 학명스님 등 3현이 이미 나왔으므로 앞으로 5현 12법사가 더 나올 것이라는 것이다.

소태산 대종사 영산에서 방언공사가 마무리될 즈음에 영광경찰서에서 1주일간 조사를 받고 나와서 사산 오창건과 변산 월명암을 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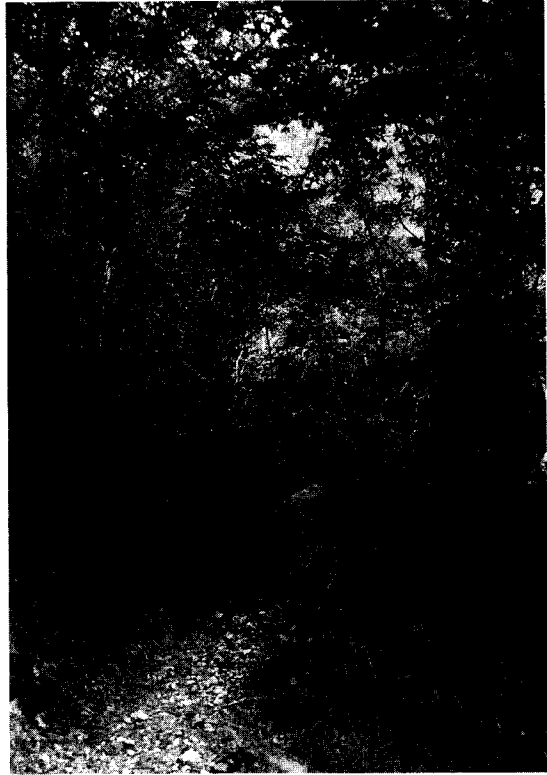
월명암 / 소태산 대종사와 정산종사가 한 때 머무셨던 월명암은 성지순례객들이 즐겨 찾는 곳 중 하나이다.

았다. 월명암에는 영광 불갑사 아래마을 출신인 주지 백학명 선사가 주석하고 있었다. 서로 뜻이 통하여 10여일을 머문 후 후일을 기약하고 영광으로 돌아왔다.

원기 4년 8월말 범인성사를 마친 소태산 대종사는 정산종사를 월명암 학명선사에게 보내어 제자로 임시 출가하게 하였다. 소태산 대종사는 정산종사를 월명암으로 보내며 “불경은 보지 말라” 하였다. 그러자 정산종사는 불경을 올려놓는 경사까지 외면하였다.

정산종사가 월명암에 온지 100여일 후인 12월에 소태산 대종사 오창건과 함께 월명암에 왔다. 소태산 대종사 영산에서 제자들과 범인기도를 마쳤으나 월명암 옆 쌍선봉에서 정산종사·사산 오창건과 함께 완전한 해제식을 하였다.

정산로 /  
정산종사가 밤으로 월명  
암에서 봉래정사에 있는  
소태산 대종사께 내왕했  
다는 산길을 후에 정산  
로라 이름 붙였다.



소태산 대종사가 월명암에서 절집 신세를 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  
지자 원평을 비롯한 각처에서 제자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이에  
소태산 대종사는 번거함을 느껴 학명선사의 주선으로 실상초당을  
매입하여 월명암에 온지 2개월만에 실상초당으로 자리를 옮겼다.  
하지만 정산종사는 월명암에 남아 학명선사의 상좌로 있어야 했다.

그러나 정산종사의 마음은 항상 실상초당에 계신 소태산 대종사  
께 가 있었다. 대중의 이목이 있어 마음대로 갈 수 없자, 정산종사  
밤중에 왕복 6km여의 길을 다녀오곤 했다. 정산정사 훗날 회고하길

“내가 깊은 밤중에도 걸음을 옮겼다 하면 봉래정사에 이르고 발을 들었다 하면 월명암에 갔었다. 그때 힘이 더 멎어진 것 같았다.”고 했다. 정산종사 1년 이상을 밤으로 소태산 대종사께 다닌 후 석두암이 건축되고 부터는 월명암에서 석두암으로 내려와 소태산 대종사를 보필하였다.

### 부설전(浮雪傳)

작자 연대 미상의 불교소설. 월명암 소장의 한문 필사본 1책이 현재로서는 유일본이다. 월명암의 초창자인 부설거사 일가의 성도담을 승전(僧傳)형식으로 소설화한 것이다.

신라 진덕여왕 즉위 초 왕도 남내에 진광세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영리하고 비범하였다. 다섯살에 불국사 원정선사의 제자가 되어 일곱살에 이미 법문에 깊이 통달하였다. 범명을 부설이라 하였다. 구도생활에 전념한 끝에 능가(지금의 변산) 범왕봉 아래 묘적암을 짓고 영조·영희 등과 함께 수도에 힘썼다. 그런 뒤 세사람은 문수도량인 오대산으로 구도의 길을 떠났다. 도중에 두릉 백련지 구무원의 집에서 잠시 머물며 범문을 가르쳤다. 주인에게 묘화라는 딸이 있었는데 부설의 설법을 듣고는 죽기를 한하고 그와 평생을 같이 하려 하였다. 출가한 몸인 부설로서는 애욕에 미혹될 처지는 아니었으나 자비보살의 정신으로 묘화와 결혼하고 머물러 살게 되었다. 두 벗은 부설을 남겨두고 오대산으로 떠났다. 세속에 머물러 수도하기 15년 동안 부설은 등운과 월명 남매를 두었다. 두 자녀를 부인에게 맡기고 자기를 병부라 일컫고는 수도에 전념하여 5년만에 크게 깨쳤다. 옛 벗 영조, 영희가 오랜 수도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부설을 찾아왔다. 세사람은 서로 공부의 성숙도를 알아 보기 위하여 물병 세 개를 달아놓고 각자 하나씩 썼다. 두 벗의 병은 깨어지면서 물이 흘러내렸으나 부설의 병은 깨어졌지만 물은 그대로 공중에 달려

浮雷傳

新羅真德女王啓祚年初王都南內  
 之香兒有陳氏之子名曰光世生而  
 穎悟解自天然屏童戲嬉不侔凡流  
 或而而移暮或林間燕坐逢僧則悅  
 豫見從則顛感迺往佛國寺投匭淨  
 師鳩車之齡落髮竹馬之齒通玄法名  
 浮雷字曰天祥霜松潔操水月虛襟裁  
 珠光而全定門幽而靜器字曰遠識度  
 通敏嶺南高德咸用器之外示僧法

부설전 /  
 월명암을 창건한 부설거  
 사 일가의 성도담을 소  
 설화한 책으로 월명암에  
 소장되어 있다.

있었다. 속세에 머물러 수도한 부설의 깨달음이 출가 수도한 두 벗을 앞질렀던 것이다. 그리고나서 부설은 선악이 울리는 가운데 입적하였다. 두 자녀도 출가 수도하여 열반하였고 아내 묘화는 110세를 누렸다. 산문의 선덕들이 두 자녀의 이름으로 암자를 지어 지금까지 등운암과 월명암으로 불려온다.

이춘풍가와 금소

훈산 이춘풍은 경상도 성주에서 사도에 빠져 영광으로 이사간 고모댁(정산종사 집안)을 고향으로 다시 모셔 가기 위해 영광에 왔다가 송벽조(정산부친)의 안내로 변산에 와 소태산 대종사를 뵈고 제자가 되었다.



이춘풍가 / 소태산 대종사를 비롯하여 제자들이 봉래정사에 드나들 때 중간 기착지로 사용되었던 곳이나 주인이 바뀌어 옛터에 새로운 집이 들어섰다.

고향 금릉(현 김천시)으로 돌아간 이춘풍은 집안을 정리하고 경순·정화 두 딸을 비롯하여 6명의 가족이 원기 7년 12월말에 소태산 대종사의 명에 따라 봉래정사 가까운 중곡에 집을 마련하고 이사를 하였다. 이춘풍이 이곳으로 이사를 오고부터 소태산 대종사를 비롯하여 모든 제자들은 이곳을 경유하여 봉래정사에 들어가고 나왔다.

소태산 대종사가 이춘풍의 집에서 저녁공양을 들게 되었다. 이경순이 밥상을 들고 들어왔는데 논고동회가 반찬으로 올라와 있었다. “이 논고동 누가 잡았느냐?” “어머니가 잡았습니다” “살생하면 못쓴다. 어머니의 정성을 생각해서 한 개만 먹겠다. 앞으로는 살생하지 말아라”

어느 여름날, 경순·정화 자매가 빨간 산딸기를 따다가 소태산 대종사에게

올렸다. “할아버님, 아주 맛있게 잘 익은 산딸기를 따왔어요. 한번 잡춰 보세요” “너희들이 나를 위해 산딸기를 따왔다니 참 잘했다. 그러나 내가 산딸기를 다 먹고나면 너희들이 또 산으로 짚신 신고 산딸기를 따러 갔다가 무서운 독사에게 발을 물리면 큰 일이다. 그러니 몇 개만 먹겠다. 다음부터는 산딸기를 따러 산으로 가지 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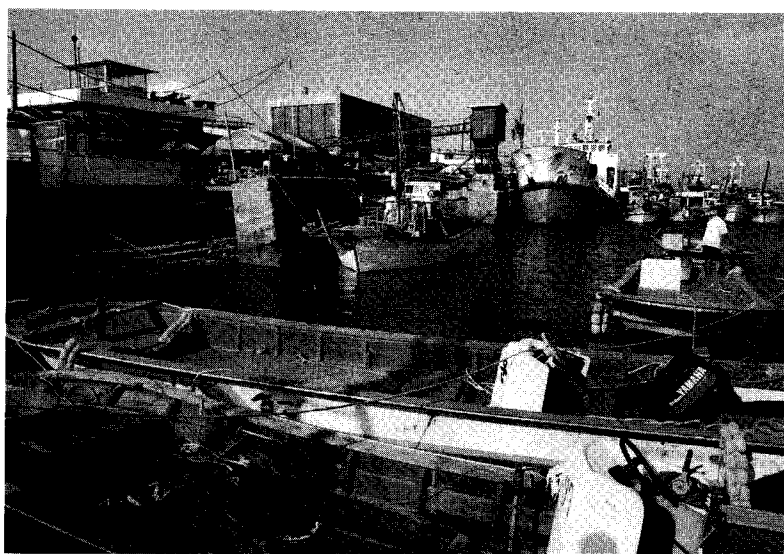
경순·정화 자매는 소태산 대종사의 귀여움 속에 자라 후에 전무 출신하여 교단의 큰 제목으로 활동했었다.

김남천 선진 등이 봉래정사에서 소태산 대종사를 시봉하기 위하여 바디재를 넘어 이춘풍의 집에 쉬었다 줄포장에서 쌀 등 생필품을 사서 지계에 지고 나르셨던 선진들의 신성이 담긴 곳이기도 하다.

이춘풍가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 우반동이다. 우반동을 맨 먼저 찾았던 외부 선비는 허균이었다. 공주 목사에서 파직하고 이곳 정사암(靜思菴)에서 있을 때 허균의 말벗은 부안기생 시인 매창(梅窓)이었다.

그 후에 실학의 선비로 반계 유형원이 정계와 발을 끊고 낙향하여 월봉(月峰)중턱에 집을 짓고 20여년 간 토지문제, 관리, 군대문제 등 전국의 당면과제를 저술한 반계수록을 완성하였다. 후에 실학자들에 큰 영향을 주었던 유형원이 평생 머물던 서당집은 잘 정돈되어 뜻있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소태산 대종사 변산에 첫발을 내딛었던 곳이 곰소항이다. 원기 4년 첫 변산 행가를 영광 범성에서 배를 타고 이곳에 내려 월명암을 가기 위해서 곰소 바닷가에서 1박을 하고 이튿날 떠나셨다. 그 후에도 영산 변산간은 주로 배를 이용하였다. 어느 날 영산에서 봉래



곰소항 / 소태산 대종사가 영산 변산간 내왕시 이용하였던 곳이다.

정사에 오시어 소태산 대종사께서 제자들에게 “운선(輪船)을 타고 오면서 물을 낚낚이 되어 보았고, 고기 수도 낚낚이 헤어 보았다.”(대종경 성리품 12장)고 말씀하시었다.

### 내소사와 청련암 길

내소사는 백제 무왕 34년(633)에 해구두타가 소래사를 창건한 것에서 비롯된다. 조선 인조 때 청민선사가 중건했으며 소래사였던 이름이 언제 내소사로 바뀌었는지는 알 수 없다. 일주문에서 천왕문까지 전나무 숲길은 내소사의 운치를 만끽하게 하고 대웅보전 꽃살무늬 창문이 시야를 사로잡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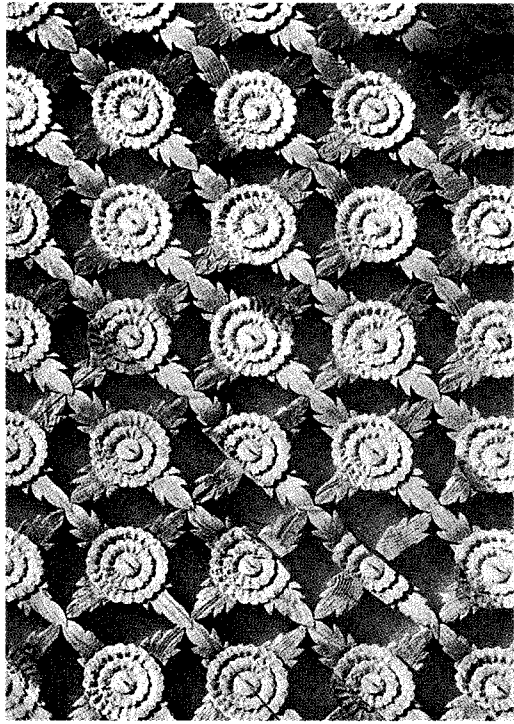
내소사 / 전나무 숲길로 유명한 내소사는 창살무늬 등 여러 문화재가 있어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다. 내소사 뒷산 세봉 7부능선에는 청련암이 있다.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영산, 변산 내왕시 곰소를 이용 할 때, 내소사를 간혹 들렸고 정산종사는 내소사 스님의 종기이야기(한울안 한이치)를 하며 운심처사에 신중을 기하라고 하였다.

내소사에 한 스님이 얼굴에 종기가 나서 많은 약을 써 보았으나 낫지 않아 고민하던 중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절 아래 마을 나무꾼들이 절 산에 나무를 하러 가면 스님이 절 산이라 하여 엄하게 제지하므로 나무꾼들이 원심이 가득하여 나무로 사람 하나를 깎아두고 내소사 중이라 하며 나무하러 갈 때 마다 한차례씩 때렸다. 이 사실을 알고 자신의 처사가 과했음을 알고 나무꾼들을 초청하여 술과 떡을 대접하고 사화(私和)했더니 약을 쓰지 않는 가운데 종기가 나아 버렸다. 현상없는 마음이나 천지기운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크게 작용하니 운심처사에 신중을 기하라

내소사 뒷산 세봉 7부 능선에 청련암이 있다. 소태산 대종사 원

내소사 국화문양 창살 /  
대웅보전의 국화·연꽃 무  
늻의 창살 문양은 많은 사  
람들의 시야를 사로잡아 발  
길을 멈추게 한다.



기 8년 신복리 종곡 이춘풍의 집에 들렀다가 이춘풍과 곰소를 거쳐 내소사를 구경하고 청련암의 가파른 길을 지나 세봉을 넘어 이진사가 도를 공부했던 도학골로 내려와 봉래정사에 오셨다. 이때 소태산 대종사 가파른 길을 오르시며 이춘풍에게 말씀하시었다.

험한 길을 당하니 일심공부가 절로 되도다... 대중이 한결 같아야 일행삼매의 공부를 성취하나니라.(대종경 수행품 34장)

또 소태산 대종사 제자들에게 내소사 공양주의 정신을 닮으라고 하시면서 공양주를 여래라 말씀하시었다.



변산원광선원 / 변산성지 수호관리 기관으로 성지순례시 순례객을 안내해 준다.

그 공양주는 평생동안 대중에게 공양주 노릇만 하였고 선(禪)공부는 한번도 안하였다고 한다. 그래도 공양주는 대중에게 밥을 해 주면서도 항상 즐거운 낙도생활을 하였으며 불평하는 마음이 없이 살았다 하니, 그 공양주는 마음이 운대에 참 공부길을 대중잡고 수십년 동안 동정일여 공부를 속으로 한 것이다. 하루는 공양주가 없어져서 찾으니까 뒷담장 옆에 앉아서 열반하였고 서기가 비쳤다고 한다. 그것이 좌탈입망한 것이니 공양주가 큰 도인이다. 너희들도 평생 똥지게만 지고 일만하라 한다면 불평없이 살겠는가 대조하여 보라.

### 변산 원광선원

개인 사찰인 「원광선원」을 변산성지 수호를 위하여 원기 63년에 인수하면서 원불교의 기관이 변산성지 인근에 생기게 되었다. 그리하여 6.25 전쟁 때 봉래정사가 소실된 후 변산성지를 관리하지 못하다가 성지장엄사업이 시작되었다. 원광선원을 인수한 후 그곳

정산종사 추모탑 /  
 원래 익산총부 영모전 옆  
 에 세워져 있었으나 새로  
 성탑이 조성되면서 해체되  
 었던 석물을 변산원광선원  
 뒷뜰에 옮겨 복원한 것이  
 다.



에 봉래수양원을 설립하고 성지수호와 수양원의 역할을 하도록 했으나 최근에는 변산원광선원으로 기관의 성격을 바꾸어 훈련과 성지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선원 후원에는 정산정사 추모탑이 모셔져 있다. 원래 익산총부 영모원 옆에 건립되어 있었으나, 소태산 대종사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새로 성탑이 조성되면서 해체되었던 석물을 원기 81년에 정산종사가 변산시절 소태산 대종사께 올렸던 만고신의(萬古信義)를 기리기 위하여 이곳으로 옮겨와 복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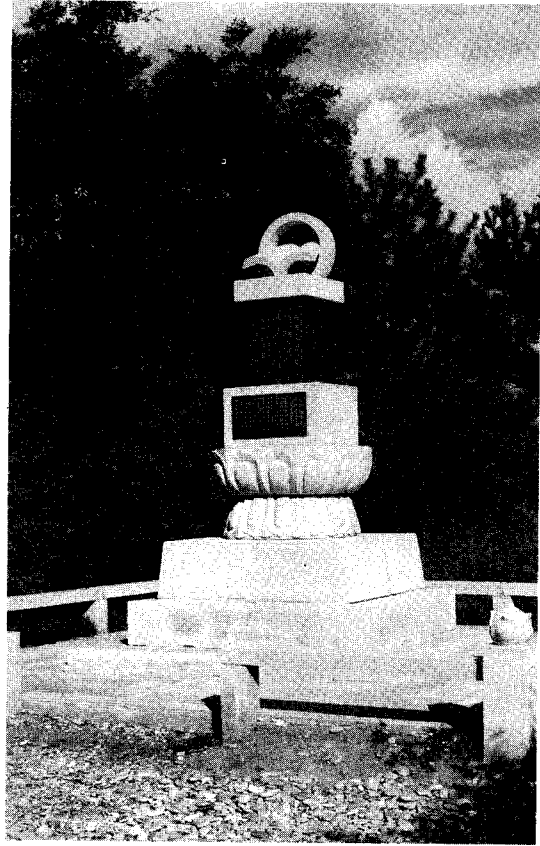
하섬과 고사포해수욕장 / 매월 (음) 15일과 그믐 무렵 육지까지 바닷길이 열려 걸어서 내왕할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정산종사 추모탑명** : 변산성지 월명암에 최초로 파송(派送)된 새 회상 법인 제자, 월명 실상간 험준한 정산로를 밤마다 오르내리시던 만고 신의의 혈성 제자, 실상초당 교강선포와 교서편정에 보필의 성(誠)을 다하신 편수제자, 내장(內藏) 만덕(萬德)을 거쳐 신룡(新龍)에서 법통(法統)을 이으신 종통여래(宗統如來) 정산종사를 이 추모탑으로 길이 기린다.

## 하 섬

하섬은 그 모양이 새우 허리처럼 굽었다 하여 새우하(鰕)자를 써서 하섬이라 했다. 그러나 변산 쌍선봉에서 법인기도 해제시 소태산 대종사와 정산종사가 이 섬을 바라보며 연못에 연잎이 떠 있는 것 같다하여 연잎섬, 연꽃섬이라 하였던 것을 원불교에서 섬을 인

원음탑 /  
정화사에서 원불교 교  
서를 편수한 것을 기리  
기 위하여 교서를 형상  
화하여서 탑을 세워 기  
리고 있다.



수하면서 지금의 하섬(荷島)이라 부르고 있다.

하섬은 육지와와의 거리가 1km 정도 되나 음력 1일과 15일을 전후해서 5일 정도씩 바닷물이 열리므로 걸어서 들어갈 수 있다. 대산종사는 원기 46년에 이 곳에 정양하면서 《정전대의》를 초안하였고, 원기 47년부터는 정화사가 예전, 성가, 정산종사법어, 교고총간 등을 편수한 편수도량이다. 따라서 원불교에서는 하섬에 원음탑을 세워 이곳이 편수도량임을 기리고 있다.

**하섬원읍탐** : 변산제법성지의 화룡점정 하섬은 원기 50년대에 새 회상 7대 교서의 편수도량이었다. 내변산 실상동에서 처음 퍼신 원음이 외변산 하섬에서 50년대 결집이라 기화자 원음 반백년 성지рода. 변산이여 새회상 일곱교서 네 등불에 엮어내고 인류의 합창곡을 네 장단에 읊었나니 두둥실 영광의 꽃섬 원음도량 하섬이여!

하섬에 전해오는 전설에 의하면 어떤 사연인지 하섬에 홀로 사는 어머니를 육지에 사는 아들이 매일밤 어머니를 그리다 어머니를 만날 수 있는 섬과 육지를 잇는 돌길을 만들려고 마음먹은 후 매일 돌 한 덩어리씩 안고서 바다에 길을 만들기 수십년에 길이 완성되었다. 인근 주민들은 그의 효심을 칭송하여 「효자길」 또는 「첫등바닷길」이라 칭하고 효성을 기리기 위하여 오래도록 제를 지낸 것이 연원이 되어 정월달에 효령제(孝靈祭)를 지내오다가 세월의 흐름에 따라 잊혀졌다. 하섬은 행정 구역상으로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마포리 하섬으로 하섬 안에는 해상훈원원이 있어 섬을 관리하며 찾아오는 교도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음력 매월 1일과 15일 전후에는 바닷길이 열리는 기간이므로 미리 연락을 하여 바닷길이 열리는 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전화 : 0683)582-8932 (본원), 583-8380(분원)>

## 화해제우지

정산종사 스승을 만나고자 전라도에 유력하다가 모악산 대원사에서 잠시 머물러 있던 중 김해운을 만나게 되었다. 김해운은 자기 집인 정읍 북면 화해리로 모시고 와서 정산종사의 수도(修道)에 편



화해제우지 / 소태산 대종사와 정산종사가 처음 만난 김해운의 집으로 지금은 변하여 옛모습을 찾을 수 없다.

의를 제공하며 만국의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에서 만국양반이라 불렀다. 이때 가끔 이적을 나투어 주위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다.

당시 김해운의 집은 살림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였다. 김해운과 아들 김도일은 정산종사에게 좋은 음식을 대접하지 못하는 것을 항상 송구스럽게 생각하였다. 하루는 김해운이 이웃마을에 사는 큰 딸네 집을 찾아가 반찬 걱정을 했다. “애야, 우리집에 귀한 분이 계신데 반찬을 변변하게 해 드리지 못하는구나” “귀한 분이러니요. 신분이 확실치도 못하고 아직 나이도 어린사람을 데려다 놓고 괜히 쓸데 없는 고생만 하시네요” 큰딸은 오히려 핀잔이었다. 큰 딸이 들로 일하러 나간 사이에 김해운은 마루 한귀퉁이에 달걀이 한 바구니나 담겨있는 것을 보고 몰래 버선목에 몇개 숨겨와서 정산종사 진지상에 반찬으로 올렸다. 첫 번째 밥상을 받고 정산종사는 맛있게 달걀 반찬을 먹었다. 그래서 다음에 또 달걀 반찬을 해 올렸다. 그러나 정산종사는 달걀반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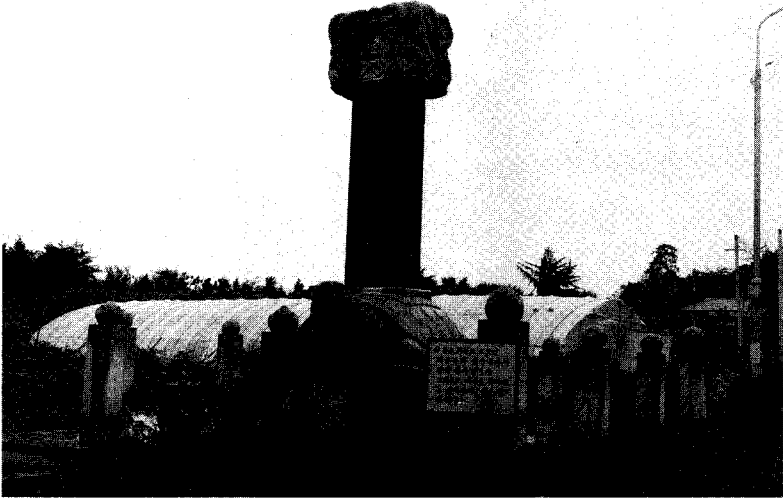
에 손이 가지 않았다. 그러면서 혼자말로 한마디 한다. “옛 말에 달걀 도둑질을 하면 당달봉사가 된다고 했는데…” 김해운은 짹짹 놀랐다. 속으로 “아무도 모르게 나 혼자서 한 일인데 어떻게 아실까?” 싶었다. 그러면서도 변명했다. “넉넉하게 많이 있는 딸자식의 것인데 그게 무슨 큰 잘못인가요” “아무리 딸네 집 것이라고는 하지만 딸과 의논없이 몰래 가져왔으니 그게 도둑질이지요” 정산종사는 태도가 엄숙했다. 김해운은 마음 속으로 크게 놀랐다. 이런 일이 있는 후 딸 몰래 달걀을 가져오는 일이 없었다.

한번은 날씨가 무척 가물었다. 마을 사람들이 애타게 비를 기다리고 있었다. 가뭄으로 농사가 흉년이 들 것 같았다. 이를보고 정산종사는 김해운에게 부탁하였다. “메밀 죽 조금만 쑤어 주시오” 김해운은 두 말 없이 메밀죽을 쑤었다. 정산종사는 메밀죽 동이를 들고 밖으로 나가더니 평소에 기도를 올리던 동산으로 가서 죽 붓고 나서 주문을 외우고 기도를 올렸다. 잠시 후 여기저기서 개구리떼들이 수없이 모여들며 개굴개굴 요란스럽게 울었다. 갑자기 하늘이 캄캄해지고 소낙비가 짹짹 쏟아져 가뭄이 해소되었다.

정산종사는 후일 이적에 대한 학인의 질문에 “그 때는 도를 몰랐기 때문에 부질없는 일이 나타났으며, 혹 때로 나도 모르는 가운데 이상한 자취가 있었다(정산종사법어 기연편 7장)”고 하였다.

원기 3년 소태산 대종사 친히 팔산 김광선을 데리시고 화해리 김해운 집을 방문하였다. 소태산 대종사는 정산종사와 ‘형제 의’를 맺고 그해 여름에 만나기로 약속하고 소태산 대종사는 영산으로 떠났다. 그 후 7월에 정산종사 영산에서 소태산 대종사와 재회하여 지난번 맺었던 「형제의」를 「사제의」로 고쳐맺고 사제지간의 예를 올렸다.

화해제우지는 소태산 대종사와 정산종사가 새 회상 창립을 위하여 숙겁에 맺은 인연이 처음 만난 교단사적인 곳이다. 이 거룩한 땅을 기념하기 위하여 원기 71년에 「화해제우지」 비를 건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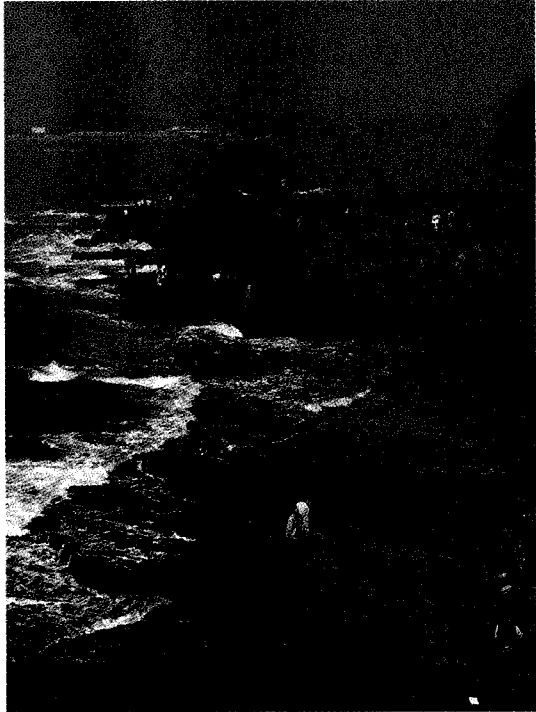


화해제우비 / 소태산 대종사와 정산종사의 만남을 기리기 위하여 마을 입구에 화해제우비를 세웠다.

기념비는 김해운의 집터에 세우지 못하고 50여m 떨어진 마을 입구에 세웠다. 화해제우지비 옆에는 원불교 화해교당이 자리하고 있다.

**화해제우지 비문** : 이 고장 화해리는 소태산 대종사와 정산종사께서 뜻깊은 제우(際遇)로 새 회상 창건의 추기(樞機)를 이룩하신 거룩한 땅이다. 새 회상이 동트는 병진(丙辰), 정사(丁巳)년 간에 정산종사 구도차 전라도로 오시어 정읍 고부 거쳐 모악산 대원사에 계시다가 숙연 김해운을 만나 이 마을에 머무시며 기도 주송으로 때를 기다리실제 소태산 대종사 영산에서 첫 수위단 짜시고 중앙위 재목을 구하시더니 원기 3년 무오(戊午) 4월 팔산 대봉도 데리시고 몸소 오시어 제우하신 후 약속대로 그해 7월 영산에서 재회하사 천지 팔방 응기(應氣)한 조단성사 완성되었다. 인하여 중앙문화원이 새회상 주요 사적지 기념비 건립운동의 일환으로 소태산 대종사가 2박 하신 객사터와 정산종사 머무시던 집 터 어간(於間)의 정자나무 아래 이 비를 세우노니 그

격포 채석강 /  
만권의 책을 쌓아 놓은  
듯하고 바다와 바위가  
어우러져 사계절 많은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다.



이름 뜻깊은 우담발화 꽃 바다여 그 향기 억만년 무궁화로 그윽하다.

### 변산성지 인근의 가볼 만한 곳

**채석강과 적벽강** : 채석강은 변산반도 서쪽 끝 격포항과 그 오른쪽 닭이봉 일대 1.5km의 층암 절벽과 바다를 총칭하는 이름이다. 바닷물의 침식을 받은 수성암층 절벽이 마치 만권의 책을 쌓아 놓은 듯하며 곳곳에 해식동굴이 있다.

이곳의 경치가 당나라 이태백이 배 타고 술 마시다가 물에 뜬 달

을 잡으려다 빠져 죽었다는 채석강과 비슷하다고 해서 채석강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이곳은 변산반도의 최선단으로 옛 수운(水運)의 근거지였으며 조선시대에는 전라 우수영 관할의 격포진이 있던 곳이다. 전라북도 기념물 제28호로 지정되어 있다.

채석강과 연이은 격포해수욕장을 지나 후박나무 군락이 있는 연안을 거쳐 수성당이 있는 용두산을 돌아 대마골 여우굴을 감도는 2km 가량의 해안선을 적벽강이라 부른다. 말 그대로 붉은색을 띠는 바위 절벽으로 이루어져서 특히 석양 무렵의 경관이 볼 만하다. 전라북도 기념물 제29호로 지정되어 있다.

적벽강에서 조금 더 오르면 죽막동 바닷가와 바닷가 시누대가 울창한 곳까지 오르면 끝에 수성당이 있다. 망망한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보이고, 또 바다에서 일하는 어부들 쪽에서 보더라도 가장 눈에 잘 띄는 만한 깎아지른 수십길 낭떠러지 위다.

수성할머니는 일명 「개양할미」라고도 하는데 우리나라 서해바다를 돌보는 수호신이다. 딸 아홉 중에서 여덟을 우리나라 각 도에 시집보내고(또는 칠산바다 각 섬에 보내 당산을 지키게 하고) 막내 딸을 데리고 수성당에 사는데, 키가 몹시 커서 굽 달린 나막신을 신고 서해바다를 걸어다니며 수심을 재어 어부들을 보호하고 풍랑을 막아 준다고 한다. 격포마을에서는 매년 음력 정월 초사흘에, 지난해 곳은 일 안 당하고 생기복덕한 제주를 뽑아 수성당에 삼색 실과와 술, 포 등을 차려놓고 정성껏 제사를 지내 풍어와 무사고를 벌고 있다.

**구암리 고인돌군** : 부안에서 변산반도로 들어서서 하서면에 이



구암리 고인돌군 / 변산으로 들어서는 초입 구암리 옛 민가 한울타리에 10기의 고인돌이 있어 청소년들의 교육장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르면 왼쪽으로 내변산 변산성지로 뚫린 길이 나온다. 그 길로 꺾어들어 얼마 지나지 않은 구암리 한 집 울타리 안에 10여기의 커다란 고인돌들이 모여있다. 구암리 고인돌군은 고창 상감리의 수백개 고인돌군과 함께 전북지방의 대표적인 고인돌군이다. 작은 돌들로 받치고 그 밑에 석관이나 적석부를 둔 이른바 남방식 고인돌이 많은데, 구암리 고인돌군은 그 중에서도 대표적이고 가장 규모가 큰 것들로 사적 제103호로 지정되어 있다.

원래 민가 울타리 안에 12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중 10기만이 확인되었다. 몇 그루의 아름드리 목은 뽕나무 길을 지나 제법 아담하게 둘러쳐진 돌담 한 칸에 난 문으로 들어서면, 윤기 자르르한 뽕죽잎의 호랑가시나무가 대여섯 그루 있는데 그 주변에 고인돌들



개암사 / 개암사 부근은 백제 부흥의 염원이 서려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이 있다.

가장 큰 것은 뚜껑들의 길이가 6.6m, 너비 4.5m, 두께 80cm인데 여덟 개의 작은 돌들이 받치고 있다. 모양은 타원형에 가깝고 가운데로 갈수록 두터워서 마치 거북바위 처럼 보인다. 이 거북바위들은 이곳 사람들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섞여 이 마을의 이름은 아예 구암리, 즉 거북바위 마을이다. 몇 년 전에 부안군에서 개인 소유의 민가를 매입하여 두 채의 집을 철거하고 담장을 수리하는 등 새롭게 단장을 했다. 변산 성지순례시 특히 청소년들은 교육상 한번쯤 들려 볼 만하다.

**개암사와 울금바위** : 개암사는 보안에서 부안을 향해 올라가다가 보은리에서 개암저수지를 휘돌아 거슬러 올라간 곳에 위치해 있

다. 절마당에 올라서는 순간, 두 팔을 번쩍 들고 착지하는 체조 선수처럼 경쾌한 대응보전 처마가 저 앞에 올려다 보이고, 그 뒤로는 울금바위를 내민 산자락이 튼튼하게 둘러서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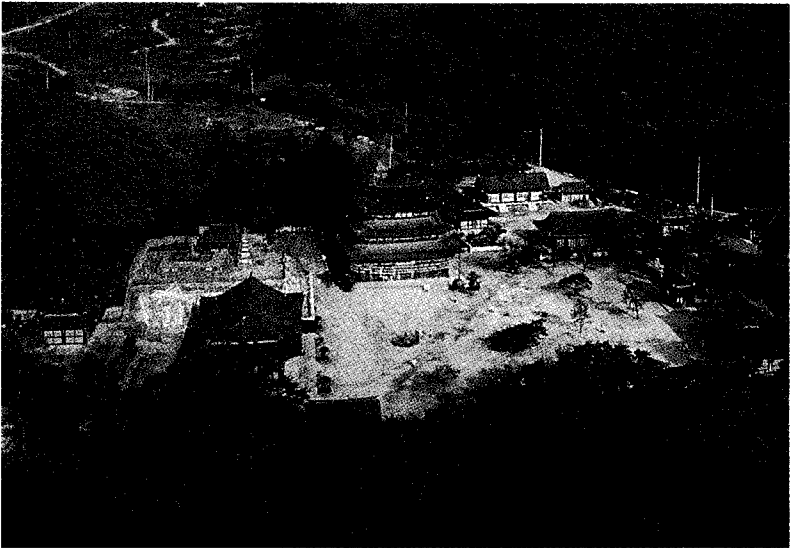
《개암사지》에 따르면 지금의 개암사 자리는 변한의 왕궁터였다고 한다. 기원전 282년에 변한의 문왕은 진한과 마한의 난을 피해 이곳에 성을 쌓으면서 우(禹)와 진(陳) 두 장수를 보내 감독하게 하고 좌우 계곡에 왕궁과 전각을 지은 후 동쪽 것은 묘암, 서쪽 것은 개암이라 불렀다.

우와 진이 죽고는 내란이 일어나, 문왕의 뒤를 이어 30년간 재위 하던 마연이 살해되었다. 변한의 유민들은 우와 진을 잊지 않기 위해 성위의 두 바위를 우진암이라 하고 바위가 서 있는 산을 「변산(下山)」이라 했는데, 나중에 말이 바뀌어 「변산(邊山)」이 되었다고 한다.

지금의 개암사는 백제 무왕 35년(634)에 묘연왕사가 변한의 궁전을 절로 고쳐 각각 개암사와 묘암사라 부르면서 비롯되었다. 개암사 뒤 산길로 30분쯤 걸어 올라가면 울금바위에 닿는다. 옛적 변한의 유민들이 우진암이라 불렀던 바위인데, 소정방이 김유신을 만난 곳이라 하여 우금암(遇金岩)이 되었다는 설도 있다.

이 울금바위를 기점으로 모두 3km 남짓한 석성의 자취가 남아 있는데, 특히 동쪽으로 뻗은 성터에는 높이 3m 가량의 성벽이 완연히 남아 있다. 원래 변한 사람들이 쌓은 석성으로 백제부흥운동의 중심지가 된 주류성이 바로 이 성이라고 전해지며, 성곽 안에는 백제 이궁의 흔적이 있다.

백제의 유민들이 나라를 찾고자 나당연합군과 마지막까지 왕자



금산사 / 진표율사에 의해 중창되어 대가람의 면모를 갖춘 금산사는 미륵전에 모신 미륵장륙상이 주세불로서 미륵신앙의 근본도량이다.

풍(豐)을 왕으로 옹립하고 복신과 도침이 중심이 되어 항전했으나 내분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린 백제 부흥의 염원이 서려있는 곳이다.

**금산사** : 금산사는 백제 법왕 원년(599)에 임금의 복을 비는 사찰로 처음 지어졌다. 창건 당시에는 소규모 사찰이었으나 신라 혜공왕 2년(766)에 진표율사에 의해 중창되면서 대가람의 면모를 갖추었다. 이때 진표율사는 미륵장륙상을 조성하여 미륵전에 모셨고, 금당 남쪽 벽에는 미륵보살이 도솔천에서 내려와 자기에게 계법을 주던 모습을 그렸다고 한다. 그 이래로 금산사는 미륵신앙, 즉 신라 오교의 하나인 법상종의 근본도량으로서 이 지역 불교문화의 중심

지가 되었다. 따라서 금산사에는 대웅전이 없고 미륵전에 있는 미륵불이 주불이며 석가불은 대적광전에 모셔져 있다.

한편, 스스로 미륵임을 자처했던 후백제 왕 견훤은 말년에 넷째 아들인 금강에게 왕위를 물려주려다가 맏아들인 신검을 비롯해 양검, 용검 등 아들들에게 붙잡혀 금산사에 유폐되기도 했다. 신검은 아버지를 금산사에 유폐하고 금강을 죽인 후 왕위에 올랐다. 석 달 동안 유폐 생활을 하던 견훤은 감시자들에게 술을 먹이고 금성(지금의 나주)으로 도망쳐 왕건에게 투항하고 자기 아들을 처줄 것을 요청했다. 왕건이 마침내 그의 아들들을 처 후삼국을 통일한지 며칠만에 견훤은 착잡한 번민과 울화에 싸여 등창이 나서 논산군 여산에 있던 황산사에서 죽었다.

미륵전 안에는 옥내 입불로는 동양에서 가장 큰 높이 11.82m의 미륵입상과 그 좌우에 높이 8.79m 되는 보살상이 모셔져 있다. 소태산 대종사는 영산에서 9인제자와 범인성사를 나투시고 정산종사를 변산 월명암으로 보낸 후 소태산 대종사는 팔산 김광선과 함께 금산사를 찾았다. 금산사 미륵전 뒤 송대 노전에 방 하나를 빌려 짚신을 삼아 원평장에 내다 팔며 1개월 여를 휴양하고 있었다. 소태산 대종사는 이 때 송대 노전 출입문 문설주에 처음으로 일원상을 그려 붙였다. 이 일원상은 후일 6·25 전쟁으로 총부에서 분실되고 말았다.

소태산 대종사 일행이 금산사에서 휴양을 하고 있던 어느 날 금산사 스님 한 분이 느닷없이 실신을 하여 절안 대중들이 소란을 피우고 어찌할 바를 몰랐다. 이를 딱하게 여긴 소태산 대종사가 스님의 이마를 만지며 묵념을 하자 곧 그가 회생하였다. 이 소문이 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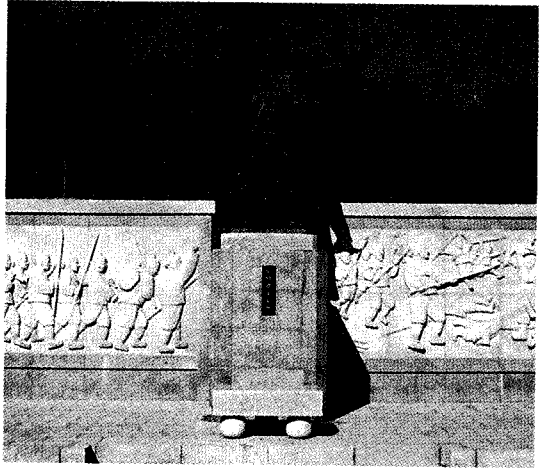


금산사 노전 / 금산사 미륵전 뒤에 있는 노전을 송대라 이른다. 소태산 대종사 송대 문미에 최초로 일원상을 그려 붙이셨다.

산사 일대에 퍼지자 김제경찰서에서 소태산 대종사를 소환하여 여러날 심문하였다. 경찰서에서 풀려난 후 소태산 대종사는 영광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당시 금산사 주변에는 강증산 신도들이 증산 사후 10년 부활설로 많이 모여있어 강증산 신도 몇 사람을 만났고 이들이 원불교 초창기의 중요한 창립 인연이 되었다. 금산사 산 넘어에는 정산종사가 소태산 대종사를 만나기 전 잠시 머물렀던 대원사가 있다.

**동학혁명 유적지** : “새야 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수 울고 간다.” 녹두장군 전봉준은 1885년 3월 29일에 손화중, 김덕명 등 다른 혁명지도자들과 함께 교수형을

동학유적지 /  
황토현 전적지에 세워진  
전봉준 장군 동상.



당했다. 동학혁명의 실패와 전봉준 장군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부르던 노래다. 노랫말에 나오는 파랑새는 전봉준의 성(姓)인 전(全)자를 풀어 팔왕(八王)새라 한테서 유래했다고 한다.

1884년 갑오동학농민혁명은 우리나라 근대사에 큰 선을 그은 최대 사건으로 근 1년 동안 전국에 걸쳐 광범위하게 전개되었다. 그 가운데서도 전라북도 무장, 정읍, 고부, 태인, 전주, 원평 일대는 농민혁명이 시발된 곳이자 전봉준, 김개남, 손화중 등 주요 지도자들의 중심적인 활동무대로 농민군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고 내력이 얽히지 않은 데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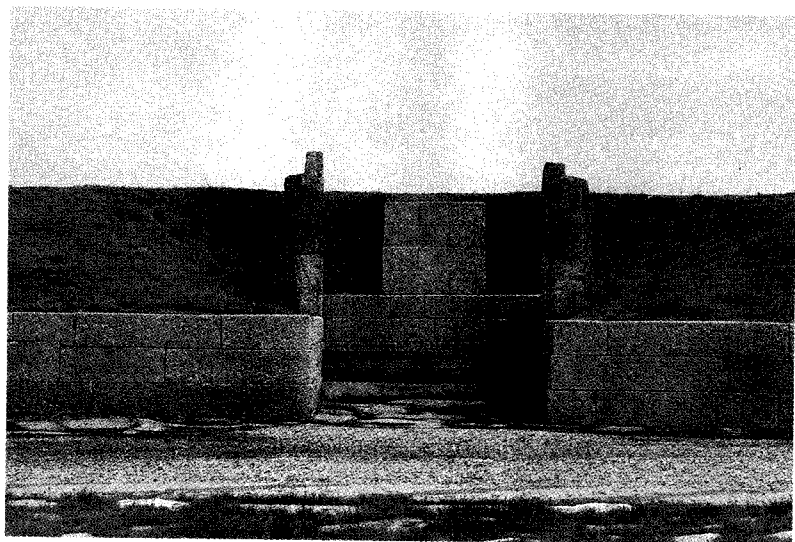
농민혁명의 직접적인 계기는 고부군수 조병갑의 탐학에 대한 항거였지만 조선의 봉건사회의 모순을 지양하고 외세를 극복하여 주체적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가려는 큰 몸부림이었다. 정읍 두승산 일대는 농민혁명의 불길이 오른 곳으로 농민혁명의 발자취를 찾아가는데 첫 번째 중요한 지역이다. 전봉준 등 농민군 지도자들이

고부봉기를 모의하고 사발통문을 작성한 고부 죽산마을, 조병갑이 물세를 받기 위해 만든 이평 만석보터, 고부봉기 당시 농민들의 집 결지였던 이평 삼거리 말목장터, 지금은 고부초등학교가 된 고부관아터, 농민군의 최대지도자 전봉준의 옛집이 복원된 장내리 조소마을, 1차봉기 당시 호남창의 소가 설치되었던 부안 백산, 농민군이 관군과 맞붙어 처음으로 승리를 거두고 이후 농민전쟁의 전개에 큰 힘이 되어 주었던 황토재 전투의 흔적이 서린 황토현 전적지에 세워진 기념탑 등이 모두 이곳을 중심으로 위치해 있다.

황토현 전적지에 세워진 기념관에는 농민전쟁 당시를 생생하게 그린 기록화 4폭과 전봉준 장군의 유품, 사료 및 당시의 병기 등 104점이 전시되어 있고, 구민사에는 전봉준, 김개남, 손화중과 농민혁명참전 제위의 위패가 모셔져 있다. 또 이 곳에는 전봉준 장군상 및 농민혁명군의 부조물이 건립되어 농민군의 그 때의 함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고 있다. 이곳 전라북도 일대에는 풀도 흙도 스치는 바람도 모두 그날 농민혁명군의 염원과 혼을 담고 있는 것들 뿐이다.

**김제 벽골제** : 김제 벽골제는 김제에서 신태인 방향으로 6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벽골제는 제천의 의림지, 밀양의 수산제와 함께 삼한시대의 저수지로 잘 알려져 있으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저수지로 오늘날 사적 제111호로 지정되어 있다.

벽골(碧骨)이란 푸른 말뼈를 묻고 독을 쌓았다는 설화에서 나온 이름이라고도 하나 백제 때 김제의 지명인 벗골을 한자로 옮겨 적는 과정에서 유래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독은 원래 다섯 개의 수문



김제 벽골제 / 벽골제는 삼한시대의 저수지로 그중 그 규모가 가장 컸다.

을 가지고 있어 금만평야 일대에 물을 대었다고 한다. 실제 조선 태종 때 벽골제 수리공사는 장정 1만명에 사무직 300명이 동원된 대규모 공사였다 하니 그 규모를 짐작할 만 하다.

그 공사의 규모를 말해 주듯 포교리에는 신털피(草鞋山)와 되배미가 남아있다. 신털피는 벽골제 공사에 동원되었던 일꾼들이 신에 묻은 흙을 털거나 낡은 짚신을 버린 것이 쌓여 언덕을 이룬 곳이며, 되배미는 수많은 일꾼을 일일이 셀 수가 없어서 5백명들이 눈을 만들어 되로 되듯이 한꺼번에 세었다는 이야기가 얽힌 논이다. 현재 벽골제에는 단야각이 있어 벽골제에 얽힌 단야의 전설을 전해 주고 있다.

벽골제 부근에 있는 두 개의 용추에는 각각 백룡과 청룡이 살았다. 백룡은

성질이 착했지만 청룡은 심술궂어서 때때로 성을 내며 독을 무너뜨리곤 했다. 한편, 신라 원성왕 때 벽골제 보수공사를 위해 이곳으로 파견된 원덕량은 김제 태수의 집에서 지내며 공사를 감독했다. 태수의 딸 단야는 점차 원덕량을 사랑하게 되었지만 그에게는 고향에 월내라는 약혼녀가 있었다.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어 갈 무렵, 청룡이 성을 내어 독 한 군데를 무너뜨려 버렸다. 처녀를 용에게 바쳐야 공사가 무사히 끝날 것이라는 공론이 돌던 가운데, 마침 월내가 원덕량을 만나러 김제로 왔다. 김제 태수는 월내를 보쌌하여 용에게 바칠 계획을 세웠고, 이것을 안 단야는 스스로 재물이 되어 독을 완성시키고 자신이 사랑하는 원덕량이 월내와 혼인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전설 내용을 계승한 쌍룡놀이가 민속놀이로 오늘날도 전승되고 있다. 김제시에서 벽골제를 관광지화 하면서 이곳에 벽골제 수리 민속유물전시관을 개관하였다. 최신식 시설로 농경문화의 기원과 수리의 역사, 수전농경의 요람, 그리고 황금 들녘인 김제의 문화와 역사를 볼 수 있게 전시하였다. 이곳은 수리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옛모습을 볼 수 있는 좋은 산 교육장이다. 전시관은 매주 월요일이 휴관이며 전화는 0686) 540 - 3225, 3325이다.

## 변산성지의 인연들

**각산 김남천(角山 金南天) 정사(1869-1941) :** 소태산 대종사께 50세가 넘어 귀의하여 노구를 이끌고 변산 제법 당시부터 익산 총부 건설에 이르기까지 신성을 일관한 각산 김남천은 많은 일화를 남겼다.

각산 김남천은 송적벽의 친구로 같은 날 소태산 대종사의 제자가

되었다. 그 뒤 소태산 대종사 변산 월명암에 임시 의탁하여 지내는 것을 송구히 여겨 자신과 함께 홀로된 딸 김혜월과 외손녀 이청풍으로 하여금 실상초당에서 소태산 대종사를 시봉토록 하였다. 또한 둘째 사위 박원석은 총부기지 확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고, 종질녀인 이청춘은 총부 창립 당시 생활 방로가 막연할 때 사재 논 70두락을 희사하여 유지 대책의 활로를 여는 등 가족 모두가 초창당시에 큰 역할을 하였다.

각산 김남천은 목수로 집 짓는 일에 능하여 변산 석두암, 영산 영산원, 익산 도치원을 짓는데 실제 공사를 맡아 일했다. 변산 봉래정사에서는 노구에도 불구하고 왕복 90여리의 험한 산길을 걸어 줄포장까지 지계집으로 식량과 생필품을 조달하면서도 소태산 대종사를 시봉하는 재미로 항상 낙도생활을 하였다.

봉래정사에서 송적벽과 김남천이 어느 날 싸운 뒤 송적벽은 떠나고 각산 김남천은 소태산 대종사의 미리 경계하심을 생각하여 남아서 평생 성훈을 지켰다(대종경 실시품 3장). 친구인 송적벽이 신비한 자취를 구하는 반면 각산 김남천은 성리연마와 도덕회상 건설에 더욱 재미를 붙였다.

각산 김남천은 평소에 술을 좋아했다. 그런데 어느 날 소태산 대종사가 금주령을 내렸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술을 끊기란 쉽지 않았다. 하루는 도치재 주막에 술국 냄새가 구수하게 나자 각산 김남천은 주막 앞을 왔다 갔다 하며 “이 놈 못 끊어!” 하며 도심(道心)이 인심(人心)을 호령하여 결국 술을 끊고 말았다.

각산 김남천은 소태산 대종사와 목우법(牧牛法)에 대한 문답(대종경 수행품 54장)을 하는 등 많은 가르침을 받았다. 원기 26년

73세로 지팡이에 의지하여 조실을 찾았다. 죽기전 소태산 대종사께 견성인가를 받기 위해서였다. 그로부터 사흘 뒤 열반하자 소태산 대종사 대중들에게 “남천이와 같은 신앙심과 원력이 있으면 다음 생애에는 쉽게 견성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었다.

**하산 송적벽(夏山 宋赤壁) 선생(1874-1939)** : 정산종사의 연원으로 입교하여 소태산 대종사 봉래정사 시절에 측근에서 시봉을 하였다.

하산 송적벽은 본시 충청도 사람으로 강증산(姜甌山)을 믿고 따르게 되면서 김제 원평으로 옮겨와 옛방을 하면서 살고 있었다. 하산 송적벽은 옛방을 하며 모든 태을교 도꾼들의 연락을 담당한 관계로 정산종사 전라도에 건너와 구도할 당시 인연을 맺게 되었다.

하산 송적벽은 소태산 대종사가 휴양차 금산사를 찾았을 때 인연이 되어 제자가 된 후 소태산 대종사 변산 월명암에 임시 거처를 정하고 있을 때 김남천과 더불어 찾아가 모시기를 간청, 실상초당을 매입하고 소태산 대종사를 시봉하는 한편 원기 6년 석두암 건축을 착공하였을 때 석벽을 쌓고 토역을 하며 김남천과 큰 역할을 해 완공하기도 했다.

하산 송적벽은 증산계열의 많은 여신도들을 소태산 대종사 문하로 이끌고 왔다. 그러나 개혁사상과 신비한 자취를 구하는 신앙에 열심이었던 하산 송적벽은 소태산 대종사가 불법을 주체로 성리를 주로 설하매 이에 크게 실망하고 있던 중 친구 김남천과 심한 의견다툼을 하고 소태산 대종사의 문하를 떠나고 말았다. 이 때의 상황이 《대종경》 실시품 3장에 수록되어 있다.

그는 비록 봉래정사를 떠났지만 원기 9년 봄에 이웃에 사는 독실한 기독교 장로인 한의사 조송광을 소태산 대종사와 만나도록 주선하여 소태산 대종사 문하로 이끌었고 다시 익산총부 건설 당시 찾아와 총부건설에 참여하여 총부 유지대책의 한 방면인 엇굽는 일에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소태산 대종사 간고한 살림 속에도 신통묘술을 발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통과 이적을 경계하며 건설한 도덕회상으로 나아가자 결국 <불법연구회>의 앞날을 비판하고 차츰 발길을 끊었다.

그 후 하산 송적벽은 제명처분 되었으나 소태산 대종사는 한 기간 동안의 열정과 신심을 인정하여 원기 18년 하산(夏山)이란 법호를 내리었다.

**훈산 이춘풍(薰山 李春風) 정사 (1876-1930)** : 경상도 유학자로 고종 사촌 동생인 정산종사와의 인연으로 새 회상 창업기에 소태산 대종사의 제자가 되어 봉래제법시절 가까이 모시었고 5년이라는 짧은 전무출신을 하는 동안 초기 교단의 교리형성과 훈련기반을 굳히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훈산 이춘풍은 원기 6년에 고모부 되는 구산 송벽조의 인도로 변산 봉래정사에서 소태산 대종사를 만나 불법의 대의와 인도상 요법을 듣고 유가의 규모를 벗어나 그해 12월 25일(음) 가족을 대동하고 경상도에서 전라도로 이사하였다. 이사한 부안군 보안면 신복리 종곡은 변산으로 드는 초입에 있는 마을이다.

훈산 이춘풍은 봉래정사를 찾아 소태산 대종사께 법을 묻고 가르침을 받드는 한편 영산·변산간 노정의 유숙처로 집을 활용하고 소

태산 대종사와 그 제자들의 시봉을 맡아 했다.

소태산 대종사 하루는 이춘풍가에 왔다가 혼산 이춘풍과 내소사를 구경하고 험한 청련암 뒷산을 넘으며 일행삼매(一行三昧)법문(대종경 수행품 34장)을 하였다. 소태산 대종사의 모친 열반으로 영산에 몇 달 근무 할 때 소태산 대종사와 정관평을 둘러보며 왜 방언을 막으라 하였는가에 대하여 문답(대종경 서품 10장) 하기도 하였다. 소태산 대종사의 사랑을 받으며 자란 혼산 이춘풍의 두 딸 이경순·정화는 후에 출가하여 교단의 큰 재목으로서 역할을 담당했다.

혼산 이춘풍은 소태산 대종사가 익산총부를 건설하자 봉래정사를 수호하는 한편 원기 7년부터 12년까지 봉래산에 살면서 생각하고 느끼고 연구한 《산중풍경(山中風景)》을 저술, 초기 교단사 연구에 중요한 사료를 남기기도 했다.

혼산 이춘풍은 출가하여 정기훈련에 여선원(女禪員) 교무로 지도를 하고 서울교화에 종사하다 지병으로 휴무하여 원기 15년 말에 자택에서 열반하였다.

**추산 서중안(秋山 徐中安) 대호법(1881-1930) :** 불법연구회의 초대 회장으로 소태산 대종사를 보필하여 익산총부 건설에 앞장섰던 추산 서중안은 가정이 곤란하여 12세에야 비로소 한문서당에 입학했다.

그러나 재질이 총명하여 17세에 김제 만경향교의 유사(有司)로 공천되었다. 20세부터는 한문교사로 각처에 초빙되었으며 의학까지 연구 터득하였다. 28세에 김제 성덕면장에 추천되어 근무하다 김제

교동에 〈인화당 한약방〉을 개설하여 명의로 이름을 날렸다.

추산 서중안은 42세 되던 원기 8년 친형인 서동풍의 인도로 변산 봉래정사에서 소태산 대종사를 배알하고 죽석에서 사제지의를 맺고 하룻밤을 지내고 난 뒤 자신이 9살 연상임에도 불구하고 부자지의(父子之義)로 결연하여 주기를 간청하였다.

그후 1개월여 뒤에 부인 정세월과 봉래정사를 찾아 교통과 장소가 편리한 곳을 택하여 모든 사람의 앞길을 열어 주실 것을 간곡히 청하였다. 소태산 대종사는 추산 서중안 대호법의 말에 응하사 정식으로 회상을 열 준비에 착수하였다. 소태산 대종사 최초로 서울 상경 길에 추산 서중안이 동행하여 서울 당주동에 임시출장소를 주선하여 한 달 동안 시봉하며 인연들을 모으는데 기여했다.

원기 9년 4월 보광사에서 가진 불법연구회 창립총회에서 소태산 대종사가 총재에 추대되고, 추산 서중안이 초대회장에 선정되었다. 총부기지가 확정되자, 기지의 대금 전부와 건축비 일부를 의연(義捐)하여 익산총부 건설의 토대를 마련했다. 익산총부 도치원을 건축할 때 소태산 대종사 부재할 때에는 낮에는 한약방에서 일을 보고 저녁이면 자전거를 타고 김제에서 총부까지 와서 공사 진척을 살폈다.

어느 날 건축공사장에 있을 때 한약방에 불이 났으나 다친 사람이 없다는 말에 안심하고 노모를 위로했다. 도치원이 초가집 2채가 완공되자 새 회상의 이름을 〈불법연구회〉라 정하고 추산 서중안 대호법이 그 간판을 썼다.

친형 서동풍이 원기 10년 열반하자 신정의례에 의해 치상을 하여 상장(喪葬)의 예법에 있어서 새 회상 최초로 시행하였다. 새 회상

창립의 주역이 된 7년간 굴기하심의 겸양심과 기관차와 같은 추진력으로 일관하다 원기 15년 49세를 일기로 열반에 들어 아쉬움을 남겼다.

**백학명(白鶴鳴)선사(1867-1929)** : 새 회상 초창기 인연 깊은 스님으로 소태산 대종사 변산에서 제법 당시 월명암 주지로 있으면서 친분을 가져왔다. 백학명 선사는 소태산 대종사와 동향인 영광으로 불갑사 아래서 태어나 어느 날 갑자기 양친을 잃고 인생무상을 느껴 명산대천을 순역하다 순창 구암사에서 설두화상의 강경을 듣고 출가를 결심, 불갑사에서 금화스님을 연원으로 출가했다. 그 뒤 구암사에서 구족대계를 받고 선지식을 찾아 10여년을 다닌 끝에 경·율·론 삼장을 통달한 후 참선 끝에 크게 깨침을 얻었다.

42세 때 중국·일본 등을 돌아보고 돌아와 월명암에 머물며 선풍을 드날릴 때 소태산 대종사와 인연을 맺었다. 소태산 대종사 방언공사가 마무리 될 즈음 사산 오창건을 데리고 변산 월명암을 찾음으로서 학명선사와 만남이 이루어진 것이다. 소태산 대종사 그 해 법인성사를 마친 후 정산종사를 먼저 월명암으로 보내 학명선사의 상좌로 삼게 하고 그 후 12월에 변산으로 입산하였다.

학명선사는 소태산 대종사가 실상초당에서 교강을 발표하고 창립 인연들을 만날 때 실상사 한만허 주지와 상의하여 석두암터를 내주며 목재를 보조하고 현판까지 써 주는 등 승려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아낌없이 후원하였다. 그런가 하면 소태산 대종사와 선문답을 자주하며 이청풍을 13세 각(覺)이라고 견성인가를 내려 소태산 대종사와 인가에 대하여 서로 차이점을 갖기도 했다(대종경 성리품

18장).

학명선사는 소태산 대종사가 세상에 나가서 제도사업하기를 권장하기도 하고 한시를 써 보내 주기도 했다(대종경 성리품 19장). 그 후 소태산 대종사 새 회상의 터전을 마련하던 중 변산에 돌아와 학명선사에게 말하니 자신이 새로 부임하게 될 내장사 일부를 빌려줄 터인즉 거기서 취지를 실현해 보라며 제의하였다. 그러나 이같은 제의는 승려들의 반대로 좌절되고 말았다.

학명선사는 내장사(현 고내장)에서 선원의 목표를 반선반농으로 변경하여 승려들을 지도했다. 소태산 대종사가 익산총부를 건설한 후 학명선사와 서신은 주고받았으나 만남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굵은 봄비가 내리는 날에 미소지으며 내장사에서 열반하였다.

### 변산성지 관련 편편법문

대종사 봉래정사(蓬萊精舍)에 계실 때에 하루는 어떤 노인 부부가 지나가다 말하기를, 자기들의 자부(子婦)가 성질이 불순하여 불효가 막심하므로 실상사(實相寺) 부처님께 불공이나 올려볼까 하고 가는 중이라고 하는지라, 대종사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이 어찌 등상불에게는 불공할 줄을 알면서 산부처에게는 불공할 줄을 모르는가.” 그 부부 여쭙기를 “산 부처가 어디 계시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의 집에 있는 자부가 곧 산부처이니, 그대들에게 효도하고 불효할 직접 권능이 그 사람에게 있는 연고라, 거기에 먼저 공을 드려 봄이 어떠하겠는가.” 그들이 다시 여쭙기를 “어떻게 공을 드리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이 불공할 비용으로 자부의 뜻에 맞을 물건도 사다주며 자부를 오직 부처님 공경하듯 위해주어 보라. 그러하면, 그대들의 정성을 따라 불공한 효과가 나타나리라.” 그들

이 집에 돌아가 그대로 하였더니, 과연 몇 달 안에 효부가 되는지라 그들이 다시 와서 무수히 감사를 올리거늘, 대종사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곧 죄복을 직접 당처에 비는 실지 불공(實地佛供)이니라.” <대종경 교의품 15장>

대종사 봉래정사(蓬萊精舍)에 계시사 등잔불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시기를 “저 등잔불이 그 광명은 사면을 다 밝히는데 어찌하여 제 밑은 저 같이 어두운고” 김남천(金南天)이 사뢰기를 “이는 실로 저와 같사오니, 저는 대종사의 문하에 직접 시봉하온지 벌써 여러 해가 되었사오나 모든 것에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멀리서 내왕하는 형제들만 같지 못하나다.” 대종사 웃으시며 다시 송규에게 물으시니, 송규 사뢰기를 “저 등불은 불빛이 위로 발하여 먼 곳을 밝히고 등대는 가까운데 있어서 아래를 어둡게 하오니, 이것을 비유하오면 혹 사람이 남의 허물은 잘 아니라 저의 그름은 알지 못하는 것과 같다고 하겠나이다. 어찌하여 그런가 하면, 사람이 남의 일을 볼 때에는 아무 것도 거리낌이 없으므로 그 장단과 고저를 바로 비취 볼 수 있사오나, 제가 저를 볼 때에는 항상 나리는 상(相)이 가운데 있어서 그 그림자가 지혜 광명을 덮으므로 그 시비를 제대로 알지 못하나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원만하지 못한 사람이 자타(自他)없이 밝히기로 하면 어찌하여야 할꼬.” 송규 사뢰기를 “희로애락에 편착하지 아니하며, 마음 가운데에 모든 상을 끊어 없애면 그 아는 것이 자타가 없겠나이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의 말이 옳다.” <대종경 수행품 26장>

대종사 이춘풍으로 더불어 청련암(靑蓮庵) 뒷산 험한 재를 넘으시다가 말씀하시기를 “험한 길을 당하니 일심 공부가 저절로 되는도다. 그러므로, 길을 가되 험한 곳에서는 오히려 실수가 적고 평탄한 곳에서 실수가 있기 쉬우며, 일을 하되 어려운 일에는 오히려 실수가 적고 쉬운 일에 도리어 실수가 있기 쉽나니, 공부하는 사람이 험하고 평탄한 곳이나 어렵고 쉬운 일에 대중에 한결같아야 일행 삼매(一行三昧)의 공부를 성취하나니라.” <대종경 수행품 34장>

대종사 봉래정사에 계실 때에 마침 큰 장마로 앞 마른 못에 물이 가득하며 사방의 개구리가 모여들어 많은 울챙이가 생기었더니, 얼마 후에 비가 개이고 날이 뜨거우매 물이 점점 줄어들어 며칠이 못 가게 되었건마는 울챙이들은 그 속에서 꼬리를 흔들며 놀고 있는지라, 대종사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안타까운 일 이로다. 일본 이분 그 생명이 줄어가고 있는 줄도 모르고 저와 같이 기운 좋게 즐기는 도다. 그러나, 어찌 저 울챙이들뿐이리오. 사람도 또한 그러하니, 수입 없이 지출만 하는 사람과 현재의 강(強)을 남용만 하는 사람들의 장래를 지혜 있는 사람이 볼 때에는 마르는 물 속에 저 울챙이들과 조금도 다름없이 보이나니라.” <대종경 인도품 32장>

대종사 봉래정사에 계시더니 때마침 큰비가 와서 층암 절벽 위에서 떨어지는 폭포와 사방 산골에서 흐르는 물이 즐기치게 내리는지라, 한참 동안 그 광경을 보고 계시다가 이윽고 말씀하시기를 “저 여러 골짜기에서 흐르는 물이 지금은 그 갈래가 비록 다르나 마침내 한 곳으로 모아지리니 만법귀일(萬法歸一)의 소식도 또한 이와 같나니라.” <대종경 성리품 10장>

대종사 봉래정사에 계시더니 한 사람이 서중안(徐中安)의 인도로 와서 뵈옵거늘 대종사 물으시기를 “어떠한 말을 듣고 이러한 험로에 들어왔는가.” 그가 사뢰기를 “선생님의 높으신 도덕을 듣고 일차 뵈오러 왔나이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나를 보았으니 무슨 원하는 것이 없는가.” 그가 사뢰기를 “저는 항상 진세(塵世)에 있어서 번뇌와 망상으로 잠시도 마음이 바로 잡히지 못하오니 그 마음을 바로 잡기가 원이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마음 바로잡는 방법은 먼저 마음의 근본을 깨치고 그 쓰는 곳에 편벽 됄이 없게 하는 것이니 그 까닭을 알고자 하거든 이 의두(疑頭)를 연구해 보라.” 하시고 “만법귀일(萬法歸一)하니 일귀하처(一歸何處)오”라고 써 주시니라. <대종경 성리품 17장>

대종사 봉래정사에 계실 때에 백학명(白鶴鳴) 선사가 내왕하며 간혹 격외(格外)의 설(設)으로써 성리이야기 하기를 즐기는지라 대종사 하루는 짐짓 동녀 이청풍(李

淸風)에게 몇 말씀 일러두시었더니, 다음 날 선사가 월명암(月明庵)으로부터 오느니라, 대종사 맞으시며 말씀하시기를 “저 방아 찼고 있는 청풍이가 도가 익어 가는 것 같도다.” 하시니, 선사가 곧 청풍의 앞으로 가서 큰 소리로 “발을 옮기지 말고 도를 일러오라.” 하니, 청풍이 엄연히 서서 절긋대를 공중에 쳐들고 있는지라, 선사가 말없이 방으로 들어오니, 청풍이 그 뒤를 따라 들어오거늘, 선사 말하되 “저 벽에 걸린 달마를 걸릴 수 있겠느냐.” 청풍이 말하기를 “있습니다.” 선사 말하기를 “걸려 보라.” 청풍이 일어서서 서너 걸음 걸어가니, 선사 무릎을 치며 13세 각(十三歲覺)이라고 허락하는지라, 대종사 그 광경을 보시고 미소하시며 말씀하시기를 “견성하는 것이 말에 있지도 아니하고 없지도 아니하나, 앞으로는 그런 방식을 가지고는 견성의 인가(印可)를 내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대종경 성리품 18장>

하루는 학명선사가 글 한 수를 지어 보내기를 “투천산절정(透天山絕頂)이여 귀해수성파(歸海水成波)로다 불각회신로(不覺回身路)하여 석두의작가(石頭倚作家)로다” 한지라, 대종사 화답하여 보내시기를 “절정천진수(絕頂天真秀)요 대해천진파(大海天真波)로다 부각회신로(復覺回身路)하니 고로석두가(高露石頭家)로다”라 하시니라. <대종경 성리품 19장>

대종사 봉래정사에 계시더니 마침 포수가 산돼지를 그 근처에서 잡는데 그 비명소리 처량한지라, 인하여 말씀하시기를 “한 물건이 이로움을 보매 한 물건이 해로움을 당하는 도다.”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산돼지의 죽음을 보니 전날에 산돼지가 지은 바를 가히 알겠고, 오늘 포수가 산돼지 잡음을 보니 뒷날 포수가 당할 일을 또한 가히 알겠도다.” <대종경 인과품 12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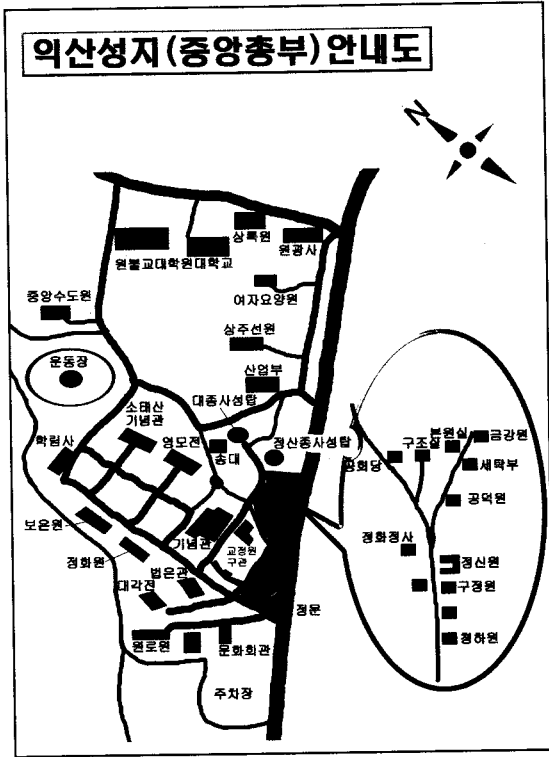
대종사 봉래정사에 계실 때에 하루는 저녁 공양을 아니 드시므로 시봉하던 김남천 송적벽이 그 연유를 여쭙었더니,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곳에 있으며 그대들의 힘을 입음이 크거늘 그대들이 오늘밤에는 싸움을 하고 내일 아침 해가 뜨기 전에 떠나갈 터이라 내 미리 밥을 먹지 아니하려 하노라.” 두 사람이 서로 사귀기를 “저희 사이가 특별히 다정하온데 설령 어떠한 일로 마음이 좀 상한들 가

는 일까지야 있겠나이까, 어서 공양에 응하소서.” 하더니, 몇 시간 뒤에 별안간 두 사람이 싸움을 하며 서로 분을 참지 못하여 집을 뺏기다가 남천은 대종사의 미리 경계하심이 생각되어 그대로 머물러 평생에 성훈을 지켰고, 적벽은 이튿날 아침에 떠나 가니라. <대종경 실시품 3장>

## 익산성지

이 회상은 지나간 회상들과 달라서 자주 있는 회상이 아니요,  
원시반본 하는 시대를 따라서 나는 회상이라  
그 운이 한량 없나니라.  
〈 대중경 전망품 30장 11에서 〉





## 익산성지(중앙총부)

◎ 연락처 : 전라북도 익산시 신룡동 344-2 중앙총부 교정원 문화부  
0653) 850-3261~3

### 익산시 신룡동

전라북도 서북부에 위치한 익산은 북으로 금강 줄기를 사이에 두

고 충청도 강경평야, 남으로는 만경강을 끼고 김제평야와 닿아 있다. 동쪽으로는 완주평야, 서쪽으로는 옥구평야로 둘러싸여 금강과 만경강 덕분에 신석기시대 이래 농경문화가 번창했고 삼한시대부터 여러 시대에 걸쳐 인근지역의 정치·문화적 중심지가 되었다.

일찍이 삼한시대에 기자의 41대 손인 기준은 위만의 난을 피하여 남으로 내려와 현 금마 땅에 이르러 마한의 왕이 되었다. 이것이 마한 54개 소국 가운데 건마국이었다. 그 후 백제의 온조는 마한을 병합한 후 금마저라 불렀다.

백제문화의 전성기였던 600년 무렵 무왕은 금마저를 도성으로 삼고 미륵사 등 사찰과 왕궁 평성을 쌓았다. 백제가 망한 후 기록이 철저히 인멸되어 백제가 익산으로 천도하려 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결론 내릴 수 없었으나 근래의 발굴 결과로 익산이 백제 중엽 이래로 공주·부여와 함께 백제문화에 중심지를 이루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통일신라 문무왕 때는 고구려 유민 안승의 보덕국이 있었고 후 삼국 시대에는 후백제왕 견훤과 고려 왕건의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익산은 고려 조선을 거쳐 8.15해방 이후에 이리가 시로 승격되면서 익산군과 분리되었다가 다시 통합되어 익산시가 되었다. 익산은 호남선과 전라선이 합쳐지는 교통의 중심지로서 미륵사를 비롯한 마한·백제 문화가 숨쉬는 문화의 도시이자 오늘날 세계적 보석의 도시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익산성지가 있는 신통동은 익산군 북일면 신통리였으나 이리읍이 8.15 광복과 함께 이리시로 승격되고 1973년 이리시의 확장으로 이리시에 편입되었으나 시·군이 통폐합되면서 익산시 신통동이 되

었다. 중앙총부와 교립 원광대학교가 있는 신흥동 일대를 신흥벌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 익산성지

익산성지는 원불교 중앙총부가 있는 전법성지(轉法聖地)로서 총부성지라 부르기도 한다. 소태산 대종사가 총부 건설 후 18년간 교화를 펴다가 열반에 든 곳이다. 변산 봉래정사에서 교법을 제정하시며 창립인연들을 규합하는 등 새 회상 공개를 준비하다 원기 8년 김제에 사는 서중안이 봉래정사를 찾아와 하산을 간청하였다. “이 곳은 험난하여 교통이 불편하고 장소가 협작하오니 마땅히 교통과 장소가 편리한 곳을 택하여 모든 사람의 앞길을 널리 열어 주심 이 시대의 급무일까 하나이다.” 소태산 대종사 그의 말에 응하여 장차 정식 회상을 열 계획을 논의하였다.

원기 9년 소태산 대종사 몇몇 제자와 서울에 상경하여 1개월 여를 머물면서 서울 여러 인연들을 만났다. 그 후 전주 완산동 전음광의 집에서 서중안·송만경·이청춘·이춘풍·문정규·박원석·전음광 등 7인이 발기인이 되어 〈불법연구회〉 창립준비를 토의하였다. 이때 거론된 불법연구회 창설 장소는 고산·봉동·왕궁·익산 등지였다.

소태산 대종사는 총부기지에 대하여 “익산 부근은 토지가 광활하고 교통이 편리하여, 무산자들의 생활과 각처 회원의 내왕에 편리한 듯 하니 그 곳으로 정함이 어떠하냐”고 하였다. 이에 발기인 모

두가 그 안에 따랐다. 그리하여 창립총회 장소를 익산 보광사(普光寺)로 정하고 총부 건설지는 익산 부근을 실지 답사한 후 확정하기로 하고 모든 사유를 각지 신자들에게 통지하였다.

원기 9년 4월 29일 (양력 6월 1일) 보광사에서 불법연구회 창립총회를 열어 <불법연구회> 라는 임시교명을 내외에 공개하였다. 각 지역 대표 등 총 39인이 참석하여 소태산 대종사를 총재에 추대하고 서중안이 초대 회장에 선정되었다. 소태산 대종사 창립총회를 마치고 만덕산을 찾아 한 달간 선(禪)을 난 후 하산하여 익산부근을 답사하다가 박원석의 주선으로 익산역에서 4km 떨어진 익산시 북일면 신룡리 344-2 현 중앙총부 자리에 총부기지를 정하였다.

총부기지로 정한 장소는 갯배기 「도치재(盜峙재)」라는 곳이다. 인가라고는 찾아 볼 수 없었던 곳으로 칙칙하게 들어찬 숲 숲 만이 무성하였다. 현 원광대학교 자리는 총부건설 1년 전까지만 해도 황등 호수가 있었는데 이 호수를 상시연(上矢淵) 또는 도교지(渡橋地)라 했다. 황등호수는 대야리 저수지가 준공되면서 없어졌다.

서중안이 약 3천여평의 대지를 구입하여 회사하고 건축금은 서중안이 일부를 담당하고 각처의 제자들이 건축회사금을 내어 원기 9년 9월 공사를 시작하여 11월경에 목조 초가 2동 17간을 완공하였다. 이것이 새 회상 총부 본관의 첫 건설이었다.

이 때부터 전무출신의 공동생활이 시작되었으나 생활 방도가 막연하여 소작작농·옛장사를 하는가 하면 여자 전무출신들은 고무공장 공원을 하면서도 밤에 한자리에 모여 소태산 대종사의 법설에 공부길을 잡아가는 영육쌍전의 산 도량이었다.

소태산 대종사가 원기 28년 열반하고 범통을 이은 정산종사 해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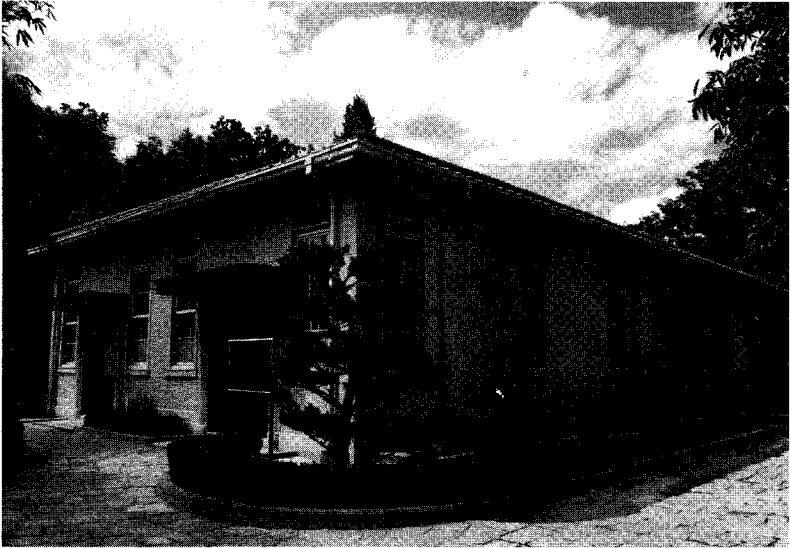
이 되자 원기 33년, 그간 〈불법연구회〉로 불리워오던 임시교명을 〈원불교〉로 확정 발표하였다.

중앙총부는 일제의 압박과 빈곤을 극복하면서 일원대도의 정법을 전한 전법성지로 소태산 대종사와 선진들의 혼이 스며있는 교단의 심장부이다. 중앙총부에는 소태산 대종사 당시 세웠던 대각전, 본원실, 공회당, 금강원, 종법실, 정신원, 구정원과 대종사 성탑·성비, 정산종사 성탑, 영모전, 소태산 기념관, 원로원, 수도원 등이 한 자리에 있다.

익산 중앙총부 대성지는 천여래 만성현을 체우(際遇)하시고 집대성하신 자리로 앞으로 모든 성자들이 일원의 심인(心印)을 찍도록 해 주신 성지요, 갑자년으로부터 백천만 무량갑자(百千萬 無量甲子)에 이르기까지 정기(定期)와 상시(常時)로 대훈련을 실시하도록 하신 대성지요, 본교의 전 교서를 친히 결집하신 대 결집 성지요, 주세불의 원만 평등하고 자공무사 하신 법력으로 제생의세 연도수덕(研道修德) 광불도량(廣佛道場)의 대성적(大聖跡)을 나투시고 계미년 대열반에 드신 성지이다. 또한 대중이 봉대한 정산종사께서 7대 교서를 정리하시고 원광대학을 비롯하여 각 기관을 설립하며 원불교라는 교명을 천하에 반포하시고 이십여 년 간 교화에 전념하시다 열반에 드신 성지로 불불계세(佛佛繼世) 성성상전(聖聖相傳)의 법통을 이어주신 수만대(一大劫)의 영천영지(永天永地) 모앙무궁(慕仰無窮)할 대성지이다. 〈대산종사〉

## 대 각 전

대각전(大覺殿)은 중앙총부 정문을 들어서면 왼쪽 종각을 지나 언덕에 세워진 건물로 교단에서 제일 처음 대집회를 위해 지은 현대식 건물이다. 원기 19년 정기 총대회에서 기념관 건축의 안이 발



대각전 / 원기 20년에 총부 대각전을 건축하고 일원상을 최초로 정식 봉안하였다. 일원상 봉안은 불법연구회 창건사에 큰 의미를 가진다.

의 되었다. 김기천의 제안으로 기념관 건축 기성위원회가 조직되어 유허일, 이공주를 남녀 중앙위원장에 추천하고 건축성금은 권장한 다든지 하는 방법은 없도록 하고 반드시 교도의 자발적 회사를 받도록 하였다.

원기 20년 새해 벽두부터 복숭아 밭 위 언덕에 터를 다듬고 기념관 건축공사가 시작되어 4월 27일 총대회를 기하여 기념관이 준공되었다. 기념관 준공일이 교도들의 공동생일기념일이라 500여명의 교도들이 참석하였다. 신축 기념관은 경성(서울)지부 회관을 신축한지 1년만에 교단에서 가장 큰 규모로 지어진 대강당이였다.

대각전 전면 중앙에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인 불성 일원상(佛性 一圓相)을 최초로 정식 봉안하였다. 대각전 전면에 일원상

봉안은 불법연구회 창건사에 있어서 큰 의미를 가진다.

일원상을 조그만 나무판에 새겨 모시고 아래 종서 2행으로 사은지본원 여래지불성(四恩之本源 如來之佛性)이라 새긴 위패를 모신 것이다.

일원상 표현의 효시는 소태산 대종사의 대각에서부터 비롯하여 개념적으로나 상징적으로 여러 차례 표현하였으나 직접 형상으로 그려 보인 것은 원기 4년 가을 모악산 금산사에서 엮었다. 대각전은 지을 당시 84평이었으나 뒤에 증축되었다.

대각전이 건축됨으로 해서 공회당에서 행해졌던 예회나 선(禪)등을 이곳에서 하게 되었으며 특히 공동생일기념일(대각개교절)이나 정기총회 등 전국적인 행사 때에는 많은 대중이 운집했다. 당시만 하더라도 이리 시내에 이처럼 큰 집회 장소 건물이 없을 정도여서 촌로들이 도시락을 싸 들고 대각전을 구경을 정도였다.

원기 24년 3월의 일이다. 총회를 끝내고 저녁에 총부 대각전에서 여흥회가 열렸다. 각처에서 모인 제자들이 각자의 특기를 자랑하며 흥겹게 놀았다. 이 자리에서 황정신행은 승무를 추고, 임칠보화는 고전춤, 유허일은 시조, 황이천은 춘향가, 김형오는 점쟁이 흉내내기,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의 묘기가 백출했다. 대각전을 꼭 매운 제자들은 밤 10시가 되었으나 무르익은 흥을 참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모두들 1시간만 더 놀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전음광 등이 대표로 소태산 대종사의 승낙을 얻으러 조실로 갔다. “다들 재미있게 놀았느냐?” “네, 그렇습니다만...” 황이천이 더듬었다. “무슨 일이나?” “저어, 다름이 아니고 각처에서 모인 사람들이라 모처럼 여흥회의 분위기가 무르익었는데 시간이 아쉽습니다. 다들 한 시간만 더 놀았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허락을 얻으려고 왔습니다.” “안된다. 그만들 가서 자라고 해라.” “대종사님, 다시 한번만 더 생각해 주세요.” “어서 대각전으로 가서 다들 잠이나 자라고 하라니까.” 이튿날 아침 황이천이 소태산 대종사께 말했다. “대종사님, 어제 저녁은 참 섭섭했습니다. 일년에 겨우 한 번 밖에 없는 일

인데, 전국에서 모인 법동지들이 한 자리에 모여 흥이 한창 무르익었습니다. 대종사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아서 정말 흥이 다 깨지고 말았습니다.” “사람의 놀고 싶은 욕심이란 한이 없는 것이다. 단체의 규율은 곧 단체의 생명이다. 한 시간의 연장이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으나 한 번 마음이 풀어지면 자행자지 하기 쉽다. 큰 방푹도 조그마한 개미나 모래 구멍으로부터 뚫리는 것이 진리이다. 사람들은 흔히 큰 일은 걱정하고 조심한다. 그러나 작은 일은 가볍게 생각하기 쉽다. 수도인은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항상 마음을 굳게 가져야 한다.

대각전은 두 차례의 증개축을 통하여 현재의 모습을 가지게 되었고 불단 옆에 있는 법좌는 소태산 대종사 생존시 소태산 대종사가 앉아 법을 설하신 법좌이다. 당시 기념관 건축 여자위원장인 이공주는 「대각전 기념식」이라는 제하에 다음과 같은 노래 불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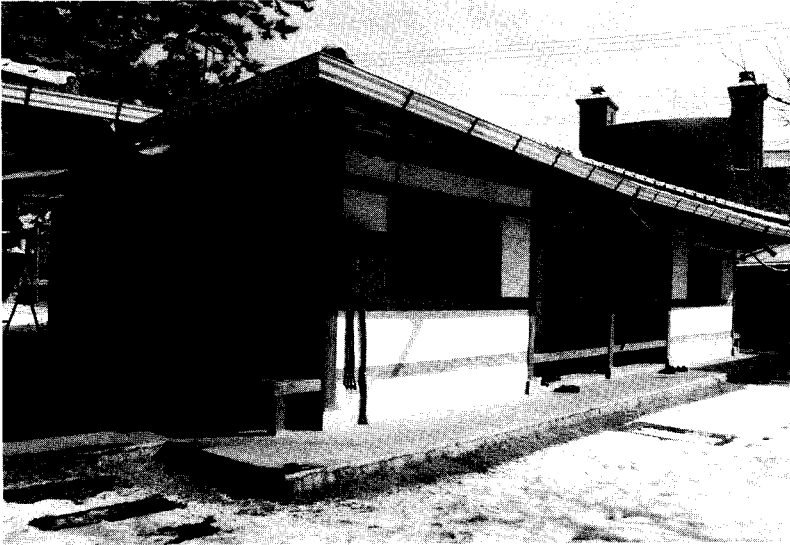
대각전이 준공되자 생일기념 당도하니  
각 지방 회우들이 구름같이 모여든다.

상설관내(常設館內) 벽상에는 사은 위패 모셔놓고  
그 아래 탁상에는 각색 화초 놓았으며

찬란스런 만국기로 장내 천정 장식한 후  
집회법종 울려노니 남녀 대중 환희한다.(중략)

### 최초의 회관(본원실)

총부기지를 확정하고 대지를 구입 회사한 서중안과 각처 제자들의 건축회사금과 전무출신들의 원력으로 원기 9년 12월 엄동설한에 초가집 2동 17간을 완공하였다. 이에 총부 최초의 회관을 도치원



본원실 / 총부기지를 확정하고 건축한 총부 최초의 회관이다. 불법연구회 간판을 붙인 최초의 건물이기도 하다.

(道峙院)이라 이름하였다.

소태산 대종사는 도치(盜峙)란 이름을 고쳐 도치재(道峙재)라 하고 신축회관을 도치원이라 하여 과거 어둡고 미망한 오명의 땅 이름을 바른 도로써 다스리겠다는 포부를 나타낸 것이다. 회관의 간판은 불법연구회 서중안 회장의 글씨로 기둥에 「불법연구회(佛法研究會)」란 이름을 처음으로 세상에 광고하였다. 회관은 전무출신 자들에게는 공동생활이 시작된 최상의 보금자리였으며 만고대법의 요람지가 되었다.

도치원 건축에 참여한 김남천이 봉래산 석두암에 가서 이춘풍을 보고 말하였다. “춘풍은 이러한 조용한 곳에서 공부도 잘하고 《정정요론(定靜要論)》도 잘 읽을 것이다. 나는 올 가을 이후로 조용한 경계가 없어서 소태산 대종사

의 법문도 못 듣고 《정정요론》도 못보고 집 짓는 일에 노력이 되었으니 어찌 공부했다 하리요” 하거늘, 춘풍이 곧 《정정요론》 일부를 해석해 일러주고 나서 다시 남천에게 말하기를 “사람의 공부가 실로 정좌(靜坐)하고 글 읽는데 있지 않나니, 춘풍의 이곳에 경력한 일을 말하여 주리다. 춘풍은 올 봄 이래로 하는 공부가 서농(耒農)을 겸하여 때때로 밭도 매고 여가 봐서 글도 읽고 쉴 때에 정신수양도 하여 안빈하고 지내기를 거의 1년이 되어도 별 공부한 표가 없고 안상(案上)에 오직 《정정요론》 번역만 하나이다. 남천은 올 가을 이후로 소태산 대중사를 모시고 법문도 날로 많이 듣고 일도 날로 많이 하여 공부한 표가 도치원 건축에 있으니 어찌 법문을 아니 들었다 하며 공부를 아니 했다 하나이까. 남천의 공부가 실로 춘풍의 공부보다 백배가 많았다고 볼 수 있으” 남천이 다시 말하기를 “그 말은 옳지 아니하오. 소태산 대중사님의 법문으로 말하면 좌소(坐所)가 없고 또 조용할 때가 없었으니 어느 여가에 법문할 수가 있으며, 나의 공부로 말하면 집 일에 정신이 없어 잠시도 편히 앉지 못하였으니 어느 여가에 마음 공부했다 하리요” 춘풍이 다시 말하기를 “소태산 대중사님의 법문으로 말하면 도치원 건축하는 일에 대하여 차례 있게 이리저리 지도하시고 여러 사람의 형편을 따라 이일 저일 맡겨 법규에 넘어가지 아니하게 하신 말씀이 모두 다 법문이어늘 법문을 날로 듣고 법문인 줄 몰랐으며, 남천의 공부로 말하면 소태산 대중사님의 지도하신 말씀을 그대로 받들어 도치원 건축하는 일에 오늘은 이 일 하고 내일은 저 일 하며 그 일 성취하는데 낙이 붙어 불일성지도치원(不日成之道峙院)이 어찌 공부성적이 아니고 무엇이리오” 하였다.

도치원 본관은 부엌이 하나, 방이 세칸으로 대중 집회시 미닫이 벽을 터 강당으로 썼다. 서쪽 부엌에 붙은 방을 서아실이라 부르며 소태산 대중사가 쓰고, 동아실은 팔산 김광선 등 대중방으로 썼다. 가운데 방은 정산종사가 쓰고 선 때는 교무실과 부인 공부방으로도 썼다. 원기 12년경에 금강원을 지어 조실(소태산 대중사 사용하시는 집)을 그 곳으로 옮겼으며 원기 17년에 앞벽을 트고 유리창을 달았다.

그후 증축하면서 다소 변경되었다가 다시 복원하면서 추가로 계



세탁부 / 중앙총부 건설 초기 어려운 살림을 꾸러가기 위하여 이 집에서 엿을 만들어 팔기도 했다.

확하였던 지붕은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시멘트 기와를 얹는 등 변화가 있었다. 도치원을 본원실이라 불렀고 오늘날까지도 본원실이라고 했다.

## 세탁부

현 세탁부는 본원실과 함께 최초로 지어진 집으로 건립 당시 「ㄱ」자형으로 곡주형집이라 「꼭두마리집」이라고도 하였다. 건립 당시 간고한 생활의 방편으로 엿장사를 할 때 이 집에서 엿끓는 일을 하여 「엿집」이라고 하였다. 송적벽이 엿 도매를 해 본 경험을 살려 김광선과 문정규가 발의하여 엿을 고와 파는 일을 하기로 하

였다. 송적벽과 김광선이 엿굽는 일을 주관하고 다른 인원은 엿 행상에 나섰다. 한번도 행상을 경험해 보지 못했으나 매서운 바람이 불어도 황동, 이리는 물론 시골 구석구석을 종일 엿가위를 울리며 다녔으나 매상이 신통치않아 엿밥으로 끼니를 때우기가 일쑤였고 종일 시달린 몸을 해소하고 침구마저 변변치 않은 곳에서 잤다.

도산 이동안은 별수 없이 엿목판을 짚어지고 거리에 나서기는 하였으나 평생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행상이어서 도무지 소리내어 외치기가 힘들었다. 그는 한동안 눈을 깜박거리더니 한 묘계를 생각해 냈다. 도산 이동안은 군침을 흘리며 졸졸 따라 다니는 아이들에게 먼저 엿을 때 주고 소리를 외치게 했다. 칠모르는 아이들은 달디단 엿맛에 신이나 소리소리 외쳐댔고 그 덕택으로 도산 이동안은 첫날 엿장수를 무사히 해 낼 수 있었다. 그날 저녁 모임 시간에 도산 이동안이 이 이야기길 하니 대중들이 박장 대소를 했다.

이 무렵 익산총부에는 가장 나이 어린 전무출신으로 만 15세의 혜산 전음광과 만 17세의 미혼총각 주산 송도성이 있었다. 한창 클 나이에 변변치 못한 식사로 끼니를 때워야 했던 두 사람은 항상 허기가 졌다. 하루는 둘이 엿을 굽는 팔산 김광선에게 엿 귀배기라도 좀 얻어 먹을 요량으로 엿방을 기웃거렸다. 엿방에서는 팔산 김광선이 엿물 한 방울이라도 더 나오게 하기 위해 불끈 힘을 주어 엿밥을 딱딱 짜고 있었다.

“형님, 꺾끔 덜 짜시오잉” 그러나 팔산 김광선은 “무슨 소리를 하누. 한 방울이라도 더 나와야 엿가락 하나라도 더 만들제” 하고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잠시 후 팔산 김광선이 다른 일을 하는 사이 눈치를 보던 두 사람은 엿 귀배기를 주어 먹으려고 엿통에 손을 대었다. 그런데 어느 사이 팔산 김광선이 이것을 알고 솥뚜껑 같은 손으로 두 사람을 콧 닦았다.

당시 전무출신들 사이에서는 이처럼 하루하루 배고픔을 견뎌야 했던 간난한 생활을 말해 주는 갖가지 별명들이 불려졌다. 혜산 전음광은 매일 허천나게 먹고 싶어한다고 해서 전허천, 주산 송도성은 먹을 만 한게 보이면 꺾떡댄다고 해서 송꺾떡, 나이가 지긋한 사산 오창건은 허기는 지나 체면상 나서지를 못하고 천연스레 있다고 해서 오천연이라 했다.

엿장사를 할 때 저녁에 엿 목판을 잃어버린 일도 있었다(대중경

실시품 4장). 전무출신들은 모든 면에 극히 간고한 생활을 하면서도 남 먼저 이 회상에 참여한 것만으로도 큰 재미를 느꼈다. 저녁이면 모두 한자리에 모여 옛 행상을 하며 겪었던 이야기며 옛 곱던 이야기 등을 발표하면 소태산 대종사는 법설로 생활상의 공부길을 지도하였다.

옛행상을 원기 10년에 폐하면서 본원실의 조실이 금강원으로 옮기자 사무실을 본원실로 옮겼다. 그후 여자숙소로 사용하여 오다가 원기 58년 중앙선원이 발족됨에 총부내 세탁 업무를 담당하여 통칭 「세탁부」라 불렸다. 원기 70년 도로 확장공사로 일부가 헐려 고증을 얻어 본래 모습대로 복원 개수하였다.

## 조 실(금강원)

소태산 대종사가 기거하는 집을 제자들은 조실이라 불렀고 그 이후부터는 종법사가 머무는 집을 조실이라 한다. 영춘원을 지어 남자 전무출신들이 숙소를 옮겼다.

그후 제자들은 소태산 대종사의 처소를 영춘원 뒤에 짓기 시작했다. 제자들은 조실을 지으면서 흥겨웁고 신명이 났다. 팔산 김광선이 먼저 가락을 하면 다른 제자들은 “나무아미타불”하고 받았다. “혼몽 중에 있던 우리” “나무아미타불” <규약> 취지 설명 구절마다 흥겨웁게 가락을 매겼다. 취지 설명이 끝나면 반야심경을 매기며 공부할 때나 일할 때나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흥겨웠다.

영춘원 뒤 잣배기 고갯마루에 4칸 기와집이 원기 14년에 완공되



금강원 / 소태산 대종사 중앙총부에 상주하면서 기거하신 집으로 최초로 지어진 건물이기도 하다. 당시 제자들은 이 건물을 조실로 불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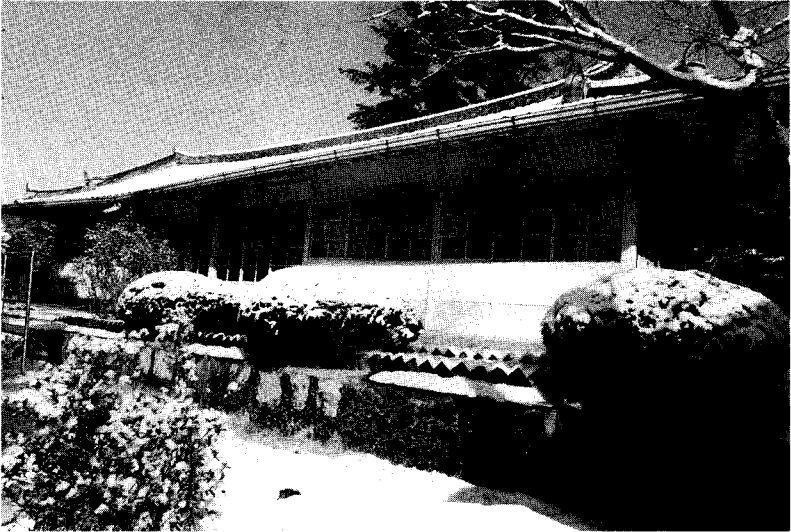
니 소태산 대종사 변산 봉래정사에서 하산한 후 만 5년만에 일정한 처소를 얻게 되었고 집의 옥호를 금강원(金剛院)이라 하였다. 금강원이 건축됨에 따라 도치원 동아실에 거주하던 소태산 대종사 금강원으로 옮기고 도치원과 옆집은 여자 숙소가 되어 부인선원이라 불렀다.

새로 건립된 집을 금강원이라 하자 영춘원은 감히 동격으로 원(院)이라 할 수 없어 격을 낮추어 헌(軒)이라 하여 이후 영춘헌(迎春軒)이라 일컬었다. 소태산 대종사 최초로 단독 주택인 금강원에 주석하게 되자 제자들이 이 집을 조실이라 부르고 제자들은 익산 본관을 아예 금강원이라 부르기도 하였다.

소태산 대종사 금강원에 계실 때 금강원 뒤편 길가는 탕자나무 울타리로 되

어 있었다. 이 길은 익산과 황동을 연결하는 큰 도로로 익산장과 황동장을 보러 다니는 장꾼들이 많았다. 하루는 소태산 대종사께서 장꾼들이 이 길로 다니면서 주고받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익산이나 황동으로 장을 다니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모두가 장사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많이 벌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야기들이더라. 그런데 그 사람들 이야기하는 것을 자세히 들어보니 그 장사하고 돈 버는 방법이라는 것이 어떻게든 속임수를 써서 돈 벌 궁리만 하고 있더라. 지금 세상에는 이렇게 대부분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돈을 내 것으로 만들 궁리만 하는데 앞으로의 세상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의 세상은 참으로 좋은 미륵불 회상인 용화회상이 돌아오는데, 지금은 남의 것을 못 빼앗아서 한이지만 그 때에 가서는 남을 못 도와줘서 한이요, 복을 못 지어서 한일 것이다. 그런 세상이 오면 모두가 복을 지으려고 하고, 남을 도와주려고 하고, 서로 내가 남을 위해 주려고 하니 도움을 받으려는 사람은 없고 복을 지으려는 사람만 있어서 복짓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그 때에 가서는 못 빼앗아서 한이요 못 속여서 한인 지금과는 반대로, 남을 못 도와주어서 한이고 복을 지을 곳을 찾지 못해서 한탄일 것이다.

소태산 대종사는 금강원에서 “현대인의 소원과 행동이 만물의 영장으로서 너무 미약하고 용렬하여 보인다. 사람이라면 그래도 만물 중의 영장이라는 이름이 있지 않은가. 영장이라는 이름이 있을 때에는 영장스러운 소원과 사업을 가져야 할 것이다.” 등 많은 설법을 하시어 금강원을 설법전이라고도 하였다. 그런가 하면 방에 불을 너무 많이 때서 요가 누른 듯 하자 어린제자를 불러 말씀하시었다. “어찌하여 이와같이 방이 뜨거우냐” “한 달에 백오십포의 장작을 때기로 하여 매일 다섯 포씩 넣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다섯 포씩 때기로 하였지마는 날씨가 추우면 그보다 더 때기도 하고 오늘같이 포근하면 덜 때기도 해야지, 네가 나를 미워하여 뜨겁게 땀 것 아니냐”하고 꾸중하신 다음, “네가 나를 미워해서 그러기야 하였겠느냐. 그러지 아니했을 줄 안다. 그리고 혹 너는 내가 미워서 그러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미워하지 아니해야 이것이 중도니라” 하고



구조실 / 중앙총부 최초로 대종이 모일 장소와 사무소 건물로 지어졌다. 소태산 대종사 열반 직전까지 기거하셨고 현재는 소태산 대종사 영정을 모셔 놓았다.

자상하게 깨우쳐 주기도 하였던 곳이다.

### 구 조 실(영춘헌)

원기 12년에 그 동안 동·하선기마다 여자 선객들이 공부하고 거주할 만한 숙소가 없어 전음광의 사가를 빌려 써야 하는 불편이 있어, 당시 부인선원 교무로 있던 이춘풍의 건의가 채택되어 새 회상 이래 처음으로 5칸 한옥 겹집으로 지은 기와집이 1년만에 준공되었다.

제1회 기념총회를 이곳에서 300여명의 회원이 모인 가운데 개최하였고 기념촬영까지 하였다. 강당이라야 방 4개의 칸막이를 임의

로 뜯어서 열흘에 한 차례 예회를 보거나 1년에 4차례 기념제를 지내는 정도였고 평상시 낮에는 사무실, 밤에는 남자 숙소로써 남자 선원이라고도 하였다.

이 집은 제1회 기념총회가 열리는 꽃피는 봄날에 지었다고 해서 이름을 영춘원(迎春院)이라 하였다가 그 후 금강원이 지어지고 나서는 영춘헌(迎春軒)이라 하였다. 금강원에 기거하던 소태산 대종사가 원기 20년 이후부터 열반 직전까지 이 집에서 계속 기거함에 따라 「조실」이라는 이름이 계속되었다.

소태산 대종사 어느 날 한 제자에게 생사 법문을 말씀하시면서 마침 방문 곁에 있는 어린아이를 가리키시며, “저 아이가 지금 이 방안에 있으나 저 문턱을 넘어서 저 방에 가면 저 방에 있지 않느냐. 그러나 그 아이는 본래 한 아이며 다만 방이 다를 뿐인 것 같이 생사의 이치도 이쪽 방에서 저쪽 방으로 건너가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소태산 대종사 뒤를 이은 정산종사도 이 집에서 기거하였다

정산종사께서 계신 증법실에 제자들이 화병에 꽃을 꺾어다 꽂아 놓았다. 첫 번과 두 번째는 반기시더니 세 번째는 “앞으로는 꽃을 꺾어오지 마라. 어느 곳이나 도량이니 피어 있는 그대로 대중도 보고 나도 보면 좋지 않겠느냐” 하였다. 또한 조실 앞에 한 제자가 새조롱을 걸어 놓으시니 시자에게 “우리가 만약 울안에 갇혀 있다고 하면 심경이 어떠하겠느냐. 저 새들이 좋아하는 곳은 허공과 숲이니 날려보내라.” 하시기도 하고 조실 어항의 고기를 보시고 고기의 본래 집으로 돌려보내라고도 하시었다.

교단반백년기념사업으로 새로이 건축된 증법실로 증법사가 거처를 옮겨 현재 「증법실」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으나 보통 「구조실」이라 부른다. 조실이 새로 건축된 후 구조실은 「교정원장실」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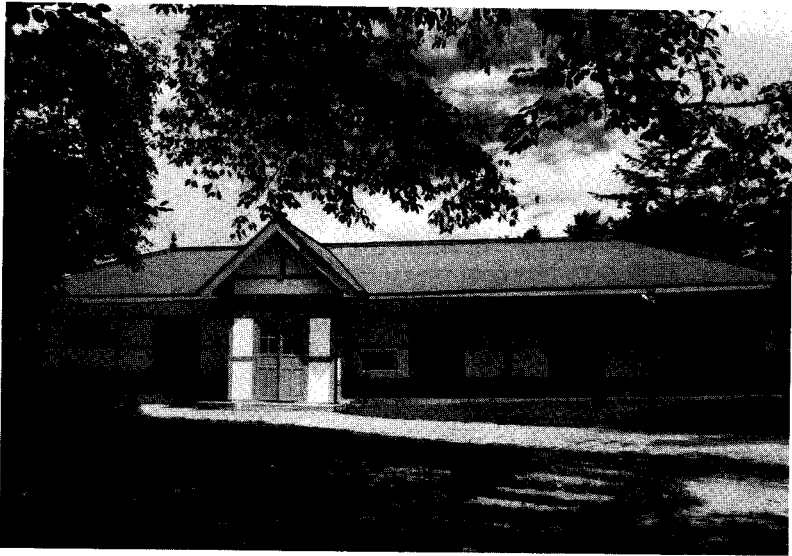
조실 / 대산종사에 이어 현재 좌산종법사가 기거하며 원불교를 이끌고 있다.

사용하여 오다가 현재는 소태산 대종사 영정을 모셔놓고 일반적인 사용은 않고 있다.

구조실 앞에 있는 나무와 정원은 소태산 대종사 손수 심은 나무이며 말씀 받들어 조성한 정원이다. 구조실은 원기 17년 개축하였고 원기 60년에 보수를 하였다. 반백기념사업으로 지은 현 조실에는 대산종사에 이어 좌산 종법사가 기거하며 교단을 이끌고 있다.

### 공 회 당(양잠실)

원기 14년 임시 임원회에서 양잠실을 건축하기로 결정하여 공사에 착수하였다. 그 동안 농업부는 만석리 출장 작농팀인 농무원과



공회당 / 소태산 대종사 친히 감독하에 지어진 12칸짜리 통방으로 지어질 당시 중앙 총부에서 가장 큰 규모의 다용도 건물이었다.

본관 거주자 농공부원 팀이 있었다. 그러나 농공부가 폐지되고 농업부원들은 전작 및 수농과 양잠을 전담하게 되었다. 농무원들이 본격적으로 누에치기에 착수하게 됨에 따라 잠실 마련이 필요했다.

봄과 가을, 양잠 기간에는 농업부에서 전용하기로 하고 그 외에는 대중의 휴식 공간 내지 선방으로 이용하기 위해 양잠실겸 공회당을 짓기로 하였다. 소태산 대종사 건축을 친히 감독하고 사산 오창건은 동분서주하느라 식사도 때를 맞추지 못하였다. 함석 지붕 12칸 짜리 통방은 당시 가장 큰 규모의 다용도 건물이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다. 봄부터 양잠실로 쓰면서 봄누에 말기와 하선이 시작될 무렵, 그리고 가을누에의 초기와 하선이 끝나는 시기가 겹쳐 처음 계획처럼 양잠실 내지 공회당으로 쓰기가 불가능했

던 것이다. 부득이 원기 15년 봄에 공회당 맞은 편에 목조 초가집을 새로 짓고 신 양잠실로 입주할 수밖에 없었다. 신 양잠실 완공 후 12칸 함석집을 「공회당(公會堂)」이라 불렀고 때로는 「구룡헌(九龍軒)」 대강당이라 부르기도 하였다. 종전에 본원실, 금강원, 구조실 등에서 행하여진 선이나 예회도 공회당에서 행해졌고, 원기 20년 대각전이 건축되기 이전까지 염불, 회화, 강연 등 모든 행사가 이 곳에서 이루어졌다. 공회당은 다용도 건물로 쓰여져 남녀학인들이 고추작업을 하기도 하였다.

이 때 소태산 대종사 나오시어 “너희가 일만 한다 하면 지루하니까 소창을 한다 생각하게 축음기를 갖다 틀어놓고 춘향전에서 절개를, 심청전에서 효성을, 흥부전에서 우애를 배우라. 일 중에서 공부하는 것이 둘 아닌 길을 배워야 한다.” 또 공회당 앞 양잠실 누에방에서 새벽에 빵을 주는 학인들에게 “빵을 줄 때 염불을 하며 주라. 그리하면 이놈들이 앞으로 보은하러 올 것이다.” 하며 일 속에서 공부 길을 잡아 주었다.

공회당에서 원기 31년 유일학림(唯一學林 원광대학교 전신)이 개원되었다. 정산종사는 개학식에서 “대종사께서 유일(唯一)이라는 교명까지 정해 놓았으나 일제 통치의 어려운 시국 관계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가 이제 조국 광복을 맞아 개학하게 된 것이다. 첫 입학생이 된 것은 진리의 축복이요 교단사에 길이 빛날 일이니 큰 사명감과 자부심으로 제생의세의 큰 역군이 되라.”고 훈시하였다.

유일학림 강의는 정산종사·이공주·이동진화·이완철·이운권이 <정전> 강의를, 서경보 스님이 선학(禪學)을, 송창허 선생이 영어·역사·한문·국어를 강의했다. 박장식이 학림장을, 박광전이 학감

을 맡아 운영을 하였다.

어느 날 학림생들이 대각전 후원에 가꾸어 놓은 토마토를 몰래 따서 대각전 안에 있는 사람에게 던져 받게 하다가 유리창을 깨게 되었는데 정산종사 이것을 들으시고 학림생들을 조실에 불러 “어느 선사가 바가지를 잃었다고 하더니 나중에 하는 말이 내가 바가지를 잃은 것이 아니라 마음을 잃었다 하더라. 너희들도 오늘 유리창을 깰 때 벌써 마음을 잃은 것이다”하며 깨우쳐 주셨다.

원광대학교가 정식 인가되어 총부 옆으로 옮기자 남자숙소로 사용되었다. 중앙선원이 공회당에서 시작하였고 원기 63년부터 상주선원이 개설되어 사용하였으나 현재는 중법사의 소규모 접견과 아침은 학림사생들의 좌선, 저녁은 총부 간사들의 일기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 송 대(松臺)

송대는 중앙총부 북편 소나무 숲 속에 지어진 집으로 옆에는 대종사 성탑과 성비가 세워져 있다. 구전에 의하면 원기 26년 가을에 소태산 대종사의 휴양과 정전 집필을 위해 지은 건물이라고 한다. 한때는 중환자들의 간병실 역할도 하였다.

원기 34년 2월에 정산종사의 유시를 받아 교단 기관지인 원광사를 설립하고 이곳에 원광사(圓光社) 현판을 걸고 원광(圓光)을 창건하였다.

정산종사는 일제 말기에 자진 휴간된 <회보> 를 계승할 교단 기



송 대 / 소나무 숲 속에 지어진 집이라 송대라 이름했고 소태산 대종사의 휴양과 정전 집필을 위해 지어졌다고 한다.

관지 발행을 염원하고, 시봉금 약간을 하사하면서 유일학림 졸업생 이은석, 이공전에게 원광지 창간을 독려하였다.

정산종사는 그 해 7월, 원광 창간호에 「일원지광 편조시방(一圓之光 遍照十方)」이라는 휘호를 내렸다. 일원의 지혜광명이 시방세계를 두루 비취주고, 일원대도가 이 세상 만물을 남김없이 끌고루 교화하기를 염원한다는 뜻이었다.

이어서 “무엇이나 진실한 일은 아무리 없애려 하여도 필경은 있어지는 것이요, 거짓된 일은 아무리 있으려 하여도 필경은 없어지고 마는 것이다”라고 교단의 영원한 장래와 아울러 《원광》도 영원하도록 축원하여 주었다. 원광 창간호에는 창건사라 하지 않고 회보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뜻에서 「신간에 제하여」라는 제목으로 창건사를 대신하였다.



청하원 / 구타원 이공주의 사가로 일경은 이곳에 불법연구회를 감시하는 복일주재소를 설치하여 불법연구회와 소태산 대종사를 감시하기도 했다.

이 무렵 한 제자가 정산종사에게 물었다. “우리의 기관지와 우리가 세운 학교들의 이름을 원광이라 하셨으니 그 뜻이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는 일원 대도를 빛내라는 뜻이나, 원광 두 글자에 더욱 깊은 이치가 들어있다. 원은 일원의 당체로서 만유와 만법의 근본자리요, 광은 곧 그 자리에서 만유와 만법이 나타나는 것이다. 원은 체요 광은 용이요, 모든 법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이 뜻을 잊지말고 잘 궁리하여 생각과 말과 행동을 원광으로써 하라. 우리 회상의 발전은 그 가운데 있을 것이다.”

### 총부의 사가(私家)들

청하원 : 중앙총부 정문을 들어서면 오른쪽 언덕에 있는 첫 건물이다. 원기 17년 구타원 이공주가 총부에 와 본원실을 사용하다가 본인의 사가로 지은 집이다. 소태산 대종사 당대에 제일 좋은

집이기에 응접실로 사용하기도 했다.

원기 21년 불법연구회 동태를 감시하기 위하여 이리 경찰서 북일주재소를 이곳에 설치했다. 고지마(小島京市)와 황가봉(법명 황이천) 두 순사가 파견되어 박창기의 방은 고지마가 쓰고 황가봉은 아래채 공간 방을 썼다. 일경이 원기 22년 백백교사건이 난 이후부터 불법연구회를 본격적으로 내사하기 시작했다. 남녀문제, 재정문제, 사상문제 등 다방면으로 내사를 하였으나 수사상의 진전은 보지 못하고 돌아가면서 서로 말하기를 불법연구회의 조직과 계획, 그리고 실천은 나라를 맡겨도 능란히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이 말을 들은 소태산 대종사는 “세계를 맡긴들 못 할 것이 무엇이리요”라고 했다 한다.

불법연구회와 소태산 대종사를 감시하던 순사 황가봉은 저녁이면 마루 밑에 들어가 감시를 하고 그것도 모자라 상부의 지시를 따라 불법연구회의 거짓 회원이 되어 머리를 깎고 학복을 입고서 선방까지 들어가 감시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황가봉은 소태산 대종사와 밥상을 같이하게 됐다. 그 날 소태산 대종사의 밥은 쇠고기국에 반찬이 나왔지만 황가봉의 밥은 그러질 못하였다. 이 때 소태산 대종사는 진지를 드시지 아니하고 시자를 불러 “밥상을 내서 똑같이 차려오라”하셨다. 그런가 하면 소태산 대종사는 황가봉에게 《대학》을 손수 가르쳐 주기도 했다. 소태산 대종사의 이러한 차별없는 사랑과 덕화에 황가봉은 크게 감동되어 결국 소태산 대종사의 문하에 귀의, 이천(二天)이란 법명을 받고 제자가 된 후부터는 교단에 큰 도움을 주기도 했다.

북일주재소는 원기 23년에 철수하였다. 원기 48년 수위단회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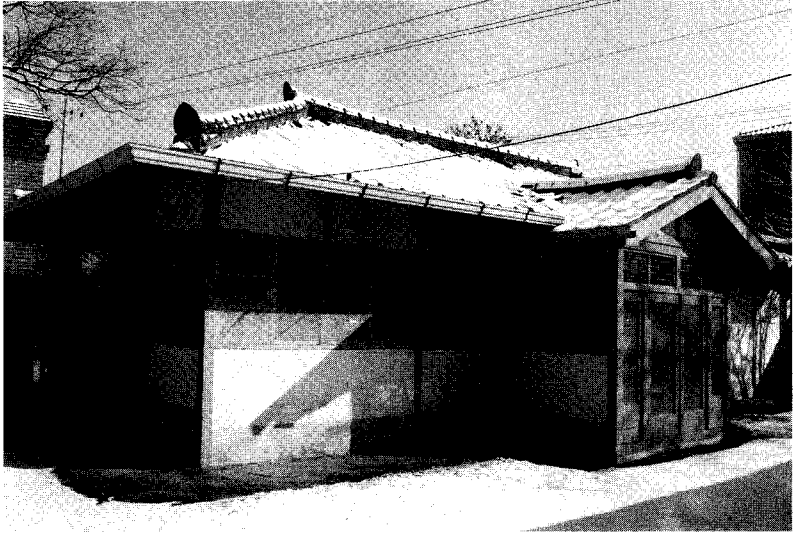


정신원 / 정신원은 팔타원 황정신행 대호법이 원기 26년에 지은 사가집이다.

수도원의 발족이 인가된 후 청하원은 수도원이 되었으나 반백년 기념사업 때 정문 확장공사로 인해 담장과 문간채가 헐리었다. 수위 단회사무처가 법은관이 건축되어 옮기기 전까지 사용하다 현재는 숙소로 사용하고 있다. 청하(淸河)는 구타원 이공주 종사의 아호다.

**정신원(淨信院)** : 원기 26년 팔타원 황정신행이 총부 구내에 지은 사가이다. 소태산 대종사의 제자가 되어 옛 영산회상의 수달장자와 같이 회상 창립에 막대한 정재(淨財)를 회사한 황정신행은 후에 정신원도 총부에 회사하였다.

팔타원 황정신행은 총부에 올 때 인력거를 자주 탔다. 이를 본 소태산 대종사는 “인력거를 타지마라. 사람이 땀 흘리며 끄는 인력거를 타는 것을 너무 좋아하게 되면 뒷날 좋지 못한 과보를 받게 될 것이다”라고 경계를 했다. 그



구정원 / 신영기가 개인주택을 회사한 것으로 옛날 교정원, 즉 약칭 구정원이라 한다.

날 이후 팔타원 황정신행은 두번 다시 인력거를 타지 않았다.

정신원은 익산교당 창립 당시 교당으로 사용하였으며 감찰원 사무실과 교서 편찬을 맡았던 정화사(正和社) 사무실로 사용되었다가 그 이후 숙소로 사용되었으며 지금은 정산종사 탄생 100주년 기념 사업회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다.

구정원(舊政院)과 그외 사가들 : 원기 20년 신영기의 개인 주택으로 건축되었으나 이듬해 이리 방면으로 이사하면서 총부에 회사하였다. 이곳을 개수하여 원기 21년 교정원 사무실을 이곳으로 옮겼다. 교정원 사무실은 원기 49년 다시 신축하여 옮기고 남자 숙소로 사용하여 오다가 반백년기념사업 때 사업회 사무실로 사용했다.

현재는 남자교무 숙소로 사용되고 있다. 제일 처음 교정원 사무실로 사용했다 해서 「옛날 교정원」이라 했고 약칭으로 「구정원」이라 부른다.

익산총부에 맨 처음 들어온 사가집은 전음광 일가의 집으로 원기 10년경이었다. 본관 건물은 초가집인데 비해 그의 집은 기와집이었다. 병인 초선부터 부인선방으로 임시 빌려썼다.

여자 선객 11명이 제1회 정기훈련을 나게 되었다. 그 때 육타원 이동진화도 참석해 선을 나고 있었다. 그런데 육타원 이동진화는 석달 정기훈련을 나면서 지병이었던 소화불량 증세가 상당히 호전되었다. 하루는 육타원 이동진화가 당시 서무부장이었던 사산 오창건이 물품구매차 솜리에 나가는 것을 보고 가오루(은단)를 사 달라고 부탁했다. 오후가 되자 사산 오창건이 가오리를 사 들고 돌아왔다. 이를 본 육타원 이동진화가 어이가 없어 “가오루를 사 오라고 했는데...”하자 사산 오창건은 “이게 가오리가 아니냐요?” 하는 것이 아닌가. 육타원 이동진화가 다시 “은단 가오루 말입니다”며 되묻자 사산 오창건은 “은단은 또 뭐다요. 가오리라면 이거 뿐이지라”라고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그 덕분에 총부대중은 그날 오랜만에 가오리를 대중공양으로 먹을 수 있었다. 그렇게 석달 동안 선을 나고 해제날이 가까워오자 육타원 이동진화는 떠나기가 섭섭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올렸다.

전음광 일가가 총부로 이사오고 2년 뒤 서중안 일가가 이사해 왔고, 세 번째 이청춘이 이사를 왔다. 이들 사가집은 꼭두마리집 아래로부터 시작하여 한길을 면해 차례대로 이청춘, 전음광, 서중안 순으로 집이 있었으나 오래 전에 헐리고 없다.

## 대종사 성탑(聖塔)과 성비(聖碑)

원불교 교조인 소태산 대종사의 위업과 공덕을 기리기 위하여 중



대종사 성탑 / 중앙총부 송림 속에 소태산 대종사 열반 후 6년이 지나서야 현위치에 성탑을 조성하였다. 가운데 둥근 부분이 성해가 봉안돼 있는 곳이다.

양총부 북쪽 송림 속에 소태산 대종사 성해(聖骸)를 봉안해서 세운 탑을 대종사 성탑이라 한다. 원기 28년 6월 1일, 소태산 대종사가 열반에 들자 제자들은 소태산 대종사를 유리관에 모셔두고 영구히 보존하려 하였으나 일경들의 강권으로 화장을 할 수밖에 없었다. 장례식조차 성대히 치르지 못하도록 아예 장례행렬을 뒤따르는 제자들마저 제한할 정도였다. 이에 제자들은 어쩔 수 없이 소태산 대종사의 성해를 화장하여 조실에 안치하였다가 49재 후 북일면 금강리 공동묘지인 산하묘지에 안장하였다.

그 후 6년이 지난 원기 34년 4월 25일에야 중앙총부 구내 현위치에 성탑을 조성하고 이안하였다. 황등 화장석으로 조성하여 연화를 양각한 기단 위에 연화 대석을 바치고 원석(圓石)을 올려 그 안

에 성해를 봉안한 후 5층 탑신과 개석을 쌓고 「대종사 성탑」이라고 각명하였다.

원기 34년 4월 25일 성탑 봉건(奉建)을 계기로 제1대(36년)성업봉찬 사업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6.25전쟁이 일어나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되었다. 그 후 「성업봉찬기념사업회」를 다시 발족하여 총재 정산종사와 사업회장 이공주를 중심으로 성업봉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어려운 여건으로 성탑·성비 주위의 석물공사와 경관조성이 미비하였다. 반백년기념사업 당시 개수작업으로 개석을 한 단계 더 올려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장엄되었다. 그리고 교단 창립제2대 말과 소태산 대종사 탄생 100주년 성업봉찬회 때 성탑장엄공사를 다시하여 소태산 대종사 십상과 친필, 그리고 계송(偈頌)부조로 장엄하였다.

원기 38년에 소태산 대종사 성비를 성탑이 세워진 오른쪽에 세웠다. 성비는 소태산 대종사의 생애와 업적을 길이 추모하기 위하여 제 1대 성업봉찬사업의 하나로 건립된 기념비이다. 이 성비에는 정산종사가 친히 지은 「원각성존 소태산 대종사 비명 병서」를 강암송성용의 글씨로 성비 사면에 음각하였다.

**원각성존 소태산 대종사 비명병서** : 대법, 천지에는 사시가 순환하고 일월이 대명하므로 만물이 그 생성의 도를 얻게 되고 세상에는 불불이 계세하고 성성이 상전하므로 중생이 그 제도의 은을 입게 되나니 이는 우주자연의 정칙이다. 옛날 영산회상이 열린 후 정법과 상법을 지내고 계법시대에 들어와서 바른 도가 행하지 못하고 사된 법이 세상에 편만하여 정신이 세력을 잃고 물질이 천하를 지배하여 생령의 고해가 날로 증심하였나니 이것이 구주이신 대종사께서 다시 이 세상에 출현하시게 된 기연이다.

대종사의 성은 박씨요, 휘는 중빈이요, 소태산은 그 호이시니, 석존 기원



소태산 대종사 성비 /  
정산종사가 소태산 대종사를 주  
세불로 받들고 찬양하는 내용과  
일대기를 기록했다.

2918년 신묘(辛卯, 1891) 3월 27일에 전라남도 영광군 백수면 길룡리에서 탄생하시었다. 부는 박회경, 모는 유정천이시요 신라 시조왕 박혁거세의 후예이시다.

대종사 유시로부터 기상이 늠름하시고 도량이 웅대하시며 모든 사물에 매양 사색의 정신이 많으시고 한번 하기로 한 일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반드시 실천하는 용단력이 있으시었다. 9세시에 우주의 자연현상을 보시고 큰 의심이 발하시었으나 그 의두를 풀기로 한즉 생각이 막연하여 도저히 구경처를 해득하기가 어려우매 대종사의 우울하신 심경은 날이 갈수록 깊어지시사 처음에는 산신에게 다음에는 도사에게 의뢰를 구하여 보시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시고 필경은 주소일념이 오직 한 의심뿐이므로 점점 계교돈망 하는 삼매의 경지에 드시었으니 이 사이에 생활의 곤란과 심신의 피로는 이루 다 말할 수 없으시었다.

26세 되시던 병진 3월 26일 이른 아침에 동천의 서광을 보시고 정신이 문득

상쾌해지시며 적세에 뻗었던 의두가 풀리기 시작하여 드디어 대각을 이루시었다. 대종사 대각을 이루신 후 전성의 증오처를 참고하기 위하사 제가의 경전을 열람하시다가 <금강경>을 보시고 가라사대 서가모니불은 진실로 성중성이라 하시고 이에 부처님에게 연원을 정하시고, 다시 현 시국을 관찰하시매 세도가 이미 위기에 당하여 그 구제사업이 시급함을 생각하시고 처음 9인제자를 얻으사 최초범어를 설하신 후 영육쌍전의 기초를 닦기 위하여 먼저 저축조합을 설치하사 길룡리 해변의 간석지를 개척하시고 무아봉공의 정신을 세우기 위하여 기도서원을 명하시었던 바 9인이 한 가지 혈인의 신성을 바치었다.

기미 8월에 2, 3제자를 데리시고 석장을 부안 봉래산에 옮기시어 5년간 주재하시며 교리초안을 대략 마치신 후 갑자 4월에 하산하시어 총부를 익산군 신흥리에 건설하시고 불법연구회라는 임시 명칭으로 교문을 공개하사 제자 수십인으로 더불어 주경야독의 간고한 생활을 하여가며 교리훈련을 시작하시었나니 교리의 대강은 일원을 최고 종지로 하여 이를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하는 동시에 천만사리를 다 이에 통일케 하시고, 사은사요를 윤리로 하여 종전에 미원한 모든 윤리를 다 통하게 하시고, 삼학팔조를 수행으로 하여 종전에 편벽된 일체 수행을 병진하게 하시며, 다시 영육쌍전 이사병행 처처불상 사사불공 무치선 무처선 등 대체를 밝히사 사통오달의 원융한 도로써 모든 법을 간이능행(簡易能行)케 하신 것이다.

이와같이 교리훈련을 실시하는 일방, 다시 생활체도의 개선에 착수하사 허례산삭과 미신타파며 자작자급과 수지대조 등의 방법으로써 새로운 사업기초를 쌓으사 춘풍추우 20여년에 숙야근간 하시와 일정의 압제와 싸워가며 모든 난관을 극복하시어 교단 건설에 오로지 심혈을 다 하시더니 무상이 신속하여 계미(癸未, 1943) 5월 16일에 대중을 모으시고 생사진리의 대법문을 최후로 설하신 후 6월 1일에 열반상을 보이시니 세수는 53이요, 개법이 28년이였다. 때에 도중(徒衆)들은 반호벽용하여 그칠 줄을 몰랐고, 일반사회의 차탄하는 소리 연하여 마지아니하였으며, 허공법계와 삼라만상이 다 같이 오열하는 기상을 보이었다. 그 후 교단은 한결같이 선사의 유업을 이어 시국의 만단을 겪으며 대중이 일심동진하던 중 을유 8월에 민족이 해방되자 신생국운의 발전과 아울러 교세가 점차 확장되매 병술(丙戌) 4월에 교명을 원불교라 정하고 이를 천하에 공시하였다.

오호라 대종사는 일찍이 광검종성으로 궁촌벽지에 성장하시어 학문에 수습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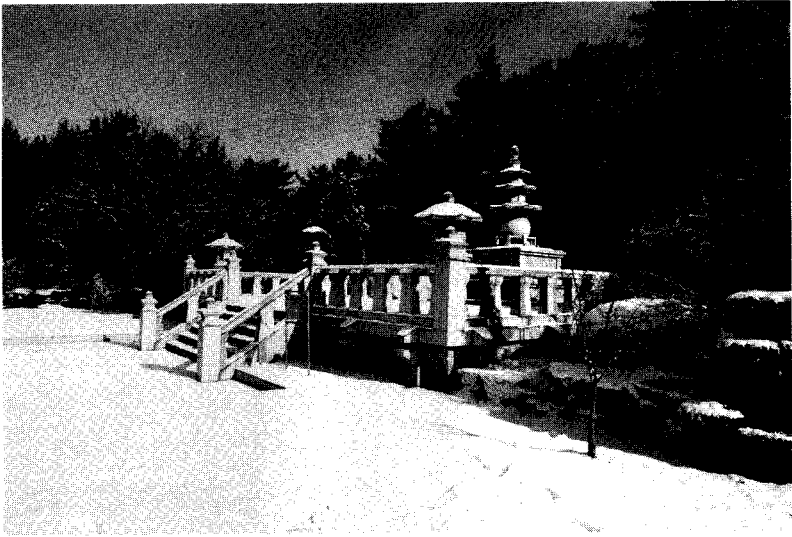
없었으나 문리를 스스로 알으시고, 사장의 지도가 없었으나 대도를 자각하시었으며, 판탕한 시국을 당하였으나 사업을 주저하지 아니하시고, 완강한 중생을 대할지라도 제도의 만능이 구비하시었으며, 기상은 태산교악 같으시나 춘풍화기의 자비가 겸전하시고, 처사는 뇌뢰낙락하시나 세세곡절의 진정을 통해 주시며, 옛 법을 개조하시나 대의는 더욱 세우시고, 시대의 병을 바꾸시나 완고에는 그치지 않게 하시며, 만법을 하나에 총섭하시나 분별은 오히려 역력히 밝히시고, 하나를 만법에 사용하시나 본체는 항상 여여히 들어내사 안으로 무상묘의의 원리에 근거하시고, 사사물물의 지루까지 통하시어 일원대도의 바른 법을 지방삼세에 한없이 열으시었으니 이른바 백역화신의 여래시요 집근성이대성이시라, 영천영지 천만겁에 무량한 그 공덕을 만일이라도 표기하기 위하여 이 돌을 세우고 이 명을 지어 가로되 「오약종사 광검중성 응화기연 구세도중 자수자각 경로간난 건교사업 평지조산 일원대도 만법지모 교문통달 중성공회 28년간 속야근면 천만방편 무량법문 법륜부전 불일중취 인천위대 육중동귀 견항삼제 횡편시방 우로지택 일월지명 무변공덕 표이사석 영천영지 모양무극」 원기 38년 4월 26일 입

정산종사는 이 비문을 독송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선성들을 추모하는 마음이 공부와 사업심의 원동력이 된다. 자주 독송하여 여러 사람들이 듣게 하라. 비문은 대종사님을 주세불로 추송하는 대선언이요, 교리·교사의 정강을 세우는 대문장이다.

비문 가운데 우로지택(雨露之澤) 일월지명(日月之明)이란 대목은 대종사님의 덕을 찬양한 것으로 이보다 더 좋은 말이 없다. 대종사님비문은 예사 기공(紀功)에 그친 것이 아니다. 대종사님께서 모든 성인을 집대성하사 새 세상의 주세불임을 법계에 선언한 것이다.”

## 정산종사 성탑

교조 소태산 대종사의 법통을 계승한 정산종사는 원기 47년 1월



정산종사 성탑 / 정산종사의 공덕을 기리고 생애를 추모하기 위하여 성탑을 건립하고 성해를 봉안했다.

22일 열반하시기 이틀전 각처에서 운집한 제자들에게 최후 작별의 말을 했다. “우리가 다생겁래에 함께 공부하고 사업한 영산회상의 운형수제이다. 결코 이 세상에서 처음 만난 사람들이 아니다. 영원한 미래에 세세생생 서로 만나서 이 공부 이 사업할 사람들이다. 대중 중에 누가 한 사람 삼동윤리를 설명하여 보라. 대산 김대거가 말하는 것이 좋겠다.”

대산 김대거가 뜻을 받들어 간략하게 설명하자 정산종사 기쁜 표정으로 미소하며 “그 말이 옳다. 이제부터는 천하의 도가 모두 합하는 때이니 대 세계주의인 일원대도로 천하를 한 집안 만드는데 다같이 힘쓰자”며 삼동윤리를 읊으셨다. 그리고 24일 오전 세수 63세, 법랍 45년, 종법사 재임 20년의 생애를 마치고 열반에 들었다.

정산종사가 열반하자 그 성해를 다비한 후 송대에 임시 봉안하였

다. 원기 56년 정산종사의 공덕을 기리고 생애를 추모하기 위하여 개교 반백년 기념사업 중 하나로 정산종사 성탑을 영모전 서쪽, 현 소태산 대종사 기념관 입구 자리에 건립하고 성해를 봉안하였다.

그러나 반백년 당시에는 다양한 기념사업을 추진하였던 관계로 성탑을 뜻과 같이 건립하지 못한 아쉬움과 성해를 모신 성탑이 후대에 남길만한 역사성과 상징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교단 제2대 말과 대종사 탄생 100주년 성업봉찬 때 성탑의 보수보다는 다시 건립을 결의하고 탑의 건립 부지를 대종사 성탑 동쪽, 현 성탑 위치로 확정하였다.

원기 73년에 옛 성탑을 해체하여 성해를 옮겨 봉안하고 성탑과 주변 공사를 마무리하여 그해 준공 제막식을 거행하였다. 성탑은 전통양식으로 탑 중앙 원석(圓石)속에 성해를 모시고 비문은 대산종사가 지었다. 탑 윗편 부조는 소태산 대종사와 정산종사의 만남을 뜻하는 화해제우지상과 정산종사의 계승인 삼동윤리 사상을 형상화한 삼동윤리상으로 장엄을 하였다.

대산종사는 비문에서 “... 대종사는 하늘이요 태양이시라면 정산종사는 땅이요 명월이시며 대종사는 우리의 정신을 낳아주신 영부라면 정산종사는 그 정신을 길러 주신 법모시라”고 밝히셨다.

## 영 모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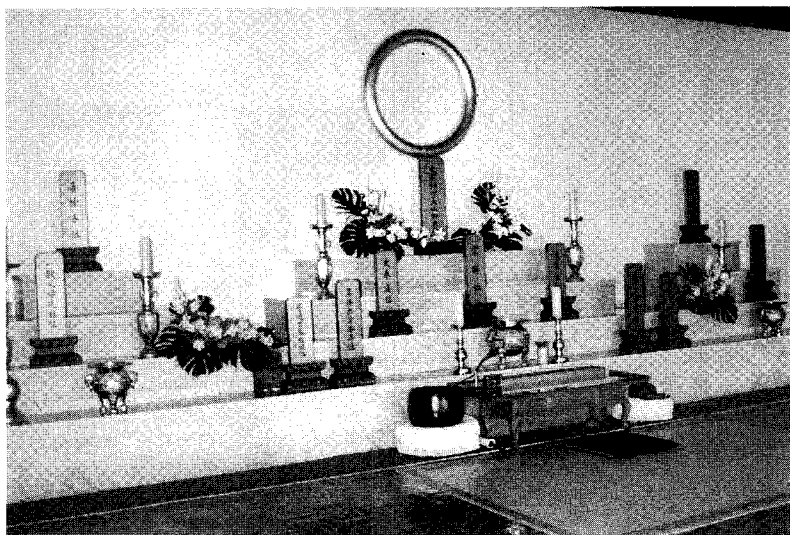
중앙총부의 확장된 구역 중앙에 자리잡고 있으며 반백년 기념대회 기념사업의 하나로 건축된 건물로 원기 56년에 완공되었다. 영



영모전 / 소태산 대종사 이하 역대 선진 열위의 위패가 모셔져 있는 사당으로 이곳에는 6월 1일과 12월 1일 두차례 합동향례가 올려진다.

모전은 소태산 대종사 이하 역대 선영 열위의 범을 영원히 사모하기 위하여 위패와 역사를 봉안한 묘우이다. 위패의 설위는 소태산 대종사 위패 외에는 개별 위패를 봉안하지 아니하고 공동 위패를 봉안하였으며, 본좌는 소태산 대종사위를 비롯 재가·출가의 역대 선영열위를 봉안하고 좌편 별좌는 회사위와 일반 부모 선조위가 봉안되어 있고, 우편 별좌는 선성(先聖)위와 일체 생령위를 봉안하였다.

교단에서는 매년 6월 1일 「육일대재」와 12월 1일 「명절대재」에 정기적으로 향례를 올리고 있다. 교단 제2대 말과 대종사 탄생 100주년 성업봉찬대회 때 본래의 위패 위에 일원상을 봉안하였다. 영모전 건축양식은 석축을 쌓은 누대 위에 시멘트 현대식 건물로 청기와를 얹은 반쪽 지붕으로 한국 건축의 곡선미와 웅장미



영모전 내부 / 영모전 내부에는 일원상과 소태산 대종사 이하 역대 선진 열위의 합동 위패가 모셔져 있다.

가 조화를 이루었으며 지붕의 건축양식이 특이하다. 건물 앞에는 넓은 잔디광장이 조성되어 총부에서 벌어지는 각종 큰 집회시 야외 행사가 치러진다. 원불교의 영모전은 현재 중앙총부와 영산성지 2 곳에 건립되어 있다.

### 소태산 대종사 기념관

소태산 대종사 탄생 100주년을 맞이하여 주세성자로 오시어 일원대도와 정신개벽을 천명하고, 중생제도와 낙원세계 건설을 위해 일생을 헌신하신 소태산 대종사의 위대한 생애와 사상을 길이 추모 존송하고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원기 76년에 준공 개관하였다.

원불교 성지



소태산 대종사 기념관 / 소태산 대종사의 유품과 초기교단의 사진자료들을 전시하고 초기교단의 소박했던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는 곳이다.

기념관은 원불교 교리도에 입각하여 건축하였으며 1층은 소태산 대종사 유품과 초기 교단 사진자료 전시실, 2층은 기념홀로 구성되었다.

1층 전시실에 들어서면 오른쪽에 소태산 대종사의 친필 유묵을 비롯하여 회중시계, 공양그릇, 경상, 가방 등 조출한 전시물에서 소박한 가운데 일생을 인류구원을 위해 살다간 성자의 모습을 느낄 수 있다. 사진자료 전시실에서는 소태산 대종사의 생전 모습을 담은 다양한 사진과 원불교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다.

2층 기념홀에는 좌대 1.5m 좌상 2.5m의 소태산 대종사 성상(聖像)을 정중앙에 모셨다. 원불교 전체의 유일한 성상으로 석상(石像)이다. 성상 좌우에는 1,300호 크기의 대형 기념성화로 개교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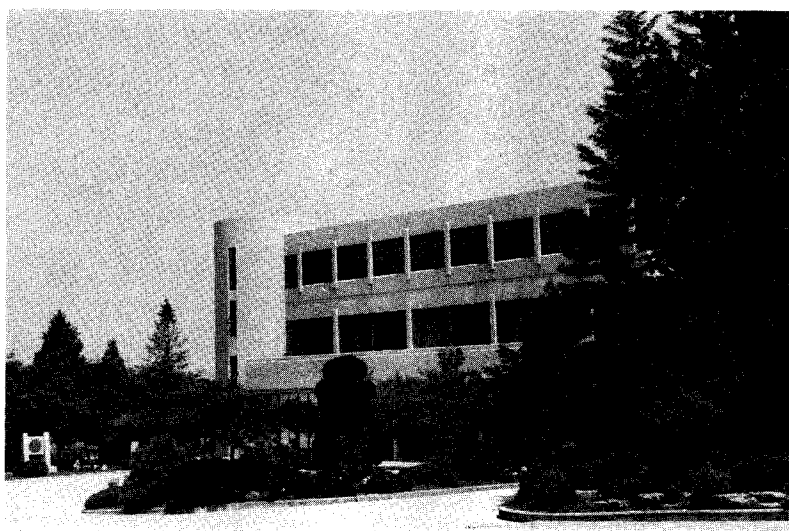


소태산 대종사 성상 / 원불교 전체에 유일한 소태산 대종사 성상으로 석조로 만들어진 좌상이다.

신도와 회상창립도를 부착하였다. 개교정신도는 고해에서 해매는 중생들을 낙원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염원을 담은 성화이며, 창립정신도는 제자들과 바다를 막아 농토로 만드는 모습과 9인제자들이 법인기도 올리는 모습이 담겨있다. 기념관은 한 곳에서 소태산 대종사와 원불교 초기교단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곳이다.

## 반백년 기념관

원불교 성지



반백년기념관 / 개교 반백년 기념사업의 하나로 지은 대중집회 건물로 지금도 중앙총부의 대부분의 대중행사가 이곳에서 진행된다.

개교 반백년기념사업의 하나로 중앙총부에 지은 기념관으로 원기 56년 완공되었다. 기념관이 지어지기 전까지 총부의 중요행사는 대각전에서 거행되었으나 반백년 기념관이 지어진 이후는 각종 기념행사를 이곳에서 개최하였다.

기념관은 1층과 2층의 강당에 1천여석을 갖춘 대형무대가 시설되었고, 1층에 원불교 행정기구인 교정원 교화부 등 몇몇 부서와 영모원 사무실이 있어 교정원 부서들이 법은관으로 이전하기까지 사무를 보았으며 2층에는 중앙박물관 사무실, 3층에는 중앙박물관 전시실이 있었다.

원기 77년 화재로 내부가 소실되어 새로운 내부 설계로 개수하여 1천500여명을 수용하는 오늘날 대법당의 모습이 되었다. 반백년 기념관 3층에 중앙박물관은 소태산 대종사와 교단 초창기의 유물, 그



교정원 구관 / 반백년기념대회 때 교정원 건물로 지은 것으로 지금도 몇몇 교정원 부서 및 감찰원이 사무를 보고 있다.

리고 선진 유물들을 전시하고 사무실은 소태산 대종사 기념관에 있다.

### 교정원 구관과 법은관

교정원은 원불교 행정의 중심부로 교단 최고집행기관이며 교정원장이 최고 책임자이다. 교정원은 교헌에 중앙총부에 두도록 명시되어 있다. 교정원 구관은 교단 반백년 기념사업 때 교정원 건물로 건축하였다. 교정원장실을 비롯하여 교정원 각부가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소태산 대종사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법은관을 새로 지어 일부 사무실들이 옮겨가고 현재는 감찰원과 교



법은관 / 소태산 대종사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 때 중앙총부의 종합회관으로 건립되었다.

정원 교화부, 재무부 등이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

법은관은 총부 구내 곳곳에 교정원이 분산되어 사무를 보고있어 행정기능의 효율성이 문제가 됨에 따라 총부의 행정적 기능을 다할 수 있는 종합회관의 건립이 검토되었다. 하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아 여러차례 미뤄오던 중 소태산 대종사 탄생 100주년을 앞두고 총부 기능의 원활한 수행과 내외빈 응접과 각종 행사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법은관 건립이 필요하여 원기 74년 교정원의 제안에 따라 사무실, 영빈실, 회의실, 식당 등을 갖춘 종합회관 건립을 합의하여 건립하였고 법은관이라 이름하였다.

## 종 각(원음각)



종 각 / 원음각의 개벽대중은 아침의 밝음과 하루의 마감을 알리며 각종 의식과 집회를 알리는 신호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원기 32년에 범종을 부산에서 조전권 교무의 주선으로 총부로 가져와 세탁부 처마 밑에 매달아 사용하다가 원기 39년 익산의 한 사찰 종각을 대각전 입구로 이전 건립하고 범종을 종각에 옮겨 사용하던 중 깨져, 원기 66년 남원교당이 이전하면서 교당의 범종을 총부로 옮겨와 사용했다. 그러나 현 위치에 종각을 새롭게 지어 그 이름을 「원음각(圓音閣)」이라 하고 새로 조성한 범종을 「개벽대중」이라 이름하였다. 개벽대중은 새벽 5시에 33타를 쳐 새 날이 밝음을 알리고 밤 10시에 28타를 쳐 하루의 마감을 알리며 각종 의식과 집회를 알리는 신호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소태산 대종사 당대에 종을 잘못쳐 소동이 벌어졌던 일화가 지금도 전해지고 있다.

종을 치는 책임을 맡은 한 제자가 하루는 시계를 잘못 봐 새벽 1시에 그만

종을 치고 말았다. 그런 줄도 모르고 총부 대중들은 새벽 좌선을 하기 위해 대각전으로 모여들었다. 그러나 막상 와서보니 시계는 이제 겨우 새벽 1시를 조금 지났을 뿐이었다. 좌선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놓고 대중들이 논란을 벌였다. “종을 쳤으니 별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좌선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날이 새려면 아직도 여러 시간 남았는데 어떻게 그 때까지 좌선을 한단 말입니까. 돌아가서 잠을 자고 다섯시가 되거든 다시 시작합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서 피곤한데, 이제 다시 잠자기 시작하면 어떻게 다섯시에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좌선을 조금하고 돌아가서 날이 썰 때까지 그냥 잠을 자도록 합시다. 다섯시에는 종도 물론 치지 말도록 합시다.” 대중들은 갑론을박을 전개하다가 결국 날이 썰 때까지 좌선을 계속할 수도 없고, 다섯시에 다시 일어나기도 어려우니, 그냥 돌아가서 다섯시에도 일어나지 말고 날이 썰 때까지 잠을 자자는 데로 결론을 내렸다. 이 말을 듣고 소태산 대종사는 크게 야단을 쳤다. “종을 잘못 쳐서 한시에 잠이 깬다고 해서 다섯시에도 일어나지 말고 그냥 잠을 자겠다니 말이나 되느냐. 그러고도 어떻게 성불하기를 바라겠느냐. 대저 마음공부란 수염에 불이 붙은 것처럼 바쁘게 해야만 하는 것이다. 수도인은 한끼 밥을 굶는 한이 있어도 조금 피로하다고 해서 하루 아침 좌선을 빼먹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이 도량에 와서 규칙을 지키지 않고 좌선을 하지 않는 사람은 공중사를 잘못하는 것보다 더 큰 죄를 짓는 사람이다. 오늘 일은 그대들이 잘못 생각한 것이니 크게 반성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

## 원로원과 수도원

원불교 교단에 봉직하다 정년퇴임 후 수도 정진하면서 후진들을 훈증으로 이끌어 주는 수양관으로 남자 원로교역자들의 수양관을 원로원이라 하고 여자 원로교역자들의 수양관을 수도원이라 한다.

원로원은 원기 70년 교단의 퇴임 남자 원로교역자들을 모시기 위하여 교단 창립 2대말 성업봉찬회에서 중앙총부 구내 대각전 앞에 세웠다. 원로원에는 교단 초창 당시 소태산 대종사를 모시고 공부



원로원 / 정년퇴임한 남자 원로교무들이 수양을 하고 있는 수양관이다.

했던 원로교역자들을 비롯하여 교단의 많은 원로교역자들이 상주하면서 교단 창립 역사의 산증인으로 후진들을 이끌고 있다.

익산수도원은 퇴임한 여자 원로교역자들을 모시기 위하여 원기 59년에 발족하여 송원철 교무가 익산분원 분원장으로 임명되어 수도원의 제반여건을 준비하며 초창의 어려움을 이끌어 왔었다.

그후 원기 65년 정식으로 퇴임자가 임원하였고 원기 67년에는 수도원을 총부 구내 현 위치에 지었다. 차츰 퇴임 원로교역자들이 많아짐에 따라 동산수도원이 옛 동산선원 자리에 개원을 하였고 서울에는 우이동 분원과 영산성지에 영산수도원을 두고 있다.

수도원에는 교단 초창 당시 소태산 대종사를 모시고 공부했던 원로교역자들이 수양에 전념하면서 후진들을 이끌어 주고 있다.



익산수도원 / 정년 퇴임한 여자 원로교무들이 수양을 하고 있는 기관이다.

### 상주선원

소태산 대종사 당대부터 총부 임직원들의 생활은 주경야독하는 공동생활로 그대로가 상주선원이었다. 인재 양성기관의 하나인 중앙선원의 운영이 어려워짐에 따라 원기 54년부터 중앙총부 구내 상주선원으로 명맥을 유지하여 오다가 그후 중앙훈련원이 발족됨과 동시에 중앙총부 임직원들의 공부풍토를 조성하는 상주선원이 다년간 개원되지 않았다.

원기 63년 대산종사가 제74차 임시수위단회에서 제의해 상주선원 개설을 결의하고 초대원장에 장성진 교무가 임명되고 동년 3월에 공회당에서 개원식 및 기념법회와 현판식을 가졌다. 원기 75년 현 위치에 새 건물을 신축하고 총부 임직원 공부풍토 진작과 일반교도훈



상주선원 / 중앙총부 임직원들의 공부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설립된 상주선원은 현재 중앙총부 교당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련, 총부를 순례하는 교도들의 훈련 및 숙소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 원광대학교 원불교학과

정산종사는 소태산 대종사의 유지를 받들어 원기 30(1945)년 8·15 해방을 맞이하여 정식으로 학교를 설립하고 본격적인 교육의 장을 열어가기 시작했다. 원기 31년 중앙총부 구내에 유일학림을 설립하고, 중등부와 전문부의 편제로 발족하였다. 유일학림이 창설되고 5년이 지난 후 중등부는 원광중학교로, 전문부는 원광대학으로 설립인가를 받아 원불교 개교정신과 국가 교육이념을 조화한 교육의 장으로 새롭게 출발하였다.

원불교 성지



원광대학교 교학대학 / 원광대학교 교학대학 내에 원불교 전문출신을 선원한 예비교역자들이 수학과 있는 원불교학과가 자리잡고 있다.

한때 원광대학을 서울에다 설치하자는 의견과 충부에 두자는 의견이 분분할 때 정산종사가 말씀하시었다. “원광대학을 서울에다 설치하면 일시적으로 크게 발전할 것이다. 그렇지만 충부 옆에 두게 한 것은 처음에는 발전이 신통치 못하나 대학으로 인하여 충부가 드러나고 충부로 인하여 대학이 드러나서 함께 발전하다가 나중에 교세가 확장되면 대학이 일류대학이 되어서 국립대학을 능가하리라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원광대학교는 현재 지방사학의 명문으로 자리잡아 원광의료원을 비롯하여 전주·광주·군포 등지의 한방병원과 각종 연구소 등의 부설기관을 갖추고 2만여명의 재학생들이 수학과 있다. 원광대학교내 원불교학과는 원불교 교역자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원불교학과는 원광대학교의 시작과 함께 개설되어 초급대학으로 출발하면서, 과 명칭이 교학과로부터 비롯하여 불교교육과를 거쳐



학림사 / 원광대학교 원불교학과 남자 서원관으로 전무출신을 서원한 남자 예비교역자들이 생활하는 곳이다.

교학대학 원불교학과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 원불교학과는 영산 원불교대학교와 함께 원불교 교역자를 양성하는 양대 교육기관이다. 원불교학과를 졸업 후에 원불교대학원대학교 2년을 수학한 후 원불교 교역자로서 교역의 길에 나선다.

### 학림사와 정화원

원불교 전무출신을 서원하고 원광대학교 교학대학 원불교학과에 재학 중인 예비교역자들의 기숙사인 서원관은 남서원관인 학림사와 여서원관인 정화원이 있다. 예비교역자들은 학교생활과 함께 서원관에서 지도교무들의 지도로 교역자로서 자질과 서원·신심·공심



정화원 / 원광대학교 원불교학과 여자 서원관으로 전무출신을 서원한 여자 예비교역자들이 생활하는 곳이다.

을 키워가고 있다.

학림사는 원기 31년 유일학림이 개설되어 공회당 서쪽 방을 남자 서원관으로 사용하였다. 그후 원기 35년 익산시 동산동 적산 미사공장에 교사와 전무출신 공비생 서원관이 입주하여 사용을 하기도 하였다. 원기 47년 서원관(현 정화정사)를 건축하여 여자 서원관으로 사용하다가 원기 56년에 남자 서원관으로 사용하였다. 원기 66년에는 학림사를 현 위치에 신축봉불 낙성하였다. 그 후 예비교역자 증가로 인하여 원기 72년 학림사 신관을 건축하였다.

원기 36년 총부에 공비생을 합동으로 수용하기 위해 여서원관인 정화원이 출발하였다. 원기 44년에는 학림사 건물(현 정화정사)에 입사하였다가 원기 51년에 숙소가 협소하여 중앙선원(현 공회당)을 병용해서 사용하였다.



원불교대학원대학교 / 원불교대학원대학교는 석사전무출신시대를 열었다. 졸업후 교화 일선에서 소태산 대종사의 전법사도로서 사명을 다하고 있다.

그후 원기 52년에 주산종사의 사가가 있는 비탈진 복숭아 밭 터를 정리하여 정화원을 신축하였다. 그 후 원기 55년 현 정화원에 이사하여 여자 서원관으로 사용하면서 교무훈련시에는 여자교무 숙소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그러던 중 인원 증가로 원기 67년 정화원 뒤뜰에 적공실(신정화원)을 신축하여 여자 예비교역자들만 정화원과 신정화원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

### 원불교대학원대학교

원불교대학원대학교의 태동은 원기 56년 당시 동산선원과 원광대

학교 원불교학과 졸업생 25명에 대한 20일간의 훈련을 중앙훈련원에서 실시한데서 비롯되었다.

선학원 졸업생 훈련기간이 원기 59년부터는 2개월로 연장되고 원기 63년부터는 6개월, 원기 68년부터는 1년과정으로 연장되어 훈련의 성격도 전문적인 연구와 교육으로 발전됨으로 이를 전담하는 전문교육기관의 설립이 요청되어 원기 72년부터 동산선원이 있던 곳에 동산훈련원을 설립하여 원기 78년까지 1년과정으로 교육을 해 왔다.

원기 73년도에 발표된 <교단 제3대 설계안>은 교육과정의 정비방향에서 동산훈련원은 원광대학교 원불교학과와 영산대학의 교육과 연계시켜 훈련을 마치고 대학원 과정을 목표로 발전시켜 나간다.

그후 <예비교무교육발전계획>은 예비교무 교육과정을 대학과정 4년과 대학원과정 2년의 6년으로 연장하여 실시하기로 하고 여건조성을 위하여 원기 79년 구 중앙훈련원으로 이전함과 동시에 원불교대학원으로 학교명을 변경하였다. 다시 원기 82년 정부로부터 <원불교대학원대학교>의 설립인가를 받아 개교해 원불교 석사 전문출신 시대의 문을 열었다.

### 중앙총부 정문

중앙총부의 처음 정문은 세탁실과 구식당 사이에 있었으며 불법연구회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다. 높이 2.5m의 4각 시멘트 돌기둥에 2m 가량의 송판 나무문이 달려 있었으나 송판이 썩어 문이 부



중앙총부 정문 / 교단 제2대 말 성업봉찬사업의 일환으로 건립되었다.

서지자 주변정리를 하면서 시멘트로 된 문기둥을 정리하고 원형 돌기둥을 세우고 대문을 달지 않았다.

교단 반백년 기념사업 때 중앙총부 확장공사를 하면서 청하원 탕자나무 울타리와 함께 돌기둥도 뽑아 정문에 특별한 표시가 없었다. 그 후 교단 제2대 말 성업봉찬회에서 봉찬사업의 하나로 그간 수차 논의되어 온 총부 정문을 건립하기로 하고 정문 형태는 백제 건물양식으로 원기 69년에 완공하였다.

총부 정문은 처마높이 4.7m, 최고높이 9.7m, 가로 20.8m 한식기와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며 특지가의 특별회사 등으로 세워졌다.

## 원불교 문화회관



원불교 문화회관 / 문화교화를 적극적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문화관계 기관들이 한 곳에 모여있다. 원기 83년에 개국한 원음방송국이 3층에서 전파를 발송하고 있다.

원불교 문화교화를 적극적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문화관계 기관들이 모여있는 곳이다.

중앙총부 정문 우측 3층 건물로서 중앙문화원(원기 67년 발족)과 원불교 교서 및 각종 인쇄를 담당하고 있는 원광사(원기 34년 창설), 월간원광사, 원불교신문사, 원불교출판사, 교정원 문화부 등이 상주하며 문화교화를 담당하였으나 문화부가 법은관으로 옮기고 원광사가 독립건물을 지어 이전하면서 그 자리에 원음방송국이 새로 들어와 문화교화를 담당하고 있다.

정산종사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의 하나로 개국한 원음방송은 아직 전북권에 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원음의 소리가 전파를 타고 대중에게 다가서는 역사적인 첫발을 내딛었다.



동산수도원 / 동산수도원은 얼마 전까지 전무출신의 수학기관이었으나 최근 퇴임 원로 교무들의 수양관으로 변경되었다.

## 동산수도원

동산수도원 터는 소태산 대종사께서 직접 잡아주신 터라고 전한다. 원기 20년 어느 날 이의인화(1897-1963)는 소태산 대종사께 “이곳 이리에도 교당 기지를 하나 정해 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했다.

소태산 대종사 이의인화와 몇몇 제자를 데리고 동산동에 올라 사방을 관망하더니 “내 오늘 여기에 교단 만년의 기초가 되는 땅을 정하였노라. 앞으로 이곳에서 대도인이 상주설법을 하게되고 천여래 만보살이 배출되리니 화피초목 뇌급만방의 불보살 세계를 이루리라” 하셨다.

그러나 당시는 일제시대였고 또한 일본의 신사(神祠)가 자리잡고 있었다. 이로부터 이의인화는 마음속에 서원을 세우고 지극한 정성

으로 심축하였다. 이로부터 10여년이 지나서 마침내 원기 32년 신사터를 인수받았다. 원기 38년 고등선원이라는 명칭으로 개원하였으나 이리교당과 병설하게 되었다. 이리교당은 뒤에 독립해 나가고 원기 46년에 운영난으로 휴원하고 중앙선원과 병합하였다.

동산수도원에는 정산종사가 정양할 때의 다음과 같은 일화가 전해오고 있다.

정산종사께서 열반하시기 1년 전 여름, 정산종사는 동산선원에서 정양을 했다. 정산종사는 시자들이 의사를 부르면 만류하는지라 하루는 시자들이 말씀드리지 않고 의사의 내진을 청했다. 이것을 본 정산종사가 시자들에게 “너희들이 집 팔아서 주려느냐?” 고 묻자 시자들이 사퇴기를 “집 팔지 않아도 돈 있지 않습니까?” 하고 대답했다. 이 말을 들은 정산종사는 “전무출신들에게 쓰려고 모아둔 돈인데 내가 다 써 버리면 어찌느냐” 하며 시자들을 나무랐다. 정산종사는 그렇게 항상 전무출신들의 건강을 생각하였다.

원기 48년 동산선원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출발하여 원광대학교 원불교학과와 더불어 교무양성기관으로 역할을 다하다가 원기 71년 선원교육개편으로 영산선원에 병합되어 동산선원 자리는 초급교무 훈련기관으로 되었다가 초급교무 훈련기관이 옛 중앙훈련원으로 이사함에 따라 원기 79년에 동산수도원으로 개원하여 정년퇴임한 원로교역자들의 수양기관이 되었다. 익산시 동산동에 자리잡은 동산수도원은 중앙총부에서 약 6km가량 떨어져 있다.

### 보 광 사(普光寺)

보광사는 중앙총부에서 약 6km여 떨어져 있는 익산시 마동 133



보광사 / 원기 9년 불법연구회 창립총회를 가졌던 익산시내에 있는 개인 사찰이다.

번지 죽산(竹山)에 위치해 있는 관음보살 신앙도량이다. 현재는 태고종 소속의 개인 사찰로 1920년 금산사 김성철 화상에 의해 개창되었으며 옛 이리 시내에서 최초로 설립되었다 한다. 소태산 대종사 원기 9년 전주 완산동 전음광가에서 「불법연구회」 창립발기인대회를 하였다.

소태산 대종사 총부기지에 대하여 “이리가 토지가 광활하고 교통도 편리하여 무산자들의 생활과 각처 회원들의 내왕이 편리하니 그곳으로 정함이 좋다.”하여 이리 보광사로 창립총회 장소를 정하고 총부기지는 현장 답사 후 결정하기로 하였다.

보광사에서 원기 9년 4월 29일(양, 6월 1일)에 불법연구회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새 회상을 내외에 공개하였다. 창립총회에는 영광·김제·익산·전주 등지의 지방대표 14인등 총 39명이 참석하였

다.

오전 10시 임시의장 송만경의 사회로 시작되어 총재에 소태산 대종사를 추대하고 회장에 서중안, 평의원에 서동풍·박원석·김기천·문정규·송만경·오창건·이동안·전음광 이상 8인이 선임되었다. 임원선거에 이어 불법연구회 초대 회장인 서중안의 주재로 회의가 진행되었다.

서중안은 임시서기를 지명하고 <불법연구회규약> 제정에 들어간바 미리 준비해 온 초안대로 이의없이 통과되었으며, 이어서 회체 유지방법 및 회관건축 등에 대한 안건 토의와 김기천의 「재가선법과 출가선법」, 「술성요론」에 대한 설명이 있는 후 창립총회가 끝났다.

이날 창립총회가 끝난 후 각지역 대표들은 소태산 대종사와 이리부근 여러 곳을 돌아보며 총부건설 기지를 물색하였다. 총회를 마친 후에도 총부건설 기지는 수차례 답사한 후 박원석의 주선으로 그해 8월 익산시 북일면 신룡리로 확정하고 11월에 본관 건축을 완공하여 「불법연구회」 간판을 걸게 되었다.

## 영모묘원

원불교 예전정신에 바탕하여 조상들에게 영안의 안식처를 만들어 보본의 도리를 다하게 하고 묘지의 공원화로 국토의 효율화에 기여하기 위해 재단법인 영모묘원을 설립하고 익산시 왕궁면 동봉리 산 109번지에 공원묘지를 조성하였다. 원기 68년(1983)에 10만여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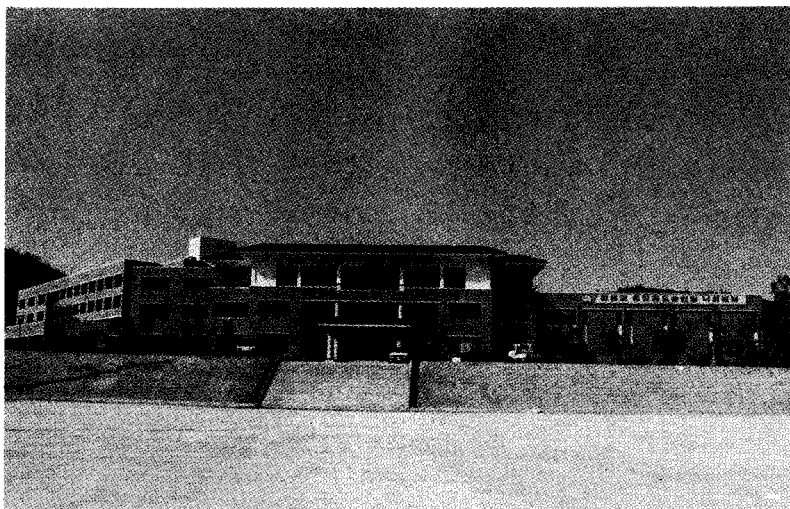
영모묘원 / 영모묘원에는 영안의 안식처로서 교단 선진들이 안치되어 있는 공원묘지와 납골당인 대원전이 있다.

의 영모묘원이 조성되어 익산시 신룡동 알봉묘지(현 원불교 자선원 자리)에 있던 묘역을 원기 68년에 10만여평의 영모묘원으로 이전 하였다.

묘역은 전무출신묘역, 범훈묘역, 일반교도묘역으로 나누어져 있다. 원기 83년까지 대회사위 6분과 범훈자 50여분, 출가 교역자 140여분, 그리고 다수의 일반교도들이 잠들고 있다.

묘지난이 다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가시화 되면서 영모묘원에 납골당 건립을 위한 작업이 시작되었다. 그리하여 영모묘원내 1천여평의 대지 위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초현대식 건물을 2년여의 공사로 마무리하고 원기 82년에 납골당을 대원전이라 이름하여 봉 불식을 가졌다.

이곳 납골당에는 1만 2천여개의 납골함을 안치할 수 있게 되어



중앙중도훈련원 / 전무출신의 정기훈련을 하는 훈련원으로 1만여평의 대지 위에 각종 시설을 갖추고 있다.

있어 원불교 영모묘원에는 공원묘지와 납골당을 합하여 2만여명의 사자들이 편히 잠들 수 있는 안식처가 되었다.

영모묘원에는 대산종사가 만 10년을 비닐하우스와 간이 건물에서 생활하면서 중법사 재임시와 중법사를 양위하고 상사로서 말년을 지내던 곳으로 소박함과 검소함이 함께 숨쉬는 곳이다.

대산종사는 영모묘원을 “일원사당이요, 대 세계사당이니 천불만성과 전 선열 전 생명을 위한 승덕존공의 대불사지로 대불공의 성지이다.” 라고 하였다.

### 중앙중도훈련원

일체생명을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써 조

불불사(造佛佛事)와 낙원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전무출신 전문 훈련기관이다.

중앙중도훈련원은 중앙총부에 있던 중앙선원을 해체하고 중앙훈련원을 발족시켜 교단의 일체 훈련을 실시하기 위해 원기 56년 설립하였다가, 그후 중앙총부에서 원기 76년에 이곳으로 이전하면서 훈련원 건물을 지어 회사한 공덕주의 범호를 넣어 중앙 중도훈련원이라 이름하였다.

1만여 평의 대지 위에 건평 2천여 평으로 훈련관, 생활관과 기타 부속건물 및 운동장을 갖춘 중앙중도훈련원은 전무출신 정기훈련뿐만 아니라 교도·비교도훈련까지 범위를 넓혀 훈련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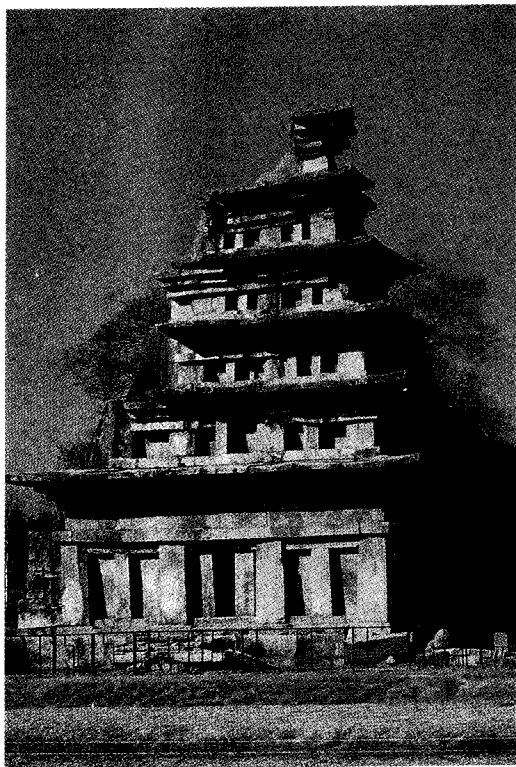
## 기 타

익산성지가 있는 익산시에는 교화기관으로 이리교당을 비롯 30여 개의 교당이 있으며 교육기관은 원광대학교, 원광보건대학, 중·고등학교, 원광어린이집, 원광유아·유치원 등이 있다. 자선기관으로는 중앙수양원, 자선원, 삼정원 등 많은 기관이 있으며 원광대학교 의료원을 비롯한 호스피스병원인 원의원, 한의원, 보화당 등 의료기관과 원광제약, 신용협동조합, 마을금고 등 산업기관들이 있다.

## 인근의 가볼 만한 곳

미륵사터와 왕궁리 5층석탑 : 옛날 오금산 아래에 흠어머니와

미륵사 석탑 /  
동양 최대의 절터인 미륵  
사 터에는 우리나라 최  
고·최대의 미륵사 석탑이  
백제인들의 미륵에 대한  
꿈을 말해주고 있다.



사는 소년이 있었는데, 그 소년은 홀어머니가 못 속의 용과 교통하여 태어난 아이로 마를 캐서 파는 것을 생업으로 삼았으므로 마동이라 불렀다.

마동은 신라 진평왕의 공주 선화가 절색이라는 소문에 그녀에게 장가들 생각으로 마를 짚어지고 신라 대궐 앞에서 아이들에게 “선화 공주가 마동을 숨겨두고 밤마다 안고 논다.” 라는 노래를 지어 부르게 했다.

노래가 왕의 귀에 들어가 공주가 쫓겨나자 도중에 기다리고 있다가 같이 백제로 왔다. 공주가 쫓겨날 때 어머니에게 받은 순금을

내놓으며 살아갈 방도를 세우자고 하자 그런 물건은 자기가 마를  
캐는 곳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고 하여 가보니 정말 금이 많았다.  
그 금을 미륵산 사자사 지명법사의 도력을 빌어 신라 궁궐으로 옮  
겼다. 그후 진평왕 뿐 아니라 모두가 존경하게 되어 후일 백제왕  
(무왕) 위에 올랐다.

어느 날 무왕이 왕비와 지명법사를 찾아가는데 못 속에서 삼존불  
상이 나타나 그 못을 메우고 미륵사를 지었다. 이는 백제 무왕과  
관련된 미륵사 창건설화이다. 이 지역에서는 서동요의 주인공이 무  
왕이라 받아들이고 실제 백제의 도읍지가 되었던 곳으로 믿고 있  
다. 무왕은 궁궐이 될 왕궁 평성을 축조하였고 궁성 안에 내 불당  
성격인 제석사를 창건하였다. 그리하여 사비성, 웅진성과 함께 익산  
이 3경(京)의 하나로 많은 유적들이 남아있어 최근에 관심이 고조  
되고 있다.

미륵사지는 동양 최대의 절터로 조선 중기 이후 폐찰 되었으나  
미륵사지석탑(국보제11호)은 우리나라 최고·최대로 현재 6층까지  
만 남아있다. 미륵사지 석탑은 서석탑에 해당되고 동석탑은 컴퓨터  
기법을 활용해 1993년에 복원하였다.

그리고 미륵사지 앞에는 16년에 걸쳐 미륵사지 발굴 조사 때 출  
토된 유물을 전시한 미륵사지 전시관이 개관되어 미륵사와 잃어버  
린 백제사에 일조를 하고 있다.

미륵사지에서 5km 떨어진 곳에 왕궁리 5층석탑(국보제289호)이  
있다. 안내 표지 판에는 고려 초기 탑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지역  
주민들은 백제시대의 탑으로 무왕이 이곳으로 궁전을 짓고 잠시 옮  
겼기 때문에 왕궁리라는 지명이 붙여진 것이라 믿고 있다.



왕궁리 5층석탑 /  
백제 무왕의 익산 천도  
지로 알려진 왕궁 평성  
내에 위치한 5층석탑이  
다.

발굴조사에서 궁성이 있었던 석재들이 발견되어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인근에는 무왕과 선화공주의 능으로 추정하는 쌍릉이 있다. 미륵사지와 왕궁리 5층석탑 그리고 쌍릉을 찾아 백제사에서 빠진 익산시대의 백제인들의 꿈을 새길 수 있는 좋은 곳이다.

**원광대학교 박물관** : 박물관은 각지에 산재한 문화유산을 수집·발굴·정리·보존·전시하는 기능과 함께 선인들의 생활상과 문화예술을 밝혀내는 연구·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을 지닌 곳이라



원광대학교박물관 / 재학생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에게 전통문화에 대한 산교육장으로 역할 수행하고 있다.

고 할 수 있다. 현재 원광대학교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유물자료는 고고미술자료·불교미술자료·생활민속자료·무속자료·서화 및 탁본자료·고문서·한수 등 총 11,000여점에 이르고 있다.

고고미술자료는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석제품, 도자제품, 금속제품 등으로 시대의 흐름에 따라 기술의 발달과정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와 원광대학교에서 발굴한 유물들이며, 불교미술자료는 삼국시대의 불상을 비롯한 불상류와 불교공예품, 그리고 조선시대의 불화가 주를 이루고 있다. 생활민속자료는 실생활에 쓰여졌던 농기구 및 각종 연모와 생활용품 등 선인들의 서화와 전국 각지에 산재한 금석문의 탁본자료이다.

무속자료는 무속화·무신상·무신기·무복 등으로 무속연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료들이라 할 수 있으며, 고문서는 교자·간찰

· 분재기 등으로 조선시대 사회상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료이고, 한수는 민간신앙에서 모셔진 신상을 중심으로 전통자수 기법으로 수놓은 작품들이다.

전시실은 약 600평 규모로 2·3·4층에 9개의 상설전시실과 1층 로비에 기획전시공간을 마련하여 1,800여점의 유물을 전시하고 있다. 2층 전시실은 선사·삼국시대실, 고려시대 금속 및 도자실, 조선시대 도자실로 구분되어 있으며, 3층 전시실은 생활민속실과 무속실로 나누고 생활공간을 재현시켜 전시효과를 높이고 있다. 4층 전시실은 불교·서화·고문서실·탁본자료실과 한수실로 구분되어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원광대학교 박물관은 재학생은 물론 지역주민들에게 전통문화에 대한 산교육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는데, 앞으로도 박물관의 고유한 기능의 수행과 함께 더욱 다양해진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하여 기획전시 및 역사·문화에 대한 정기 강좌와 유적답사, 영상자료의 활용 등을 통하여 문화기관으로서의 기능 뿐 아니라 사회교육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다. 원불교 교립 원광대학교 박물관은 익산성지 순례 후 찾는다면 좋은 시간이 될 것이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토요일 오후에서 일요일 공휴일에 휴관을 한다는 것이다.

**전주 한솔 종이박물관** : 지난 1996년 우리나라 국민이 사용한 종이량은 총 716만 4천톤. 언뜻 감이 오지 않을 만큼 천문학적인 수치이다. 이는 1인당 평균 158kg, 하루에는 433g으로서 매일 고기 1근 정도의 종이를 소비하는 꼴이다.



한지 재현관 / 과거 한지를 뜨던 제작과정 전체를 그대로 재현하여 보여주고 있으며 참여자들이 실제로 한지를 떠 볼 수 있는 공간이다.

연간 총사용량을 나무로 환산해 보면 1인당 30년생 소나무를 약 3그루 소모한다는 것이다. 70세를 평균 수명으로 가정할 때 한 사람이 평생 동안 사용하는 목재량은 210 그루인 셈이다.

종이의 발명은 인류에게 지식과 문명을 본격적으로 전파할 수 있게 했다. 종이가 발명되면서 사람들은 수많은 지식을 공유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종이는 이미 오래 전에 인간의 삶 속에서 생활필수품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술작품 등 여러 형태와 종류로 다시 만들어져 쓰이고 있다.

한지의 고장 전주 한솔제지 내에 세워진 한솔종이박물관에는 종이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다. 최첨단 시설로 한솔제지공장 내에 꾸며진 이곳은 단순히 유물전시에 그치지 않고,

관람객이 직접 종이문화를 접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제 1전시실에 설치된 유물컴퓨터시스템에 물건을 올려놓으면 원하는 유물의 정보를 빠른 시간 안에 알 수 있고, 제 2전시실의 종이접기 코너에서는 컴퓨터 영상을 따라 종이접기도 해 볼 수 있다. 또한 기획전시실 코너에는 다회이 인형작가 김영희씨의 작품 등 이색적인 종이 공예품들을 정기적으로 전시하고 있다.

한지 재현관은 현대에 이르러 간신히 그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우리의 종이 한지를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코너다. 특히 이곳을 아이들에게도 좋은 학습장이지만 어른들에게도 향수를 불러일으켜 관람객들의 발길이 모이는 곳이다.

한솔종이박물관은 전국에 100여 개가 넘는 전문박물관 중에서도 전시시설, 안내 등이 가장 잘 되어 있는 곳으로 꼽을 수 있다. 관람 시간은 매일 오전 9시~오후 5시까지이며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한다. 20인 이상의 단체 관람객은 전화로 예약을 하면 한지뜨기 체험관과 한솔제지 공장의 생산현장 견학도 할 수 있다. 박물관 관람 소요시간은 1시간이면 충분하다. <주소>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2가 180번지 전화) 0652) 210-8000>

### 익산성지의 인연들

육타원 이동진화(六陀圓 李東震華)종사(1893-1968) : 교단의 자애로운 어머니 육타원 이동진화는 전형적인 한국 여성상의 인품으로 서울 교화를 비롯 새 회상 창립기에 헌신했다. 원기 9년 봄,

소태산 대종사 처음으로 상경(上京)하였을 때 박사시화의 인도로 소태산 대종사께 귀의하였다.

육타원 이동진화는 경남 함양에서 태어나 이궁가(李宮家)의 한 종친의 소실이 되어 물질적으로 아쉬운 것 없이 유족하게 지냈다. 그러나 주위 환경이 뜻에 맞지 않아 극도의 신경쇠약, 위장병과 두통으로 고생하였다. 소태산 대종사를 뵈을 때에 비록 소실이긴 하나 궁가의 지체라 머리를 굽혀 예배치 아니했다.

소태산 대종사 그녀를 한번 봄에 인물이 비범함을 인증하고 “사람이 세상에 나서 정법의 스승을 만나서 성불하는 일과 대도를 성취한 후에 중생을 건지는 일이 모든 일 가운데 가장 근본이 되고 큰 일이 된다.(대종경 인도품 6장)”고 하였다. 그녀는 엄숙하고 정중한 말씀에 크게 깨친바 있었다.

육타원 이동진화는 소태산 대종사를 만난 후 궁가의 미한 인연을 헌신같이 버리고 일생을 수도에 전념할 것을 발원하여 생각 끝에 침모(針母) 김삼매화와 소태산 대종사를 찾아 나섰다. 전라도에서 도인이라면 진안 마이산 도인 일거라는 말에 마이산을 찾아 이인(異人)을 만나기도 했다. 그녀는 묻고 물어 다행히 찾아간 곳이 소태산 대종사가 10여명과 선(禪)을 나고 있는 만덕산 깊은 산 속 만덕암이었다. 만덕암에서 소태산 대종사께 동진화(東震華)라는 법명을 받고 선을 난 후 서울로 다시 상경하여 익산총부가 건설되자 원기 10년에 수도생활을 할 준비를 갖추어 김삼매화와 총부로 내려와 제1회 정기훈련을 났다.

그 후로 서울과 익산총부를 왕래하면서 정기선(定期禪)에 참여하자 부군이 서울 집 부근에 조용한 처소(창신동 605번지)를 마련 수

양처로 사용하게 하였다. 그는 원기 11년 수양처를 교단에 회사 <불법연구회> 간관을 겸하게 하여 <경성지부(현서울교당)> 를 창설케 하고 초대교무로 주산 송도성을 모시었다.

그후 원기 18년에 출가하여 전무출신하였다. 남녀후진들의 세세한 정곡을 두루 알뜰히 풀어주는 교단의 자애로운 어머니 육타원 이동진화는 원기 53년에 열반하였다.

**팔타원 황정신행(八陀圓 黃淨信行)대호법 (1903- )** : 원불교 대호법의 문열이가 되고, 한국 고아들의 어머니가 된 옛 영산회상의 수달장자와 같은 팔타원 황정신행은, 황해도 연안, 독실한 예수교 가정에서 태어났다. 13세에 서울로 와 이화학당 중등부를 졸업하고,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에서 일본어를, 중국 길림성 여자사범학교에서 중국어를 공부하고 유치원 교사를 하다 귀국하여 이화여전 보육과를 졸업했다. 그후 일본계 정토종 불교재단의 화광교원에 들어가 화광유치원을 설립하였으며 결혼 후 순천상회를 차리고 동대문 부인병원(현 이대부속병원)을 인수하였다.

원기 20년 아들 강필국을 데리고 금강산을 여행하던 중 개성교당 교도인 이천륜을 만나 불법연구회를 소개받고 그의 연원으로 서울교당에 나가 이완철 교무에게 《금강경》을 1시간씩 배웠다. 원기 23년에 소태산 대종사와 첫 번째 만난 후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의 진리에 대한 확신과 소태산 대종사를 믿는 마음이 굳어져 서울교당과 교단 창립기의 교단 경제난을 극복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다해 원기 42년 정산종사로부터 대호법의 원훈(元勳)을 받아 대호법의 문열이가 되었다.

팔타원 황정신행은 해방이 되자 <전재동포구호사업>을 전개하고, <보화원>을 설립하여 원불교 고아원의 효시가 되었다. 6.25 전쟁 때 9.28 서울 수복에 외아들을 잃은 슬픔을 딛고 이승만 대통령의 부탁으로 제주도에서 900여명의 고아를 돌보았다.

1956년 미국 유니버설 영화사에서 제작한 <전송가>에 한국보육원이 소개되어 외국인들로부터 많은 협조를 받았다. 그후 한국보육원은 휘경학원 자리를 거쳐 양주 진달래 동산으로 옮기고 원기 67년에 사회복지법인 <창필재단>을 설립하여 한국보육원을 교단에 회사하였다. 팔타원 황정신행은 새싹회에서 주는 제28회 소파상을 수상하였고, 현재는 학교법인 <휘경학원>을 설립하여 여성교육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구타원 이공주(九陀圓 李共珠)종사 (1896-1991)** : 소태산 대종사는 “이공주에게 나의 법을 가장 많이 설해 주었다. 공주는 나의 법낭(法囊)이다.”라는 말을 자주했다. 소태산 대종사로부터 「법낭」이란 아호를 받았던 구타원 이공주는 서울에서 태어나 6세 부터 부친에게 한글을 배웠다. 그 후 이화학당 초등부에 입학, 기숙사 생활을 하며 영어·성경 등을 배우고 외삼촌이 교장으로 있는 동덕여학교에 입학하였다. 동덕여학교 수학중 외삼촌으로부터 창덕궁 여관시보(女官試補)로 추천을 받아 조선 마지막 황후 윤비(尹妃)의 시독(侍讀)으로 입궁하게 되었다. 만 4년간 궁중생활하며 궁중법도와 한문·일어 등을 전공했다.

17세에 한일합방으로 퇴궁(退宮)하여 경성여자보통학교(현 경기여고)에 입학하여 졸업한 후 일본 유학을 하여 문학박사가 되려했

으나 가족들의 반대로 꿈이 무산되었다. 구타원 이공주는 결혼하여 박창기(묵산 대봉도)와 원기를 두었으나 결혼 8년만에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 원기 9년 소태산 대종사 두번째 상경 길에 모친 민자연 화, 언니 이성각과 함께 귀의하였다.

27세의 나이로 남편과 사별한 후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고 있을 때 소태산 대종사 「공주(共珠)」라는 범명을 즉석에서 주며 세계 인류가 모두 함께 보는 보배로운 구슬이 되어 달라는 뜻이라고 말하였다. 원기 10년 소태산 대종사가 “공주는 앞으로 어떤 큰 일을 하고 싶소?”라고 물었을 때 구타원 이공주는 “일본으로 유학을 가서 문학박사가 되어 1천만 조선 여성을 위해 일하고 싶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이에 소태산 대종사는 “도덕박사가 되어 세계 전체의 여성, 나아가 세계 전체의 인류를 제도하는 것이 좋지 않겠소.”라고 하였다.

원기 17년 출가하기까지 원기 10년부터는 서울교당 주무(主務)로 원기 15년부터는 서울교당 교무로 전력했다. 소태산 대종사 구타원 이공주에게 가장 많은 법문을 설하여 <약자가 강자되는 법문> 등 많은 법문을 수필하여 《대종경》 편찬에 귀중한 자료를 제공했다.

구타원 이공주는 박창기와 함께 물려받은 1천여 마지기의 유산을 교단 경제 운영에 적절히 사용하였다. 각종 초기교서 인쇄비용과 《회보》 발행비용이며 총부 대각전 신축, 제1대 성업봉찬사업 등에 정재를 희사하여 원기 42년 정산종사로부터 대봉도의 원훈(元勳)을 증여받아 대봉도의 문열이가 되었다.

그 후에도 수많은 교단사의 중추적인 역할을 다 했다. 원기 16년

여자 수위단 시보단을 조직할 때 중앙위에 선임된 이후 줄곧 그 자리에서 소태산 대종사, 정산종사, 대산종사 3대 주법인 역대 단장을 보필하였다.

**도산 이동안(道山 李東安)대봉도 (1892-1941)** : 새 회상 창업기에 산업계의 큰 주역으로서 보화당(普和堂) 창설 등으로 산업의 기초를 확립하였던 도산 이동안은 영광군 묘량에서 태어나 원기 3년 음 12월에 8촌형인 일산 이재철의 인도로 영산을 찾아 소태산 대종사의 제자가 되어 원기 8년에 출가, 전무출신을 하였다.

도산 이동안의 출가 이후 그의 친동생인 이완철을 비롯하여 많은 가족들이 전무출신하였다. 함평 이씨 가보(家譜)에 정산종사는 “...전문(全門)일족 남녀가 본교 창립기에 전부 신봉제자가 되었으니 이문(李門)과 본교와는 지중한 인연이 있게 되었으므로 이 가보가 곧 본교의 교사(敎史)와 큰 관련을 갖게 되었으니...”라고 찬하였다.

출가한 도산 이동안은 구간도실 공사에 전력하였고, 그 뒤 소태산 대종사의 명을 받들어 김제 서중안이 경영하는 한약방에서 실무를 보면서 뒷날 공익 후원기관인 보화당을 일으킬 역량을 길렀다. 불법연구회 창립총회에 영광대표의 한사람으로 참여하고 총부건설 후 엿곱고, 행상을 나가기도 하였다.

총부 서무부장을 거쳐 농업부장을 맡아 일했고 그 뒤 상조부장을 거쳐 육영부장겸 공익부장을 지내면서 공익후원기관인 보화당 세울 것을 주장하며 원기 19년 합자회사인 〈보화당〉을 창설하였다. 원불교 최초의 산업기관인 보화당은 영육쌍전, 이사병행, 제생의세의 이념을 구현하고 공익사업의 기초를 닦으며 중앙총부의 유지 후원

과 교단의 각종사업을 후원하면서 각 지역의 보화당 및 원광한의원을 설립하는 모체가 되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도산 이동안은 전무출신의 가정이 잘 되어야 공사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며 어려운 전무출신들의 사가(私家)를 살피주고, 그가 고향에 한번씩 내려가면 온 동네 사람들이 신흥교당에 모여 그 동안 이웃간의 불화, 부부싸움, 사업상 모든 문제의 해결을 보았다.

원기 26년 교단의 중진 인물로 한창 일할 나이인 49세에 병으로 갑자기 열반에 들자 소태산 대종사는 “우리 교단의 전 힘을 들여서라도 가는 동안(東安)의 생명을 구할 수 없느냐.”며 애통해 하였다. 그 당시의 정황이 《대종경》 실시품 33장에 정리되었다.

**경산 조송광(慶山 曹頌廣)정사(1876-1957)** : 독실한 기독교 장로로서 소태산 대종사의 제자가 된 후 불법연구회 제2대 회장을 역임하는 등 새 회상 창업기에 재가교도들로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했던 경산 조송광은 정읍에서 태어나 유학을 공부하다가 18세에 동학 농민운동에 참여하였다. 혁명이 실패로 돌아가자 은거하여 의술을 익혀 이름을 떨쳤다. 27세 때부터 기독교를 신앙하여 신앙생활 5년만에 <구봉교회>를 설립하였고 43세에 장로가 되었다. 또한 기미년 만세운동에 참여하였고 독립운동가들의 재정적 후원을 하였다.

원평에서 약방을 경영하며 장로로서 교회에 다닐 때 이웃에 사는 송적벽이 찾아와 한번 소태산 대종사를 만날 것을 권하였다. 그리하여 원기 9년 봄에 전주 한벽루에서 소태산 대종사를 만나 서로 도덕 문답을 시작했다. 자존심이 강한 경산 조송광은 묻는 말에 대

답을 못하는 쪽의 제자가 되기로 제의하여 자신이 지고 말아 제자가 되었다. 당시의 대화가 《대종경》 전망품 14장의 내용이다.

입교 후 경산 조송광은 원평교당 창설에 앞장섰으며, 원기 13년 불법연구회 제2대 회장에 피선되어 교단 초창의 대소사에 깊이 관여하였다. 원기 16년 총회에서 불법연구회 회장에 재선된 경산 조송광은 그해 8월 소태산 대종사와 더불어 경상도 일대 순회에 나섰다. 소태산 대종사는 처음으로 경상도 여행에 나서 부산에서 많은 인연을 만났고, 동래 범어사, 양산 통도사, 경주 불국사와 석굴암, 구미 용담 최수운의 묘를 찾기도 하였다. 불법연구회 회장을 9년간 역임한 경산 조송광은 그 이후 16년간 원평교당 회장으로로서 역임하고 원기 42년에 중앙수양원에서 열반하였다.

조송광은 조전권, 조만진, 조일관 3자매를 전무출신 시켰다. 조전권은 기독교 장로로서 불법연구회에 입문한 부친을 마귀에 빠졌다고 생각하여 아버지를 구하려고 총부에 와서 소태산 대종사를 만나 제자가 되었다. 제자가 된 후 출가하여 정녀(貞女)교무의 문열이가 되어 설통(說通)의 법설로 법풍을 날리었다.

**원산 서대원(圓山 徐大圓)대봉도(1910-1945)** : 남다른 구도의 열정을 불태우며 불경에 관한 깊은 학식으로 초기교서 편찬에 기여한 원산 서대원은 영광군 법성에서 태어났다. 그의 모친 박도선화가 소태산 대종사의 친누나인 만큼 생질(甥姪)이 된다. 보통학교 졸업 후에 가사에 조력하던 중 조갑종의 지도로 원기 14년에 입교하였다. 멀리 해외에 나가 활동하려는 뜻을 품었으나 외숙(外叔) 되는 소태산 대종사를 총부에서 뵈고 1개월간 동선을 마친 후 전무

출신을 서원하였다.

원산 서대원은 순실한 정남(眞男)으로서 계행이 청정하였으며 도인스러운 풍모와 청아한 음성으로 불경 읽는 소리는 소태산 대종사조차도 “대원아, 천도품을 읽으라, 너의 음성을 들으면 저절로 천도가 되는 것 같구나.”라고 하였다.

원산 서대원은 불경에 대한 연구가 깊어 《회보》에 각종 불경을 해석해 연재함으로써 오늘날 《불조요경》을 간행하는데 밑받침이 되었다. 출가 이후 줄곧 총부에 근무하며 초기교단의 교리와 제도 형성에 기여하고 소태산 대종사 법문을 많이 수필하였다. 그러나 삼학을 병진해야 된다는 소태산 대종사의 가르침을 알고 있으면서도 수양에 대한 집념과 오도(悟道)에 관한 목마름으로 계룡산 선방과 수덕사를 찾는 등 산사를 찾아 불경공부와 염불·참선에 주력하였다. 그러자 입산하였다는 비난의 소리가 높았다.

원산 서대원은 자신이 스승에 대한 불변의 신성을 표현할 길 없어 신(信)의 표시로 달마대사에게 왼팔을 끊어 바쳤던 혜가대사처럼 손목을 자르는 결단을 실행하여 총부에 큰 소동이 벌어졌고, 소태산 대종사에게 큰 꾸중을 들었다. 이때 내린 법문이 《대종경》 신성품 17장이다. 원산 서대원은 이 때의 심한 출혈로 결핵을 앓게 되어 서울에서 요양하던 중 소태산 대종사의 열반을 맞이했다. 소태산 대종사 열반을 슬퍼하며 추모의 정을 표현한 시(詩)가 성가 53장이 되었다.

스승님을 뵈옵던 그날부터 쓸쓸한 내 가슴 한 모퉁이에 희망의 꽃망을 맺히었더니 서러운 영이별이 웬일일까, 내 등불 밝게 켜다가 후일에 이 몸 마칠 때에 또다시 뒤를 따르리...

봉산 황이천(鵬山 黃二天) 선생(1910-1990) : 일정(日政)의 간악한 감시와 탄압에 시달렸던 새 회상 초창기 시절, 조선인 순사로서 불법연구회를 감시하다 소태산 대종사께 감복하여 제자가 된 후 교단에 도움을 준 조선인 순사(巡査) 봉산 황이천은 전북 완주에서 태어나 22세시에 경찰시험에 합격하였다.

봉산 황이천은 이리경찰서, 이리역전파출소, 황등주재소를 거쳐 1936년 북일주재소에 파견된 이후부터 5년간 불법연구회 내사를 전담하였다.

원기 21년(1936)에 민족지도자 도산 안창호 선생이 총부를 방문했다. 이후 일경은 불법연구회에 대한 감시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 이리 경찰서장 이쓰미가와 히데소우(泉川 秀雄)의 건의로 북일면 임시주재소를 총부 구내에 설치하고 일본인 고지마와 조선인 황이천 두 순사가 파견되었다. 그들은 소태산 대종사와 불법연구회를 철저히 감시하였다.

원기 22년(1937)년, 백백교사건이 발생하자 조선총독부는 이를 이유로 조선의 신흥종교 단체를 해산시킬 방침을 정하였다. 봉산 황이천은 도경의 비밀경찰로 내정되어 경찰복도 입지않고 사복차림으로 총부에서 숙식도 같이하며 불법연구회 회원들과 똑같이 생활하면서 더욱 철저한 감시활동을 벌였다. 봉산 황이천은 회고에서 “밤으로는 담을 넘어 다니면서까지 엿들어 정보수집에 열중하였다.”고 했다. 그를 약질순사라고 미워하였으나 소태산 대종사는 처음부터 미워하지 않고 다습게 대하였다.

소태산 대종사 원기 23년, 무인(戊寅) 하선에서 친히 황이천에게 《대학》을 가르쳤다. 이를 계기로 봉산 황이천은 소태산 대종사를

집안 어른 모시듯 겸허한 자세로 모셨고 소태산 대종사는 제자로서 이름을 부르게 되었다. 봉산 황이천은 소태산 대종사께 감복하여 제자가 되고 이천(二天)이란 법명을 받았다. 그후로 교중 모든 일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봉산 황이천은 소태산 대종사의 덕상(德相)을 필설로는 다 기록 표현하기가 불가능하다며 건강이 허락하는 순간까지 소태산 대종사 추모담과 일제하 교단의 역사를 증언하다가 81세를 일기로 열반에 들었다. 그의 친딸이 전무출신하여 현재 교무로서 근무하고 있다.

### 익산성지 관련 편편법문

한 제자 여쭙기를 “어떠한 것을 큰 도라 이르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천하 사람이 다 행할 수 있는 것은 천하의 큰 도요, 적은 수만 행할 수 있는 것은 작은 도라 이르나니, 그러므로 우리의 일원 종지와 사은사요 삼학팔조는 온 천하 사람이 다 알아야 하고 다 실행할 수 있으므로 천하의 큰 도가 되나니라.” <대종경 교의품 2장>

대종사 조실에 계시더니, 때마침 시찰단 일행이 와서 인사하고 여쭙기를 “귀교의 부처님은 어디에 봉안하였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우리 집 부처님은 방금 밖에 나가 있으니 보시려거든 잠깐 기다리라.” 일행이 말씀의 뜻을 알지 못하여 의아하게 여기더니, 조금 후 점심 때가 되매 산업부원 일동이 농구를 메고 들에서 돌아오거늘 대종사 그들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시기를 “저 들이 다 우리 집 부처니라.” 그 사람들이 더욱 그 뜻을 알지 못하나니라. <대종경 성리품 29장>

대종사 하루는 조송광과 전음광을 데리시고 교외 남중리에 산책하시는데 길가

의 큰 소나무 몇 주가 심히 아름다운지라 송광이 말하기를 “참으로 아름다와라. 이 숲이여, 우리 교당으로 옮겨있으면 좋겠도다.” 하거늘 대종사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대는 어찌 좁은 생각과 작은 자리를 뛰어넘지 못하였는가. 교당이 이 노송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 노송이 교당을 떠나지 아니하여 노송과 교당이 모두 우리 울안에 있거늘 기어이 옮겨놓고 보아야만 할 것이 무엇이리요. 그것은 그대가 아직 차별과 간격을 초월하여 큰 우주의 본가를 발견하지 못한 연고니라.” 송광이 여쭙기를 “큰 우주의 본가는 어떠한 곳이오니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가 지금 보아도 알지 못하므로 내 이제 그 형상을 가정하여 보이리라.” 하시고, 땅에 일원상을 그려 보이시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곧 큰 우주의 본가이니 이 가운데에는 무궁한 묘리와 무궁한 보물과 무궁한 조화가 하나도 빠짐 없이 갖추어 있나니라.” 음광이 여쭙기를 “어찌하면 그 집에 찾아 들어 그 집의 주인이 되겠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삼대력의 열쇠를 얻어야 들어갈 것이요, 그 열쇠는 신·분·의·성으로써 조성하나니라.” <대종경 불지품 20장>

제자 가운데 신(信)을 바치는 뜻으로 손을 끊는 사람이 있는지라, 대종사 크게 꾸짖어 말씀하시기를 “몸은 곧 공부와 사업을 하는 데에 없지 못할 자본이여늘 그 중요한 자본을 상하여 신을 표현할 무슨 이익이 있으며, 또는 진정한 신성은 원래 마음에 달린 것이요, 몸에 있는 것이 아니니, 앞으로는 누구든지 절대로 이러한 일을 하지 말라.” 하시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아무리 지식과 문장이 출중하고 또는 한 때의 특행(特行)으로 여러 사람의 신망이 높아진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이 회상의 종통을 잇지 못하는 것이요, 오직 이 공부 이 사업에 죽어도 변하지 않을 신성으로 혈심(血心) 노력한 사람이라야 되나니라.” <대종경 신성품 17장>

원기 9년에 익산 총부를 처음 건설한 후 가난한 교단 생활의 첫 생계로 한 동안 엮어 만드는 업을 경영한 바 있었더니, 대종사 항상 여러 제자에게 이르시기를 “지금 세상은 인심이 고르지 못하니 대문 단속과 물품 간수를 철저히 하여 도난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만일 도난을 당하게 된다면 우리의 물품을 손실할 뿐만 아니라 또한 남에게 죄를 짓게 해 줌이 되나니 주의할 바이니라.” 하시고, 친히 자

물쇠까지 챙겨 주시었으나 제자들은 아직 경험이 부족한 관계로 미처 모든 단속을 철저히 하지 못하다가, 어느 날 밤에 엇과 엇 목판을 다 잃어버린지라, 제자들이 황공하고 근심됨을 이기지 못하며,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근심하지 말라. 어제 밤에 다녀간 사람이 그대들에게는 큰 선생이니, 그대들이 나를 제일 존중한 스승으로 믿고 있으나, 일전에 내가 말한 것만으로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다가 이제부터는 내가 말하지 아니하여도 크게 주의를 할 것이니, 어제 밤 약간의 물품 손실은 그 선생을 대접한 학비로 알라.” <대종경 실시품 4장>

당시의 신흥종교들 가운데에는 재(財)와 색(色) 두 방면의 사건으로 인하여 관청과 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킨 일이 적지 아니한지라, 모든 종교에 대한 관변의 간섭과 조사가 잦았으나 언제나 우리에게는 털끝 만한 착오도 없음을 보고, 그들이 돌아가 서로 말하기를 “불법연구회(佛法研究會)의 조직과 계획과 실천은 나라를 맡겨도 능란히 처리하리라.” 한다 함을 전하여 들으시고,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참다운 도덕은 개인, 가정으로부터 국가 세계까지 다 잘 살게 하는 큰 법이니, 세계를 맡긴들 못 할 것이 무엇이리오.” <대종경 실시품 14장>

대종사 몇 제자와 함께 총부 정문밖에 나오시매, 어린이 몇이 놀고 있다가 다 절을 하되 가장 어린 아이 하나가 절을 아니 하는지라, 대종사 그 아이를 어루만 지시며 “네가 절을 하면 과자를 주리라.” 하시니, 그 아이가 절을 하거늘, 대종사 웃으신 후 무심히 한참동안 걸으시다가, 문득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은 잠간 기다리라. 내가 볼 일 하나를 잊었노라.” 하시고, 다시 조실로 들어가시어 과자를 가져다가 그 아이에게 주신 후 가시니, 대종사께서 비록 사소한 일이라도 항상 신을 지키심이 대개 이러하시니라. <대종경 실시품 21장>

이동안이 열반하매 대종사 한참동안 묵념하신 후 눈물을 흘리시는지라 제자들이 “너무 상심하지 마옵소서.” 하니,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마음까지 상하기야 하리요마는 내 이 사람과 갈리면서 눈물을 아니 흘릴 수 없도다. 이 사람은 초창 당시에 나의 뜻을 전적으로 받들어 신앙 줄을 바로 잡았으며, 그 후 모든 공사를 할

때에도 직위에 조금도 계교가 없었나니라.” <대종경 실시품 33장>

대종사 간혹 대중으로 더불어 조선 고악(古樂)을 감상하신 바 특히 창극 춘향전 심청전 흥부전 등을 들으실 때에는 매양 그 정절과 효우(孝友)의 장함을 칭찬하시며, 공도 생활에 지조와 인화가 더욱 소중함을 자주 강조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충열효제(忠烈孝梯)가 그 형식은 시대를 따라 서로 다르나, 그 정신만은 어느 시대에나 변함없이 활용되어야 하리라.” <대종경 실시품 41장>

대종사 대중 출역이 있을 때에는 매양 현장에 나오시사 친히 모든 역사(役事)를 지도하시며, 항상 말씀하시기를 “영육(靈肉)의 육대 강령 가운데 육신의 삼강령을 등한시 않게 하기 위하여 이와같이 출역을 시키노라.” 하시고, 만일 정당한 이유 없이 출역 하지 않는 사람이 있거나 나와서도 일에 게으른 사람이 있을 때에는 이를 크게 경책하시니라. <대종경 실시품 43장>

안도산(安島山)이 찾아온지라, 대종사 친히 영접하사 민족을 위한 그의 수고를 위로하시니, 도산이 말하기를 “나의 일은 판국이 좁고 숨씨가 또한 충분하지 못하여, 민족에게 큰 이익은 주지 못하고 도리어 나로 인하여 관헌들의 압박을 받는 동지까지 적지 아니하운데, 선생께서는 그 일의 판국이 넓고 운용하시는 방편이 능란하시어, 안으로 동포 대중에게 공헌함은 많으시면서도, 직접으로 큰 구속과 압박은 받지 아니하시니 선생의 역량은 참으로 장하옵니다.” 하니라. <대종경 실시품 45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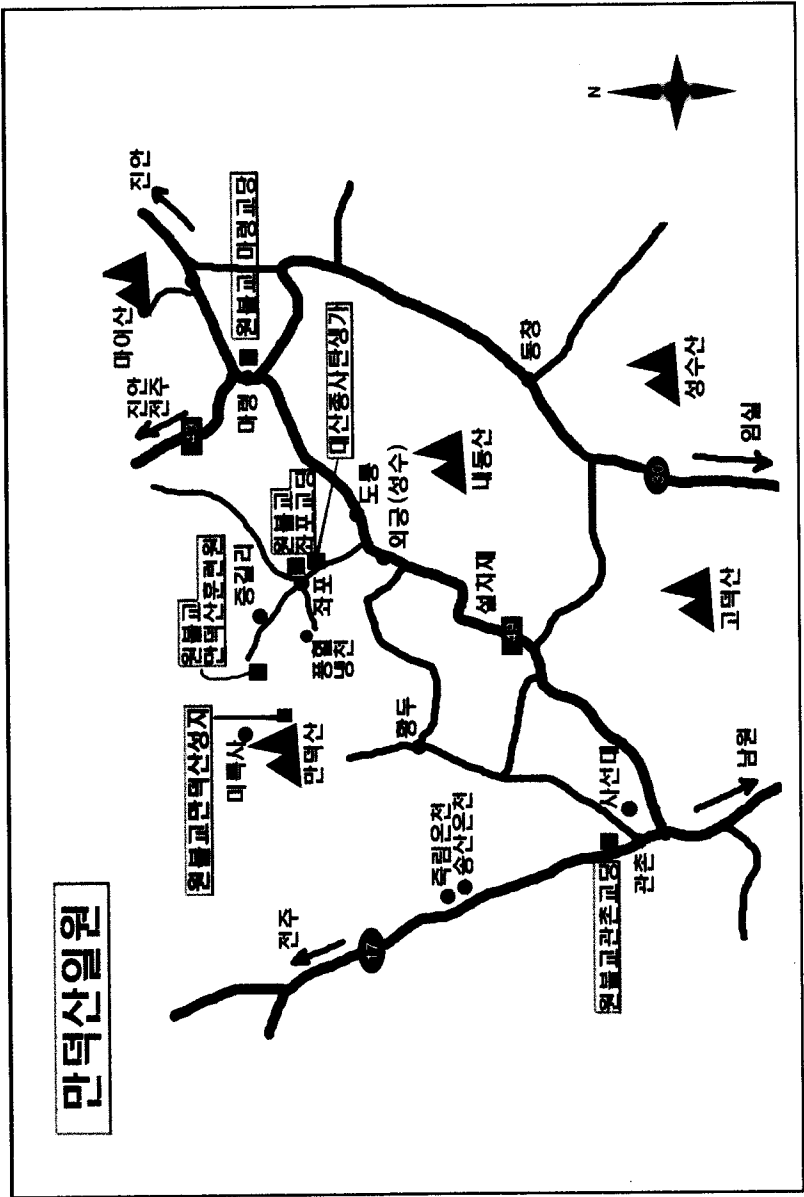
대종사 정남 정녀들을 자주 알뜰히 살펴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이 한생 동안만 재색명리를 놓고 세상과 교단을 위하여 고결하고 오롯하게 활동하고 가더라도, 저 세속에서 한 가정을 위하여 몇생을 살고 간 것에 비길 바가 아니니, 한생의 공덕으로 많은 세상에 무루의 복락과 명예를 얻을 것이요, 결국 성불의 대과(大果)를 증득하게 될 것이나, 만일 형식만 정남 정녀요 특별한 보람없이 살고 간다면 이는 또한 허망한 일이라, 참으로 정신차려 공부하라.” <대종경 교단품 17장>

대종사 익산(益山)에 총부를 처음 건설하실 제 몇 간의 초가에서 많지 못한 제자들에게 물으시기를 “지금 우리 회상이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여 보라.” 권대호(權大鎬) 사퇴기를 “못자리 판과 같나이다.” 다시 물으시기를 “어찌하여 그런한고.” 대호 사퇴기를 “우리 회상이 지금은 이러한 작은 집에서 몇십 명만 이 법을 받들고 즐기어나 이것이 근본이 되어 장차 온 세계에 이 법이 편만할 것이기 때문이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네 말이 옳다. 저 넓은 들의 농사도 좁은 못자리의 모 농사로 비롯한 것 같이 지금의 우리가 장차 세계적 큰 회상의 조상으로 드러나리라. 이 말을 듣고 웃을 사람도 있을 것이나, 앞으로 제1대만 지내도 이 법을 갈망하고 요구하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며, 몇 십년 후에는 국내에서 이 법을 요구하게 되고, 몇 백년 후에는 전 세계에서 이 법을 요구하게 될 것이니, 이렇게 될 때에는 나를 보지 못한 것을 한하는 사람이 수가 없을 뿐 아니라, 지금 그대들 백명 안에 든 사람은 물론이요 제1대 창립한도 안에 참례한 사람들까지도 한없이 부러워하고 숭배함을 받으리라.” <대종경 전망품 4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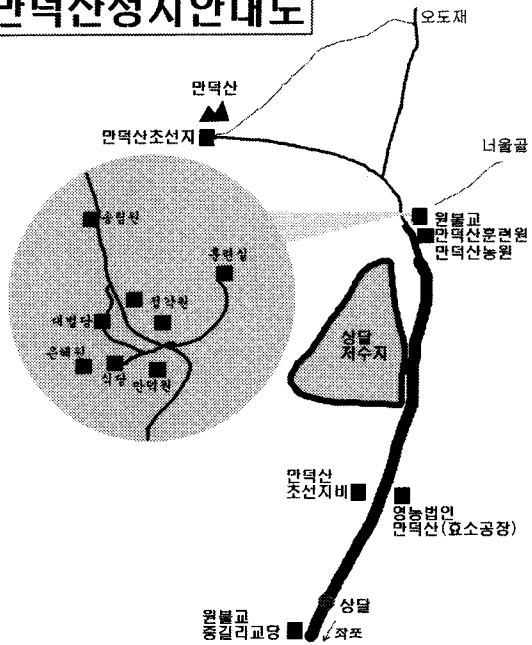
## 만덕산성지

스승의 네 가지 전함이 있으니 글로써 전하는 서전(書傳)  
말로써 전하는 구전(口傳) 행으로 전하는 신전(身傳)  
심법으로 전하는 심전(心傳)이 그것이다.  
〈 대산종사 범문 3집 범훈 307장 〉



만덕산이 일원

## 만덕산성지안내도



## 만덕산성지

◎ 연락처 : 567-890 전라북도 진안군 성수면 중길리 산 14-1 만덕산훈련원  
0655) 433-3611, 433-3844

### 만덕산성지

만덕산성지는 전북 진안군 성수면 중길리 만덕산 남쪽 기슭에 위치하고 있다. 진안은 백제 때 난진아(難珍阿)로 불렸다가 조선

태종 때에 이르러 진안으로 불렸다. 진안군은 노령산맥이 남쪽으로 뻗어 80% 이상이 산악지역으로 형성되어 있다.

성수면(聖壽面)은 성수산의 이름을 따서 성수면이라 했으며, 만덕산, 국사봉, 방미산, 성수산, 대두산 등이 있어 약초 재배와 버섯 채취, 축산업이 활발하다. 만덕산은 진안, 임실, 완주 등 3개 군의 경계에 있는 높이 762m의 산으로 원불교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은 변산 봉래정사에서 소태산 대종사가 정산종사에게 어디든지 가보라는 말을 받들고 길을 가던 중 만덕산 미륵사 주지를 만나 미륵사에서 한 겨울을 나면서 부터다. 정산종사 미륵사에서 화주인 최도화를 만났다.

그 후 소태산 대종사는 최도화의 주선으로 만덕산에서 3개월을 머물고 불법연구회 창립총회 후에 다시 찾아 12인의 제자와 함께 1개월 여의 선을 닦다. 이를 일러 만덕산 초선이라고 한다. 원기 15년 임야를 매입하고 원기 17년에 산전개간을 하며 감나무 등을 심었다.

그 후 중길리 상달에 중길리 출장소의 문을 열었으나 마을과 함께 교당이 불로 전소되어 마을 교회의 꿈이 깨어지게 되었다. 원기 52년 법당겸 숙소를 짓고 원기 58년 양제승 교무가 부임하면서부터 만덕산성지가 조금씩 수호와 함께 만덕산농원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만덕산 훈련원과 만덕산농원은 일과공부를 통한 사상선과 주생산품인 「표고버섯」을 생산하여 오다 최근 영농법인을 설립하여 만덕산 푸른생명효소와 각종 자연식품을 생산하여 훈련도량과 산업도량을 겸하고 있다.

만덕산 초선(初禪) 성지는 갑자년 봄부터 열두제자에게 사실적 도덕의 훈련을 첫 시범 보이신 초선의 성지요, 영광·성주의 몇몇 제자와 전주·진안·



만덕산 초선지 / 만덕산 7부능선에 위치한 초선타는 빈터로 남아있고 암벽에는 일원상을 모시고 있다.

서울·남원 등의 인연있는 제자를 규합하기 시작한 총부건설의 주비지(籌備地)인 성지이다. < 대산종사 >

### 만덕산 초선지(初禪地)

만덕산 초선지는 진안군 성수면 중길리 상달마을 골짜기 만덕산 7부 능선에 자리잡고 있다. 만덕산 산제당 또는 만덕암이라 부른다. 만덕암은 성수면 좌포리의 김승지가 1910년경에 부종병으로 고생하는 며느리를 위해 지어 준 집이다. 비단장수 최도화는 미륵사 화주노릇을 하면서 미륵사 넘어 만덕암에 내왕하였다. 그리하여 좌포 김씨들과 알게되어 만덕암 근방에 갈대 초즙으로 산신각을 지어

놓고 공을 드리며 만덕암 관리도 하였다.

만덕암은 산신령 탕화를 모신 불당 1칸, 방 1칸과 부엌이 있는 3칸 기와집이었으나 6.25전쟁 때 소실되었다. 정산종사가 미륵사에서 겨울 한철을 날 때 최도화를 만났으나, 정산종사가 미륵사를 떠나고 없자, 최도화는 정산종사를 찾아서 부안 변산까지 왔다가 소태산 대종사를 만나게 되었다.

소태산 대종사가 만덕산에 최초로 간 것은 원기 7년(음)12월경이다. 소태산 대종사는 최도화의 주선으로 만덕산 만덕암에 머무르며 이곳에서 진안지방 교화는 물론 회상창립의 중요 인재를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소태산 대종사 만덕산행에 오창건과 송도성이 수행하였다. 만덕산 만덕암에서 3개월 남짓 머무는 동안 전삼삼·전음광 모자(母子)를 만났다.

소태산 대종사가 이곳에 두 번째 가게 된 것은 익산 보광사에서 불법연구회 창립총회를 열어 <불법연구회>라는 임시 교명을 내외에 공개한 후 며칠 뒤였다. 만덕암에 있는 소태산 대종사께 최도화의 인도로 진안군 성수면 좌포리에 사는 노덕송옥이 11살 된 김대거를 데리고 귀의하였고, 서울에서 제자가 된 이동진화는 김삼매화, 박사시화와 함께 험한 길을 찾아왔다. 육타원 이동진화는 만덕산을 찾던 당시 상황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다.

기차를 타고 전주로 내려갔다. 가마를 타고 성성원의 시가집이 있는 임실에 가 물었다. 그러한 도인이라면 진안 마이산에 있는 도인일거라 하여 마이산에 가서 이갑룡이라는 이인(異人)을 만나기도 했다. 다시 수소문 끝에 찾아간 곳이 만덕산이었다. 경험이 없는 산길이라 어디로 가야할지 몰라 어쩔 바를 모르고 해매다보니 날이 어두워지면서 몸이 으슬으슬 떨려왔다. 이 때 뇌성벽력 같은 큰 소리가 산 위에서 울려왔다. “어서 정신차려 이리 올라오소”



만덕산 초선도 / 소태산 대종사 만덕암에서 12제자와 최초의 선을 난 것을 그린 초선도다. 중앙총부 소태산 기념관에 소장되어 있다.

소리 나는 쪽을 향하여 허위허위 올라가니 그렇게도 찾아헤메던 생불님이 그곳에 있었다. 우리 일행이 인사를 하고 반가움과 안도의 숨을 쉬고 있는데 갑자기 동쪽 하늘에서 번쩍번쩍 꽃(번개불)이 피더니 뇌성이 진동을 하고 광풍이 휘몰아치며 거세게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소태산 대종사 만덕암에서 송규, 오창건, 김광선, 최도화, 전음광, 박사시화, 이청춘, 노덕송옥, 전삼삼, 이동진화, 김삼매화, 김대거 등 12명의 제자와 원기 9년 (음) 5월 한달 동안 선을 닦다. 이때 선(禪) 주관은 팔산 김광선이 담당했다.

초선에 11세로 참여한 김대거는 뒷날 출가하여 정산종사의 뒤를 이어 종법사가 되었고 김씨 문중의 많은 사람들이 새 회상에 귀의하게 되었다. 소태산 대종사 원기 10년 3월에 정기훈련법과 상시훈련법을 제정 발표하고, 5월에 새 훈련법에 의하여 중앙총부에서 첫

정기훈련법으로 하선과 11월에 동선을 하게 된 것을 새 회상 정기훈련의 원시(元始)라는 교사(敎史)의 공식 기록과 함께 만덕산에서 12명의 제자와 한 달 동안 닳던 선(禪)을 초선이라 한다. 이 때 만덕암에서 소태산 대종사 가진 선(禪)은 장차 정기훈련을 시행하기 위한 구상과 준비 속에 이루어진 만큼 교단사의 의미를 갖는다. 특히 만덕암은 소태산 대종사→정산종사→대산종사로 이어지는 새 회상 원불교의 3대 주법(主法)이 최초로 한자리에 만난 역사적인 곳이다. 원불교에서는 만덕암이 자리했던 터를 초선지, 만덕산 일대를 만덕산성지라 부른다. 지금은 만덕산농원 입구에 「만덕산초선지」비를 건립하여 기념하고 있다.

### 만덕산 초선지비

만덕산 초선지비는 교단 최초 선(禪)인 역사를 기념하기 위하여 원기 70년에 만덕산 초선지로 올라가는 만덕산 농원입구에 세웠다. 초선지는 초선지비가 세워진 곳으로부터 2km 정도 산위 7부능선에 위치해 있다. 비는 한국 고유의 비석 형태로 거북 좌대에 용의 깃을 쾆웠으며 비 높이는 좌대로부터 4m이다.

**만덕초선지비문** : 여기에서 서(西)로 약 2천보 만덕산 중복(中腹)에 새 회상의 초선지 산제장터가 있다. 원기 7년 임술 9월 소태산 대종사 부안 봉래산에서 정산종사를 이 산에 보내시어 진안 전등(傳燈)의 기연 지으시고 그 해 설달 몸소 내산(來山)하시어 석달동안 숙연(宿緣)들을 결속, 새 회상 창립의 주역으로 세우시었다. 해를 넘겨 원기 9년 갑자 4월 새 회상을 익산에서 공개하시고 5월 초 이 산에 다시 오시어 열두제자 데리시고 처음으로 한

만덕초선지비 /  
초선지로 올라가는 만덕산  
농원 입구에 세워 후면에 만  
덕산 초선지의 내력을 자세  
히 밝히고 있다.



달 선(禪)나신 후 이듬해 기축 3월 총부에서 훈련법을 제정 선포하시니 이  
에 진안(鎭安) 만덕(萬德)이 새 회상의 만대 사적지가 되었다. 만수 만련 만  
덕(萬修 萬研 萬德)이여 제생의세(濟生醫世)의 연원이로다.

## 만덕산 미륵사

미륵사는 만덕산 북쪽 기슭, 진안과 완주 군계에 있는 절로 대웅  
전과 요사채가 소박한 옛 모습을 간직하고 있고 산신각이 새롭게  
단장되어 있으나 잘 알려지지 않은 절이다. 그러나 한때 진묵대사  
가 주석했다고 전해진다.



미륵사 / 정산종사가 소태산 대종사의 명을 받들고 길을 가다가 스님을 만나 같이 가서 한겨울을 지낸 절이다. 이곳에서 전북·서울 회상의 총무원인 최도화를 만났다.

전주↔진안간 국도에서 약 4km쯤 떨어진 만덕산 7부능선에 위치해 있으며 행정구역상으로는 완주군 소양면 신촌리에 속한다. 만덕산 농원에서는 능선을 타고 정상에 올라 북쪽 골짜기를 따라 3km쯤 내려가는 거리에 있다.

원기 6년 변산 봉래정사에서 소태산 대종사 정산종사에게 말씀하시었다. “이제 차츰 때가 되어간다. 어디든지 네 발걸음 내키는 대로 가 보아라. 그러면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러나 전주에는 들리지 말라.” 정산종사 소태산 대종사의 뜻을 받들어 전주를 지나실 때 고개를 돌리고 가는 도중 한 스님을 만나게 되어 길동무를 하게 되었다. 그와 함께 간 곳이 미륵사였고 그가 바로 미륵사 주지였다. 정산종사 그와 형제의를 맺어 미륵사 일을 봐주며 그 해



정산종사 진영 / 정산종사는 미륵사에서 신도들에게 생불님으로 받아들여졌다. 소문이 퍼져 나가자 이곳 미륵사에는 생불님을 만나고자 하는 신도들로 줄을 이었다고 한다.

겨울철을 나게 되었다. 그와 함께 겨울을 나는 동안 정산종사는 깊은 공부의 경지에 들게 된다.

하루는 우연히 하나의 의심이 생기는데 그것은 숨쉬는 것이었다. 숨을 들이쉬었다가 내쉬고, 내쉬었다가 들이쉬며 들이쉬는 것이 밀천이 되어 내 쉬고, 내 쉬는 것이 밀천이 되어 들이쉬며 숨을 들이쉬면 아니 내 쉴 수 없고, 또 내 쉬면 아니 들이 쉴 수 없으니 이것이 어째서 그럴까 의문을 견고 연마하였더니 이 우주의 이치가 이 하나에 벗어나지 아니함을 알았다.

원기 7년 설을 쇠고 난 정월 어느 날 비단장수를 하는 화주 보살이 미륵사를 찾아왔다. 그 화주 보살은 객 스님(정산종사)를 보고 마음이 쏠리어 「생불님」으로 받들고 따랐다. 그 뒤 미륵사에 생불님이 계신다는 소문이 퍼져 나가 불공이 줄을 이어 몰려왔다. 그러나 음력 이월 보름경, 정산종사는 더 이상 머물러 있기가 곤란하다는 생각이 들어 부안가는 인편에 그 동안 경과를 소태산 대종사께 보고하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봉래정사에서 소식이 왔다. 편지 받는 즉시 돌아오라는 글이었다. 정산종사 편지를 쥔 채 그대로 부안으로 향하였다. 화주 보살은 생불님이 매양 한 벌 옷으로 지내는 것을 안타까이 여겨 비단 솜옷을 지어 가지고 절을 찾아왔다. 화주 보살이 나타나자 주지스님은 보살이 명안스님(정산종사 불명)을 다른 데로 모셔 갔다하고 보살은 주지가 다른 데로 빼돌렸다면 대판 싸움이 벌어졌다.

보살은 애통해 물어 물어 변산 봉래정사까지 찾아갔다. 그런데 생불님이 산에서 나무를 한짐지고 내려오고 있었다. 미륵사에서 차림 그대로였다. 새 옷을 올리며 갈아입을 것을 청하니 사부님께서 입을으셔야 입는다고 해 생불님 위에 더 큰 스승님이 계신 줄 알았다. 그리하여 보살은 정산종사 연원으로 소태산 대종사를 뵈었다. 그 때 소태산 대종사 그를 보고 말하였다. “방죽을 파면 고기가 모인다더니 과연 모여드는 구나.” 그녀가 도화(道華)라는 법명을 받고 전북·서울 회상에 교화의 초석을 다진 삼타원 최도화다.

만덕산 미륵사를 가는 입구 전주 진안간 국도변에는 전주 인근의 명물로 이름 높은 화심 순두부가 있어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으며



만덕산훈련원 · 농원 / 만덕산은 만덕산 초선의 맥을 잇는 동·하선의 훈련도량과 영육 쌍전의 창립정신을 실현하는 산업도량을 겸하고 있어 선진들의 혼을 오롯이 체발할 수 있는 도량이다.

또한 미륵사를 등산을 겸해서 다녀온 후 피로를 풀 수 있는 화심은 천이 옆에 있다.

### 만덕산훈련원 · 농원

만덕산은 소태산 대종사를 모시고 열두제자가 최초로 선(禪)을 난 곳이었으나 이곳이 개발되기에는 많은 세월이 지난 후였다. 원기 15년 소태산 대종사의 권장으로 이공주 교무가 임야 50정보를 매입하였다.

그리하여 이준경, 이보국, 정일지, 전일구, 이재문 등이 총부에서

파견되어 「홍곡당(洪谷堂)」을 짓고 감나무 등을 심는 등 산전 개간을 하며 약초를 캐다 팔면서 간고한 생활로 많은 고생을 하였다.

만덕산을 찾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으나 그래도 발길이 끊어지지 않았다. 원기 29년 중길리 상달에 사는 최내선 교도가 홍곡당에서 간간이 법회를 봐 오던 중 아쉬움을 느껴 자신의 집을 희사하여 「불법연구회 중길리 출장소」 간판을 붙였다.

그러나 원기 32년 상달마을에 불이나 교당도 전소되어 산전개간과 마을교화에 힘썼던 꿈이 깨어지고 말았다. 그후 마을법회도 중단되고 농원도 지킬 사람이 없자 최내선 교도 가족이 이사와 살았다.

6.25 이후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교당도 없는 상태에서 농원을 팔자는 의견 등 많은 의견이 분분할 때 동전주 교당 백낙천 교도가 만덕산 농원개발에 서원을 세워 원기 52년 법당겸 숙소를 짓고 만덕산 전체가 「참나무」임을 보고 표고버섯 재배를 계획했다. 그후 원기 58년 양제승 교무가 부임하여 긴 세월을 땀과 혼으로 가꾸어 왔다. 만덕산농원의 주 생산품인 표고버섯은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한 고랭지로 표고버섯 재배에 적격이다. 양제승 교무는 농원 운영을 영육쌍전에 바탕한 산업훈련 도량화 하였다. 원기 68년에 훈련원의 면모를 갖추면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후 예비교역자 전지훈련 등 동·하선으로 만덕산 초선의 맥을 이어오고 있다.

만덕산농원은 표고버섯을 비롯하여 각종 자연식품을 생산하여 오다가 최근 영농법인을 설립하여 만덕산 푸른생명효소 등 많은 건강식품을 개발하여 시판하고 있다. 만덕산성지는 훈련원과 산업도량을 겸하여 선진님들의 창립의 혼을 체득할 수 있는 곳으로 가꾸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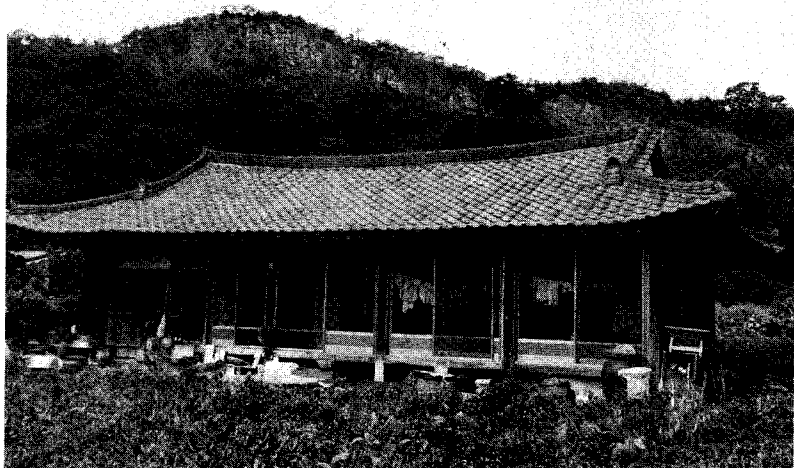


대산종사 / 11세에 만덕산 초선에 참여한 대산종사는 뒷날 출가하여 정산종사의 뒤를 이어 종법사가 되었다.

### 대산종사와 대산종사 생장가

대산 김대거 종사는 소태산 대종사와 정산종사의 법통을 계승하여 원기 47년부터 원불교 종법사의 대임을 맡아 주법으로서 원기 79년 11월 좌산 이광정 후계 종법사에게 양위하기까지 33년간 원불교를 이끌어 왔다.

대산종사는 1914년 진안군 성수면 좌포리에서 연산 김인오 대희



대산종사 생장가 / 대산종사 생장가는 대산종사가 출가한 이후 그 아우가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다.

사와 봉타원 안경신 대회사의 5남매중 장남으로 탄생했다. 대산종사가 소태산 대종사를 처음 뵈은 것은 원기 9년 11살 때 불법연구회 창립총회를 개최한 후 며칠 지나서 두 번째로 만덕산에 행가한 때이다.

최도화의 인도로 조모(祖母)인 노덕송옥이 만덕산 만덕암에 소태산 대종사를 처음 뵈오러 가면서 장손자인 대산종사를 데리고 가서 뵈고 소태산 대종사를 모시고 선(禪)을 1개월 나게 되었다. 이리하여 소태산 대종사→정산종사→대산종사로 이어진 3대 주법이 최초로 한자리에 만나게 되었다.

대산종사는 원기 14년에 출가하여 3년간 총부 학원 생활을 하면서 소태산 대종사와 은부자(恩父子)의 의를 맺었다. 대산종사는 이 때 입지시를 지어 서원을 세웠다.

차신필투공중사 영세진심갈력행(此身必投公衆事 永世盡心竭力行)  
인생출세무공적 사아평생하면괴(人生出世無功績 斯我平生何免愧)

이 몸은 반드시 공중사에 던져 영원토록 몸과 마음을 다하리다.  
사람으로 태어나 공적 없으면 이내 평생 어찌 부끄러움을 면할손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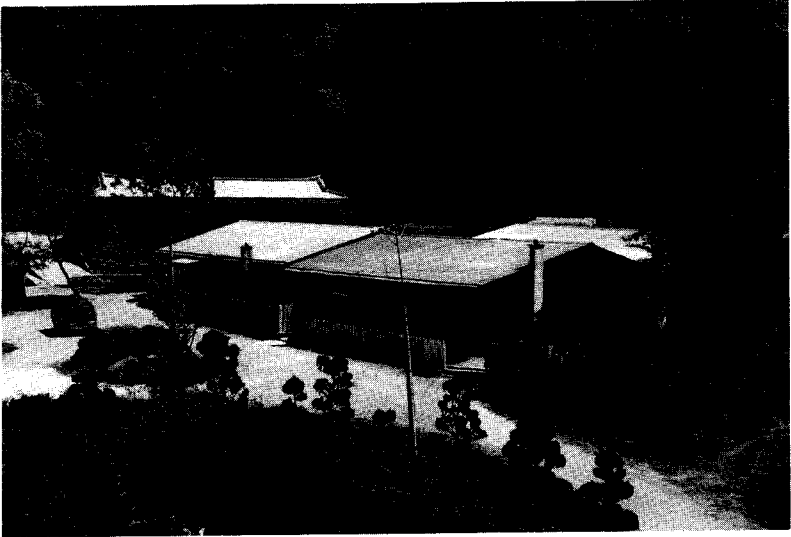
대산중사 고향 좌포에서는 소태산 대종사 만덕산 초선 이후 좌포 리 주민들이 불법연구회에 많이 입교하였다. 원기 14년 마령교당이 설립되어 시오리 물길 산길을 건너 마령까지 법회를 보러 내왕하기에 어려움이 많았다. 원기 15년부터 좌포리에 대산중사 조모가 대산중사 생장가에서 교무를 모셔다가 법회를 보는 등 교당창설을 추진 하던 중 원기 17년 마령교당 김광선 교무가 부임하면서 출장법회를 보기 시작하였다.

원기 23년 윤채운(대산중사 외조모)씨가 대지와 가옥을 회사하고 김인호(대산중사 부친)씨가 회사한 논 3두락을 기초로 교당과 유지답을 확보하면서 좌포교당이 설립된 후 송봉환 교무가 부임해 만덕산 일까지 맡아 하면서 본격적인 좌포교당 교화가 시작됐다.

대산중사 20세에 의타원 이영훈 중사와 결혼하고 원기 21년에 잠시 휴가를 얻어 사가를 정리하고 총부 구내로 이사하여 아우 황산 김대설이 부모를 모시고 좌포에 남아 농토를 관리하며 살았다.

대산중사 생장가는 부모님이 열반한 이후에도 아우인 황산 김대설(김순익 교무 부친)이 계속 고향을 지키고 살았다. 원기 44년 황산 김대설이 원기 44년 열반한 후에는 그의 부인이 오늘날까지 거주하며 생장가 집 형태는 물론 내부를 그대로 보존해 오고 있다.

대산중사는 출가 이후 소태산 대종사 열반까지 줄곧 소태산 대종사의 시봉 또는 교단 간부로서 총부를 떠나지 않고 많은 법설을 들



구 상사원 / 대산종사가 열반에 들기 전까지 거쳐하던 익산 왕궁의 구 상사원 건물

어 소태산 대종사 범설 수필을 많이 남겼으며, 후일 《대종경》 초안 및 편찬에 지대한 역할을 하였다.

소태산 대종사는 중근(中根)의 고비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대산종사에게 “너도 조심하라 하시었다.” 이에 대산종사는 3일간 음식을 전폐하고 반성하다가 한마음 얻음에 소태산 대종사께서 크게 인증하였다. 생사거래에 대한 원리와 열반 후 영혼 천도의 의미에 대한 의문점을 소태산 대종사께 문답한 내용이 《대종경》 천도품에 총7장의 범문으로 구성되었다.

소태산 대종사 열반 후 정산종사가 대임을 계승하고 해방이 되자 3년간 서울 출장소장으로 교단사에 큰 역할을 하고, 그 후로 교정원장, 중앙선원장, 정화사 감수위원 등을 역임하다가 정산종사의 후계 종법사로 추대되어 33년간 교단대표로 교단 발전에 헌신하였다.

대산종사는 정산종사 성탑을 중앙총부에 세우면서 성탑명에서 소태산 대종사를 하늘과 태양 그리고 영부(靈父)로, 정산종사를 땅과 명월(明月) 그리고 법모(法母)로 밝히었다.

대산종사는 소태산 대종사의 일원주의 사상과 정산종사의 삼동윤리 정신을 계승하여 종교연합운동을 전개하였으며 《정전대의》를 비롯 많은 법문을 남겼다. 「진리는 하나 세계도 하나 인류는 한가족 세상은 한 일터 개척하자 하나의 세계」라는 계송을 발표하고 최후 법문을 하신 후 원기 83년 세수 85세 출가 법랍 70년으로 중앙총부에서 열반하여 1만 여명이 운집한 가운데 발인식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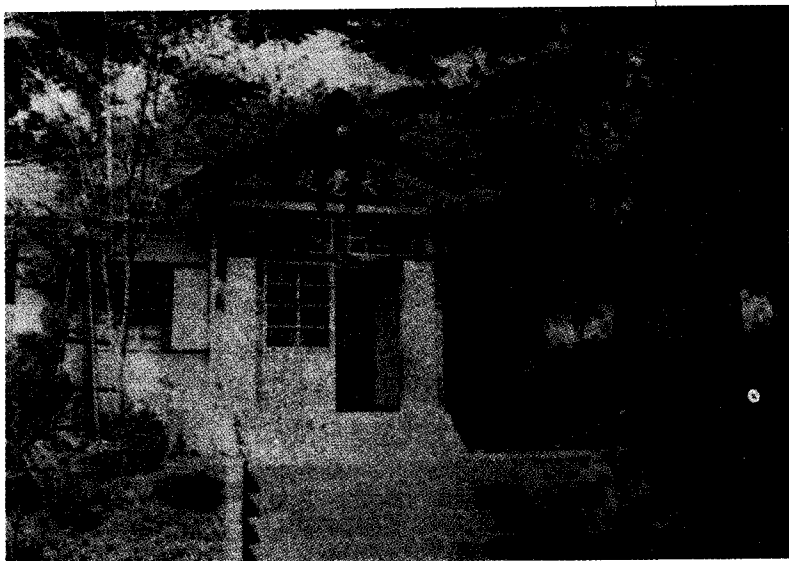
새 나라, 새 세계,  
새 종교, 새 일꾼으로  
일원의 세계, 보은의 세계, 균등의 세계,  
평화의 세계, 낙원의 세계를 살려 나갑시다.

이 산하 대지에 천화(天花)가 만건곤(滿乾坤)하니  
평화는 오리. 평화는 오리.  
따라서 교단에 천불만성이 발아하고  
억조창생의 복문이 열려서  
무등등한 대각도인과  
무상행의 대봉공인이 많이 나오리 많이 나오리니  
다같이 대적공(大積功) 대적공 대적공 하고 대적공 하리로다.

- 대산종사 최후법문 -

## 마령교당

원기 13년 가을, 익산총부에서 진안 마령에 연구부 간사 송도성



마령교당 / 마령교당은 원기 14년 설립되었다. 원기 24년 송벽조 교무가 마령교당 교무로 재직 중 투서사건으로 투옥된 일이 있었다. 이에 소태산 대종사는 그 후임으로 민족의식이 투철한 박대완을 보냈다. 하지만 선진들의 자취가 어린 마령교당 옛 대각전은 이제 사진에서나 찾아 볼 수 있다.

서기와 농공부 주무 박대완이 출장을 갔다. 두 사람은 진안 회원들과 마이산 구경을 갔다가 금당사에서 하루밤을 자고 총부로 돌아왔다.

월말통신 주필을 겸하고 있는 송도성은 교단 최초의 문예물인 기행문 〈마이산 행감(馬耳山 行感)〉을 《월말통신》 6호에 발표하였다. 이 때는 아직 마령에 교당이 생기기 전이었다. 송도성과 박대완이 마령에 출장갔다 마이산을 다녀온 후 이듬해에 마령 출장소 관계 모든 업무를 진행하기 위하여 박대완이 파견되어 터를 정하고 신축에 착수하였다.

원기 14년 교당이 신축되고 진안(마령)출장소 간판을 걸게 되면서 회원들은 소태산 대종사의 행가를 간곡히 염원하여 원기14년

(음) 6월에 소태산 대종사께서 조송광, 이동진화, 이청춘, 김만공월과 함께 마령 출장소에 행가하시어 6일 동안 머물렀다 오셨다.

박대완 주무가 1년간 소임을 다하고 떠나자 교무가 공석인 채로 3년 동안 교도들 스스로 주인이 되어 예회를 운영했다. 원기 17년에 초대교무로 팔산 김광선 교무가 부임하자 이 때부터 마령에 본격적인 교화생활이 시작되었다. 원기 20년 김광선 교무 후임으로 정산종사 부친인 구산 송벽조 교무가 부임하였다.

원기24년 기묘년 가뭄은 대단하였다. 비가 다 자라서 늦여름 가뭄으로 못 먹게 되었고, 전 조선의 논바닥이 갈라졌다. 마령교당 송벽조 교무는 가슴을 치며 통곡하였다. 그는 흉년이 들어서 못 살게 된 것은 일제의 무단 강압정치의 잘못 탓으로 하늘이 벌을 내린 것으로 보았다. 그는 천황과 조선 총독 앞으로 그대들의 덕이 부족하여 흉년이 든 것이니 조선 땅에서 물러나라 하였고 그들의 연호인 소화(昭和)를 소화(燒火)라 표기하며 준열히 나무라는 투서를 무기명으로 부쳤다.

일경은 필적 감정으로 송벽조 교무를 투옥시키는 한편 소태산 대종사를 이리경찰서로 연행하여 “앞으로 그런 제자가 다시는 없도록 하겠다.”는 서약을 강요하였다. 그러나 끝내 서약에 응하지 아니하고 돌아왔다. 송벽조 교무는 1년간 옥고를 치렀고 송벽조 교무 후임에 민족의식이 투철한 박대완 교무가 뒤를 이었다.

## 인근 가 불 만한 곳

풍혈 냉천(風穴 冷泉)과 사선대(四仙臺) : 만덕산성지에서 가

## 전주·완주일원



까운 성수면 좌포리 양화마을 앞산 밑에 있는 찬바람 나오는 굴과 찬물이 솟는 샘을 풍혈 냉천이라 하여 여름에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으로 성지순례 길에 찾으면 더위를 잊을 만한 곳이다.

풍혈과 냉천이 발견된 것은 1780년대로 그때는 온천도 함께 나왔다고 하는데 지금은 온천이 없다. 나병환자들이 모여들어 수질이 나빠지자 파묻어 버려 그 뒤에는 찾을 수 없다고 전해진다.

풍혈은 삼복더위에도 6℃를 유지하는데 1950년대 굴이 무너지기 전에는 한여름에 고드름이 매달려 있었다고 한다. 냉천은 석간수(石間水)로서 3℃의 온도를 항상 유지하고 있어 한 여름에도 손을 넣고 오래 견디기가 어렵다. 또한 물에 함유된 성분이 다양하며 위장병과 피부병에 효과가 좋으며 무좀치료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다. 풍혈냉천이 나오는 이곳을 얼마전 원불교에서 인수하여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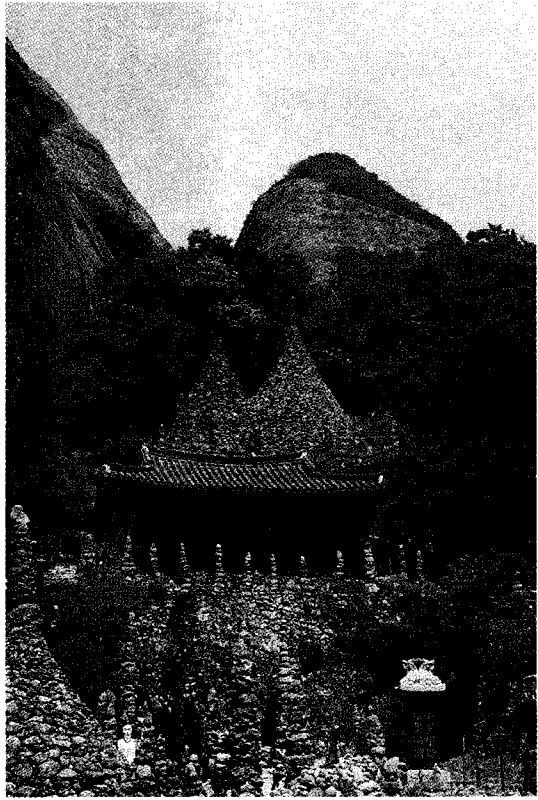


풍혈냉천 / 삼복더위에도 찬바람 나오는 굴과 찬물이 솟는 샘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곳이다.

전주 남원간 국도에서 만덕산성지로 가는 입구에 국민관광지 관촌 사선대가 있다. 사선대 밑에는 오원천이 흐르고 울창한 송림이 운치를 더한다. 오랜 옛날 4신선이 이곳 오원강 기슭에서 하루를 즐기는데 까마귀 떼가 날아와 어울렸다. 이때 4선녀가 내려와 4신선을 호위하고 사라졌다. 그 후로 이곳을 사선대(四仙臺)라 하고 까마귀가 놀던 강을 오원강(烏院江)이라 불렀다 한다. 성지순례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잠시 들릴만한 곳이다.

**진안 마이산** : 마이산(馬耳山)은 진안읍과 마령면의 경계에 위치하는 두 개의 큰 산봉우리다. 지방에서는 동쪽 봉우리를 아버지, 서쪽 봉우리를 어머니라 하며 각각 수마이산(678m), 암마이산(685m)이라 부르고 조선 태종이 이곳을 지나면서 그 모습이 마치 말의

마이산 탐사 /  
 마이산은 태조 이성계와  
 관련된 유적이 많고 탐  
 사에는 이갑룡 처사가  
 쌓은 신비한 탐들이 있  
 어 유명하다.



귀 같다고 하여 지금처럼 마이산이라 이름지었다고 한다. 한편 이 태조가 이곳에서 수도 기도하면서 마이산 산신에게 금척(金尺)을 받고 나라를 세우리라는 계시를 받은 이야기가 전해지며 태조와 관련된 유적이 산 곳곳에 많이 있다.

마이산에는 금당사·은수사·천황사·탐사 등 전통사찰을 비롯하여 한말의 지사와 의병장 33인을 모신 영광사(永光祠)등이 있다. 은수사는 조선을 세운 이태조와 금척(金尺)일화를 관련해서 창건당시 상원사(上院寺)라 이름했다.

현재 은수사라는 절 이름도 이태조가 수도할 때 이 곳의 물이 은수(銀水)라 하여 즐겨 마셨다는 데서 연유한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은수사 청실 배나무」는 이곳에서만 있는 600년 된 고목으로 상돌배 나무의 변종으로 세계적으로 희귀한 특산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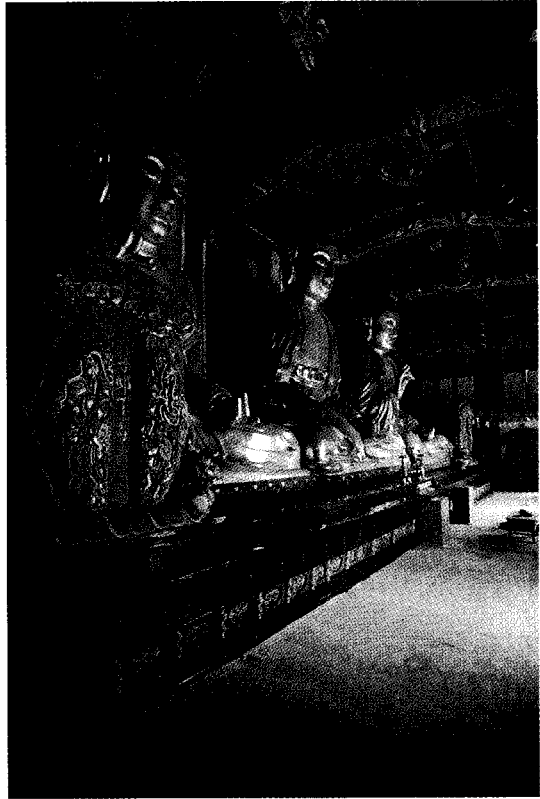
마이산은 탐사 경내에 자연석을 쌓아 올린 신비한 탐들로 더욱 유명하다. 창건은 이갑룡(1860-1958) 처사가 1935년 인법당과 산신각을 지은 데서 비롯된다. 그는 1900년대 초에 이곳에 들어와 30년 동안 탐 108기를 완성했다고 하나 현재는 약 80기만 전하고 있다.

**송광사** : 완주군 송광면에 자리한 송광사(松廣寺)는 이 지역의 대표적 고찰이다. 종남산 남쪽 기슭에 위치하며 주변의 자연 풍광이 그다지 뛰어난 편은 아니지만 성보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평지형 가람이다.

송광사 창건 시기에 대하여는 자료마다 다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송광사 사적기」에 의하면 고려시대의 보조국사가 전주 종남산을 지나다가 한 신령스런 샘물을 마시고 기이하게 여기어 장차 이곳에 사찰을 세우고자 하였다. 징표를 그 밑에 파묻어 두고 네 모서리에 돌을 쌓아 매워 버렸다.

그 후 순천 조계산 계곡에 송광사를 짓고 그곳에 머물면서 문도들에게 계속에서 “종남산에 돌을 매워 둔 곳이 있으니 후에 대덕이 있어 그곳에 도량을 열면 반드시 기울지 않는 땅이 될 것이다”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수백년이 지나도록 도량을 열지 못했다가 조선시대에 응인·승명 등이 서로 마음을 맹세하고 보조국사의 뜻을

송광사 대웅전 내부 /  
삼존불상이 앉아 있는  
조소상으로 국내에서 가  
장 크고 나라에 큰 일이  
생기면 온 몸에 땀을 흘  
리는 것으로 유명하다.



성취하고자 정성을 모았다. 그리하여 송광사는 보조국사에 의해 점  
지되었다가 조선시대에 정식으로 창건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송광사 대웅전은 처음 지었을 때는 2층이었으나 건물이 점차 기  
울어 1층으로 고쳐지었다고 한다. 대웅전 안에는 삼존불이 모셔져  
있는데 가운데 석가여래상을 중심으로 그 왼쪽에 약사여래상, 오른  
쪽에 아미타여래상을 모셨다.

이 삼존불상은 크기가 5m가 모두 넘는 앉아 있는 조소상으로 모  
두 흙으로 빚었다. 이는 조소상으로 국내에서 규모가 가장 큰 것으

로 알려져 있다. 이 삼존불상은 나라에 큰 일이 생기려면 온 몸에 땀을 흘린다고 한다. 땀을 흘리는 모습을 사진 찍어서 대웅전 외부 옆벽에 전시해 놓아 이를 증명하고 있다.

송광사 종각의 기능을 하는 십자각(十字閣)이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대체로 종각 건물은 사각형을 하고 있는데 반하여 이 건물은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시는 보궁(寶宮)에 주로 사용하는 십자형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십자각은 2층 누각식 건물로 전체적 양식으로 보아 대웅전과 함께 조선 후기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한다. 안에는 범종, 법고, 운판, 목어 등 이른바 사물(四物)이 있어 종각의 역할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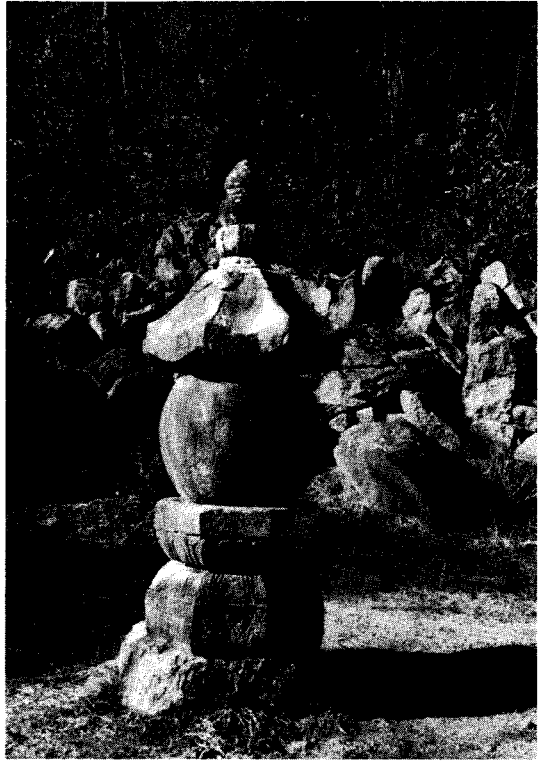
송광사 인근에는 유서 깊은 위봉사가 자리잡고 있다. 전주·진안 간 국도 소양에서 송광사 가는 3km 정도는 잘 가꾸어진 벚꽃 길로 벚꽃이 만개할 때면 벚꽃 터널을 만들어 장관을 이룬다.

**봉서사** : 봉서사(鳳棲寺)는 완주군 용진면 서방산에 자리한 태고종 소속의 사찰이다. 봉서사라는 절 이름은 절 뒤에 있는 서방산이 봉의 형상을 하고 있어 새가 깃을 드린다 하여 지어졌다 한다.

이 절은 신라 성덕왕 때 해철선사가 창건하였다고 전하며 16세기 말~17세기 중기에 유명한 진묵대사가 이 절에서 출가하여 오랫동안 머물며 절을 중창하였다.

진묵대사는 봉서사 뿐만이 아니라 월명암, 태고사, 대원사, 원등암 등 여러 절에 그 행적이 전해지고 있어 이 지역의 불교발전에 큰 공헌 했음을 짐작하게 해준다. 그러나 이곳 봉서사는 소태산 대종사가 두 번이나 찾은 곳이기도 하다.

진목대사 부도 /  
 봉서사에 있는 진목대사  
 부도는 세월의 흐름과  
 함께 한면이 희어지는  
 이적을 나타내고 있다고  
 전한다.



원기 13년 2월 6일, 익산총부에서 동선 해제식을 마친 소태산 대종사는 제자들에게 “내가 들은즉 전주 부근에 있는 봉서사 진목대사의 부도 한 면이 점차 희어진다 하니 내 한번 가 보리라”고 하신 뒤 이튿날 20여명의 제자들과 함께 익산역을 출발하여 삼례역에 당도한 후 봉서사까지 30여리의 길을 걸어 봉서사로 향했다. 봉서사로 향하는 길은 넓은 평야에 맑은 시냇물, 신선한 공기로 소태산 대종사 일행을 기쁘고 상쾌하게 했다. 그 속에서 소태산 대종사 일행은 법문을 받들며 걸기를 계속하다가 잠시 나무 그늘을 찾아 휴식을 취했다. 이 때 한 제자가 탄식하며 “우리는 어찌 이처럼 돈이 없고? 돈이 없기 때문에 이처럼 먼길을 걷느라 고생을 하는구나. 돈만 있다면 대종사님을 자동차로 편히 모실텐데 이렇게 고생을 하게 하니 죄송스럽기 짝이 없구나”하고 말했다. 소태산 대종사 이 말을 들으시고 곧 탄식하는 제자를 불러 말씀하시기를 “너는 돈이 없어서 이렇게 탄식하느냐? 나는 오는 길에

많은 돈을 밟고 왔노라. 우리가 지나온 길에는 돈 없는 곳이 없었는데 그대는 왜 돈이 없다고 탄식하느냐”고 했다. 그 때 그 제자 깜짝놀라 말하기를 “네! 돈이 그렇게 많았대구요? 저는 돈을 한푼도 보지 못했는데요?” 하고 반문했다. 소태산 대종사 다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걸어 온 길에는 돈 없는 곳이 없었으니 잘 들어보라. 우선 이 앞에 흐르는 맑은 물도 퍼다가 목마른 사람이 먹기도 하고, 집을 짓는데 쓰기도 하며, 가문 논밭에 주어 곡식을 잘 기르니 이것이 곧 돈이요, 저기 깔려있는 무수한 돌도 쓸 곳마다 요긴하게만 잘 쓰면 돈이 되거늘 어찌 돈이 없다고 하느냐. 사방에 돈이 쌓여 있건만 돈을 잘 사용할 줄 모를 뿐이다” 하셨다. 제자가 다시 말하기를 “저는 지금 당장 쓸 돈이 없음을 한탄한 것뿐입니다” 하니 제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즐겨 하였다.

소태산 대종사는 원기 15년 다시 봉서사를 찾았다. 동선 해제 후 선객들과 함께 소창차 봉서사로 향하던 소태산 대종사는 노정에서 홀연히 머물러 선 채로 “오직 나는 수천년 전과 이후 수만년 일을 보기도 하고 만질 수도 있다” 하시거늘 제자들이 그 의미를 상상하지 못하고 그 뜻을 여쭙니 “오직 나의 머리 위와 발 아래를 보라” 하였다.

진묵대사는 봉서사에 머물 때 전국승려대조사(全國僧侶大祖師)로 추앙을 받았다. 봉서사에는 진묵대사와 그의 어머니의 영정을 모신 진묵전이 있고, 어록 판각이 있으며 부도와 비가 세워져 있다. 완주 대원사에도 진묵대사의 영정이 모셔져 있고 김제 조양사도 진묵대사를 모신 절로 잘 알려져 있다. 특히 조양사 옆에 있는 성모암(聖母庵)은 진묵대사의 어머니를 모신 절이다. 진묵대사는 수많은 이적과 전설을 남겼다. 민초들의 아픔을 함께하며 그들에게 희망을 심어 주었던 것이다.

봉서사는 간중에서 서방산으로 3km를 들어가야 한다. 절 바로 아래 주차장이 있으나 대형차는 절 300m 아래서 내려 걸어가야 한다.

## 만덕산 성지의 인연들

**삼타원 최도화(三陀圓 崔道華) 대호법 (1883-1954)** : 교단 창립기에 박사시화, 장적조와 함께 교단 3대 여걸이라 불렸던 삼타원 최도화를 정산종사는 “전북회상과 서울회상의 총연원 이시다”라고 하였다.

7세 때 부친이 열반하여 편모슬하에 자라다가 결혼은 하였으나 재미를 붙이지 못하고 우울한 나날을 보내다 도인을 만나기 위해 시주도 많이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여 28세시에 세상을 비관하여 자살을 결심하고 연못에 몸을 던졌다. 마침 지나던 여승이 이를 목격하고 살려내자 스님의 상좌가 되어 승려 생활을 하다 도통을 위해 동학사에서 독공하였으나 역시 소원을 이루지 못하고 만덕산 미륵사 화주노릇을 하였다.

정산종사 미륵사에서 겨울 한철을 날 때에 뵈고 생불님으로 받들다가 정산종사가 봉래정사로 오자 물어물어 찾아와 소태산 대종사에게 도화(道華)라는 법명을 받았다. 전주, 남원 등지에서 음식을 준비하여 친히 짊어지고 몇백리나 떨어진 봉래정사를 내왕하며 공양을 올리는가 하면 총부에서 소태산 대종사 설법하실 때 무수히 예배를 올리었다.

소태산 대종사 첫 번째 만덕산 행가 3개월과 12제자와 첫선을 날 때 1개월 동안 일천 정성으로 시봉하였다. 이 때를 전후하여 전씨 일가족과 오씨 일가, 좌포의 노덕송옥과 장손 김대거, 송혜환 등을 인도했다.

또한 구례 화엄사로 불공하러 가는 박사시화를 전주에서 만나 소

태산 대종사 소식을 전하고 원기 9년 소태산 대종사께서 정산종사, 서중안, 전음광을 대동하고 서울에 첫 상경을 할 때 안내하여 박사시화, 이동진화, 이공주 등을 비롯한 서울 인연들의 귀의에 큰 역할을 하여 교단 창업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다.

삼타원 최도화는 외동아들 조갑종을 전무출신시켜 자비(自費)로 경성부기학원을 보내 초기 교단의 서무·경리의 합리적인 운영에 일익을 담당하게 했다.

원기 11년에는 임실 자택에 양하운 대사모(大師母)를 임시 머물게 하였다가 사재로 익산 송만리에 집을 마련하고 농자금을 보조하여 생활 기반을 갖추게 하여 소태산 대종사를 공사에 전념케 하였다. 교단 제1대 안에 319명을 입교시킨 삼타원 최도화는 원기 39년 열반하였다.

**성타원 전삼삼(成陀圓 田參參)정사 (1870-1948)** : 만덕산에서 소태산 대종사를 모시고 초선을 난 후 새 회상 창립에 동참하였다. 진안군 마령면 평지리에서 태어나 결혼하여 부족함 없이 살다가 31세에 돌림병으로 두 딸을 잃고 10년간 명산대찰을 찾아 득남 기도를 올려 외아들 전음광을 얻었다. 음광을 결혼시키던 해에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물난리로 60여 마지기 논이 수몰되고 또한 믿었던 사람이 실패하여 재산상 큰 손실을 입었다.

하루는 앞마을 강정리 뒷산 복수골 절에 불공 갔다가 최도화를 만나 피차간의 사정을 알게되고 형·동생하며 천제도 같이 지내는 사이가 되었다. 그러던 가운데 원기 7년 최도화의 인도로 변산에서 소태산 대종사를 뵈고 제자가 되어 그해 설달 그믐에 소태산 대종

사 만덕산에 오셨다는 기별을 받고 정월 초하루 설날에 성타원 전삼삼은 아들과 며느리에게 만덕산에 가자고 하였다.

동짓날에 남편 탈상을 하였으나 담제(禫祭)가 남아 상복을 벗지 않은 때이므로 며느리 모자 세 식구가 바깥 나들이를 하면 남의 입에 오를 것이 뻔하여 며느리(권동화)가 어머니와 서방님(전음광)만 가게 하였다. 외아들의 명(命)이 길고 복 있으라고 큰 도인의 상좌 삼계 하는 것이 소원인 성타원 전삼삼은 소태산 대종사와 음광을 영부시자(靈父侍子)결의를 맺게하고 장래 살길을 의논하였다. 탈상 뒤에는 고향을 떠나 임실로 이사가려고 집까지 장만하여 두었으나 소태산 대종사 일언지하에 “전주로 가라”고 명하였다.

전씨 일가는 담제가 끝나자 전주 완산동으로 이사를 하였다. 이 집이 창립 인연들의 연락처로 활용되었고 원기 9년 3월 소태산 대종사를 모시고 7인이 〈불법연구회〉 발기인 모임을 가진 교단사적으로 중요한 곳이 되었다. 아들 전음광을 전무출신 시키고 총부 구내로 이사하여 소태산 대종사의 식사 수발을 한결같은 신성으로 일관하였다.

**혜산 전음광(惠山 全飲光) 대봉도 (1909-1960)** : 혜산 전음광은 15세의 소년으로 출가하여 익산총부 건설 당시부터 소태산 대종사 재세 19년간 교리·법제·행정·언론·출판·외무면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여 온통 바쳤다. 원기 7년 모친(전삼삼)이 최도화의 인도로 변산을 찾아 제자가 된 후 소태산 대종사 만덕산 행가시 혜산 전음광은 영부시자(靈父侍子)의 결의를 맺었다.

전주로 이사하여 자신의 사가가 불법연구회 창립 발기인의 모임

장소가 되고 소태산 대종사가 새 회상 창립을 위해 행가하게 되자, 전주 보통학교를 중퇴하고 출가하였다. 익산총부가 건설되자 총부에 사가를 지어 제1회 정기훈련 선방으로 제공하였다.

혜산 전음광은 대중을 감동시키는 능변가였으며 교단의 대외적인 외교가 였다. 일제가 언론탄압과 문화활동에 심한 감시를 할 때 소태산 대종사를 대신하여 《불법연구회규약》, 《육대요령》, 《조선불교혁신론》 등을 자신이 저작 및 발행자가 되어 삼엄한 일제 당국으로부터 소태산 대종사의 신변보호를 위해 방패 역할을 하였다.

원기 13년에 창간된 초기 교단기관지인 《월말통신》과 《회보》의 회설(會設)을 통하여 교단의 방향을 제시한 논설가로 역할을 하였다. 교단의 진로와 사상을 피력하며 신앙과 수행담을 엮어오던 《회보》가 원기25년 일제의 문화언론 말살정책을 견디다 못해 65호로 폐간되자 이리 고등계 형사에게 연행되어 심문을 받는 등 고충을 겪기도 했다.

한편 혜산 전음광은 교단 최초의 「카메라맨」으로도 크게 활동하였다. 대내외적으로 이해가 없던 당시 사재를 털어 강습을 받고 암실을 만들어 교단에 많은 사진을 남겨 오늘날 소태산 대종사의 다양한 모습을 찾는데 많은 자료가 되고 있다. 혜산 전음광은 회설 외에도 소태산 대종사 법문수필, 감각감상 등을 남겼다. 초창기 교단의 많은 업적을 남긴 혜산 전음광은 원기 45년에 열반하였다.

**현타원 노덕송옥(賢陀圓 盧德頌玉) 정사(1859-1933)** : 손자인 대산 김대거 종사를 새 회상에 인도하고 소태산 대종사께 사무치는 신성을 바쳤던 현타원 노덕송옥은 남원에서 태어나 16세에 진

안군 성수면 좌포리 김용성 선생과 결혼하였다.

66세 때 11살 난 장손자 김대거와 만덕산을 찾아 소태산 대종사께 귀의하여 초선에 참여하였다. 현타원 노덕송옥은 총부 선방에 내왕하면서 낙도하는 한편 전 가족을 새 회상에 귀의하게 하여 문중에 전무출신과 거진출진이 속출하게 하였다. 또한 자택에 교무를 모셔다가 법회를 여는 등 교당 창설을 적극 추진하였다.

한 때도 교도의 의무금을 어기지 않았고 기일 내에 헌공하기 위하여 찬바람 중에도 일흔의 노구(老軀)를 이끌고 좌포에서 익산까지 손수 가지고와 여러 동지들로 하여금 법규 준수와 공심에 감탄케 하였고 신성과 주인정신은 소태산 대종사도 인증하였다.

대종사 말씀 하시기를 “내가 오늘 조실에 앉았으니 노덕송옥의 얼굴이 완연히 눈앞에 나타나서 얼마동안 없어지지 아니하는 것을 보았노라. 그는 하늘에 사무치는 신성을 가진지라 산하가 백여리에 가로막혀 있으나 그 지극한 마음이 이와 같이 나타난 것이니라.” (대종경 신성품 15장)

선 때면 만사를 불고하고 참여하여 법열에 젖어 소태산 대종사 설법 때는 무수히 예배를 올렸던 현타원 노덕송옥은 74세로 좌포 자택에서 열반하자 전음광이 《회보》 4호에 〈슬피 노덕송옥 선생의 가심을 추억함〉이란 글을 소개하였다.

... 진안과 본관 사이가 근 이백리를 산(算)하건마는 자손들이 올리는 여비 등속을 본회 사업에 보태기 위하여 칠십 노경에도 불고하시고 차 하나 타지 않고 전부 도보로 왕래하시며 더욱이 본관 대중들을 생각하사 떡·과실 등 음식을 장경으로도 한 짐씩 될 것을 지고 오시니 그 마음 과연 어떠하시며 그 정성 어떠하시다 할까 ...

## 대산종사 편편법문

세간에는 잘 낳고 잘 살고 잘 죽는 세가지 큰 일이 있으니 어떠한 사람이 잘 낳는 사람이 될 것인가. 기골이 준수하고 가정 환경이 좋은 사람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외면으로 잘 낳은 것 뿐이요, 내면으로 잘 낳은 사람은 악인연(惡因緣)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선인연(善因緣)으로 나온 사람이 가장 잘 낳은 사람이라 할 것이다. 어떠한 사람이 잘 산 사람이 될 것인가. 일생동안 의식주에 구애가 없이 산 사람이 잘 산 사람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외면으로 잘 산 것 뿐이요, 내면으로 잘 산 사람은 남에게 해를 끼쳐주지 않고 이익만 끼쳐 준 사람이 가장 잘 산 사람이라 할 것이다. 어떠한 사람이 잘 죽는 사람이 될 것인가. 장수하고 자기집에서 편안히 죽은 사람을 잘 죽었다 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외면으로 잘 죽은 것 뿐이요, 내면으로 잘 죽은 사람은 최후일념이 청정하여 큰 서원을 다시 한번 세우고 착없이 떠난 사람이 잘 죽은 사람이라 할 것이니 잘 죽을 줄 아는 사람은 내생에 잘 낳게 될 것이요, 잘 낳은 사람은 또 잘 살 수 있게 될 것이며, 잘 산 사람은 또한 잘 죽게 될 것이니 세상의 큰 일이 많으나 이 일 같이 큰 일이 없을 것이니라. <정전대의, 세간의 세가지 큰 일>

성현에게는 두가지 큰 힘이 있으니, 하나는 크게 빈 힘이요, 둘은 크게 공변된 힘이니라. 마음이 빈즉 도(道)가 생(生)하고 도가 생하면 정력(定力)과 혜력(慧力)과 계력(戒力)이 생기게 되고 이 세가지 힘을 갖추면 허공법계의 주인이 되고 허공법계의 주인이 되면 삼계개권을 가져서 세세생생 해가 족족하게 되며, 마음이 공변된 즉 덕이 생하고 덕이 생한 즉 일체 중생에게 자비로써 회사할 마음이 생기고 자비로써 회사할 마음이 생겨나면 천지만물을 자연 화육하게 되고 천지만물이 화육하게 되면 억조창생이 다 봉대하게되고 억조창생이 봉대하게되면 복전이 광대무량하게 되어 세세생생 복이 족족하게 되나니라. <정전대의, 성현의 두가지 큰 힘>

육지에서 보물을 캐고 바다에서 보물을 캐고 허공에서 보물을 캐는데, 육지와 바다에서 캐내는 보물은 중생이 캐내는 보물이므로 유한하며 불에 타고 도적맞을

염려가 있으나 허공에서 캐내는 보물은 불보살이 캐내는 보물이므로 유한하고 불에 타지도 않고 도둑 맞을 염려도 없고 써도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라. <정전대의, 보물 캐는 세가지 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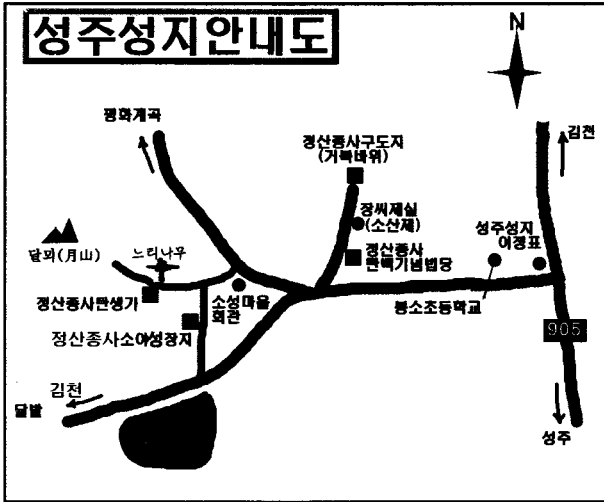
크게 깨쳐야 큰 스승의 자격이 있다. 크게 깨치기로 하면 사랑계교 없이 골똥히 일심으로 들어가야 한다. 향마를 하여야 큰 스승의 자격이 있다. 향마를 하기로 하면 발원이 굳세고 커야 한다. 중화의 도를 써야 큰 스승의 자격이 있다. 중화의 도를 쓰기로 하면 도덕을 갖추어 마음을 넓고 크게 써야 한다. 크게 깨고 보면 마음이 밝아져서 인천대중을 선도할 수 있고, 향마를 하고보면 천하의 재색명리를 말아서 활용할 수 있고, 중화의 도를 쓰고 보면 천하의 인심을 고루 화해서 넓은 세상과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쳐주는 큰 스승의 자격이 갖추어질 것이며, 따라서 삼세제불과 일체대중의 인가를 얻어 삼계의 대도사가 되고 사생의 자비스런 부모가 될 것이다. <정전대의, 큰 스승의 자격 세가지>

현실의 일체유(一切有)는 내 것이 아닌 필경 공(空)인 것을 생각하여 마음에 애착, 탐착 때는 공부를 바빠할 것이요, 천하에 제일 귀한 이 생명이 한번 호흡하는 사이에 있는 줄을 알아서 무량수를 발견하여 생사에 해탈하는 공부를 바빠할 것이요, 현실에 잡히고 못되는 것이 다 내가지어 받는 줄을 알아서 앞으로 잘 짓는 공부를 바빠할 것이니라. <정전대의, 세가지 바쁜 공부>

## 성주성지

원기 2년 7월에 대종사께서  
이 회상 최초의 단을 조직하실 제 먼저 8인으로 8방의 단원만 정하시고  
중앙위는 임시로 대리케 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이 자리에는 맞아들일 사람이 있느니라” 하시고 기다리시기를  
마지아니하시더니, 드디어 정산종사를 맞아 중앙위를 맡기시니라.  
〈 정산종사범어 기연편 1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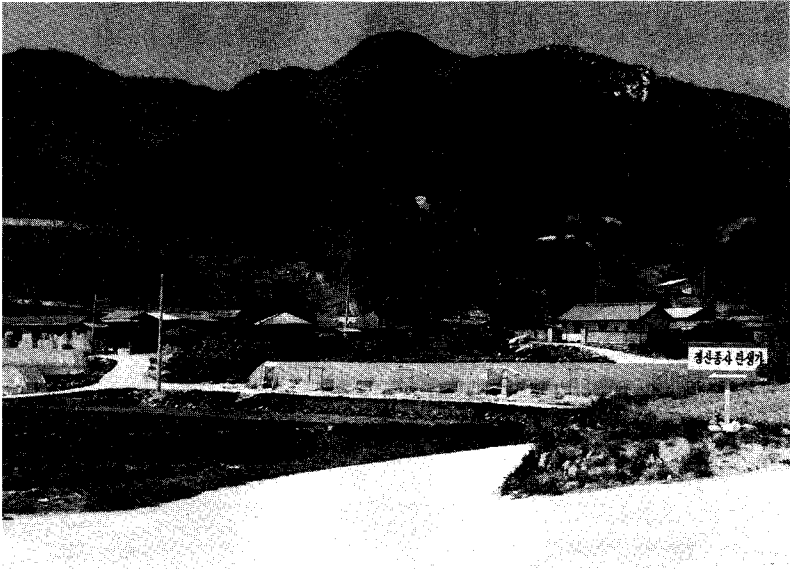
## 성주성지

▶연락처 : 719-810 경상북도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원불교 초전계척지  
(0544)931-1782~3

### 선비 고을 성주(星州)

성주는 성산 가야의 옛 터전으로 경북의 서남단에 위치하고 있다. 예전 나라안에서 가장 기름진 네 곳 가운데 한군데로 꼽힐 만큼 비옥한 토지와 경제력을 바탕으로 찬란한 문화를 꽃피워 온 유서 깊은 고장이다.

성주 땅에 가야문화 이후에 꽃을 피운 건 불교문화였다. 대부분 가야산 하면 해인사를 떠올려 함천만 생각하기 쉬우나 가야산은 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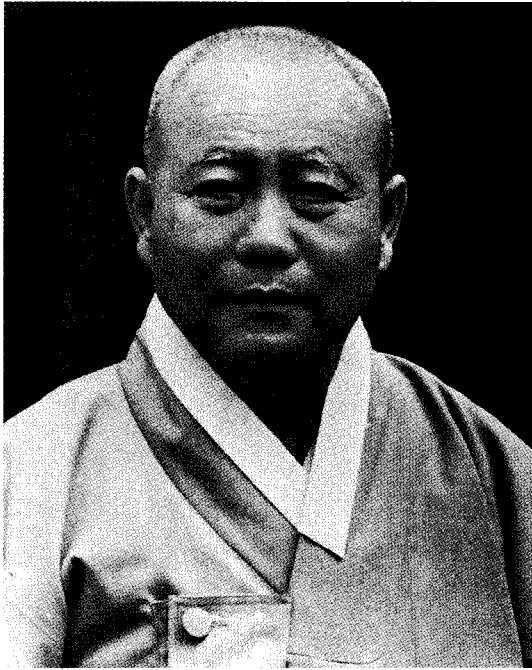


구성마을 / 정산중사가 탄생한 소성리 구성마을 뒤로 지금은 달마산으로 변음되어 불려지는 달묘(月山)가 아담하게 솟아있다.

주의 진산이기도 하다. 가야산 동쪽 기슭에 폐사터로 남아있는 범주사터는 이 고장에 있는 신라시대 불교문화의 저력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런가하면 고려시대의 동방사는 칠층석탑만이 성주읍의 지킴이 구실을 하고 있다. 또한 성주는 조선중기 사림문화가 정착하여 많은 인재를 배출한 유림의 고장이기도 하다.

조선 왕실의 태실을 관내에 안치한 까닭에 행정구역이 군에서 목으로 승격되어 정3품관인 목사가 머물렀고 서진산 자락에 안긴 세종대왕 왕자 태실은 조선시대 태실운영의 본보기를 보여준다.

오늘날 성주에 들어서면 먼저 눈에 띄는 것이 비닐하우스의 물결이다. 성주 전체가 은빛 물결로 덮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참외하면 성주, 성주하면 참외가 떠오른다. 참외가 성주 특산물인



정산종사 진영(1900-1962)

까닭이다.

성주와 원불교의 인연은 소태산 대종사의 법통을 계승하여 원불교 발전의 터전을 확립했던 정산종사와 친동생인 주산종사로부터 비롯된다.

#### 정산 송규(鼎山 宋奎) 종사

소태산 대종사께서 28년간 인류구원 사업을 하다가 원기 28년(1943년) 6월 1일에 열반에 드니, 정산종사가 소태산 대종사의 법

성주성지

통을 이어 2대 종법사가 되었다. 정산종사는 야성(冶城) 송씨의 후예로 이름은 도군(道君)이며 법명은 규(奎), 법호는 정산(鼎山)이다. 그래서 보통 정산종사라 부른다. 정산종사는 경북 성주에서 1900년에 태어나 어려서 한학을 배웠으나 마음속에는 큰 스승을 만나 공부를 하겠다는 구도적 열정이 심화되어 전라도까지 가게 되었다.

이 무렵, 소태산 대종사는 영광에서 제자들을 10인 1단의 교화단으로 조직하고 “중앙 단원은 뒤에 멀리서 올 것이다”며 기다리다 원기 3년 정읍 화해에서 정산종사를 만나게 되었다. 이 때 소태산 대종사는 “나는 이제 근심을 놓았다. 나의 법을 전해 줄 범주를 만났다”고 하였다.

약관 19세로 수위단 중앙에 서임된 정산종사는 원기 4년 법인성사를 동지들과 나투고 전 가족을 전라도로 이사시켜 소태산 대종사에게 귀의시켰다. 소태산 대종사의 명에 따라 부안 변산 월명암에 백학명 선사의 상좌로 있다가 소태산 대종사가 변산에 입산하자 교서편찬을 보좌하였다. 또한 변산에서 각처의 창립 인연을 규합하는 역할을 하다가 총부건설에 동참하였다. 원기 13년부터는 영산에서 새 회상 기초를 다졌는가 하면 영산과 총부에서 소태산 대종사의 명에 따라 정전편찬과 교정전반에 보필의 역할을 다하였다.

소태산 대종사가 열반하여 2대 종법사 위에 오른 정산종사는 해방 후 혼란 속에서 〈불법연구회〉라 불리던 임시교명을 〈원불교〉라는 정식교명으로 세상에 선포하였으며, 전채동포구호사업을 펼치고 《건국론》을 저술, 민족과 국가의 나아갈 바를 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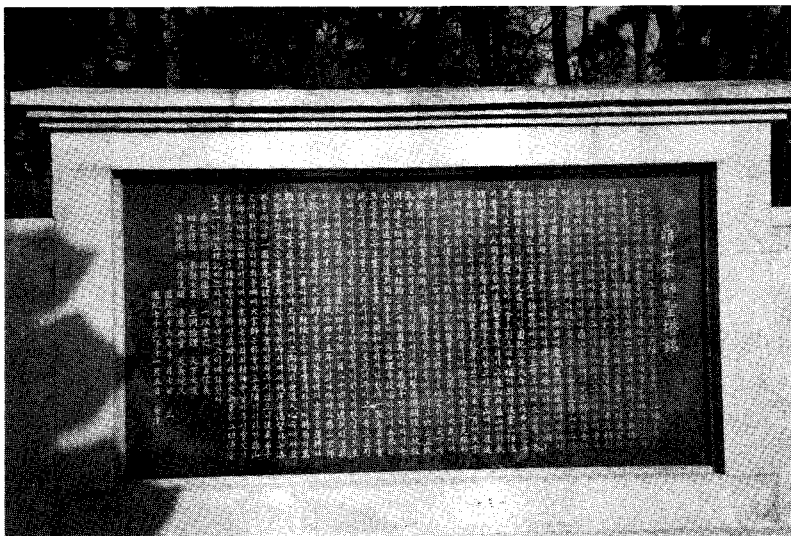
또한, 원광대학교를 비롯한 각종 교육사업을 전개, 새 회상과 민

족 발전의 터전을 닦아 주셨으며, 교재정비(教材整備), 기관확립(機關確立), 정교동심(政教同心), 달본명근(達本明根)의 4대 경륜을 세우시고 실천하시다가 「한 울안 한 이치에 한 집안 한 권속이 한 일터 한 일꾼으로 일원세계 건설하자」는 계송을 전하신 후 1962년에 63세를 일기로 열반에 들었다.

정산종사의 뒤를 이어 3대 종법사에 오른 대산종사가 교화·교육·자선의 균형 발전과 내실을 기하는 한편, 심전개발, 종교연합운동 등을 제창하고 교단을 이끌어 오다가 1998년 85세를 일기로 열반했다. 현재는 좌산 이광정 종법사가 원불교를 이끌고 있다.

**정산종사 성담명** : 대범 하늘은 땅이 있어 그 도를 다하고 태양은 달을 두어 그 공(功)을 더하니, 대중사계옵서 대각을 이루신 후 새 세상의 새 회상을 세우시고자 시방을 응하여 수위단을 조직하실제 정산종사를 기다려 그 중앙위를 맡기시고 내가 만나려던 사람을 만났으니 우리의 대사(大事)는 이제 결정 났다 하시었으며 이로부터 지중한 부자의 결의로 한결같이 신봉과 보필의 소임을 다 하시매 나의 마음이 곧 그의 마음이 되고 그의 마음이 곧 나의 마음이 되었다 하시었으니, 이것이 정산종사께서 대중사의 법을 이어 받으신 기연이다.

정산종사의 성은 송씨요, 법명은 규(奎)요, 정산(鼎山)은 그 법호이시며, 원기 전 16년 경자(庚子) 8월 4일에 경북 성주 소성동에서 나시니 부는 송벽조 모는 이운외이시다. 어려서 수도에 발심하시어 강호(江湖)와 산곡(山谷)에 기도도 하시고, 초당에 정좌하여 심공도 쌓으시며 스승 찾아 각지에 방황하시다가 18세 되시던 원기 3년 무오(戊午)에 전북 정읍 화해리에서 대중사의 친영(親迎)을 받아 이 회상 창립의 중추가 되신 후, 영산 방언이 끝나매 8인 동지와 함께 법인성사를 마치시고 변산과 익산에서 교리 제정을 도우시며 각처에 속검 법연을 두루 찾으시고 영산에서 후진 양성에 심혈을 기울이는 한편 새 회상의 창건사를 기초하시었다. 계미 6월에 대중사께서 열반하시매 망극한 가운데 법통을 이어 험난한 시국을 극복하고 8.15 해방을 맞아 전제동포 구호사업을 전개하시며 대중이 아직 몰라 뵈던 대중사를 주세불로



정산종사 성탑 비문 / 대산종사가 지은 것으로 정산종사 성탑 부도로 조성되어 있다.

높이 받들고 교명을 확정하사 천하에 공시하시며 교헌을 반포하사 교단 운영의 대본(大本)을 세우시고 6.25 전란 중에는 의연히 대중의 갈 길을 인도하시며 교재정비, 기관확립, 정교동심, 달본명근의 사대경륜으로써 교단 만대의 기초를 더욱 다지는 한편 동원도리·동기연계·동척사업의 삼동운리를 제창하시어 세계의 모든 종교, 모든 생명, 모든 사업이 대동화합하여 다 함께 일원주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일러주시고 몸으로 보여주시고 마음으로 전하여 주시다가 <한 울안 한 이치에 한 집안 한 권속이 한 일터 한 일꾼으로 일원세계 건설하자> 하신 후, 원기 47년 1월 24일 거역히 열반에 드시니 세수는 63세이요 법랍은 45년이셨다.

오호라! 정산종사는 한없는 세상을 통하여 대중사를 받들고 재생의세의 대업을 운전하실제 신의는 고금을 일관하시고 경륜은 우주를 관통하시며 시국의 만난(萬難) 중에서도 대도를 이어받아 드러내시고 흉흉한 세도 인심 속에서도 대자대비로 모든 생령을 두루 안아 길러 주시며 새 질서를 갈망하는 세계를 향하여 일원세계 건설의 큰길을 높이 외쳐 주시었으니 후래 제자로서 묵묵히 우러러 뵈을 때에 대중사는 하늘이요 태양이시라면 정산종사는 땅이요 명월(明月)이시며, 대중사는 우리의 정신을 낳아주시신 영부(靈父)시라면 정산종사는 그 정신을 길러주시신 법모(法母)시라 광대무량한 그 공덕을 만에 하나

라도 표기하고자 이 탑을 세우고 이에 명(銘)한다. 정산종사 개벽계성 일이 관지 만고신의 사대경륜 봉창대업 삼동윤리 천하대도 도명덕화 일일부명 법은무량 천장지구(鼎山宗師 開闢繼業 一以貫之 萬古信義 四人經綸 奉創大業 三洞倫理 天下大道 道明德化 日月復明 法恩無量 天長地久) 원기 56년 10월 일 일(대산종사가 지은 정산종사 성탑명은 원불교 중앙총부 정산종사 성탑 부조로 조성되어 있다.)

### 정산종사 탄생가

정산종사의 부친 송벽조의 집안은 대대로 선조들이 살아오던 고산정에서 생활하다 첫 아이를 낳기 전, 고개 돌을 넘어 소성동으로 이사하게 되었다. 당시 소성동에는 송벽조의 외가인 전주 이씨들이 한약방을 하며 살고 있었다. 또한 소성동 사람들이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고산정 마을의 선비를 모시려는 까닭으로 인해 고산정에서 소성동으로 이사하게 된 것이다.

뒷날 정산종사는 소성동의 풍경을 이렇게 술회하고 있다. “요임금과 순임금은 천하를 서로 사양하고, 제후들은 서로 아홉 고을을 사양하며, 그 화기(和氣)가 천하에 충만한지라. 그 전경을 풍류에 올린즉 봉황이 춤을 추었다. 그러므로 인화는 양보로써 이루어지고, 화(和)가 지극하면 천하의 기운이 따라서 통해지는 것이다.” 소성동은 이처럼 화(和)로써 천하를 평화롭게 할 성자가 탄생할 곳이었다.

정산종사는 1900년 8월 28일(음 8월 4일)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464번지에서 부친 구산 송벽조(久山 宋碧照)와 모친 준타원 이운외(準陀圓 李雲外)의 2남 1녀 중 장남으로 탄생했다. 소성동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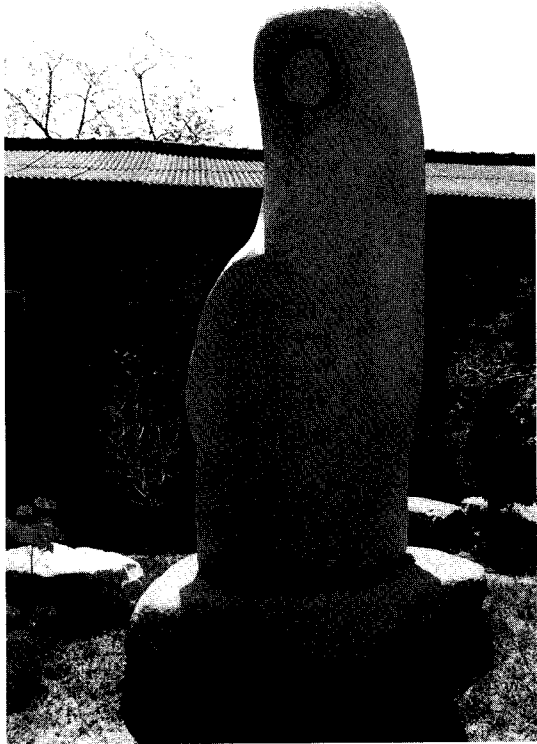


정산종사 탄생가 / 원기 79년에 안채와 사랑채는 복원하고 헛간은 개축하였다.

서 조금 밖으로 나와 박실(朴谷)마을이 있고, 조금 더 나와 연봉(連鳳), 봉무(鳳舞)마을이 있다. 이는 고대 중국 순임금이 나라를 다스릴 시절, 사양의 덕을 노래하니 “봉황이 내려와 춤을 추었다”라는 옛이야기에서 유래한 마을이름이라 전해 오고 있다. 소성동 마을 뒤에는 달피(月山)가 변음되어 불리워지는 달마산, 형제봉, 연봉, 허봉 등이 있다. 마을 앞으로는 시냇물이 흐르고 있어 봉황이 춤추는 땅이라고 한다.

정산종사는 탄생가 사랑채(동네 아이들의 서당이기도 했다)에서 조부 송훈동 선생으로부터 한문을 배우기 시작했다. 8세시부터는 본격적인 한학공부를 시작하였다. 정산종사 9세경 <통감(通鑑)>을 배웠는데 스스로 문득 생각하였다. 대장부로 이 세상에 태어나 한 나라를 바로 세우는 큰 인물이 되지 못한다면 어찌 후세에 대장부

삼동윤리비 /  
정산종사 탄생가를 복원  
할 때 탄생가에 비를 세  
웠다.



라 이름할 것인가. 혼란한 이 나라를 바로잡을 수 있는 힘을 기르고 경륜을 쌓아야겠다. 이 때가 1910년 한일합방이 되기 2년전 이었다. 이 때 이미 꺼져가는 조국의 운명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정산종사 탄생가는 지난 원기 79년 10월 20일에 정산종사가 탄생한 본채와 조부로부터 한학을 배우기 시작한 사랑채는 해체복원하고 헛간은 개축하여 복원준공식을 가졌다. 정산종사가 탄생한 방에는 정산·주산종사의 진영을 모시고 있어 순례객들이 참배를 올리고 있다.

돌담, 우물, 느티나무들이 그대로 있어 정산종사 어려서 뛰어 놀았으리라 생각되는 그날의 정취가 그대로 배어 있는 것 같다. 정문 입구에 삼동윤리비가 서있어 정산종사 사상을 다시금 생각케 한다.

이 탄생가에서 정산종사의 친동생인 주산 송도성(主山 宋道性) 종사가 정산종사 8세시에 태어났다. 정산종사는 동생이 태어나자 기뻐서 대문 밖으로 뛰어나가며 마을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다 한다. “동네 사람들, 우리집에 장수가 났어요. 어서 와서 봐요. 우리 집에 큰 장군이 났단 말이에요.” 정산·주산종사 형제분이 탄생한 구성은 탄생지, 소야는 성장지, 박실은 구도시에 거주하던 곳이다.

### 정산종사 소야성장지

정산종사 9세시까지 탄생가에서 성장하였고 그 후 200m쯤 떨어진 소야로 이사하였다.

정산종사 10세 경에 있었던 일로 전해온다. 어느 가을날 목화(木花)를 따기 위하여 어머니가 앞서고 정산종사가 뒤따르고 있었다. 앞서가던 어머니가 아들의 기척이 없어 뒤돌아보니 저만치서 아들이 남루한 옷차림의 노인과 이야기기를 나누고 있는 것 같았다. 기다리다 아들이 오자 어머니는 궁금해 그 노인과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느냐고 물었다. 처음 뵈는 노인이었습니다. 남루한 옷차림이었으나 범상한 분이 아닌 것 같아 저런 분 중에 이인군자(異人君子)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나 도인이 아닌지 싶어 물어보았으나 별 사람 아니기에 돌아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소태산 대종사의 구사고행상과 비슷한 데가 있다.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구도정열이 불꽃처럼 타올랐으나 답답해했던



주산종사 / 정산종사의 천제로서 형의 인도로 출가하여 소태산 대종사를 보필하여 교단 창업에 신심을 온통 다 바쳤다.

마음을 정산종사 후일의 회고를 통해서 알 수 있다.

10세를 전후해서 있었던 일로 기억된다. 그때는 정말 모든 것이 궁급하고 답답하기만 했다. 천하의 큰 일을 해야 할 것인데 뜻과 같이 되지 않으니, 답답함은 가중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람들이 술을 마시면 모든 것을 잊는 것은 물론, 답답한 것도 풀린다는 말을 듣고, 정말 모든 것을 잊는 것은 물론, 답답함도 풀릴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집에서 만든 동동주를 5사발 정도나 마셨는데 근심은 더하고, 머리는 지근거리며 몸은 중심을 잡기가 어렵기

만 하더라. 술 먹으면 모든 것 잊고 답답함도 풀린다는 것은 거짓이더라.

11세 경부터 《사서(四書)》를 공부할 때, 한나라를 바로 세우는 큰 인물이 되고자 했던 생각이 “대장부가 어찌 한 나라를 바로 세우는 데에서 만족할 수 있으랴. 천하창생을 널리 구제하고 세상을 평화롭게 건설하리라.”고 생각이 다시 바뀌게 되었다.

정산종사는 10세를 전후해서 제생의세 성불제중의 큰 서원이 확립된다. 정산종사 12세 경에 한시 한 수를 지었다.

지수만물무피차(地輸萬物無彼此) 천강조민유비존(天降兆民有卑尊)  
유연즉시일시남(劉淵卽是一時男) 문무겸전기불난(文武兼全豈不難)」

지상에 실린 만물 너와 내가 없었던만 하늘이 내린 백성 높낮음이 있어졌네.  
유연은 한 시대를 주름 잡던 사나이나 문무를 겸전하기가 어찌 어렵지 아니 하랴.

정산종사는 13세에 성주군 금수면 광산동에 거주하는 여씨가(呂氏家)의 청운(淸雲)과 결혼을 했다. 정산종사 이 즈음해서 성숙된 구도열정이 생활의 축이 된다. 즉, 본격적인 구도가 시작된 것이다. 결혼 후 소야에서 박실로 이사를 하고 소야 성장지는 지금도 빈터로 남아있다.

### 정산종사 박실구도지

정산종사 13세 되던 봄에 여청운과 결혼을 하게 되자 부친 송벽



소성구도지비 / 박실구도지 집터에 세워진 소성구도지비는 성주성지의 내력과 정산종사의 구도과정을 적고 있다. 그러나 정산종사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이곳에 기도실이 건축될 계획이다.

조는 새로 집을 지어 박실(朴谷)로 이사하게 되었다.

정산종사는 비록 부모님의 뜻에 따라 결혼은 했으나 가정생활에는 거의 관심이 없었다. 결혼 후로는 구도에 대한 정열이 더욱 뜨거워졌다. 14,5세경 처가에 갔다가 그 자리에 모인 같은 또래들과 한시를 짓는데 정산종사가 지은 시구 중에 이런 구절이 있다.

해봉천리 고상우(海鵬千里 翱翔羽)

농학십년 칩울신(籠鶴十年 蟄鬱身)

바다 봉조 천리를 날아갈 그런 깃을 가지고도

조롱 속에 갇힌 학으로 10년의 세월을 보내는 구나.

이 시구를 본 장인 여병규(呂鼎奎)는 속으로 놀랐다. “자네는 아

무래도 천하를 무대로 큰 일을 할 사람이지. 한 가정에 안주 할 인물은 아닌 것 같네.” 여병규는 칭찬 반 걱정 반이었다.

조부 송훈동 선생은 정산종사의 그릇이 큰 것을 보고 자신보다 더 실력있는 스승에게 배우도록 하기 위해 14세 경부터 한철씩 공산 송준필에게 유학을 배우게 하였다.

정산종사, 학문보다는 도에 대한 관심이 깊어져 답답한 가슴을 어떻게 풀 것인가 생각하다가 정성껏 기도를 올려 보리라 결심하게 되었다.

박살마을 집 뒤뜰에 크지 않은 거북모양의 바위에서 기도를 시작했다. “송도군이 후일에 천하 창생을 제도하는 사업을 이뤄서 그 빛난 이름이 영원한 세상에 유전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천지 신명께 간절히 빌기를 계속하였다.

정산종사의 거북바위 기도 때 모습을 모친 이운외의 회고담에서 엿볼 수 있다. “옆 골짜기에 흐르는 물을 웅덩이를 파서 맑힌 후 정갈한 그릇에 떠 거북바위 앞에 진설하고 기도하는 모습은 경건하였고, 범상함을 넘어서 천상에서 내려온 동자가 수도하는 모습 같았다.”고 했다.

밤으로는 거북바위에서 기도를 올리고 낮으로는 〈사략(史略)〉이라는 글을 읽으면서 자신의 의사와 포부를 나타내는 〈장부회국론(丈夫恢局論)〉이라는 긴 글을 짓기도 하였다.

그 뜻은 “대장부가 이 세상에 출세하여 마땅히 공중사에 헌신봉공하여 그 은혜가 천하만민에게 골고루 미쳐가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한갓 구구한 가정생활에서는 벗어나야 할 것이다.”는 것이었다.

아쉽게도 〈장부회국론〉은 상주에 살던 이종 사촌형인 김석주(金



거북바위 / 정산중사 구도시 기도 올렸던 거북바위는 박실집 후원에 있다.

錫柱)가 이 글을 보고 감탄하여 되돌려 주기로 하고 빌려 갔으나 되돌려 주지 않아 전해오지 못하고 있다.

정산중사는 거북바위 기도를 상당히 계속하였으나 별 효과가 없자 집안에서 올리면 효과가 있을까 생각되어 방안에 <천문도(天文圖)>와 <지도서(地圖書)>를 그려놓고 천문도를 향하여 하늘 기운이 응하기를 빌고, 지도서를 향하여 땅 기운이 응하기를 빌었다. 또한 고대 성현 군자와 영웅달사들의 명패를 봉안하고 천하를 구제할 수 있는 큰 힘을 갖추게 해 달라고 축원기도를 하였다.

정산중사는 거북바위와 방안에서 기도를 올려 보았으나 답답한 마음이 풀리지 않았다. 조부는 유서를 부지런히 읽기를 권장하였다.

이 무렵 처가에 갔다가 처족 중에서 여처사(呂處士)란 분이 가야산에서 수십 년간 수도하여 육정육갑(六丁六甲)을 마음대로 부리는



정산종사 가족사진 / 정산종사 회갑기념으로 가족들과 함께 찍은 사진. 앞줄 가운데 정산종사, 왼쪽이 정토회원 여청운, 오른쪽이 모친인 이운외다.

도인이라는 말을 듣고 정산종사 귀가 번쩍 뜨였다.

정산종사는 여처사를 만나보리라는 결심을 하고 몇 번의 기회를 보다 1917년 초봄, 아무도 모르게 혼자서 가야산을 찾았다. 가야산은 소성동에서 1백여리가 떨어져 있다.

정산종사는 두번째까지 여처사를 만나지 못하고 세번째 가야산을 찾았을 때 증산교 계통의 수행자 두 사람을 만나 전라도 쪽으로 가야 큰 스승을 만날 수 있다는 말과 자신들도 치성이 끝나면 전라도로 갈 것이며, 아마 여처사는 만날 수 없을 것이라 했다.

정산종사는 이 해 5월(음)경에 전라도로 가 여러 사람을 만나 보았으나 한결같이 진지한 구도의 자세를 찾아보기 어려워 한달쯤 후 소성동 집으로 돌아왔다. 집으로 돌아와 가족들과 수행정진하며 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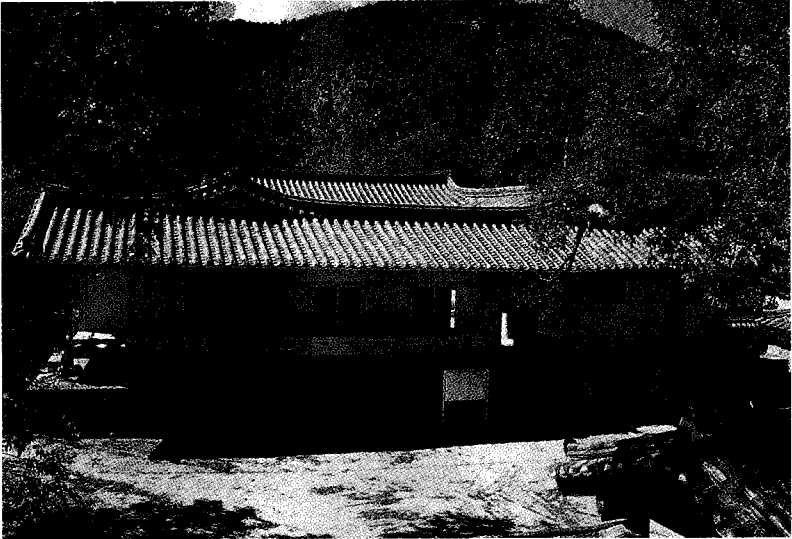
성을 드려 보았다. 이 기간에 몇 번의 이적이 나타났으나 정산종사 이것은 분명 대도정법이 아니다 이적은 천하 창생을 제도할 정법이 아니다 라고 생각했다. 정산종사는 다시 전라도로 가 큰 스승을 만나 대도정법을 공부하리라 결심하고 조부와 부모님께 말씀드려 전라도로 떠나게 되었다. 송벽조는 급히 땅을 팔아 비용을 마련하고 김천역까지 전송하며 아들의 성공을 빌었다.

정산종사 전라도로 와서 정읍·김제·장성 등 여러 곳에 다니며 사찰과 신흥종교를 찾았으나 참스승은 찾을 수 없어 완주 모악산 대원사로 들어가 수도하다 정읍 북면 화해리에 사는 김해운의 집으로 자리를 옮기어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정산종사는 이곳에서 1918년(원기3년) 봄에 소태산 대종사와 만나게 되어 제자가 되었다. 그해 여름 영광으로 가서 십인일단의 중앙이 되었고 만고신의를 다바쳐 소태산 대종사의 범통을 이었다.

기도와 묵상에 잠겼던 집이며, 조부로부터 한학을 배웠던 사랑채도 허물어져 오래전에 흔적도 없고, 집터에는 원기 69년 중앙문화원에서 세운 「소성구도지(韶成求道地)」비가 세워져 있다. 그러나 구도비 자리에 정산종사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회가 기도실 건축을 계획하고 있어 구도비는 거북바위 쪽으로 약간 옮겨질 것 같다. 구도비 옆에는 거북바위가 옛모습 그대로 있어 많은 참배객을 맞이하고 있다.

**소성 구도지 비문** : 여기는 성주군 초전면 소성동 박실마을. 정산종사 성장 구도지 옛 집터다. 종사의 선대 고개 넘어 고산동에 세거(世居)하시다가 조부 훈동공(薰動公) 구성동에 오시어 정산 주산 형제분 거기 나시고 얼마 후 소야거처 박실로 오시니 이에 여기가 뜻 깊고 거룩한 터전 되었다. 후원



백세각 / 정산종사가 유학을 배운 공산 송준필이 이곳에서 서당을 열었던 곳으로 3·1운동 당시 성주지방의 항일운동의 요람이 되었다.

거북바위 사무친 소원 빌던 기도터요. 멀리 가야산 숨가쁘게 구도하시던 역정(歷程)의 산하다. 산에서 만난 천제인(天祭人) 연원으로 여기 치성하실제 천악(天樂)이 동지(動地)하였고 스승 찾아 진라도에 유력(遊歷)하시다가 화해에서 대종사와 제우(際遇)하시어 영겁대사를 이루시었다. 바로 봉명(奉命)하여 영광으로 이사(移徙)하시니 돌보지 않은 오랜 세월에 집은 헐려 유허(遺墟)로 화(化)하였으나 거룩할사 이 터전 새 회상 아성(亞聖)께서 봉황(鳳凰)으로 자라시고 잠룡(潛龍)으로 머무시던 곳 소소구성(簫韶九成)에 봉황이 래의(來儀)로다.

### 야성 송씨 집성촌 고산정

야성 송씨 30대 손인 정산종사는 살아 생전에 당신 고향을 묻는 이 있으면 「성주 고산정」이라 했다. 고산정은 야성 송씨의 집성



단구재 / 정산중사 부친 때까지 살았던 고산동 계명마을 조금위에 위치한 닭실마을에 있는 단구재에는 이곳 문중에서 몇 년 전 정산중사 진영을 모셨다.

촌으로 성주군 초전면 고산리이다. 정산중사 부친 송벽조가 결혼할 때까지 살던 곳이며 역대 선조들이 대대로 세거(世居)하였고 오늘날까지 종친들이 집성촌을 이루고 있다.

정산중사 조부에게 유학을 배웠으나 14세경부터는 일년에 한 철씩 이곳 고산정에 와 공산 송준필에게 유학을 배우게 되었다. 정산중사 14대조인 송희규가 고산정에 정착하여 백세각(百世閣)을 짓고 학문을 닦던 이곳에서 공산 송준필은 고양서당(高陽書堂)을 세워 후학들을 가르치고 있었다. 그는 당시 영남지방의 거유(巨儒)로 이름이 나 있었고, 일생을 통해서 많은 저서와 방대한 문집을 남겼다.

고산정은 3·1운동 당시 성주지방의 항일 운동의 요람이었다. 공산 송준필이 주동한 이 운동은 3·1운동 당시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대표 33인 중 유림이 한명도 참가하지 않는 것을 개탄해 독립 운동에 앞장 설 것을 결의한 것이었다.

이들 가운데 송준필, 송홍래 2인은 김창숙 등과 연락, 1919년 파리에서 열리는 만국평화회의에 우송한 전국유림대표 137명의 서명으로 한국독립을 호소했던 「유림단진정서」 작성에 앞장서 송준필은 이 사건으로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고 후에 종친 10여명이 독립유공인으로 추서되었다.

송준필이 만년에 저술과 경학에 힘쓰던 김천 원계서원에 송덕사(崇德祠)를 짓고 그의 업적을 기리고 있다.

백세각은 조선조 전통 목조건물로 인정되어 경북 지방문화재 163호로 지정되어 있다. 백세각은 그대로 있으나 정산종사 송준필 선생으로부터 유학을 배웠던 백세각 옆 고양서당은 이제 흔적도 없고 그 자리에 조립식 건물이 들어서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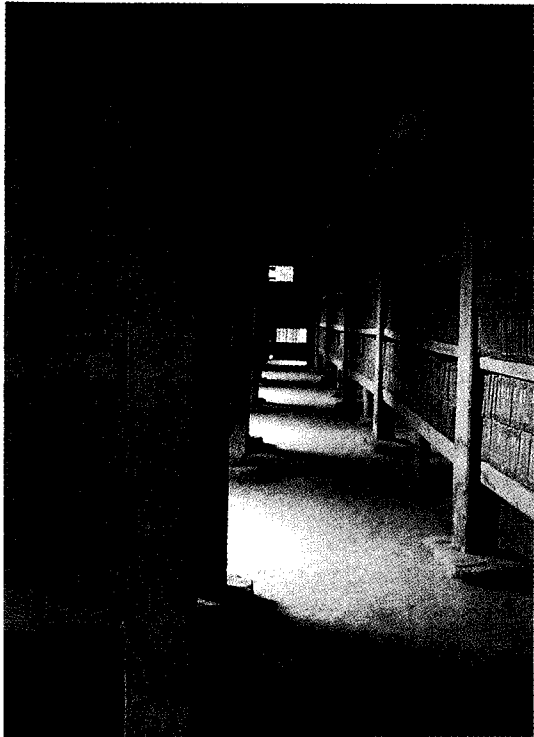
정산종사 14.5 세경에 지었다는 「해봉천리 고상우(海鵬千里 翱翔 羽) 농학십년 칩울신(籠鶴十年 蟄鬱身)」이라는 시구를 보고 송준필 선생도 장차 큰 인물이 될 것임을 알게 되어 “이제부터는 〈중용〉 보다는 〈논어〉를 더 많이 읽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백세각에서 조금 떨어진 고산정 닭실마을에 있는 단구재는 야성 송씨 21세손인 단구공(丹邱公) 송세필의 사당이다. 정산종사 열반에 들자 장례를 마친후 익산에 사는 가족과 시자가 고향 성주 고산정을 찾아 단구재에 참배하고 집안 친지들에게 인사를 한 후 그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기도 하였다.

정산종사 문중에서는 이곳 단구재에 정산종사 진영이 모셔놓고 새회상의 문로를 열어가고 있다.

### 해인사 장경각 /

법보사찰인 해인사 장경각에 팔만대장경판이 보존되어 있다. 해인사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기도 하다. 해인이라는 이름은 바다용왕의 옥새를 보관했다는 설화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 인근의 가 볼 만한 곳

**가야산 해인사** : 정산종사는 거북바위와 집안에서 간절히 기도를 올렸으나 답답한 마음 풀리지 않아 “이인군자(異人君子)를 만나 도덕을 배워 원하는 뜻을 이루리라” 생각하고 깊은 산과 신령스런 곳을 찾기 시작했다.

이 무렵, 처가에 갔다가 여처사란 분이 가야산에서 수십년간 수도한 도인이란 말을 듣고 1917년 초봄에 가야산을 찾았으나 여처사를 만나지 못하고 세번째 찾았을 때 증산교 계통의 수행자를 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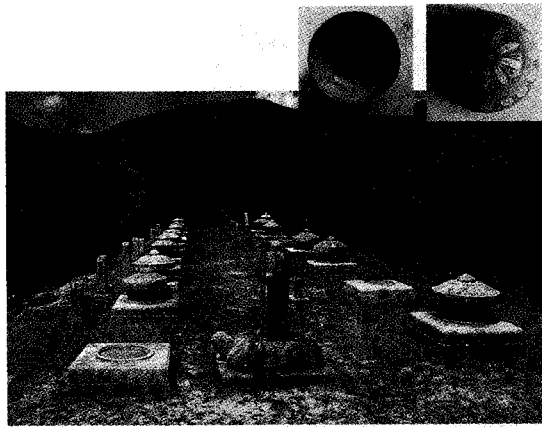
나 여처사를 만날 수 없을 것이라는 것과 전라도 쪽으로 가야 큰 스승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그러나 정산종사가 가야산에 여처사를 찾아 헤메이던 골짜기는 어떤 곳인지 알 수 없다.

정산종사 집으로 돌아와 조부와 부모 앞에 확고한 태도로 전라도로 가야 스승을 만날 수 있고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라도로와 소태산 대종사를 만나 영접대사를 이루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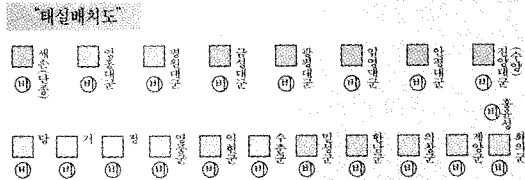
가야산은 경북 성주군과 경남 합천군 경계지대에 있는 명산으로 조선 8경의 하나로 소성동에서는 1백여리 떨어져 있다. 가야산은 1972년에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는데 해인사로 들어가는 홍류동 계곡은 경치가 좋아 선사들의 선시에 자주 등장한다. 농산정과 제시석은 신라말기 고운 최치원의 유적으로 유명하고 예로부터 숨어서 수도하는 사람들이 즐겨 찾는 곳이기도 하다.

가야산은 우리나라 범보사찰인 해인사를 비롯하여 많은 암자가 있다. 소성동에서 해인사까지는 차로 1시간여 걸린다. 해인사에는 유명한 팔만대장경을 비롯 수많은 문화재와 유적으로 인하여 야외 박물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수많은 전설과 설화가 전해 온다.

신라의 이정과 순응 두 스님이 중국에 가서 지공화상에게 《동국답사기》를 전해 받고 귀국하여 가야산에서 선정에 들어 있었다. 신라 40대 애장왕의 왕후가 병에 걸려 백약이 무효라 고승을 구할 때 왕후의 병을 말끔히 낫게하여 왕은 은혜를 느껴 친히 찾아와 두 스님을 찾아뵙고 그 자리에 대가람을 창건하니 신라 40대 애장왕 3년(802년) 임오 10월 16일이 가야산 해인사의 시초가 되었다.



세종대왕 왕자태실 / 19기의 태무덤이 한곳에 있으나 조선왕조 단종과 세조의 정치적 입지와 관련, 태무덤 마저도 형태를 달리하고 있어 역사의 한 단면을 엿볼 수 있게 해 준다.



또한 해인사(海印寺)란 이름은 노인부부가 용왕의 공주를 보살펴 준 은덕으로 용왕의 해인을 가져와 살다가 노인들이 죽자 자식이 없어 「해인」을 해인사에 안치시켰다고 하여 절 이름을 해인사라 했다 한다. 불가사의한 팔만대장경은 우리 조상들이 남긴 세계적 문화유산으로 우뚝 솟아있고 수많은 고승 대덕들을 배출한 명찰 중 명찰이다.

**세종대왕 왕자태실** : 성주의 진산인 서진산(742m)에 자리잡은 세종대왕 왕자태실은 전국에 산재하는 많은 태실 가운데 가장 많은 태무덤이 한자리에 모여 있는 곳이다. 성주성지에서 10여Km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세종 20년(1438년)부터 24년까지 세워진 것으로 장방형으로 평평하게 다듬어져 앞줄에 11기, 뒷줄에 8기의 태무덤이 태비(胎碑)를 앞세우고 길게 늘어서 있다.

지금은 산봉우리에 한가하게 함께 있지만 태의 주인공이 취한 정치적 입장과 처지에 따라 지내온 내력은 제각각이다. 단종을 밀어내고 수양대군이 왕위에 오르자 이를 반대하여 단종 복위를 꾀하다 죽임을 당한 한남군, 화의군과 계유정난에 죽은 안평대군의 태무덤과 태비는 넘어져 태봉 아래로 굴러 떨어지는 불운을 겪으며 500여년을 버림받았다가 제자리에 돌아온 것은 오래전의 일이 아니라, 1975년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88호로 태실이 지정되면서 원래의 모습대로 복원된 것이다.

세조, 곧 수양대군의 태비는 경우가 정반대에 가깝다. 태를 묻은 왕자가 등극하면 태실을 다시 꾸미는 태봉(胎封)의 법식에 따라 다른 태비와는 격이 다르다.

세조의 태무덤은 귀부와 이수를 갖추고 있다. 한때 조카의 왕위를 빼앗은 세조를 미워한 백성들이 그 비에 오물을 퍼붓기도 하고 새겨진 글자들을 지워 버려 그 내용을 알아 볼 수 없게 되었다 한다.

태실이 있는 이곳은 원래 성주가 본관인 성산 이씨의 시조 이장경의 묘가 있었다. 태실에는 전설이 전하고 있다. 성산 이씨의 시조 이장경의 장례를 치르는 날, 한 노승이 찾아와 “저 산의 나무들을 베어내고 묘를 썼으면 더없이 길지인데.” 하더니 “하지만 누각은 지어서는 안되지. 어기면 당신네 소유가 아니 될 거야.”라는 말을 덧붙이고 떠났다.

그 자리에 묘를 쓰고 묘각을 세우지 말라는 말을 믿지 않고 묘각을 세웠다. 그 뒤, 이 자리가 태를 묻을 자리라는 소문이 나 왕실에서 지관을 보내어 확인하였다. 처음에는 지관이 신통치 않게 생각하다가 잠시 쉬려고 묘각에 오른 지관은 “과연 명당이 여기 있구나.”하며 무릎을 쳤다. 안개가 걷히면서 봉우리가 드러난 것이다. 이윽고 태실이 들어서게 되고 이장경의 묘는 옮기지 않을 수 없어 성주군 대가면으로 옮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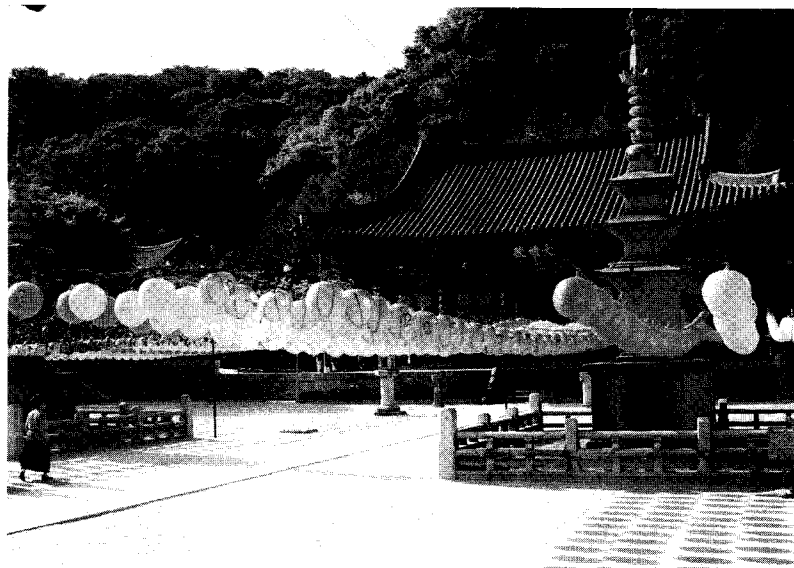
태실에서 서쪽으로 내려다보면 선석사(禪石寺) 전경이 한눈에 건너다 보인다. 선석사는 태실이 들어선 뒤 태실을 지키는 절이 되어 영조의 어필이 하사되기도 했다고 한다. 대웅전이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 113호로 지정되어 있다. 선석사는 아름답리 소나무와 많은 나무들이 서로 어우러져 소박함을 과시하고 있다.

**황악산 직지사(直指寺) :** 대한불교 조계종 제8교구 본사인 황악산 직지사는 김천시 대항면에 자리잡고 있는 고찰이다.

봄이면 연두빛 실록이 가을이면 은은한 단풍이 타오르는 황악산 아래, 신라 땅에 불교가 공인되기도 전에 터를 잡았다는 직지사가 성주성지 인근에 있는 가 볼 만한 곳이다.

직지사란 “문자에 의존하지 않고 바로 마음을 가르쳐 성품을 보아 부처를 이룬다(不立文字直指人心見性成佛)”는 말에서 유래했다는 선가의 가풍을 가지고 있다.

직지사에서 창건주로 모시는 아도화상은 본래 고구려 사람으로 5살때 어머니의 뜻에 따라 출가했다. 16세에 위나라로 유학해 현창화상에게 공부하고 19세에 귀국했다. 그때 그의 어머니가 당부했다.



직지사 / 직지사는 아도 스님이 저 산 아래도 좋은 절터가 있다고 가리킨 데서 그 이름이 유래되었다고 하며 기도도량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곳이다.

“이 나라(고구려)는 불법을 모르지만 이후 3천 몇 달이 지나면 신라에 성군이 나서 불교를 크게 일으킬 것이다. 그 나라 서울 안에 일곱 곳에 절터가 있는데 모두 전불(前佛)시대 절터이며 불법이 길이 유행할 곳이다. 네가 그곳으로 가서 불교를 전파하면 불교의 개조(開祖)가 될 것이다.”

그 뒤, 아도는 신라 대궐로 나아가 불교를 널리 전하기를 청했는데 완강히 거부할 뿐 아니라 그를 죽이려는 사람까지 있어 아도는 일선현 모례의 집으로 가서 목숨을 숨겼다. 그 때 모례장자는 아도 스님께 불교를 배웠다. 훗날 아도 스님은 선산의 도리사를 짓고 나서 손을 들어 멀리 서쪽의 산(황악산) 하나를 골게 가리키며 “저 산 아래도 좋은 절터가 있다.”고 했다. 아도 스님이 가리킨 황악산 아

래 터를 닦은 절, 직지사 이름이 여기서 나왔다고 한다.

직지사는 대웅전을 비롯해 사명대사를 모신 영택, 천불을 모신 비로전, 박물관 등 많은 문화재가 산재해 있다.

직지사는 영험스런 기도도량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비로전에 천불을 모셨다 하여 천불전이라고도 하는데 고려 태조 때 조성한 천불상이 모셔져 있다. 경주의 옥돌로 16년간 조성하여 모신 그 당시 우리나라 유일한 천불상이다.

그런데 천불전에 참배자가 법당에 들어갔을 때 가운데 발가벗고 서 있는 동자상을 첫눈에 보면 아들을 낳는다고 하는 전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공하러 왔다 한다.

직지사는 근래에 30년 불사로 인하여 사역 전체를 개혁하는 불사를 이루어 잘 단장되어 있다.

## 성주성지의 인연들

구산 송벽조(久山 宋碧照) 대희사(1876~1951) : 구산 송벽조는 정산종사의 부친으로 경북 성주군 초전면 고산리에서 태어나 이운외와 결혼하여 2남 1녀를 두었다.

장남 정산종사가 구도 편력하다가 소태산 대종사 문하에 정치를 잡자 1919년 7월에 직접 영광으로 찾아가 소태산 대종사를 만나 감복하고 성사(聖師)님으로 받들었다. 그해 9월에 유가의 규모를 뛰어넘어 솔가(率家)하여 전라도 영광으로 이사하려 하자 종족 친우들과 유림들이 무수히 반대하며 “전라도 사교에 빠져서 선산도 일

가 친척도 다 모르고 패가망신하러 간다”고 비난하였다.

영광으로 이사오자 소태산 대종사 그의 장함을 칭찬하였다. “그대가 어린 아들의 말을 듣고 유가의 규모를 벗어나서 친척, 친우의 강력한 반대를 물리치고 정든 고향을 떠나 나의 처소로 이사하여 온 것은 그 신심도 장하려니와 그것은 숙세의 깊은 인연이요 실로 우연한 일이 아닌 것이다.”

1924년 부친이 열반하자 전무출신하여 영산 교무를 비롯하여 마령, 수계, 원평 교무를 역임하였다.

1939년 7월, 마령교무로 근무할 때 일본 천황 앞으로 “지금 조선 민족이 도탄에 빠졌으니 부덕한 천황은 물러가라”는 투서를 하여 천황불경죄로 입건되어 1년간 광주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이어파로 소태산 대종사도 익산경찰서에 연행되었고 영산지부장인 장남 정산종사도 전남도경에 연행되어 20여일간 고초를 당하였다.

구산 송벽조는 소태산 대종사보다 나이는 15살 연상이지만 부자 지간처럼 무간하였다. 어느 집에 문상을 갔을 때였다. 다정다감한 그가 영전에 섰게 곡을 하였다. 돌아오는 길에 소태산 대종사 한마디 하였다. “아, 구산은 곡을 할 때 ‘왜콩, 왜콩’ 울지말고 ‘조선콩 조선콩’ 하고 우소.” 구산 송벽조는 25년간 공도에 헌신하다가 총부에서 열반하였다.

**준타원 이운외(準陀圓 李雲外) 대희사(1872~1967) :** 준타원 이운외는 정산종사의 모친으로 21세에 송벽조와 결혼하였다. 준타원 이운외는 슬하에 2남 1녀를 두어 장녀는 약목 전주 이씨가로 출가시키고 송규·도성 형제는 전무출신하였다.

부자집 막내딸로 태어나 타향 객지 영광으로 이사와 믿었던 사람에게 가산을 돌리고 끼니조차 어려울 정도로 고생할 때도 “경상도에 있을 제야 맨 가는 데는 샘길 밖에 안 땀겼는데 성사(대종사)님 덕분에 나무를 한다. 경상도 있으면 이런 경험했을까. 이 모든 것이다 성사님 은덕이지.”라며 고생을 다행으로 여기며 낙도하였다.

영광 남부에서 5년간 살다가 1924년 길룡리로 이사하였다. 이때 남편 구산 송벽조가 영산 교무로 전무출신하여 며느리(여청운)와 서로 의지하며 20년간 살았다.

준타원 이운외는 총부로 이사와 살 때 고혈압으로 몸이 불편하였다. 몸이 편찮아도 누가 알 새라 저어하였다. “나 아픈 것 법사(정사종사)한테 말하지 마래이.” 정산종사도 1대 성업봉찬대회를 앞두고 과로하여 몸이 불편할 때 모친이 걱정할까봐 측근들에게 일렀다. “나 아픈 것 어머니께 말하지 마라.”

준타원 이운외가 91세 때였다. 1962년 1월 24일 정산종사 열반에 들었다. 이날 아침, 준타원 이운외가 며느리 청운에게 말했다. “내가 이상한 꿈을 꿨어. 하도 소중한서 말을 할 수 없구나.” 정산종사가 와서 큰절을 하고 연꽃 구름을 타고 가는 꿈이었다. 아무도 와서 아들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었다.

울타리 너머 원광대학 운동장에서 성대히 발인식이 거행되었다. 준타원은 아무에게도 묻지 않았고 궁금증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나 며칠간 밥을 먹지 않았다. 얼마 뒤, 대산 종법사가 취임 인사차 왔다. 준타원 이운외는 흔연히 맞으며 당부했다. “교단 일 많은데 건강 주의하이소.” 총부 대중들의 독경소리를 들으며 준타원 이운외는 96세의 천수를 누리고 사바를 떠났다.

**중타원 여청운(中陀圓 呂淸雲) 종사(1896~1978) :** 중타원 여청운은 정산종사의 정도회원으로 경북 성주군 금수면에서 태어나 17세 되던 해 30리밖 초전면 소성리 야성 송씨 가문의 맏며느리로 정산종사와 결혼하였다. 신량은 4살 손아래인 13살이었다.

시집은 왔으나 신혼재미를 누리지 못했다. 신량은 가사 등에는 관심이 없고 기도예 공을 들이고 있었다. 박실집 옆 거북바위에 매일 밤 기도를 올렸고 그후, 방으로 옮겨와 기도를 올렸다.

정산종사가 명산 등을 돌아다니며 스승을 찾을 때 여비가 적지 않게 소모되어 중타원 여청운의 장농에서 옷감과 은가락지를 내다 경비로 쓰기도 하였으나 불만을 내색하지 않았다.

정산종사는 가야산을 3차례나 내방하여 여처사를 찾았으나 만나지 못하고, 스승찾아 전라도로 가 정읍 화해리에서 소태산 대종사를 만나 제자가 되었다.

1919년, 식구들이 모두 장남이 사는 영광으로 이사하기로 결정하였다. 식구들이 영광으로 이사갔을 때 정산종사는 부안 변산 월명암에 스승의 명을 받고 파견되었다. 중타원 여청운과 가족들이 영광근교에 살고 있을 때, 정산종사 잠깐 다녀갔다.

그때 정산종사 부인에게 말했다. “성리 바탕이 무엇인가 연마해 보라.” 정답이라곤 이 한마디 뿐이었다. 이 말은 식구들에게 준 화두였다. 그 뒤 정산종사가 왔을 때 중타원 여청운은 대답하였다. “성품의 본래자리는 먼 것도 가까운 것도 아니고, 높은 것도 낮은 것도 아닌 그 자리 같습니다.” 정산종사는 아무말이 없었다.

어느 때 다시 부인 중타원 여청운에게 문제를 주었다. “천지만물이 이름도 다르고 모양도 다른데 어찌 하나라 하는가? 이것도 천지

기운으로 생기고 저것도 천지기운으로 생기고 나도 천지기운으로 낳기에 하나라 합니다.” 대답만 들을 뿐 남편 정산종사는 말이 없었다.

중타원 여청운은 자식이 귀해 결혼한지 16년만인 32세 때 딸을 얻었다. 참으로 귀한 자식이었다. “그래, 영산에서 봉 한마리 낳았다 해라.” 소태산 대종사가 영봉(靈鳳)이라 이름지어 주었다. 그리고 7년 뒤 영산원(구간도실) 곳간채에 방을 들여 살 때 둘째딸 순봉(順鳳)을 얻었다.

중타원 여청운은 영광에서 20년을 살다가 해방뒤 익산 총부로 이사를 와 열반하기 사흘 전에 그 동안 미진했거나 신세졌던 인연들을 다 챙기고 정리하였다. 중타원 여청운은 두 딸을 불러 놓고 말하였다. “너희 둘 좋은 연연들을 내게 대 주고 최후에 이렇게 보호를 받고 떠나니 감사하다.”

**주산 송도성(主山 宋道性) 종사(1907~1946) :** 주산종사는 정산종사의 친동생으로서 새 회상 벽두에 형님과 소태산 대종사를 보필하여 교단 창업에 신심을 온통 불살랐으며 원불교의 영원한 청년상이 되었다.

주산종사 4살 때 조부로부터 유학을 익힐 때 하나를 들으면 열을 깨치는 총명이 있어 신동으로 불렸다. 가족 모두가 정산종사의 연원으로 영광 소태산 대종사 법하로 이사하여 주산종사 나이 13세 때 소태산 대종사를 뵈었다. 한번 뵈고 즉석에서 제자 되기를 청하였고 이를 기특히 여긴 소태산 대종사께서 “네가 어떻게 그런 마음이 났느냐?”고 묻자 어린 주산은 “부심자(夫心者)는 지광지대물(至廣至大物)이니 수련정신(修練精神)하여 확충기지대지심이(擴充其

至大之心而耳)입니다.”고 대답하였다. 이에 소태산 대종사 기뻐하며 “네가 도의 성품을 알았구나. 앞으로 도성(道性)이라 이름하거라.” 하며 범명을 지어 주셨다.

주산종사는 원기 7년, 16세 때 형님 정산종사 연원으로 부안 변산에서 교법을 초안하고 계신 소태산 대종사께 「헌심영부 허신세계 상수법륜 영전불휴(獻心靈父 許身世界 常隨法輪 永轉不休 : 마음은 스승님께 드리고 몸은 세계에 바쳐서 일원의 법륜을 힘껏 굴러 영겁토록 쉬지 않게 하리라.)」 라는 출가시를 바치고 전무출신을 시작하였다.

주산종사는 소태산 대종사의 변산시절 법설을 기록하여 대종경 변산시절 법문 근간이 되었다. 원기 10년, 주산종사 약관 19세의 나이로 수위단원이 되었고 원기 11년에는 경성출장소 초대교무로 파견되어 서울교화의 기틀을 다졌다.

주산종사 22세시 어른들의 뜻에 따라 소태산 대종사의 장녀 청타원 박길선과 결혼하였다. 결혼은 신정예법에 준하여 시행함으로써 검박함의 효시를 보였다. 주산종사는 이로서 소태산 대종사의 애제자(愛弟子)이자 사위로서 그림자처럼 수행하며 보필하였다.

소태산 대종사께서 정산·주산 형제를 신임하고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는 대종경 신성품 18장의 법문을 보면 알 수 있다. 문정규 여쭙기를 “송규·송도성·서대원 세사람이 지금은 젊사오나 앞으로 누가 더 유망하겠나이까.” 대종사 한참 동안 묵연하시는지라, 정규 다시 여쭙기를 “서로 장단이 다르오니 저로서는 판단하기 어렵나이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송규는 정규의 지량으로 능히 측량할 사람이 아니로다. 내가 송규형제를 만난 후 그들로 인하여 크게 걱정

하여 본 일이 없었고, 무슨 일이나 내가 시켜서 아니 한 일과 두 번 시켜 본 일이 없었노라.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그들의 마음이 되고 그들의 마음이 곧 나의 마음이 되었나니라.”

주산종사는 소태산 대종사의 열반을 당하여 비통한 가운데 수위 단 중앙으로 피선되어 정산종사를 보필하였고 8·15해방을 맞아 전 재동포 구호사업을 전개하였다. 귀환동포의 전염병이 감염된 줄도 모르고 교단의 중요현안 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트럭으로 서울에서 총부로 내려오다가 건강이 악화되어 원기 31(1946)년 40세를 일기로 소태산 대종사의 계승을 암송하면서 열반에 들었다. 원기 76년 소태산 대종사 탄생 100주년을 기해 교단은 주산종사의 법위를 정식 대각여래위로 추존하였다.

### 정산종사 관련 편편법문

문정규 여쭙기를 “송규·송도성·서대원 세사람이 지금은 젊사오나 앞으로 누가 더 유망하겠나이까.” 대종사 한참동안 묵연하시는지라, 정규 다시 여쭙기를 “서로 장단이 다르오니 저로서는 판단하기 어렵나이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송규는 정규의 지량으로 능히 측량할 사람이 아니로다. 내가 송규 형제를 만난 후 그들로 인하여 크게 걱정하여 본 일이 없었고 무슨 일이나 내가 시켜서 아니한 일과 두 번 시켜 본 일이 없었노라.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그들의 마음이 되고 그들의 마음이 곧 나의 마음이 되었나니라.” <대종경 신성품 제18장>

대종사께서 정산 종사를 부안 변산 월명암에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불경은 보지 말라” 하시었더니, 경상(經床)까지 외면하고 보지 아니하시며, 그 후 다시 진안 만덕산에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전주에는 들리지 말라” 하시었더니, 전주를

바라보지도 하니하고 지나시니라. 후일, 학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일찍 대종사께 물건으로 바친 것은 하나도 없으되 정(情)과 의(義)에 조금도 섭섭함이 없었노니, 마음으로 한 때도 그 어른을 떠나 본 일과 일로 한 번도 그 어른의 뜻을 거슬러 본 일이 없었노라.” <정산종사 법어 기연편 4장>

말씀하시기를 “나는 평생에 기쁜 일 두 가지가 있노니, 첫째는 이 나라에 태어남이요, 둘째는 대종사를 만났으니라.” 또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이 스승님의 은혜를 다 같이 느낄 것이나, 나는 특히 친히 찾아 이끌어 주신 한 가지 은혜를 더 입었노라.” <정산종사 법어 기연편 8장>

말씀하시기를 “나는 대종사를 뵈은 후로는 일호의 이의가 없이 오직 가르치시는 대로만 순종하였으며, 다른 것은 모르지마는 이 법으로 부처되는 길만은 확실히 자신하였노니, 그대들이 기필 성불하고자 하거든 대종사의 교법대로만 수행하고 나의 지도에 순종하라. 법을 알기 전에는 고행도 하고 편벽되어 해매기도 하지 마는 스승을 만나 안 후에는 스승의 지도대로만 하면 되나니라.” <정산종사 법어 기연편 10장>

정산 종사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나 근본에 힘써야 끝이 잘 다스려지나니, 육근의 근본은 마음이고 마음의 근본은 성품이며, 처세의 근본은 신용이고 권리 명예 이욕 등은 그 끝이니라.” <정산종사 법어 무본편 1장>

말씀하시기를 “마음의 본말을 알고, 마음 닦는 법을 알고, 마음 쓰는 법을 잘 아는 것이 모든 지혜 중에 제일 근본되는 지혜가 되나니, 경에도 사람이 삼세의 일체사를 알려면 법계의 모든 일이 마음으로 된 줄 알라 하셨나니라.” <정산종사 법어 무본편 2장>

학인이 묻기를 “이 세상에서 어떠한 공부가 제일 근본되는 공부가 되나이까.” 말씀하시기를 “마음 공부가 제일 근본되는 공부가 되나니라. 마음 공부는 모든 공부를 총섭하니, 마음 공부가 없으면 모든 공부가 다 바른 활용을 얻지 못하니

라.” 또 문기를 “이 세상에서 어떠한 기술이 제일 근본되는 기술이 되나이가.” 말씀하시기를 “인화하는 기술이 제일 근본되는 기술이 되나니라. 사람 잘 화하는 기술은 모든 기술을 총섭하나니 인화하는 기술이 없으면 모든 기술이 다 잘 활용되지 못하나니라.” <정산종사 법어 무본편 6장>

말씀하시기를 “일상 인사에 육신의 안녕만 묻지 말고 「마음 공부 잘하자」고 인사하라. 이것이 수도인의 참 인사가 되리라.” <정산종사 법어 법훈편 15장>

말씀하시기를 “과수를 기르는 데에도 뿌리에 거름을 주어야 그 과수가 잘 자라고 훌륭한 결실을 보게 되는 것 같이, 사람의 뿌리는 마음이라 무엇 보다 먼저 마음 공부에 힘써야 훌륭한 인격을 이루나니, 이 마음 공부를 여의고 어찌 행복의 결실을 바라리오.” <정산종사 법어 무본편 9장>

말씀하시기를 “하루 품삯은 곧 나오나 일년 농사는 가을에야 수확되듯이, 큰 이익은 늦게 얻어지고 큰 공부는 오래 걸리나니라. 복을 조금 지어 놓고 곧 안 돌아 온다 하여 조금증을 내지 말고 계속하여 더 지으며, 죄를 지어 놓고 곧 안 돌아 온다고 안심하지 말고 곧 참회 개과하라. 한도가 차면 돌아 올 것은 다 돌아 오나니라” 꾸준히 방심하지 말고 공을 쌓으라.” <정산종사 법어 무본편 43장>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원한을 맺어주고 불평을 갖게 해주면 그것이 곧 자기 자신에게 무형한 감옥이 되나니라.” 또 말씀하시기를 “모든 죄의 근본은 오직 마음에 있나니 소소한 일이라도 남에게 척을 걸지 말라. 그것이 모든 악연의 종자가 되나니라.” <정산종사 법어 원리편 48장>

말씀하시기를 “남을 해하면 해가 나에게 돌아오나니 곧 자기가 자기를 해하는 것이 되며, 남을 공경하고 높이면 이것이 또한 나에게 돌아오나니 곧 자기가 자기를 공경하고 높임이 되나니라.” <정산종사 법어 원리편 49장>

말씀하시기를 “감사 생활만 하는 이는 늘 사은의 도움을 받게 되고, 원망 생활

만 하는 이는 늘 미물에게서도 해독을 받으리라.”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59장〉

말씀하시기를 “한 부분의 해를 받았다 하여 큰 은혜를 모르고 원망하는 것은 한끼 밥에 채했다 하여 밥을 원수로 아는 것 같나니라.”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57장〉

말씀하시기를 “남에게 이익을 줌이 길이 많으나 바른 발원 하나 일어나게 하는 것에 승함이 없고, 남에게 해독을 줌이 길이 많으나 나쁜 발원 하나 일어나게 하는 것에 더함이 없나니, 발원은 곧 그 사람의 영생에 선악의 종자가 되는 까닭이니라.” 〈정산종사법어 무본편 15장〉

말씀하시기를 “저 사람의 환경이 좋을 때에는 아침하고 낮은 때에 모멸함은 소인의 일이니, 저 사람의 환경이 낮을 때에 더욱 정의를 잃지 않는 것이 군자의 예요, 이해를 따라 의리를 잊거나 사람이 보는 곳에서는 예를 행하고 보지 않는 곳에서는 예를 폐하는 것은 예의 본의를 알지 못함이니, 이해와 은현을 막론하고 의리와 예의를 잃지 않는 것이 예의 본의를 알아 행하는 것이니라.” 〈정산종사법어 예도편 18장〉

말씀하시기를 “남의 옷이 좋다하여 그대로 입으면 내게는 맞지 않는 법이니 나의 품과 키에 맞춰서 지어야 내 옷이 되나니라.” 또 말씀하시기를 “문화가 교류하는 이 때에 순연히 내 것만 고집하는 것은 고집 불통이요, 순연히 남에게만 팔리는 것은 정신없는 사람이니, 그러므로 안으로 자립하고 밖으로 화하며 장점은 취하고 단점은 버리는 것이 시대의 양책이니라.” 〈정산종사법어 국운편 21장〉

## · 참고문헌

- 원불교정화사, 원불교전서, 원불교출판사, 원기 68년.
- 정산종사 법어, 정화사, 1972
- 박정훈, 한울안 한이치에, 원불교출판사, 원기 67년.
- 박정훈·손정윤, 개벽계성 정산 송규 종사, 원불교출판사, 1992.1
- 김일상, 정산 송규 종사, 월간월광사, 1978. 4
- 박달식·김영수, 새희상 거룩한터, 원불교출판사, 원기 71년.
- 박용덕, 돌이서서 물소리를 듣는다, 원광대학교출판국, 1997년.
- 송인걸, 대중경 속의 사람들, 월간원광사, 1997.7
- 원불교사상연구원 편, 정산종사 사상, 「정산종사의 가계고」, 박용덕
- 김대거, 정전대의, 원불교출판사, 원기 71년.
- 서문성, 대중사님 찾아 떠나는 성지여행, 삼동윤리, 1996년.
- 서문성 편저, 대중사님 그때 그말씀, 등근샘, 1997년.
- 서문성 편저, 마음을 보는 지혜, 원불교출판사, 1996.
- 월간 원광, 1993년 3,4월호, 교사 자료 발굴, 박용덕
- 월간 원광, 1996년 2,3,5월호, 정산종사의 발자취 찾아서, 오선명
- 원불교신문, 원기 78년 1월 1일, 역사기행 성주성지, 송인걸
- 정신문화연구원, 민족문화대백과사전.
- 사찰문화연구원, 전통사찰총서 8, 전북의 전통사찰 I, 사찰문화연구원, 1997.
- 양규태, 변산에 가면 문화를 만난다, 고글, 1998년
- 김진배 편저, 월명암, 중앙기획, 1992년.
- 문화유산답사회, 답사여행길잡이(1) 전북, 돌배개, 1994.
- 한국문화답사회, 답사여행 길잡이 「팔공산 자락」, 돌배개, 1997.4
- 정산종사 사진첩



## 원불교 성지

---

인 쇄 : 1999년 6월 1일

발 행 : 1999년 6월 5일

저 자 : 서 문 성

인 쇄 : 원 광 사

발 행 : 원불교출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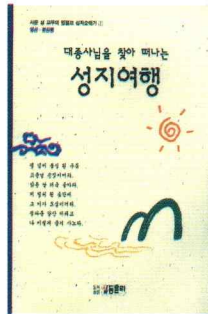
주소 전북 익산시 신륵동 344-2

출판등록일 1967년 7월 1일 제7호

---

값 7,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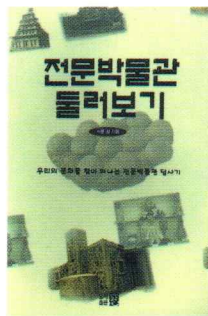




● **대중사님을 찾아 떠나는 성지여행**  
서문 성 슘

원불교 영산, 변산성지를 소개한 책  
원불교 교도들과 일반인들이 성지순례를  
하는데 긴요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쓰여진  
성지순례 안내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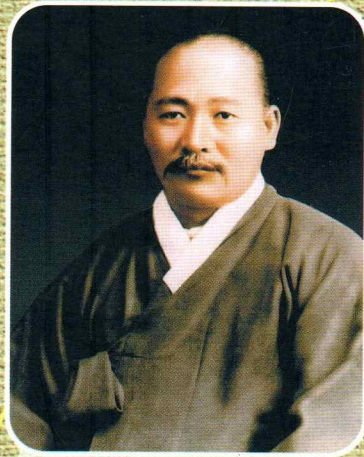
도서출판 삼동윤리



● **전문박물관 둘러보기**  
서문 성 슘

우리나라 곳곳에 있는 우리문화의  
혼이 담긴 훌륭한 전문박물관을  
권역별로 소개한 답사 길잡이다.

도서출판 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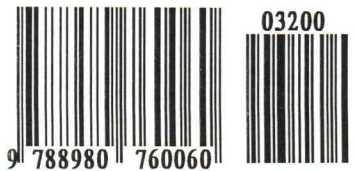
### 소태산 대종사 (1891~1943)

이 회상은 지나간 회상들과 달라서  
자주있는 회상이 아니요.  
원시반본하는 시대를 따라서  
나는 회상이라  
그 운이 한량 없나니라.

-대종경 전망품 중에서-



값 7,000원



ISBN 89-8076-006-X